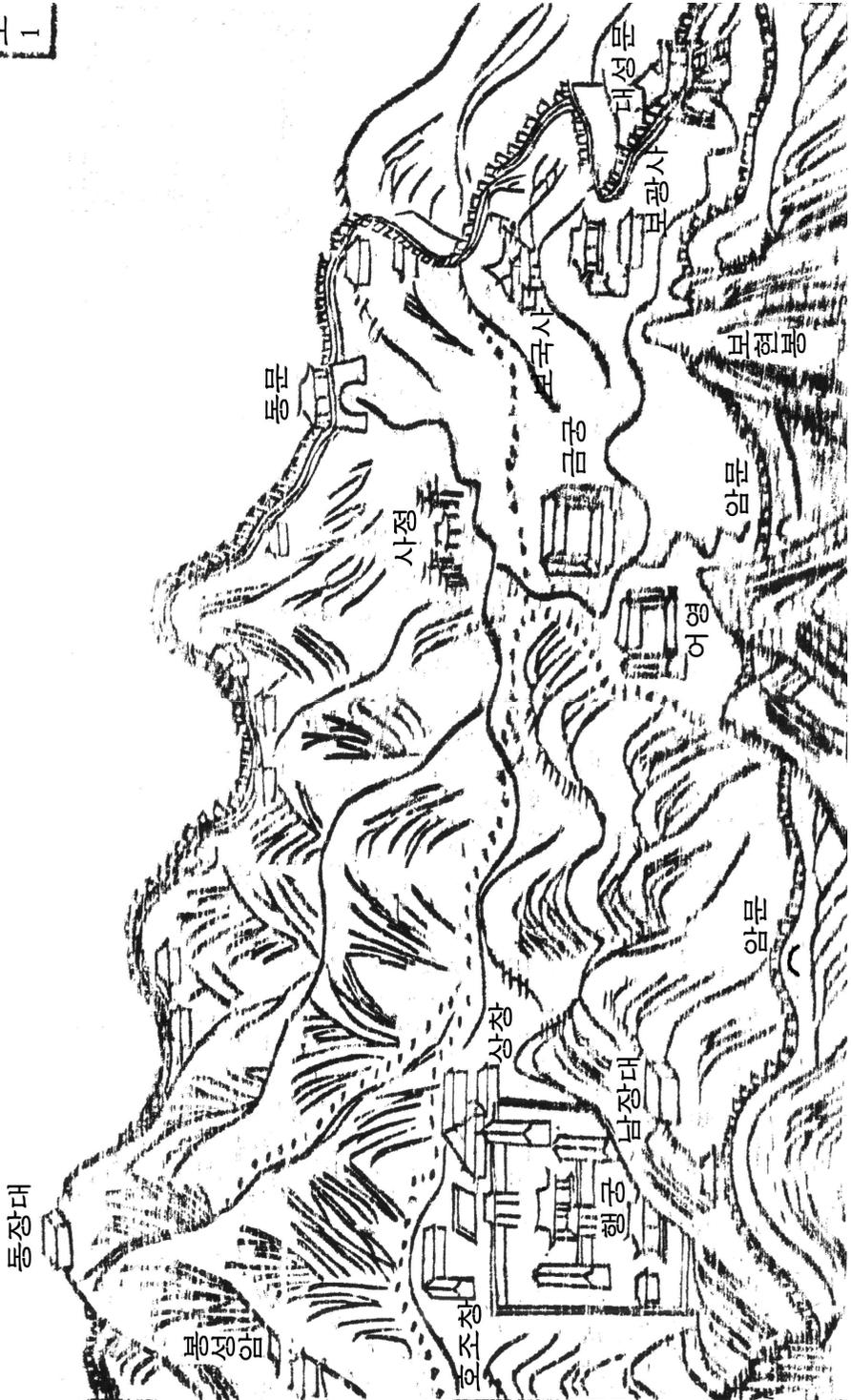


北漢山城寺刹古文獻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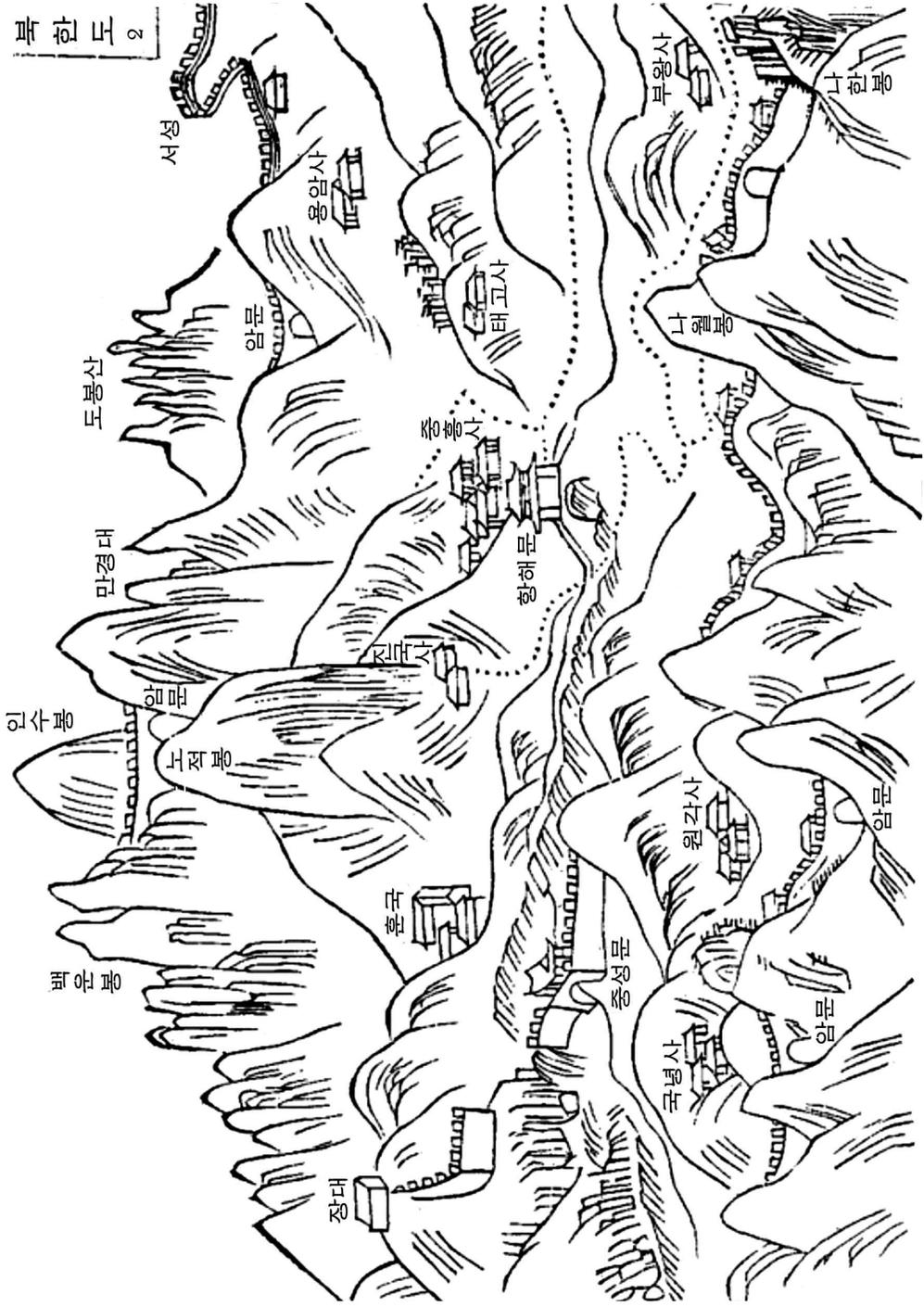
法雲 柳基松 編

傳統寺刹研究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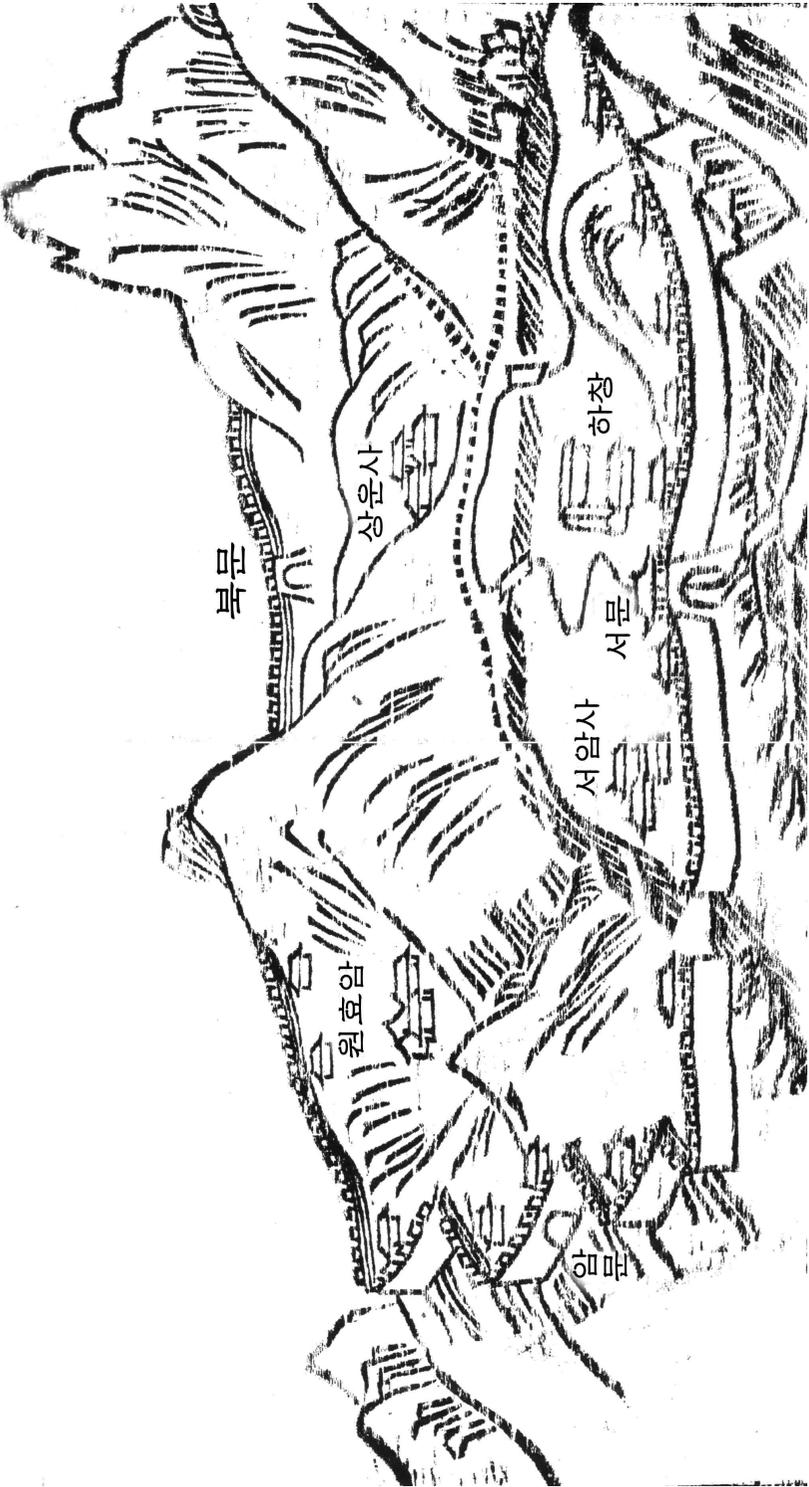
파진내 -



북한도 2



연진봉



목 차

I. 북한산성(北漢山城)

1. 연 혁(沿革)	1
2.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사찰(寺刹)	2
3. 사 적(史蹟)	5
3.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5
3.2 북한지(北漢誌)	12
3.3 만기요람(萬機要覽)	16
3.4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18
3.5 관암전서(冠巖全書)	24

II. 북한산성 사찰(寺刹)의 고문헌(古文獻)

1. 향림사(香林寺)	27
2. 적석사(積石寺)	33
3. 청량사(淸涼寺)	34
4. 승가사(僧伽寺)	39
5. 삼천사(三千寺)	88
6. 진관사(津寬寺)	90
7. 도성암(道成菴)	160
8. 문수사(文殊寺)	166
9. 중흥사(重興寺)	176
10. 용암사(龍巖寺)	207
11. 보국사(輔國寺)	213

12. 보광사(普光寺)	214
13. 부왕사(扶旺寺)	217
14. 원각사(元覺寺)	221
15. 국녕사(國寧寺)	222
16. 상운사(祥雲寺)	226
17. 서암사(西巖寺)	230
18. 태고사(太古寺)	234
19. 진국사(鎭國寺)	259
20. 봉성암(奉聖菴)	260
21. 원효암(元曉菴)	261

I. 북한산성(北漢山城)

1. 연 혁(沿革)

북한산성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번지 북한산에 있는 산성(山城)으로서 1968년에 사적 제162호로 지정되었으며, 이 성은 백제가 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후 도성을 지키기 위하여 개루왕5(132)년에 축조한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三國)은 모두 이곳을 군사요지로 여겨 치열한 쟁탈지가 되었는데 백제 개로왕21(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에 의하여 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전사하자 백제는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뒤 신라 진흥왕14(553)년에 신라가 북한산성을 차지하고 이곳에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를 세웠으며, 진평왕25(603)년에 고구려군이 북한산성을 포위했으나 곧 격퇴당하였고, 문무왕1(661)년에는 고구려 장군 뇌음신이 말갈군과 함께 포위 공격을 했으나 격퇴 당하였다.

고려시대는 현종이 성을 증축하였고, 고종19(1232)년 이곳에서 몽골군과 격전을 벌였고, 우왕13(1387)년에 개축하였다.

조선시대는 도성 외곽성을 강화하자는 축성론(築城論)에 따라 숙종37(1711)년에 난시(亂時)에는 임금이 거처하고, 만일의 경우에 도성의 백성도 수용할 목적으로 고려 시대의 중흥산성을 토대로 축성하였으며, 여기에는 14개의 문과, 3개의 장대, 3개의 누각, 14개의 사찰, 유사시(有事時)에 어가(御駕)를 북한산성으로 옮길 행궁(行宮)이 있었으며, 성의 둘레는 7,620보(步)이다.

산성 축조는 도성의 방비를 담당했던 삼군문(三軍門)이 나누어 맡아 수문부터 용암문까지는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용암문에서 대성문까지는 금위영(禁衛營)에서, 수문부터 대남문까지는 어영청(御營廳)에서 각각 공사를 하였다.

또한 지리산 화엄사(華嚴寺)의 성능(聖能) 스님이 팔도도총섭(八道都摠

攝)이 되어 승군(僧軍)과 함께 북한산성(北漢山城) 공사를 하였고, 도성민(都城民)과 각종 공장(工匠)이 동원되었다.

도성민(都城民)들은 각 호(戶)를 대(大), 중(中), 소(小)로 나누어 대호(大戶)는 3명, 중호(中戶)는 2명, 소호(小戶)는 1명씩 각자 식량을 지참하여 취역(就役)에 동원되었으며 모역군(募役軍)까지 모집하여 이들에게는 한 달에 쌀 9두(斗)와 면포 2필(疋)씩을 지급하였다.

지형에 따라 성벽 없이 여장(女牆)만 쌓은 곳도 있는데, 그 길이는 1,457보(步)이다. 현재 삼국시대의 토성은 약간 남아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조선 숙종 때 쌓은 것이다.

○규모(規模)

둘레 : 7,620보(步)

○문(門) 14개소

북문(北門), 소동문(小東門/大東門), 대서문(大西門),
대동문(大東門/大成門), 중성문(中城門), 소남문(小南門/大南門),
서암문(西暗門, 시구문), 위문(衛門/白雲洞暗門),
용암문(龍岩門/龍岩峰暗門), 동암문(東暗門/輔國門),
가사당 암문(架娑堂暗門), 부왕동 암문(扶王洞暗門),
청수동 암문(淸水洞暗門/國寧門), 수문(水門)

○누각(樓閣) 3개소

세심루(洗心樓) : 서암사 앞에 있다.

항해루(抗瀼樓) : 중흥동 입구 계곡 지나서 용학사 앞에 있다.

산영루(山映樓) : 중흥사 앞에 있다.

○장대(將臺) 3개소

동장대(東將臺) 시단봉 위에 있다.

남장대(南將臺) 나한봉 동북방향에 있다.

북장대(北將臺) 기린봉 위에 있다.

○행궁(行宮) 1개소

○사찰(寺刹) 21개사[北漢誌 1745년]

[사찰(寺刹)] 14개사

문수사(文殊寺) 중흥사(重興寺) 용암사(龍巖寺) 보국사(輔國寺)
보광사(普光寺) 부왕사(扶旺寺) 원각사(圓覺寺) 국녕사(國寧寺)
상운사(祥雲寺) 서암사(西巖寺) 태고사(太古寺) 진국사(鎭國寺)
봉성암(奉聖菴) 원효암(元曉菴)

[폐사(廢寺)] 7개사

향림사(香林寺) 적석사(積石寺) 청량사(淸凉寺) 승가사(僧伽寺)
삼천사(三千寺) 진관사(津寬寺) 도성암(道成菴)

○군창(軍倉)

상창(上倉), 중창(中倉), 하창(下倉), 호조창(戶曹倉)

○우물 井] 99개소

2.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사찰(寺刹)

산성(山城) 공사 때 동원된 승군(僧軍)은 산성이 완공되자 계속 산성에 머물면서 산성의 수비를 맡게 하였는데 낮에는 무술을 익히고 아침저녁으로 불경을 공부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게 하였고, 산성 안에 많은 절을 창건하여 승군의 병영(兵營)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당시에 병영으로 이용된 사찰로는 도총섭이 집무(執務)하였던 136칸의 중흥사(重興寺), 태고사(太古寺), 서암사(西巖寺), 용암사(龍巖寺), 보국사(輔國寺), 보광사(普光寺), 부왕사(扶旺寺), 원각사(元覺寺), 국녕사(國寧寺), 상운사(祥雲寺), 서암사(西巖寺)의 11개 사찰과 원효암(元曉庵)·봉성암(奉聖庵)의 2개 암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중흥사와 태고사는 중창한 것이고 나머지 사찰은 승군의 주둔을 위하여 축성할 때 새로 창건한 것이다.

이 사찰들은 대부분 전통적인 가람 배치를 따르지 않고, 위치는 대부분 성문에 가까운 곳에 자리잡았으며, 이름 또한 성문의 이름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북한산성은 숙종37(1711)년 4월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하였는데, 성(城)

이 완공되자 나라에서는 남한산성의 남한치영(南漢緇營)과 같이 총융청(摠戎廳) 소속으로 북한산성에 북한치영을 설치하여 승군이 성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흥사(重興寺)에는 북한치영(北漢緇營)을 설치하고 승병(僧軍)을 두었는데 승군은 승대장(僧大將) 1인, 중군(中軍)·좌우별장(左右別將)·천총(千摠)·과총(把摠)·좌우병방(左右兵房) 각 1인, 교련관(教鍊官)·기패관(旗牌官)·중군병방(中軍兵房) 각 2인, 오기차지(五旗次知) 1인, 교훈도(教訓導)·별고감관(別庫監官) 각 1인, 사료군(射料軍) 10인, 서기(書記) 2인, 고직(庫直) 3인, 책장무(冊掌務)·판장무(板掌務) 각 1인, 취수(吹手) 2인, 각사승장(各寺僧將) 11인, 수승(首僧) 11인, 의승(義僧) 350인 등으로 편제되었다.

승군(僧軍)은 각 사찰마다 승장(僧將) 1인과 수승(首僧) 1인을 두고 승군을 11개 사찰에 분산 배치하여 편제된 조직이다. 승군대장은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겸했는데 초대 승군대장은 산성 축성 때 승군을 지휘한 성능이 임명되었으며, 북한산성의 승군은 남한산성의 승군과 함께 고종 31(1894)년 갑오개혁 후에 해산되었다.

중흥사는 중흥산성 남쪽에 있는데 고려 말 보우대사(普愚大師)가 중수한 사찰로서 북한산성 수축 때는 도총섭 성능(聖能)이 머물면서 승군을 이끌었던 지휘부였으며, 136칸의 규모로 지어졌으나 1915년 홍수 때 노적봉 산사태로 무너진 뒤 주춧돌과 축대만 남아있던 것을 최근에 조계종 불광사(佛光寺)에서 불사를 통하여 그 일부가 복원되었다.

태고사(太古寺)는 보우대사가 중흥사 주지(住持)로 있으면서 개인 수도처로 마련한 동암(東庵)이며, 그 때 보우는 태고(太古)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보우대사 입적 후에 태고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여기에는 보우대사의 묘탑(廟塔) 원증국사탑(圓證國師塔)과 탑비인 원증국사탑비(圓證國師塔碑)가 전해지고 있으며, 비문은 이색(李穡)이 짓고 글씨는 권주(權鑄)가 해서체(楷書體)로 썼다.

북한산성의 대부분 시설물들이 폐허가 되었는데도 소상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승군을 이끌고 산성 수축을 지휘하고 산성이 완성된 후에 승군을 지휘하며 30여년간 산성을 지켰던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 성능 스님이 북한지(北漢誌)에 상세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3. 사 적(史蹟)

3.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李荇等 1530年

한성부(漢城府) [불우]

향림사(香林寺) 삼각산(三角山)에 있다. 고려조 현종(顯宗) 경술년 난리에 태조의 재궁(梓宮)을 이 절로 옮겼다가, 7년 병진에 현릉(顯陵)으로 환장(還葬)하였으며, 9년에 거란[契丹]의 소손녕(蕭遜寧)이 다시 여기에 이안(移安)하였다가, 10년에 다시 현릉으로 모셨다.

석적사(石積寺) 삼각산에 있다.

청량사(淸涼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조의 이자현(李資玄)이 춘천(春川) 청평산(淸平山)에 있었는데, 예종(睿宗)이 남경(南京 지금 서울)에 순행하여 그 아우 자덕(資德)을 보내어 행재(行在)에 나오게 하여, 청량사에 머물게 하였다. 일찍이 불러 보고 양성(養性)하는 요결(要訣)을 물었는데, 심요(心要) 한 편을 드리니 왕이 감탄 칭찬하며 대우가 매우 후하였다.

중흥사(重興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조의 중 보우(普愚)가 일찍이 절 동쪽 봉우리에 집 짓고 살며 태고(太古)라고 편액하고, 영가체(永嘉體)를 모방하여 노래 한 편을 지었다. 보우가 죽자 이색(李穡)이 비명(碑銘)을 지었다.

승가사(僧伽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조 이오(李頴)의 중수기에 이런 말이 있다. “최치원(崔致遠)의 문집을 보면, 옛날 신라 시대의 낭적사(狼跡寺) 중 수태(秀臺)가 대사의 거룩한 행적을 익히 듣고, 삼각산 남쪽에 좋은 자리를 정하여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을 쪼아 형상을 그리니 대사의 어진 모습이 더욱 우리나라에 비쳤다. 국가에서 천지의 재변과 수재

· 한재의 재난이 있으면 기도를 드려 물리치게 하였는데, 언제나 즉석에서 영험이 있었다.” 하였다. 고려조 유원순(兪元淳)의 시에, “구불구불한 돌다리에 구름을 밟고 올라가니, 좋은 집 높이 있어 조화의 고장 같아라. 가을 이슬 가늘게 떨어지니 천 리 안계(眼界) 상쾌하고, 석양이 멀리 잠기니 저 강물 밝게 빛이 난다. 공중에 오락가락 가는 아지랑이 향불 연기[香穗]에 잇닿았고, 골짜기에서 우는 한가한 새 소리 경뇌 소리 대신하네. 그보다 부러운 일은 고승(高僧)의 마음, 인간 세상의 명리(名利)란 도무지 마음에 없다네.” 하였다. 정인지(鄭麟趾)의 시에, “높은 바위 산길은 험한데, 지팡이 짚고 또 덩굴 더위잡네. 처마 가엔 가던 구름 머물고, 창 앞엔 쏟아지는 폭포 많을세라. 차를 끊이니 병에서 가는 소리나고, 물을 길으니 우물에 작은 물결지네. 두어 명 고승(高僧) 있어, 관공(觀公)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네.” 하였다. 류방선(柳方善)의 시에, “승가의 법당 높은 데 의지했는데, 예전 놀던 일 계산하니 오랜 세월 지났네. 어느 날 또다시 그 선탑(禪榻) 가에서, 등잔불 돋우고 조용히 앉아 찬 밤을 지내 볼꼬.” 하였다.

삼천사(三川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조의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비명(碑銘)이 있다.

문수사(文殊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조 이장용(李藏用)의 시에, “성 남쪽 10리에 평평한 모래 회기도 한데, 성 북쪽엔 두어 줄기 중첩된 봉우리 푸르구나. 늙은 원님 거칠고 게을러[疏慵] 공사 일찍 파하고, 마음대로 나가 놀며 그윽한 자취 찾네. 양주(楊州) 하늘에 학을 타고 날기도 하는데, 가다가는 나귀 타고 화산(華山) 길을 지나기도 한다네. 벼슬길 그만두려 하나 어리석어 어찌 하리, 좋은 일 가시기 쉬우니 더구나 애석하도다. 누른 소매 호통치며 인도하나 너무나 속되고, 반가운 눈빛으로 대하니 높은 격조 있는 듯하여라. 구불구불한 비탈길 더위잡고 올라가니, 으스스한 수풀 고개 차츰 막혀지네. 절벽 저 골짜기 내려다보니 까마득하기만 한데, 높은 산마루에 올라가니 더욱더 움추려지도다. 긴 해는 높은 봉우리에서 겨우 두어 길인데, 구름다리 공중에 건너질러 몇 천 자나 되나. 나

는 새 까마득 초(楚) 나라 하늘에 닿았는 듯, 넓은 들 분명하여 한강의
 그림이네. 안개 끼지 않은 저 서쪽에 신선 마을 보이는데, 큰 강물 남쪽
 은 나루터로 통해 있다. 한 번 돌아 옮겨 서서 혼자서 탄식하노니, 팔방
 잠시간에 둘러 볼 수 있는 듯하여라. 매달린 돌층계 들죽날쪽 90층 되는
 데, 옛날의 그 자취 어슴푸레 오르내린 신 자국이런가. 기이하다 세상엔
 없는 청련궁(靑蓮宮)인데, 크게 슬기로운 진인(眞人)의 집이 여기라네. 석
 굴(石窟)이 크게 열렸는데 돌이끼 아롱지고, 수풀 속의 감실[林龕] 빛나
 는데 단청이 눈부시네. 그린 모습 완전히 복성(福城) 동쪽 같은데, 보배로
 운 앓음 금사자 등에 높이 있다. 바라보면 길한 지역 장자(長者)의 거처
 인데, 법계(法界)의 현관(玄關) 불법으로 들어가는 입구) 열려 있는 줄 뉘
 라서 알았으리. 큰 자비는 분명 세상 번뇌 제거하는데, 한 움큼 샘물 흘
 러 내려 영액(靈液)이 피어 있다. 노는 사람 천룡(天龍)의 꾸지람 흑시라
 도 두려워서, 마실까 주문 외며 물그릇 한 번 던져 본다네. 연하(煙霞) 그
 림자 속에 외로운 탑이 푸른데, 종소리·불경 소리에 등잔불 밝게 비치
 네. 의연한 좋은 모임 보광(普光)을 읊기니, 응당 묘한 공양 있어 향적(香
 積)으로 오리라. 옛날 선왕이 어향(御香)을 올렸다는데, 지금도 중국 사신
 와서 종사(宗社) 나라의 종묘와 사직단)의 안녕 기원한다네. 가을 풍경 찾
 아내 마침 찾아드니, 중 있어 만류하며 저녁 산색(山色) 구경하라네. 처마
 의지한 여러 산봉우리 옥인 양 높이 서 있고, 난간에 닿아 있는 먼 수풀
 들 비단같이 펼쳐 있네. 채소 음식 즐거이 들며 맑은 향기 배불리고, 다
 시금 부들 자리 빌려 앉아 편한 것 찾았노라. 이야기가 길어지니 조각달
 깊은 문에 들어오고, 밤이 오래니 은은한 바람 잣나무를 울어 스치네. 하
 도 좋을사, 선탑(禪榻)의 고요하고 적막함이며, 불현듯 웃음 나네. 인생들
 무어라 허덕이나. 험사리 의관 벗지 못함은, 흑시라도 죽백(竹帛)에 공명
 정하려는 것이어라. 맑은 잠 원통 동자의 깨우는 대로 맡기니, 붉으스레
 아침 해가 떠오르네. 천태산[臺崖]에 손 흔들어 부르는 사람 따라가려 하
 나, 여산[盧嶽]의 눈썹 찡그리던 사람이 부끄럽네. 진세의 속된 말이 청
 산을 더럽히니 그대여 싫어 마소, 일찍이 임금 말씀 쓰며 궁중에 들어섰

다네.” 하였다. 고려조 탄연(坦然)의 시에, “한 칸 방 어찌 그리 너무도
고요한가, 일만 인연 모두 적막하네. 길은 돌 틈으로 뚫고 가고, 샘은 구
름 속에서 새어나네. 밝은 달 처마 끝에 걸려 있고, 산들바람 숲 속에서
일어나네. 누가 저 스님[上人]따라, 고요히 앉아 참 즐거움 배우려나.”
하였다.

진관사(津寬寺) 삼각산에 있다. 권근의 수륙사조성기(水陸社造成記)에,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왕도 정치의 먼저 할 바이
요, 물건을 이롭게 하고 창생을 구제하는 것은 불교에서 중히 여기는 것
이니, 두 가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인(仁)한 마음의 발동으로써 사랑
하고 효도하는 정성이 자연 그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전의
덕이 높은 황제와 명철한 군왕의 도는 조(祖)를 높이고 종(宗 조상(祖上))
을 공경하여 그 효도를 넓히며,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
여 그 인을 넓혀서 근본에 보답하는 것이 지극하고, 물건을 이롭게 하는
것이 넓다고 할 것이다. 불가[佛氏]의 말에는,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가 한 일이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바퀴처럼 돌아 태어나게 되는
데, 부처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고생을 없애고 기쁨을 주며 그 빠지는 것
을 건져줄 수 있으니, 살아있는 이가 만일 부처님을 섬기고 중을 대접하
여 죽은 이를 좋은 길로 인도한다면 죽은 이의 혼이 아귀(餓鬼)가 되었다
가도 배부를 수 있고 괴롭다가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처가 되어 길이 돌고 도는 보응(報應)을 면하며 살아 있는 이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여기서 효자 자손(慈孫)에서 우부(愚夫) 우부(愚婦)
에 이르기까지 휩쓸려서 불도로 돌아가지 않는 이가 없고, 혹시라도 미치
지 못할까 하여 온 세상이 물결처럼[滔滔] 불도를 높이고 이것을 받드는
데 수륙 무차평등(水陸無遮平等)의 모임은 그 범 중에서도 제일 성대한
것이다. 홍무(洪武) 정축년(태종 6년) 정월 을묘일에 주상께서 내신(內臣)
이득분(李得芬)과 중[沙門] 신(臣) 조선(祖禪) 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국가를 맡아 다스리게 된 것은 오르지 조종(祖宗)의 적선[積慶]에
의하여서이니, 조상에 대한 보답을 위하는 일이라면 힘쓰지 않는 것이 없

다. 또 생각하니, 신하와 백성들이 혹은 나라 일에 죽고 혹은 스스로 운명하였는데, 주관하여 제사드릴 이가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쓰러져도 구원하지 못하니, 내가 매우 민망스럽게 여긴다. 옛 절에 수륙도량(水陸道場)을 마련하고 해마다 베풀어서 조종의 명복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니, 너희들이 가서 자리를 찾아 보라.’ 하였다. 사흘째 되는 정축일에 득분 등이 서운관(書雲觀) 신(臣) 상충(尙忠)·양달(陽達), 중 지상(志祥) 등과 함께 삼각산에서부터 도봉산(道峯山)까지 보고 복명(復命)하여 아뢰기를, ‘여러 절들이 있지만 진관사(津寬寺)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하니, 이에 주상께서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선사(大禪師) 덕혜(德惠)·지상(志祥) 등에게 명하여, 중들을 소집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는데, 내신 김사행(金師幸)이 더욱 힘을 들였다. 그달 경진일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월 신묘일에 주상이 친히 왕립하여 세단(壇)의 위치와 차례를 정하였으며, 3월 무오일에 또 행차하여 보았다. 가을 9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세 단은 모두 집을 3칸씩 지었으며, 중단과 하단 좌우에는 또 각각 목욕실 3칸 있고, 하단 좌우에는 따로 조종의 영실(靈室) 8칸씩을 설치하였다. 대문·행랑·부엌·곳간이 갖추어져 시설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모두 합하여 59칸이며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그 제도에 맞았다. 이달 24일 계유에 주상이 또 친히 보시고, 정축일에 명하여 신 근(近)을 불러, ‘그 시종을 적어서 후세에 보여 주게 하라.’ 하였다.

신 근이 가만히 들으니, 인륜의 도는 효보다 앞서는 것이 없으며, 군왕의 덕도 효보다 큰 것이 없다 하니, 조종 제사의 예의와 추모 숭봉하는 법전은, 군왕으로서 근본을 보답하는데 무엇이 효보다 더하리요. 그런데 성인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늘을 짝하여 교(郊)에서 제사드리고 상제를 짝하여 명당(明堂)에 임하시니, 높여 받드는 일이 극진하다 할 것이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신무(神武)하신 자질과 인효(仁孝)하신 덕으로 천명을 받들어 국가를 창건하시니, 공은 조종조에 빛나고 은택은 만물에 덮였으며, 선조를 받드는 마음이 주야로 더욱

정성스러웠다. 하늘을 짝하는 제사가 이미 극진하고 부처에 귀의(歸依)하는 마음이 또한 간절하여 우리 조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으로 불기(佛記)를 받고 묘과(妙果)를 깨달아 얻을 수 있게 하며, 그 은택이 주인 없는 귀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로운 은택을 입게 하시니, 성효(誠孝)의 감동하는 바가 지극하다고 할 것이다. 이 마음을 미루어 물건에도 미치며 친근한 데에서 소원한 데에 이르고, 어두운 데에서 밝은 데에 나아간다면, 금일부터 무궁한 후일에 이르기까지 그 공덕의 큼과 이택(利澤)의 영원함을 어찌 쉽게 측량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정이오(鄭以吾)의 시에, “푸르고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연못가의 누대 둘러쌌는데, 땅 궁벽하고 하늘 깊은 곳에 동부(洞府) 열려 있다. 시내는 옥이 돌린 것같이 굽이치고, 산은 구름 솟은 것같이 형세가 높기도 하네. 중을 도태(淘汰)한 원위(元魏)는 오히려 웃음만 자아내고, 불도에 흑한 소량(蕭梁)은 슬플 것도 못 된다네. 옳게 여기고 그르게 여김이 없으면 마음 자연 바르게 되는 법, 누가 인연 깨달은 이고 누가 여래(如來)이더냐.” 하였다.

도성암(道成菴) 삼각산 동쪽에 있는데,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원찰(願刹)이다.

[비고편 - 동국여지비고 한성부]

【불우】 대체로 절은 새로 창건하지 못하며, 다만 옛터를 중수하는 자는 선(禪), 교(敎) 양종(兩宗)에 고하고 예조에 보고하여 임금에게 알리며, 능침(陵寢)에 가까운 곳에 사찰을 새로 세우는 것은 엄금한다. 서울의 여러 관서나 궁방(宮房)의 원당(願堂)은 일체 혁파했다. 승과시험을 보아 승(僧)이 된 자는 3개월 안으로 선종(禪宗)에 고하고, 혹 교종(敎宗)은 경의 암송을 시험보는데, 예조에 보고하여 계문하고 정전정포(丁錢正布 부역이나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에 바치는 포목) 30필을 걷고 도첩(度牒)을 내어 준다.

향림사(香林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고려 현종 경술년의 사변(거란의 2차 침입), 무오년의 난(거란의 3차 침입) 때에 태조의 재궁(梓宮 임금의 관)을 이 절에 옮겨 모셨다.

적석사(積石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청량사(淸涼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 고려의 이자현(李資玄)이 청평산(淸平山)으로부터 불러와서 머물렀다.

승가사(僧伽寺) 삼각산에 있다. 고려의 상서(尙書) 이오(李頴)의 중수기(重修記)가 있다. 옛날 신라 낭적사(狼迹寺)의 중 수태(秀台) 어령대사(飢聆大師)의 성적(聖跡)이다. 삼각산 남쪽에 좋은 곳을 가려서 바위를 깨고 굴을 만들며, 돌을 깎아 대사의 도용(道容 도통한 이의 성스러운 모습)을 본따 새겼다. 나라에 재난과 이변이 있으면 기도하여 재앙을 물리쳤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적이 없었다 한다.

삼천사(三川寺) 삼각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영간(李靈幹)이 지은 대지국사비명(大智國師碑銘)이 있다.

진관사(津寬寺) 삼각산 서쪽에 있다. 태조가 수륙도량(水陸道場)의 상·중·하 3 단(壇)을 만들게 하고 여러 번 행행하였으며, 권근의 <수륙사 조성기(水陸社造成記)>가 있다. 세종 조에 신숙주(申叔舟) 등에게 말미를 주어, 이 절에서 글을 읽게 하였다.

도성암(道成庵) 삼각산 동쪽에 있는데,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원찰(願刹)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 드려 주는 절이다.

중흥사(重興寺) 북한 삼각산 등안봉(登岸峯) 아래에 있다. 고려의 중 보우(普愚)가 늘 이 절의 동쪽 봉우리에 살았으며 태고(太古)라고 편액했다. 목은 이색이 지은 원증국사 보월(圓證國師寶月)의 승공탑명(昇空塔銘)이 있다. 총섭(摠攝 승병(僧兵)의 사령관)이 여기에 군영을 개설했다. 1백 49칸이다.

태고사(太古寺) 북한 등안봉(登岸峯) 태고대(太古臺)아래에 있다. 경서(經書)·통사(通史)·옛 당 나라의 당시(唐詩) 등의 판을 저장했다. 1백 36칸이다.

보국사(輔國寺) 금창(禁倉) 아래에 있다. 67칸이다.

진국사(鎭國寺) 노적봉(露積峯)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1백 4칸이다.

부왕사(扶旺寺) 휴암봉(鵝巖峯) 아래에 있다. 1백 11칸이다.
 국녕사(國寧寺)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70칸이다.
 보광사(普光寺)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75칸이다.
 원각사(圓覺寺) 증봉(甑峯) 아래에 있다. 81칸이다.
 용암사(龍巖寺) 일출봉(日出峯) 아래에 있다. 88칸이다.
 상운사(祥雲寺) 영취봉(靈鷲峯) 아래에 있다. 89칸이다.
 서암사(西巖寺) 수구문(水口門) 안의 민지암(閔漬巖)의 옛 집터에 있다.
 1백 7칸이다. 위의 11절에는 승장(僧將)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씩을 두었다.
 봉성암(奉聖菴)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이다.
 원효암(元曉菴) 원효봉(元曉峯) 아래에 있다. 10칸이다.
 문수암(文殊菴) 문수봉 아래에 있다. 이상의 여러 절은 모두 북한성 안에 있다.

3.2 북한지(北漢誌) 僧 聖能 撰 1745년

寺刹

향림사(香林寺)

在碑峯南今廢☆高麗顯宗庚戌之亂移安太祖梓宮于是寺七年丙辰還葬顯陵九年契丹蕭遜寧來侵又移安于是十年復葬顯陵

적석사(積石寺)

今爲訓局倉舍

청량사(淸涼寺)

今廢舊址未詳☆高麗李資玄在春州淸平山睿宗幸南京遣其弟資德諭赴行在留淸涼寺 嘗引見問養性之要遂進心要一篇王歎賞待遇甚厚

승가사(僧伽寺)

在碑峯東今廢☆有高麗李預所撰重修記☆高麗俞文安元淳詩崎嶇石棧躡雲行華構隣天若化城秋露輕霏千里爽夕陽遙浸一江明漾空岾細連香穗啼谷禽閑遞磬聲加羨高僧心上事世途名利摠忘情☆本朝鄭文成麟趾詩巉巖山路險携杖更攀蘿

簷際行雲宿窓前瀉瀑多
煮茶鉚細呌汲水井微波數箇
高僧在觀空或放歌☆柳泰齋
方善詩僧伽蘭若倚峇嶢却算
曾遊歲月遂何日更於禪榻畔
一燈清坐度寒宵

삼천사(三千寺)

在小南門外今廢☆有高麗李靈幹所撰碑☆元曉和尚與真寬祖師建此寺及津寬寺其遺址宛然皆各有大石槽一是其時沐浴之器云

진관사(津寬寺)

在三千洞今廢☆有權近水陸社造成記☆鄭郊隱以吾詩青青松柏擁池臺

도성암(道成菴)

在東門外貞懿公主願刹今廢

동문 밖에 있는데, 정의공주(貞懿公主)의 원찰(願刹)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문수사(文殊寺)

在文殊峯下☆高麗李樂軒藏用詩城南十里平沙白。城北數朶重岑碧。老守踈慵放早衙。出遊浩蕩尋幽跡。還他駕鶴揚州天。添却騎驢華山籍。官事欲了無奈癡。賞心易失尤堪惜。黃裾唱引大俗生。碧眼相携有高格。試攀崎嶇石逕斜。漸出像籠林嶺隔。俯臨絕谷但蒼茫。上到危巔增踟躕。晴峯距日纔數尋。雲棧凌虛幾千尺。鳥飛杳漠楚天低。野廣分明漢江畫。非煙西望卽仙洲。大浸南連通水驛。一迴徙倚獨嗟咨。八極須臾可揮斥。懸磴參差九十層。舊躅依稀上下屐。奇哉不世青蓮宮。云是大智真人宅。石崛呀開苔蘚斑。林龍眩晃丹青射。睟容宛若福城東。寶趺高馭金猊脊。相望遍吉長者居。誰識法界玄開闢。大慈的的蠲煩惱。一掬涓涓貯靈液。遊人恐觸天龍嗔。卜領試呪盃梭擲。煙霞影裏孤塔白。鍾梵聲中一燈赤。依然勝會移普光。應有妙供來香積。聞昔先王焚御香。至今中使祈宗祏。我來適值雲揚秋。僧留歡賞山色夕。倚簷列岫玉嵯峨。當檻瑤林錦狼籍。喜飡蔬食飫清芳。旋借蒲團寄安適。語闌缺月入深扉。夜久微風吟聳栝。最憐禪榻靜寥寥。忽笑人生何役役。未能容易掛衣冠。倘可功名垂竹帛。清眠恰被健稚呼。紅暈已動鴉輪赫。擬追台崖招手人。愧同盧嶽攢眉客。莫嫌塵語污青山。曾演綸言直丹掖。☆僧坦然詩何一室何寥廓。萬緣俱寂寞。路穿石罅通。泉透雲根落。皓月掛簷楹。涼風動

林壑。誰從彼上人。清坐學真樂。☆本朝崔間易豈詩 文殊路已十年迷。有夢猶尋北郭西。萬壑倚筇雲遠近。千峯開戶月高低。磬殘石竇晨泉滴。燈剪松風夜鹿啼。此況共僧那再得。官街七月困泥蹄。☆洪世泰詩 蕭寺昏鍾度上方。俯看千界一微茫。星搖絕頂樓臺影。風散諸天草木香。行處嶽雲生蠟屐。坐來江色到禪床。當時老宿今無在。不恠滄翁白髮長。

중흥사(重興寺)

在登岸峯下古寺只有三十餘間及築城後增建委一百三十六間☆本朝金農巖昌協詩高秋霜露洗林丘。喜見三峰天畔浮。絕壁冷霞餘雨氣。壞城斜日映寒流。藤蘿古道深難取。燈火禪房暝始投。勝處每懷長往志。會攀叢桂共僧留。☆洪世泰詩一入中興洞。千峰不可分。孤庵問樵子。敗堞弔將軍。古壁花垂雨。春潭氣吐雲。漫山肥膩草。步步佛香聞。

등안봉 아래에 있다. 축성 후에 옛절 30여칸을 136칸으로 증축하였다.

용암사(龍巖寺)

在日出峯下八十七間以下並築城後所勅

일출봉 아래에 있는데 87칸이며, 다음은 모두 축성 후 창건하였다.

보국사(輔國寺)

在禁衛營下一百七十七間僧琢心明熙等所勅

금위영 아래에 있는데 177칸이며, 스님 탁심, 명희 등이 창건하였다.

보광사(普光寺)

在大成門下七十一間僧雪輝所勅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는데 71칸이며, 설휘 스님이 창건하였다.

부왕사(扶旺寺)

在鶴巖峯下一百一十一間僧尋雲所勅☆洪世泰詩午飯文殊獅嶺東。西峰又宿此禪宮。來穿萬壑爭流處。臥在千林落葉中。秋晚菊花當佛座。夜寒鈴鐸語天風。山河旺氣偏分占。護得神京力最雄。

휴암봉 아래에 있는데 111칸이며, 심운 스님이 창건하였다.

원각사(元覺寺)

在甑峯近東七十四間僧信楚所勅

증봉 동쪽 근처에 있는데 74칸이며, 신초(信楚)스님이 창건하였다.

국녕사(國寧寺)

在義湘峯下八十六間僧清徽徹禪所勅

의상봉 아래에 있는데 86칸이며, 청휘, 철선 스님이 창건하였다.

상운사(祥雲寺)

在靈鷲峯下一百三十三間僧懷秀所勅

영취봉 아래에 있는데 133칸이며, 회수 스님이 창건하였다.

서암사(西巖寺)

在水口門內一百三十三間僧廣軒所勅☆始稱閔漬寺以閔文仁遺址在傍故也後避公諱改今名☆吳月谷瑗詩客至山寺暝。夕磬猶未歇。却坐清溪石。携來碧峰月。幽巖延遠白。澄影散疎樾。風泉漸多聲。羣壑涼籟發。樽酒不成醉。泠然清神骨。

수구문 안에 있는데 133칸이며, 광헌 스님이 창건하였다.

태고사(太古寺)

在太古臺下卽重興寺左峯高麗僧普愚佳此扁以太古倣永嘉体作歌一篇及死李牧隱穉撰碑銘築城後總攝僧聖能卽普愚遺址經紀勅寺凡一百三十一間仍名以太古又自備物力刻四書三經具諺解少微通鑑十九史略唐詩品彙古文百選喪禮備要剪燈新話三韻通故千字文朱子筆共五千七百板又備鑄字十一斗又備黔炭一千六百石以備緩急之用☆吳月谷瑗詩下馬禪門一磬清飄然棕竹入山輕炯霜衆壑秋容淨楓樞千巖夕氣晴溫祚雄圖遺堞盡麗朝舊刻老苔生邦家設險勞籌策鑿翠樓譙拱列營

진국사(鎭國寺)

在露積峯下中城門之內八十五間僧聖能所勅

노적봉 아래의 중성문 안에 있는데 85칸이며, 성능 스님이 창건하였다.

봉성암(奉聖菴)

在龜巖峯下二十五間僧聖能所勅

구암봉 아래에 있는데 25칸이며, 성능 스님이 창건하였다.

원효암(元曉菴)

在元曉峯下十間僧聖能所勅

원효봉 아래에 있는데 10칸이며, 성능 스님이 창건하였다.

북한지(北漢誌)에 따른 사찰 개요

1745년

번호	사찰명	창건연도	창건자	용도	비 고
1	문수사	高麗時代	未詳		의종21(1167)년 왕이 행차
2	중흥사		僧 普愚 重創 築城後 增建	병영	축성 후 30여칸을 136칸으로 증축
3	용암사	築城後	築城後 勅建	병영	87칸
4	보국사	築城後	僧 琢心 明熙 等 勅建	병영	177칸
5	보광사	築城後	僧 雪輝 勅建	병영	71칸
6	부왕사	築城後	僧 尋雲 勅建	병영	111칸
7	원각사	築城後	僧 信楚 勅建	병영	74칸
8	국녕사	1713년	僧 清徽 徹禪 勅建	병영	86칸
9	상운사	築城後	僧 懷秀 勅建	병영	133칸
10	서암사	築城後	僧 廣軒 勅建	병영	133칸
11	태고사	1341년경	僧 普愚 勅建 聖能 重創	병영	131칸
12	진국사	築城後	僧 聖能 勅建	병영	85칸
13	봉성암	築城後	僧 聖能 勅建	-	25칸
14	원효암	築城後	僧 聖能 勅建	-	10칸

3.3 만기요람(萬機要覽) 徐榮輔·沈象奎 1808年

1) 총융청의 각 창고(摠戎廳各倉庫)

[中略]

승창(僧倉) 각고(各庫)가 28문.

중흥사(重興寺)의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진국사(鎭國寺)의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상운사(祥雲寺)의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암사(西巖寺) 3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국녕사(國寧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원각사(圓覺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부왕사(扶旺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보광사(普光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보국사(輔國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용암사(龍巖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다.
 태고사(太古寺)의 2문 가운데 1문에는 군기가 있으며, 나머지 15문과 별
 고(別庫)의 2문에는 모두 있는 것이 없다.

2) 북한산성(北漢山城)

설치연혁(設置沿革). 북한산성은 삼각산(三角山)의 온조(溫祚)의 옛터에
 있다. 숙종37(1711)년에 대신(大臣) 이유(李濡)가 건의하여 산성을 쌓고
 행궁(行宮)을 세우고 향곡(餉穀)·군기를 저장하여, 방위하는 곳을 만들었
 다. [中略]

치영(緇營) 승병(僧兵)을 설치하고 치영이라 하였다. 중흥사(重興寺)에
 있다. 총섭(摠攝) 1명 본시는 종전부터 거주하는 중으로 임명하였는데 정
 조21(1797)년에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계청에 의하여 용주사(龍珠
 寺)의 중으로 번갈아서 임명하게 하였다. 중군승(中軍僧) 1명, 장교승(將
 校僧) 47명 유급. 승군 372명 73명은 유급. 태고사(太古寺)는 태고대(太
 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이다. 경서(經書)·통사(通史)·고문(古文)·당
 시(唐詩)의 판목을 저장하였다.

태고사(太古寺)는 태고대(太古臺) 아래에 있다. 136칸. 경서(經書), 통사
 (通史), 고문(古文), 당시(唐詩)의 판목을 저장하였다.
 중흥사(重興寺)는 등안봉(登岸峰) 아래에 있다. 149칸.

치영이 있는 곳이다.

보국사(輔國寺)는 금위영의 창고 아래에 있다. 76칸
진국사(鎭國寺)는 노적봉(露積峰) 아래 중성문(中城門) 안에 있다. 104칸.
부왕사(扶旺寺)는 휴암봉(鵠巖峯) 아래에 있다. 111칸.
국녕사(國寧寺)는 의상봉(義相峯) 아래에 있다. 70칸.
보광사(普光寺)는 대성문(大城門) 아래에 있다. 75칸.
원각사(元覺寺)는 증봉(甑峰) 아래에 있다. 81칸.
용암사(龍巖寺)는 일출봉(日出峰) 아래에 있다. 88칸.
상운사(祥雲寺)는 영취봉(靈鷲峰) 아래에 있다. 89칸.
서암사(西巖寺)는 수구문(水口門) 안에 있다. 민지암의 옛 터. 107칸.

이상의 11개 사찰에는 각각 승장 1명, 수승(首僧) 1명, 번승(番僧) 3명을 둔다.

봉성암(奉聖菴)은 귀암봉(龜巖峯) 아래에 있다. 25칸.
원효암(元曉菴)은 원효봉 아래에 있다. 10칸.
문수암(文殊菴)은 문수봉 아래에 있다.

3.4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李德懋 1761년

記遊北漢

二宿五餐。觀山內外寺十一。菴與亭樓各一。不見者一菴二寺。曰奉聖。曰輔國。僧曰是刹之最下者。偕遊者。子休，汝修暨吾三人。詩共四十一。菴，寺，亭，樓各有記。山蓋百濟古都。我祖宗。鍊兵峙穀。爲保障之地。距漢師三十里。從文殊門以入。出城西門。時辛巳九月晦也。

洗劔亭

緣萬石以上。亭在大磐陀。石白色。溪閒石以流。倚檻而眺。水聲掠衣履去也。亭名洗劔。左有立石。鐫曰鍊戎臺。

小林菴

亭之北數十兮。右室開。三石佛坐焉。古以往香火不絕也。余幼時見窟而無龕。今以小屋覆之。苾芻曰淨和。

文殊寺

日晡至文殊。瞰平地。疑到天半也。佛龕當大石窟。仍龕左右。逶迤以行。水如雨滴人衣。行盡有石泉紺寒。左右五百石羅漢坐累累也。窟名普賢。或曰文殊。有三佛。石曰文殊。玉曰地藏。金塗者。爲觀音菩薩。以是亦曰三聖窟。窟旁有臺。名七星。留以飯。北入文殊城門。

普光寺

日暮抵城門。乃山之泉處。門以下地稍底。多楓楠松杉。曠然谷易應。寒氣始襲人也。遂抵普光法堂。右藻井。大書三人字姓。和尚皆談兵。壁室。貯鎗刀弓矢。黃昏。抵太古寺宿。

太古寺

寺東峯下。有高麗國師普愚碑。牧隱撰。書者。權鑄也。師諡曰圓證。太古爲號。辛晫用事。上書論其罪。爲時君所逐。卓乎桑門之有節者。旣寂。舍利百枚。三浮屠以莊之。碑陰有我太祖微時爵姓諱。爵曰判三司事。上之今年。持命閣以覆焉。有肅敏上人者。稍識字冲澹。可與語。朝飯向龍巖寺。

龍巖寺

是寺最北漢之東隩也。北有五峯。大者三。曰白雲，萬景，露積。故三角名焉。仁壽，龍巖小者。

重興寺

捨龍巖。遵去路以下。地稍平。有寺焉。曰重興。麗時建也。十一寺最爲古且大。金佛坐者。過丈。僧將開府以處。領八路僧兵。名曰軌能。識曰摠攝。旁有磨石。仍巖石以刻。

山映樓

迤重興以西。林木翳然。溪清而鳴。多大石如冠如舟。積而爲臺者。間有之。蓋如洗劔亭奧過之。

扶旺寺

寺在漢之南奧。洞名曰青霞洞。門其幽而寂。它皆難與之侔。有壬辰僧將泗溟師像。據梧執白塵尾。落髮而存其髻過腹也。西壁有敏環像焉。憇而午飯。

圓覺寺

登南城門。見西海。與天接也。摩尼諸山。間於海。如拳也。有羅漢峯。巍然如浮屠立也。其下有寺墟。麗時三千僧處焉。仍名曰三千僧洞也。

鎭國寺

背山映樓。崎嶇而北。三丈石。銘白雲洞門。循石路。到寺門。紅樹白石。壑而泠泠。

祥雲寺

自鎭國到祥雲。嶺以間之。曰積石。日入抵寺。飯而宿。朝向西巖谷。行三四里。水成瀑逶迤。以卧槩嶺之左右。殊其曠奧也。

西巖寺

近城西門。大樓臨水石之交。風湍松籟。曠而生韻。脩如雨。對語不辨音也。寺最卑。獨以清曠聞。飯向津寬。

津寬寺

出西門十里。野多田。高處爲人壙。南尋小壑。始有林木。寺是高麗津寬大師居也。大石柱數十。尚列溪左焉。林石之佳。雖不如內山。佛畫之靈異。獨不讓也。

[靑莊館全書 李德懋]

[북한산 유람기

이틀 밤을 묵고 다섯 끼니를 먹으면서 산의 내외에 있는 열한 개의 사찰과 암자(庵子)·정자(亭子)·누(樓)를 각각 하나씩 관람하였다. 보지 못한 것은 암자가 하나 사찰이 둘이니, 봉성사(奉聖寺)와 보국사(輔國寺)이다.

중은 '이는 사찰(寺刹) 중에서 최하의 것이다' 하였다. 함께 유람한 사람은 남복수(南復秀)와 남홍래(南鴻來)와 나 3인이었다. 시(詩)는 모두 41편이며, 암자(庵子)·사찰·정자·누각에는 각각 기(記)가 있다.

이 산은 대개 백제(百濟)의 고도(古都)이니 우리 조종(祖宗)께서 군사를 훈련하고 양곡을 저장하여 보장(保障)하는 곳으로, 서울과의 거리는 30리다. 문수문(文殊門)으로 들어가 산성(山城)의 서문으로 나왔다. 때는 영조 37(1761)년 9월 그믐날이다.

세검정(洗劍亭)

수많은 돌을 따라 올라가니 정자는 큰 반석 위에 있다. 돌은 흰 빛인데, 시냇물은 돌 사이로 흐른다. 난간에 의지하여 바라보고 있노라니 물 소리가 옷과 신을 스쳐갔다. 정자의 이름은 세검정이며 왼쪽에는 선돌[立石]이 있는데 ‘연용대(鍊戎臺)’라 새겨져 있다.

소림암(小林庵)

세검정의 북쪽 수십 보 되는 곳에 석실(石室)이 있고, 3개의 석불(石佛)이 앉아 있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며 향화(香火)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굴(窟)만 보았고 감실(龕室) 탐 밑에 있는 작은 석실로 여기서는 불단(佛壇)을 말함은 없었는데, 지금은 작은 지붕을 만들어 덮었다. 중은 이를 정화(淨和)라고 한다.

문수사(文殊寺)

저녁때 문수사에 이르러 평지를 굽어보니 하늘의 절반쯤 오른 듯하다. 불감(佛龕 불상을 모신 감실)을 큰 석굴(石窟)로 만들었다. 감실을 따라 좌우로 구불구불 걸어가는데 물방울이 비오듯하여 옷을 적신다. 끝까지 가자 돌샘이 있는데 물빛이 푸르고 차갑다. 좌우에는 5백 나한(羅漢)을 나란히 앉혀 놓았다. 석굴의 이름은 보현사(普賢寺)라고 하기도 하고 문수사라고도 한다. 삼불(三佛)이 있는데 돌로 만든 것은 문수보살(文殊菩薩)이고 옥(玉)으로 만든 것은 지장보살(地藏菩薩)이며, 금으로 도금한 것은 관음보살(觀音菩薩)이다. 이 때문에 삼성굴(三聖窟)이라고도 한다. 굴 옆에 칠성대(七星臺)라고 부르는 대(臺)가 있다. 여기에서 머물러 밥을 먹고 북으로 문수성문(文殊城門)에 들어갔다.

보광사(普光寺)

날이 저물어 성문에 이르니 바로 산이 끝나는 곳이다. 성문의 아래는 지형이 약간 낮고 단풍나무[楓]·남나무[楠]·소나무[松]·삼나무[杉]가 수없이 많으며, 텅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가 잘 울린다. 찬 기운이 처음으로 사람을 엄습하였다. 드디어 보광사에 이르러 법당(法堂)의 오른쪽 조경(藻井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수초(水草) 모양의 그림을 그려넣은

천장)에 세 사람의 성명(姓名)을 크게 써 놓았다. 화상(和尚)들은 모두 무예[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벽실(壁室)에는 창·칼·활·화살 등을 저장하고 있었다. 항흔 무렵에 태고사(太古寺)에 도착하여 투숙하였다.

태고사(太古寺)

절의 동쪽 산봉우리 밑에 고려(高麗)의 국사(國師)인 보우(普愚)의 비(碑)가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호)이 찬술하고 권주(權鑄)가 글씨를 썼다. 국사의 시호는 원증(圓證)이고 태고(太古)는 호이다. 신돈(辛旽 고려 말엽의 요승(妖僧))이 권세를 잡자 글을 올려 그 죄를 논하였으므로 당시의 임금에게 축출되었으니 불가로서 탁월하게 충절이 있는 자이다. 입적(入寂)하자 사리(舍利) 백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세 곳의 부도(浮屠 사리탑)에 저장하였다. 비음(碑陰 비의 후면)에 우리 태조(太祖)가 나라를 세우기 전의 벼슬과 성명(姓名)이 있는데 벼슬은 ‘판삼사사(判三司事)’라고 되어 있다. 영조 임금이 금년에 특별히 명하여 비각을 지어 덮게 하였다. 숙민상인(肅敏上人)이라는 자가 있는데 조금은 글을 알고 성품이 온화하고 담박하여 말을 나눌 만하였다. 조반을 먹고 용암사(龍巖寺)로 향하였다.

용암사(龍巖寺)

이 절은 북한산의 동쪽으로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는 다섯 봉우리가 있는데 큰 것이 셋이니, 백운봉(白雲峯)·만경봉(萬景峯)·노적봉(露積峯)이다. 그러므로 삼각산(三角山)이라 부른다. 인수봉(仁壽峯)과 용암봉(龍巖峯)은 작은 것이다.

중흥사(重興寺)

용암사를 떠나 오던 길을 따라 내려가니 지대가 조금 평평하였다. 거기에 중흥사(重興寺)라는 절이 있는데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이다. 11개의 사찰중에 가장 오래되었고 크다. 앉아 있는 금불(金佛)은 높이만도 한 길[丈]이 넘었다. 승장(僧將)이 개부(開府 부(府)를 창설하는 것)하여 주둔하고, 팔도(八道)의 승병(僧兵)을 영솔하였는데, 이름은 ‘궤능(軌能)’이

라 하고 직책의 이름은 ‘총섭(總攝)’이라 하였다. 옆에 마석(磨石)이 있는데 암석에다가 그대로 조각한 것이었다.

산영루(山映樓)

중흥사에서 비스듬히 걸어 서쪽으로 가면 숲이 하늘을 가리우고 맑은 시냇물이 쿵쿵 흐른다. 갓[冠]갈기도 하고 배[舟]갈기도 한 큰 돌이 많은데, 쌓이고 쌓여 대(臺)를 이룬 것도 간혹 있었다.

대개 세검정과 같으나 더 그윽하였다.

부왕사(扶旺寺)

이 절은 북한산 남쪽 깊은 곳에 있다. 골짜기는 청하동(靑霞洞)이라 하는데 동문(洞門)이 그윽하고 고요하여 다른 곳은 모두 이와 짝하기 어렵다. 임진 왜란 때 승장(僧將)이었던 사명대사(四溟大師 이름은 유정(惟政))의 초상이 있는데, 궤[梧]에 의지하여 백주미(白麈尾 흰 사슴 꼬리로 만든 총채)를 잡았으며, 모발은 빠져 없고 배를 지나는 긴 수염만이 남아 있다. 서쪽 벽에는 민환(敏環)의 초상이 있다. 쉬면서 점심을 먹었다.

원각사(圓覺寺)

남쪽 성문(城門)에 올라 서해를 바라보니 하늘과 연결되었다. 마니(摩尼)의 여러 산이 바다 사이에 있어 주먹만하였다. 나한봉(羅漢峯)이 있으니 높이 솟은 모양이 부처[浮屠]가 서 있는 것 같다. 그 아래에 절터가 있는데 고려 시대에 3천 명의 중이 거처하였으므로 삼천승동(三千僧洞)이라 한다.

진국사(鎭國寺)

산영루를 등지고 험악한 길을 이리저리 찾아 북으로 가면 세 길쭉 되는 돌에 백운동문(白雲洞門)이라고 새겨져 있다. 돌길을 따라 사문(寺門)에 당도하니, 붉은 나무와 흰 돌이 흰하게 구령을 이루고 물소리가 시원하고 맑게 들리었다.

상운사(祥雲寺)

진국사로부터 상운사에 이르는 데는 적석(積石)이라는 고개가 사이에 끼어 있다. 해질 녘에야 절에 도착하여 밥을 먹고 투숙하였다. 아침에 서암사(西巖寺)로 향하는데 골짜기로 3~4리쯤 가니 물이 폭포를 이루었다가 구불구불하게 흘렀다. 대개 고개[嶺]의 좌우는 자못 넓고 깊었다.

서암사(西巖寺)

성의 서문에서 가까운 곳에 큰 누(樓)가 물과 돌이 교차된 곳에 임하여 있다. 바람이 이는 거센 여울과 소나무에서 나는 바람소리, 텅 빈 가운데 음운(音韻)이 생기니 췌췌하는 빠른 소리는 비오는 것 같아 대면하여 말하여도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다. 이 절은 가장 낮지만 유독 깨끗하고 시원한 것으로 소문이 났다. 밥을 먹고 진관사(津寬寺)로 향하였다.

진관사(津寬寺)

서문에서 10리쯤 나오면 들에는 밭이 많고 높은 곳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어 있다. 남쪽으로 작은 골짜기를 찾아가니 비로소 숲이 있다. 이 절은 바로 고려의 진관대사(津寬大師)가 거쳐하던 곳이다. 큰 돌기둥 수십 개가 아직도 시내의 왼쪽에 나란히 있다. 숲과 돌의 아름다움은 비록 성안의 산(山)만은 못하지만 불화(佛畫)의 영묘(靈妙)하고 기이한 것 만은 못지않았다.

3.5 관암전서(冠巖全書) 洪敬謨

漢北山城記

北漢本高句麗北漢山郡。一云南平壤。百濟溫祚王取之。十四年丙辰築城。近肖古王二十六年辛未移都。蓋鹵王二十一年乙卯高句麗長壽王來圍。蓋鹵王出走城遂廢。我肅宗三十七年辛卯。卽溫祚舊址築城。以爲保障之所。城周七千六百二十步。[中略] 寺刹曰香林寺在碑峯南今廢。高麗顯宗庚戌之亂。移安太祖梓宮于是寺。丙辰還塋顯陵。戊午契丹蕭遜寧來侵。又移安于是。己未復塋。曰清涼寺今廢。舊址未詳。高麗李資玄在清平山。睿宗幸南京。遣其弟資德諭赴行在。留是寺。嘗引見問養性之要。待遇甚厚。曰僧伽寺在碑峯東今

廢。高麗李顥重修記云按崔致遠文集。昔有新羅狼跡寺僧秀台。餒聆大師之聖跡。選勝于三角山之南面。開巖作窟。刻石摸形大師道容。益照東土。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災。禱以禳之。無不立應。曰文殊寺，曰重興寺，曰龍巖寺，曰輔國寺，曰普光寺，曰扶旺寺，曰元覺寺，曰國寧寺，曰祥雲寺，曰西巖寺，曰鎮國寺，曰太古十二寺羅列於前後峯巒之間而太古寺在重興寺左峰。高麗僧普愚住此。扁以太古。做永嘉體作歌。樓觀曰沆漉樓在重興寺洞口。跨溪而有偃龍橋。上建重樓曰山映樓。在重興寺前。有小橋覆以閣。卽此樓也。曰洗心樓在西巖寺前溪上。行宮在上元峯下。內外殿爲五十八架。倉廩曰經理廳。上中下倉。三營門留倉。而並屬於揔戎廳。置管城將守之。古蹟曰古石城在重興寺北。周九千四百十七尺。有石門及門址。曰神穴寺高麗顯宗祝髮寓此寺。千秋太后屢遣人謀害。有老僧穴地於室而匿之。上置臥榻。以防不測。王咏溪詩云一條流出白雲峯。萬里滄溟路自通。莫道潺湲巖下在。不多時日到龍宮。曰閔公遺棲。卽高麗文仁公閔漬遺址。在水口門內。名其巖曰閔漬巖。寺曰閔漬寺。寺今爲西巖寺。余於十二日。自津寬寺道南門入城。一宿于重興寺。一宿于太古寺。周覽諸勝。迨東門下牛耳洞天。又一宿于在澗亭而還。卽十五日也。

II. 북한산성 사찰(寺刹)의 고문헌(古文獻)

영조21(1745)년 승려(僧侶) 성능(聖能)¹⁾이 편찬(編纂)한 북한지(北漢誌)에 수록된 21개 사찰(寺刹)의 순서에 따라 각 사찰과 연관되는 고문헌을 수록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 중 1~7까지 7개 사찰은 폐사(廢寺)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轉用)되었다.

1. 향림사(香林寺)

1.1 사 서(史 書)

1) 고려사(高麗史)

顯宗7(1016)年 1월 (음)

壬申 奉太祖梓宮，復葬顯陵，庚戌之亂，移安梓宮于負兒山香林寺，至是還葬。

임신일. 태조의 관을 다시 현릉(顯陵 : 태조 왕건의 능)에 장사를 지냈는데, 현종1(1010)년 전란 때 부아산(負兒山, 삼각산)의 향림사(香林寺)²⁾로 옮겨 안치했다가 이때 다시 가져와 장사지낸 것이다.

顯宗9(1018)年 12월 23일(음)

辛亥 奉太祖梓宮，移安于負兒山香林寺。

신해일에 태조의 관을 부아산(負兒山) 향림사(香林寺)로 옮겨 안치했다.

1) 성능(聖能) : 조선시대의 승려. 호는 계파(桂坡). 지리산(智異山) 화엄사(華嚴寺)에 있다가 숙종 때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이 되어 북한산성(北漢山城)을 쌓았다. 영조21(1745)년 도총섭 직책을 서운(瑞胤)에게 인계할 때 산성(山城)에 관한 일 14조(條)를 북한지(北漢志)라 하여 판각을 했다. 화엄사로 돌아가 대화엄경(大華嚴經)을 판각, 장륙전(丈六殿)을 중수했으며, 영조28(1750)년 통도사(通度寺) 계단탑을 증축, 석가여래 영골사리탑비(釋迦如來靈骨舍利塔碑)를 세웠다.

2) 향림사(香林寺) : 고려시대 남경(南京 : 서울특별시) 부아산(負兒山 : 삼각산)에 있던 유가종(瑜伽宗)계열의 사찰로서 현종 때 태조 왕건의 재궁(梓宮)을 안치하는 등 왕실사원의 기능을 하였다. 인종 때 유가종의 원증승통(圓證僧統) 덕겸(德謙)이 머물렀으며, 조선 초기에도 왕실사원이 되었다.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顯宗元文大王 7(1016)년 1월 (음)

壬申 奉太祖梓宮，復葬顯陵，庚戌之亂，移安梓宮于負兒山香林寺，至是還葬。

○태조(太祖)의 재궁(梓宮)을 받들어 현릉(顯陵)에서 다시 장사지냈다. 경술(1010)의 병란 때에 부아산(負兒山, 삼각산)의 향림사(香林寺)로 옮겨 안장하였다가 이때에 이르러 다시 이장한 것이다.

顯宗元文大王 9(1018)년 12월 (음)

辛亥 奉太祖梓宮，移安于負兒山香林寺。

태조(太祖)의 재궁(梓宮)을 받들어 부아산(負兒山, 삼각산) 향림사(香林寺)로 옮겨 안치하였다.

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9(1427)년 7월 9일(을미)

의정부에서 계하기를, “금년은 역질(疫疾)이 크게 유행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이가 많으므로 녹번현(綠磻峴), 향림사(香林寺) 동구(洞口)와 연계원(淵溪院) 등지에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걸어놓기도 하고 구렁에 버리기도 하여, 시체가 드러나 비바람을 맞고 썩어 문드러졌으니 화기(和氣)를 상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임금이 놀라면서 즉시 한성부에 명하여 묻도록 하고, 예조에서는 엄중하게 검사하도록 하였다. 또 명하기를, “죽은 뒤에 친족이 거두어 장사할 사람이 없는 자를 매장하는 일은 어찌 옛날의 제도에 없겠는가. 자세히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9(1463)년 10월 22일(정미)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돌[石]이란 것은 산맥(山脈)의 골절(骨節)이므로, 다만 도성(都城)의 산등성이 내면에서만 벌석(伐石)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불가(不可)합니다. 청컨대 도읍에 있는 주산(主山)의 내맥(來脈)은 함길도(咸吉道)의 장백산(長白山)에서 철령(鐵嶺)에 이르고, 강원도(江原道) 회양부(淮陽府)의 남곡(嵐谷)에서 금성현(金城縣)의 마현(馬峴)과

주파현(注波峴)에 이르고, 낭천(狼川)의 항현(杭峴)에서 경기(京畿)의 가평현(加平縣) 화악산(華岳山)에 이르고, 양주(楊州)의 오봉산(五峯山)에서 삼각산(三角山) 보현봉(普賢峯)과 백악(白岳)에 이르며, 동쪽으로는 보등동(寶燈洞)에서 다야원(多也院)의 고암 제단(鼓巖祭壇)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향림사(香林寺)에서 녹반현(綠磻峴)의 세답암(洗踏巖)과 북점(北岾) 연창위 농소(延昌尉農所)에 이르니, 모두 벌석(伐石)하지 말도록 하소서. 관해(官廡)와 사사(寺社)를 지을 때나,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집을 짓거나 묘(墓)를 만들 때에는, 경중(京中)에서는 공조(工曹)에 고(告)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관찰사(觀察使)에게 고(告)하여 벌석(伐石)할 곳을 살펴본 다음에 계문(啓聞)하여 적당히 지급(支給)하도록 하되, 만약 법(法)을 어기고 벌석(伐石)하는 자는 위제율(違制律)로써 논(論)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10(1504)년 7월 29일(정사)

전교하기를, “장의사(藏義寺)의 부처는 중들을 시켜 8월 15일 전에 모조리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고, 정업원(淨業院)·안암사(安庵寺)의 이승(尼僧)은 다 한치형(韓致亨)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하고, 내불당(內佛堂)은 흥천사(興天寺)로 옮기고, 향림사(香林寺)의 부처는 회암사(檜巖寺)로 옮기라.” 하였다.

숙종36(1710)년 12월 28일(무자)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서종태(徐宗泰)·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판부사(判府事) 이유(李濡)가 함께 들어왔는데, 대개 북한(北漢)을 가서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이유가 말하기를, “북한(北漢)은 사면이 절험(絶險)하고 수구(水口)가 조금 평탄하나, 좌우에 큰 산봉우리가 있어서 단지 한 길로만 통해야 하니, 적이 어떻게 감히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그 좁은 것을 병통으로 여기지만, 한때에 피란(避亂)할 곳은 항상 거주할 곳과는 다르니, 백성들은 장막(帳幕)을 치고 접거(接居)할 수 있을 것이며, 군사는 마땅히 성첩(城堞)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온조(溫祚)가 도읍(都邑)을 정하였던 것은

반드시 의견(意見)이 있었던 것이고, 고려(高麗) 때에는 병란(兵亂)을 당할 때마다 문덕 태조의 재궁(梓宮)을 받들어 향림사(香林寺)에 옮겨 피란(避亂)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 험조(險阻)함을 족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효종(孝宗)께서 평소 북한성(北漢城)을 쌓고 조지서(造紙署)의 입구를 막아, 양향(糧餉)을 실어 들고자 하신 당시의 예산(審算)은 우연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지금은 오로지 신충(宸衷)을 결단하셔서 시기에 맞게 계획을 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31(1705)년 3월 27일 (신유)

上曰，太祖梓宮，移安于員兒山香林寺，至是還葬顯陵。以此觀之，則可知其崇佛矣。鳳輝曰，是皆崇佛之致，其時習俗皆然。尊尚寂滅，莫知其非，轉相倣效，良可寒心矣。

숙종36(1710)년 10월 13일 (갑술)

訓鍊大將李基夏啓曰，臣於初十日，承命出往洪福，看審城基，蓋在京都行龍大過峽處，而去京城五十里，自佛谷前峯，所謂凡乙於缺北出一枝，轉而向西，又轉而南東，出一枝，轉南向西中，出二崗，第一崗爲洪福青龍內水口山，第二崗爲外水口山，而四面險阻，且無切迫窺峯，築城周回，以內水口第一崗爲限，則比南漢差小，以第二崗爲限，則比南漢稍大，而其欲以第二崗爲限者，蓋慮城內水泉不足，故欲取第一崗下龍淵之意也。以目今水落之時觀之，則誠有是慮而然。聞谷中居民之言，雖於大旱，谷谷有水氣，故每患水田太洽，逢旱然後始得云，以此推之，則泉井之不足，亦似無患矣。且以外勢言之，城在絕險之內，而賊無圍住之勢，我有傳通之路，凡干命令，又以循山而行，古今以此地，謂可合處，必當取之於十里之外，而城之四方，高峻險絕，運一塊之石，當十倍用力，其勢固難，若用土，或播甃築之，數年之內，完然缺望，且其內外諸山，見方濯濯，取柴無路，軍兵炊爨，亦將缺二行不留意者，未知料理推移於何處，此皆猝難辦集者也。缺北漢則臣出去之日，路由東道，審望山之形勢，還歸之路，由西道，又見山之形勢，東西兩邊，絕險無比，而仁壽峯·白

雲臺·萬景臺三峯，是爲三角山，屹立于後，稍西曰露積峯，下有**重興寺**，而萬景峯，東轉逶迤，爲釋迦峴，普賢·文殊等峯，文殊展翼，爲兄弟兩峯，又南爲狗蹲峯·白岳山，而自文殊峯，一枝轉西，爲七星峯，七星出兩枝，一枝落爲羅漢·甌峯·穴望·蒙相諸峯，至重興水口，一枝西走，爲僧伽峯，**香林寺**後峯白雲峯，西轉爲嶺鷲元曉兩峯，至重興水口而止焉，四面諸峯，鐵壁如削，自成城廓，人難接足，真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者也。故相臣李德文集中，雖曰主山，後路到白雲而斷焉，問于僧人，則仁壽·白雲兩峯之間，有一鳥道，傳命可通，其他東西南三方，則載卜往來，雖未可爲之，步行則不難云矣。臣之入**重興寺**也。路由水口，有石門舊址，卽所謂西門也。城雖崩，尚有石築基址，而進入內城，又有石門，此則距寺僅數百步許，若稍加修治，亦可以通牛馬任載，而城基內山谷之間，處處有水，雖大軍留屯，似無不足之患，而山上松木，古甚茂盛，松蟲之後，雖不如前，深峻處，猶頗長養，比諸南漢樹木，而似勝焉，都城不遠之處，有此天險之地，仍爲棄置，誠可惜也。第念局勢雖不寬敞，人無可居之處，而惟**重興寺**上邊，**文殊寺**之東，**拱溪寺**之西，左右洞壑，地勢不便，稍有土膚，不至束狹，似可以容人居也。頽毀城子，人雖曰修補則可，而若非改築，則不可矣。既有舊城餘石及纍纍山石，雖可省功，高峯絕頂，則用力倍他，恐難容易也，敢以所見，姑舉梗概，且其山圖，出草以來，而忽遽未及正書，待禁衛·御營兩大將看審還來後，臣亦當同陳所懷於榻前，其時竝進之意，敢啓。傳曰，知道。

5)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36(1710)년 10월14일(음)

인수봉(仁壽峰)과 백운대(白雲臺)·만경대(萬景臺)의 3봉은 곧 삼각산(三角山)으로서 뒤에 우뚝 서 있고, 약간 서쪽에는 노적봉(露積峰)이 있으며, 그 아래에 중흥사(重興寺)가 있었습니다. 만경대는 동쪽으로 뻗어서 구불구불 에워둘러 석가현(釋迦峴)·보현(普賢)·문수(文殊) 등 봉우리를 이루고, 문수봉은 나래를 펴서 형제(兄弟) 두 봉우리를 이루었으며, 또 남쪽으로 구준봉(狗蹲峰)과 백악산(白岳山)을 이루었습니다. 문수봉(文殊峰)

에서 한 가닥은 서쪽으로 뻗어서 칠성봉(七星峰)을 이루고, 칠성봉에서 두 가닥이 나와 뚝 떨어져 나한(羅漢)·증봉(贈峰)·혈망(穴望)·의상(義相) 등 여러 봉우리를 이루어 중흥산 수구(水口)에 이르고, 한 가닥은 서쪽으로 뻗어 승가봉(勝伽峰)과 향림사(香林寺) 뒷봉우리를 이루었습니다.

1.2 시(詩)

1) 숙향림승사몽견우인각이부지(宿香林僧舍夢見友人覺而賦之)

滄海遙遙隔死生。覺時猶是夢時情。遊魂未散千峯靜。清曉空堂一聲鳴。

[白沙集 李恒福]

향림사에서 자다가 꿈에 친구를 만나고 깨어서 짓다.

머나먼 창해에 사생을 서로 달리했는데
깨어나서도 오히려 꿈꿀 때의 정이로세
유혼은 발산하지 않고 천봉은 고요한데
맑은 새벽 빈 집에 한 풍경만 울리누나.

2) 차향림승묘언축상운(次香林僧妙彦軸上韻)

蕭寺香林三角山。梵宮燈磬出雲間。禪房十載勤僧飯。碧眼霜髭是舊顏。

[月沙集 李廷龜]

향림사의 승려 묘언(妙彦)의 시축에 적힌 시에 차운하다

삼각산에 있는 쓸쓸한 절 향림사
절간의 불빛과 경쇠 소리 구름 사이로 나오지
선방에서 십 년 동안 절밥을 부지런히 먹었기에
푸른 눈이며 흰 수염 옛 얼굴 그대로일세.

3) 몽향림사(夢香林寺)

山勢連三角。經營幾百年。春來啼杜宇。雨過掛飛泉。

嫩菜緣巖摘。團茶帶雪煎。當時題柱處。十載夢瞿禪。

[忍齋集 洪暹]

4) 향림사증옥청상인(香林寺贈玉清上人)

白雲臺下路高低。偶過秋山訪舊栖。剩得清遊天所借。一宵閒話小軒西。

[松坡逸稿 朴全]

5) 향림사용회문체음성일절(香林寺用回文體吟成一絕)

歸僧野寺暮雲晴。晚向秋崖小笛橫。衣滴翠光山路細。依依遠岫帶煙平。

[松坡逸稿 朴全]

6) 향림사억동유제자(香林寺憶同遊諸子)

秋色蒼蒼滿石屏。白雲飛落紫苔扃。題詩岳麓林中寺。憶醉梅花湖上亭。
今日舊遊隨世故。曠天離思對山青。寒泉落木饒清響。安得聯床永夜聽。
千仞翱翔鶴不群。蔚藍天迥隔塵紛。雨餘山水含僧氣。霜後峯巒插劔文。
大地何年曾立塔。道林無處不生雲。願騎白鹿青厓裡。行訪茅山第一君

[雪蕉遺稿 崔承太]

2. 적석사(積石寺)

2.1 사 서(史 書)

1) 고려사(高麗史)

世家

충렬왕8(1282)年 5월 25일(음)

癸未 王與公主, 幸積石寺.

왕(王)과 공주(公主)가 적석사(積石寺)에 행차했다.

3. 청량사(淸涼寺)

3.1 개요(概要)

청량사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 조계사의 말사로서 신라 말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고려 예종12(1117)년 예종이 불교의 큰 인물인 이자현(李資賢)을 불러 이 절에 머물게 하였다.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절요에는 이 절이 삼각산(三角山)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홍릉(洪陵)의 영휘원(永徽園)이 옛 절터라고 한다.

1897년 명성왕후가 홍릉을 만들면서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일제강점기에는 한용운(韓龍雲)이 머물렀고, 1980년 대웅전을 신축하는 등 불사를 진행하여 오늘에 이른다.

건물로 대웅전과 극락전·칠성각·요사 등이 있다. 이중 대웅전에는 1938년 조성된 후불탱화와 신중탱화·칠성탱화 등이 있다. 극락전에는 아미타불을 비롯한 삼존불이 봉안되어 있고, 고종10(1871)년에 제작된 신중탱화가 있다. 현판과 주련은 한영(漢永)의 글씨이다.

3.2 사서(史書)

1) 고려사(高麗史)

列傳 諸臣 이자현

王曰, “朕慕此老道德久矣, 不宜以臣禮見.” 令上殿拜賜坐. 從容與語, 命留三角山淸涼寺.

왕은 “짐이 이 어른의 도덕을 사모한지 오래되었으니 신하의 예로 만나서는 안된다.” 고 하며 전(殿) 위로 올라와 절하게 하고 자리를 권했다.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후 삼각산(三角山) 청량사(淸涼寺)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예종12(1117)년 9월

청평거사(淸平居士) 이자현(李資玄)이 왕의 부름을 받아 달려왔다. 왕이 이르기를, “도덕 높은 노인을 사모한 지 오래되었으니, 신하의 예절로 될 수 없다.”하고, 명하여 전(殿) 위에 올라 절하게 하며, 자리를 주고 차를 내어 조용히 서로 말하고, 이내 명하여 삼각산 청량사(淸涼寺)에 머물게 하였다.

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5(1423)년 4월 10일(경신)

원종 공신(原從功臣)들이 계청(啓請)하기를, “태조의 원종 공신 등은 청량사(淸涼寺)에서, 태종의 원종 공신 등은 승가사(僧伽寺)에서, 주상(主上)의 탄신(誕辰) 축수재(祝壽齋)를 배설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축수재(祝壽齋)를 배설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2(1471)년 4월 7일(기유)

어떤 중[僧]이 권문(勸文)을 가지고 여염(閭閻)에 다니며 권유하는 이가 있었는데, 중 일잠(一岑)이란 자가 그 글을 빌려서 명빈궁(明嬪宮)에 바쳤다. 그 권문서(勸文書)는 대왕 대비(大王大妃), 봉보 부인(奉保夫人), 전언(典言) 조씨(曹氏)·이씨(李氏)가 모두 주묵(朱墨)으로 도서(圖書)를 찍고, 사섬시 첨정(司贍寺僉正) 이숭수(李崇壽)도 또한 서명(署名)을 한 것이었다. 명빈(明嬪)이 그 글을 가지고 아뢰었더니 대비(大妃)가 이를 보시고 이숭수를 불러서 물으니 대답하기를, “저번에 삼각산(三角山) 청량사(淸涼寺)의 중[僧] 성초(性超)가 권문(勸文)을 가지고 집에 이르러 신에게 서명(署名)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그 때에는 한 사람도 이름을 적거나 도서(圖書)를 찍은 자가 없었는데, 신이 먼저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므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선종(禪宗)으로 하여금 관원을 차출하여 거느리고 그 절에 가서 중을 포박하여 오게 하라.” 하였다.

성종2(1471)년 4월 8일(경술)

청량사(淸涼寺)의 중이 잡혀 왔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신문(訊問)하였더니 중 탄공(坦空)이 공초(供招)에 이르기를, “석가암(釋迦菴)을 중창(重創)하려고 지난 2월에 동반(同伴)하는 중 성초(性超)와 의논하여 권문(勸文) 3건(件)을 작성하여, 평소에 알고 지내던 교종(教宗)의 중 성지(性志)로 하여금 쓰게 하여서 성초와 더불어 첨정(僉正) 이승수(李崇壽)의 집에 가지고 가 대왕 대비(大王大妃)의 도서(圖書)를 얻어 기록하기를 원하였더니, 이승수가 허락하기에 드디어 그 집에 두고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또 성초로 하여금 찾아 오게 하여 성초가 권문을 가지고 왔더니, 다섯 곳에 도서(圖書)를 찍었으나 그 직함이 없어 신임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권문을 가지고 다시 이승수의 집에 갔습니다. 이승수와 한 상인(喪人) 및 사위[女壻]가 같이 앉았다가 곧 도서 위에다 대왕 대비(大王大妃), 봉보 부인(奉保夫人), 전언(典言) 조씨(曹氏)·이씨(李氏)라 쓰고, 끝에다 이승수(李崇壽) 및 상인(喪人) 강우(姜遇)가 직함과 이름을 적어 주며, 1건은 이승수가 머물러 두고, 2건은 성초가 가지고 돌아와 여러 곳에 권유(勸誘)하였습니다.” 하였고,

중 성초(性超)의 공사(供辭)도 탄공(坦空)의 공초(供招)와 같았다. 이승수(李崇壽)가 공초에서 이르기를, “이제 이 권문(勸文)은 신의 아들 이만생(李萬生)이 신의 전처(前妻) 조씨(趙氏)의 소도서(小圖書)를 가지고 네 곳에 찍고, 후처(後妻) 강씨(姜氏)의 대도서(大圖書)를 가지고 한 곳에 찍었었는데, 그 뒤에 중이 다시 와서 말하기를, ‘직함을 쓰지 않아 미편(未便)하다.’ 하여, 나와 처남(妻甥) 강우(姜遇)가 같이 앉았다가 사위[壻] 김후(金瑀)로 하여금 권문의 제1처 소도서 위에다 대왕 대비를, 제3처에 전언(典言) 조씨(曹氏)를, 제4처에 전언 이씨(李氏)를, 대도서(大圖書) 위에는 봉보 부인(奉保夫人)을 쓰게 하고, 또 그 아래에다 나와 강우(姜遇)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였다.

당시에 이만생(李萬生)은 전주(全州)에 가고 강우(姜遇)는 안동(安東)에 갔으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모두 잡아 오기를 청하니, 내전에서 이만생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아뢰는 대로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이승

수·김후·탄공·성초를 궐내(闕內)의 네 곳에 나누어 가두게 하였다.

4)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관보(官報)

청량리 청량사는 삼각산(三角山) 청량사(淸涼寺)와 연관이 있는지 검토(檢討)가 요망된다.

○제442호(明治) 1912-02-20

住持就職認可 京畿道長官ハ二月二十八日 左ニ掲タル氏名ノ者ヲ各頭書
ノ寺刹住持ニ就職ヲ認可セリ. 京城府 北部 仁昌面 淸涼寺 南採白

○제832호(大正) 1915-05-14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大正四年二月七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寺刹名：淸涼寺

住持氏名：南採白

▲異動年月日：大正四年五月七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寺刹名：淸涼寺

住持氏名：史在芸

○제751호(昭和) 1929-07-14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三年九月三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寺刹名：淸涼寺

住持氏名：史在芸

▲異動年月日：昭和四年五月二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제1693호(昭和) 1932-08-27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七年五月一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異動年月日：昭和七年六月二十七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崇仁面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제2819호(昭和) 1936-06-08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年六月二十六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京城府 清涼町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異動年月日：昭和十一年五月十九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京城府 清涼町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제3747호(昭和) 1939-07-18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四年五月十八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京城府 清涼町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異動年月日：昭和十四年六月十九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京城府 清涼町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제4812호(昭和) 1943-02-18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七年六月十八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京城府 清涼里町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異動年月日：昭和十八年一月三十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京城府 清涼里町

寺刹名：清涼寺

住持氏名：申慈英

4. 승가사(僧伽寺)

4.1 개요(概要)

승가사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번지, 북한산 비봉 동쪽에 있는 대한 불교조계종 직할 교구 조계사에 속한 사찰로서 신라 경덕왕15(756)년에 낭적사의 승려 수태(秀台)가 창건하여 당나라 고종 때 천복사(薦福寺)에서 대승을 가르친 승가(僧伽)를 기리는 뜻에서 승가사라 하였다.

그후 현종15(1024)년 지광(智光)과 성언(成彦)이 중수하고, 선종7(1090)년에 구산사(龜山寺)의 주지였던 영현(領賢)이 중수하였으며, 숙종4(1099)년에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왕과 왕비를 모시고 참배하면서 불상을 개금(改金)하고 불당을 중수하였다.

조선 세종4(1422)년에 7종을 합하여 선교양종으로 통합할 때 선종에 속하였으며, 고종 때 민비와 엄상궁의 시주를 얻어 중건(重建)하였고, 1941년에 도공(道空)이 다시 중수하였는데 6·25전쟁 때 소실되었으며, 1957년에 비구니 도명(道明)이 중창하여 대웅전과 영산전(靈山殿)·약사전(藥師殿) 등의 당우를 갖추었다.

그 뒤를 이어 비구니 상륜(相輪)이 불사(佛事)를 계속하여 현재는 산신각(山神閣)·향로각(香爐閣)·동정각(動靜閣)·범종각(梵鐘閣)·대방(大房)·요사채 등의 당우들이 좁고 가파른 지형을 이용하여 알맞게 배열되어 있다.

모는 작으나 창건 이후 여러 왕들이 행차하여 기도하였고, 조선 초기의 고승 함허(涵虛)가 수도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조선 후기에는 성월(城月)이 이절에서 배출되어 팔도도승통(八道都僧統)의 직책을 맡아 쇠잔하던 불교를 크게 진작하는 등 불교사상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사찰이다. 또한 예로부터 기도처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절의 유물로는 보물 제1000호로 지정된 석조승가대사상이 있으며, 서북방 100m 지점에는 보물 제215호로 지정된 거대한 마애석가여래좌상이 부각되어 있다. 이 마애불과 약사전에 모신 약사여래의 영험, 그리고 약수의 효험 등은 이 절을 기도처로서 유명하게 만들었다. 절의 뒤편 비봉에는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가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고, 그 자리에는 유지비(遺址碑)가 세워져 있다.

4.2 사 서(史 書)

1) 고려사(高麗史)

○世家 卷第十 宣宗7(1090)年 10월 19일

庚戌 幸僧伽窟，遂幸藏義寺. 왕이 승가굴과 장의사에 갔다

○世家 卷第十一 肅宗4(1099)年 윤9월 5일(음)

甲戌 幸僧伽窟，設齋，仍施銀香椀·手爐各一事，金剛子·水精念珠各一貫，金帶一腰，并金花果繡幡·茶·香·衣對·金綺.

승가굴(僧伽窟)³⁾에 행차하여 재(齋)를 열고 이어서 은(銀)으로 만든 향그릇과 손난로 각 한 벌, 금강자(金剛子)⁴⁾와 수정(水晶)으로 만든 염주(念珠) 각 한 꿰미, 금띠 한 개, 금화과(金化果)를 수놓은 깃발 및 차(茶), 향(香), 의복[衣帶], 비단[金綺]을 시주(施主)하였다.

○世家 卷第十二 肅宗9(1104)年 8월 5일(음)

丙午 駕次常慈院，遣侍御史崔謂，賫御衣·茶香，禱雨于三角山僧伽窟

왕이 상자원(常慈院)에 유숙하면서 시어사(侍御史) 최위(崔謂)를 시켜 어의(御衣)와 차, 향(香)을 가지고 삼각산(三角山) 승가굴(僧伽窟)로 가서 비를 빌게 했다.

○世家 卷第十二 肅宗9(1104)年 8월 22일(음)

癸亥 車駕發南京，與內中，幸僧伽窟，設齋納襯.

왕이 남경(南京)을 떠나 후궁[內中]들과 함께 승가굴(僧伽窟)에 가서 재를 올린 후, 재물을 시주했다.

○世家 卷第十二 睿宗 3年 10월 6일(음)

3) 승가굴 : 삼각산(三角山)에 있던 사찰로 승가사(僧伽寺)라고도 한다. 신라 경덕왕15(756)년에 승려 수태(秀台)가 승가대사(僧伽大師)의 거룩한 행적을 듣고 삼각산 남쪽에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을 쪼아 대사의 형상을 새겼다고 한다. 현종15(1024)년 지광(智光)·성언(成彦) 등이 중창하였는데, 승가굴에 안에 있는 승가대사상의 광배에 이때 석상과 광배를 만들었다는 명문이 있다. 승가굴에서는 승가대사 신앙이 생겨났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4) 금강자 : 열대에서 나는 금강자 나무로 만든 흰 구슬. 꿈무늬가 들어 있고 견고하며 겨울에는 손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한다.

壬午 幸僧伽窟. 왕이 승가굴에 갔다.

○世家 卷第十三 睿宗 5(1110)年 윤8월 25일(음)

辛酉 幸三角山藏義寺, 遂幸僧伽窟.

왕이 삼각산(三角山)의 장의사(藏義寺)에 행차했다가, 승가굴(僧伽窟)까지 들렀다.

○卷五十四 志 卷第八 五行 二[1104년 8월 미상]

九年八月丙午 王幸南京, 駕次常慈院, 遣侍御史崔謂, 齋御衣茶香, 禱雨于三角山僧伽窟.

[숙종]9년 8월 병오일. 왕이 남경(南京)에 행차하는 김에 어가[王駕]가 상자원(常慈院)에 머물 때 시어사(侍御史) 최위(崔謂)로 하여금 어의(御衣)와 다향(茶香)을 가지고 삼각산(三角山) 승가굴(僧伽窟)에 가서 비를 빌게 하였다.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예종문효대왕일(睿宗文孝大王一)

예종5(1110)년 윤8월 7일(음)

閏八月癸卯. 王奉太后幸南京, 遂幸三角山藏義寺及僧伽窟

왕이 태후를 모시고 남경(南京)에 행차하였는데, 마침내 삼각산(三角山) 장의사(藏義寺) 및 승가굴(僧伽窟)에 행차하였다.

○의종장효대왕(毅宗莊孝大王)

의종21(1167)년 9월 미상(음)

幸三角山僧伽, 文殊, 藏義等寺。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 문수사(文殊寺), 장의사(藏義寺) 등에 행차하였다.

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7(1407)년 3월 5일

승가사(僧伽寺)에 원래 속해 있던 노비(奴婢)를 다시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4(1422)년 5월 4일

우의정 정탁(鄭擢)을 흥천사(興天寺), 곡산 부원군(谷山府院君)연사종(延嗣宗)을 승가사(僧伽寺)에 보내어 약사 정근(藥師精勤)을 배설하고,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화영(李和英)을 개경사(開慶寺)에 보내어 관음 정근(觀音精勤)을 배설하였다.

세종4(1422)년 8월 8일

평양군(平壤君)조대림(趙大臨)은 진관사(津寬寺)로, 찬성사(贊成事)맹사성(孟思誠)은 승가사(僧伽寺)로 보내어 재(齋)를 올려 부처에게 기도하였다.

세종5(1423)년 4월 10일

원종 공신(原從功臣)들이 계청(啓請)하기를, “태조의 원종 공신 등은 청량사(淸涼寺)에서, 태종의 원종 공신 등은 승가사(僧伽寺)에서, 주상(主上)의 탄신(誕辰) 축수재(祝壽齋)를 배설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후로는 축수재(祝壽齋)를 배설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6(1424)년 4월 5일

경기 양주(楊州) 승가사(僧伽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을 더 주고, 향거승은 70명입니다

세종30(1448)년 7월 21일

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가 말하기를, “금갑을 쓴 것은 고급 사람이 다같이 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찌 내어 보시지 않으십니까. 소신이 이런 때를 당하여 감히 몸을 아끼고 작록(爵祿)을 아끼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청을 얻는 것 이것이 소원입니다. 태조 때에 있어서 무안군(撫安君)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뻔뻔스럽게 절에 올라가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또 보통 사람의 상사에도 반드시 빈당(殯堂)에 크게 법석(法席)을 베풀고 중이 친히 부녀자의 팔뚝에 불을 태우는 일까지도 많이 있었는데, 태종께서 모두 사사(寺社)와 전민(田民)을 혁파하고 또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을 금하였으니, 이것은 전조의 폐단을 분하게 여기어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두려워할 만한 일이 대

단히 많습니다. 대자암(大慈庵)과 승가사(僧伽寺)에는 종친(宗親)의 가비(家婢)가 혹은 연등(燃燈)이니 혹은 원장(願狀)이니 칭하며 자주 왕래하여도 금하는 일이 없고, 지난해에는 정업원(淨業院) 주지(住持)가 여승을 데리고 용문사(龍門寺)에서 논 일이 있으며, 또 도봉산(道峯山)영국(寧國) 등 두 절과 서산(西山) 종암(從岩) 등 두 절이 모두 새로 창건한 것이고, 또 들으니, 삼성산(三聖山) 안양사(安養寺) 터에 큰 절을 다시 창건한다는 데 이것이 모두 전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백성이 또 새로 내불당(內佛堂)을 창건한다는 말을 들으면 뒤를 이어서 만계(萬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갑손(甲孫)은 또 아뢰기를, “평민으로 보더라도 부자 형제 사이에 털끝만한 재리(財利)도 인색하게 아끼지 않음이 없으나, 불사(佛事)에 이르러서는 쌀과 베를 내기를 제한 없이 하나,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도 하나 공사간에 낭비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불법이 사람에게 무익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고 드디어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금갑(琴匣)의 일은 뜻이 간절하니 청(請)을 올려서 말하는 것이 좋겠고, 부녀자가 절에 올라가는 것은 금하는 영감을 엄하게 하여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으며, 과천(果川)에 절을 짓는 것은 태조가 무안군(撫安君)의 묘 옆에 재찰(齋刹)을 창립할 것을 명하여 명복을 빌었는데, 지금 그 묘를 옮겼으니 그 절을 옮기지 않는 것이 가한가. 이것은 원래 새로 창립하는 예가 아니다. 장경(藏經)을 만든 일에 이르러서는 내가 어찌 감히 숨기겠는가. 근년 이래로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라의 재물을 허비하지 않고 내수소(內需所)의 쌀을 종친(宗親)에게 나눠 주어 장경(藏經)을 만들도록 명하였다. 국가의 물건이 곧 인군의 물건이니 북으로 5진(鎭)으로부터 남으로 제주에 이르기까지 모두 임금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니, 공사를 따지지 않고 써도 가하다. 사재로 쓰는 것은 나의 뜻이 좁은 것이요, 국가의 재물을 쓰지 않는 것은 나의 잘못인데, 내가 어찌 숨기려 하여 그 일을 쉬쉬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할 리가 있는가. 경함(經函)의 일도 또한 미루

어 알 것이다.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나의 뜻을 알게 하라.” 하였다.

지리지/경기/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승가사(僧伽寺) 【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발 1백 45결(結)을 주었다. 】

세조1(1455)년 9월 23일

충훈부(忠勳府)에서 탄신 축수재(誕辰祝壽齋)를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에 베풀었고, 원종 공신(原從功臣)이 개암사(開庵寺)에서 재(齋)를 베풀었다.

연산10(1504)년 7월 15일

전교하기를, “홍제원(弘濟院)부터 승가사(僧伽寺) 이서까지, 동으로 살하리(沙乙河里)까지 돌에 새겨 표를 세워서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고, 어긴 자는 중벌[重律]하라.” 하였다.

중종34(1539)년 5월 20일

전교하기를, “내관·선전관 등이 승가사(僧伽寺)에 가서 중 한 명을 붙잡았는데, 그 절의 중에게 물었더니 ‘이 중은 객승(客僧)으로 오늘 아침에 처음 왔는데 용모와 형체가 지운과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여 이름을 물었더니 학조(學祖)라고 하였다.’ 고 하기에 그 중이 지운인가 의심스러워 영추문(迎秋門) 밖에 붙잡아 놓았다고 한다. 은수를 데리고 나가 면질(面質)시켜라.” 하였다.

중종34(1539)년 5월 21일

윤은보에게 전교하기를, “중흥사(重興寺) 중의 초사와 승가사(僧伽寺) 중의 초사가 서로 같다. 지금 다시 학조가 평소에 날쌔고 빠른 적이 있었던가를 물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학조를 다시 힐문하라.” 하였다. 윤은보 등이 회계하기를, “중흥사의 중을 추문하였더니 학조가 평소에 별로 날쌔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은수가 말한 것이 모두 거짓인 것 같아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망스런 말들이 【은수가 대궐 안 신령님이 도와서 궁성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매우

많아서 조정에서 참국(參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대간의 장관이 와서 참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명종3(1548)년 2월 12일

소신(小臣)은 갑진년에 요행히 등제(登第)하였는데, 그때 나이는 27세였습니다. 어리석고 망령된 신진(新進)으로서 이해 12월에 승문원에 간택(揀擇)되었고, 을사년 8월에 한림(翰林)에 제수되었으니, 출신(出身)한 지 겨우 10여개월 만에 청요직(淸要職)에 발탁되어 제수된 것입니다. 상은(上恩)이 그와 같이 망극했기에 추호의 사심(邪心)도 없이 밤낮으로 상은의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더구나 소신은 한 번도 윤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을사년 4~5월 사이에 모화관(慕華館)에서 배표(拜表)하고 사대(查對)할 때에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덕응은 장의동(藏義洞)에서 나서 자랐고, 소신은 명례방(明禮坊)에서 나서 자랐기에 남과 북으로 거리가 서로 동떨어져서 이덕응의 문명(文名)만을 들었을 뿐이고 얼굴은 일찍이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계묘년 어느 달에 소신이 독서(讀書)하기 위하여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에 갔더니, 이덕응 역시 그의 동생들과 더불어 소신보다 3~4개월 앞서부터 와서 글을 읽고 있었으므로, 소신이 그때야 겨우 그의 얼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소신이 집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이덕응 역시 그곳을 내려왔는데, 서로의 교정(交情)으로 말하면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후로 관학(館學)의 장중(場中)에서 서로 만나면 가벼운 읍(揖)으로 인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선조33(1600)년 3월 19일

경리 도감(經理都監)이 아뢰었다. “어제 경리가 성균관에서 알성하고 기성군(箕城君)의 집에 가서 화초(花草)를 구경하였는데, 술은 마시지 않고 즉시 나왔습니다. 기고(旗鼓)가 무릎을 꿇고 ‘건너편에도 유명한 정원(庭園)이 있는데 샘물이 달고도 차다. 양야(楊爺)도 이곳을 구경한 적이 있다.’ 하였는데, 이는 전(前) 익위(翊衛) 남상문(南尙文)의 집이었습니다. 경리가 잠시 들어가서 샘물을 떠서 마시고 이어 승가사(僧伽寺)로 향

하였습니다. 탕춘대(蕩春臺)에 이르렀는데 산에 비가 내렸으므로 경리가 사원(寺院)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부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절하고 두루 둘러본 다음 술을 마셨으며, 은자(銀子)를 내어 절의 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황혼이 진 뒤에 아문(衙門)으로 돌아왔습니다.”

광해7(1615)년 2월 25일

선정신(先正臣) 조식(曹植)의 도덕에 대해 그 경중과 천심을 후학들이 헤아릴 바는 아닙니다마는 강상(綱常)을 부지하고 의리(義理)를 천명하여 비록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일맥정기(一脈正氣)가 오히려 마멸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이분의 힘입니다. 선비들이 이분이 남긴 자취를 추앙해서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조용히 수양하며 귀의할 곳을 삼고자 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도성 근처에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유선(儒先) 숭배하는 것은 도리어 승려들의 잡배가 그의 술업을 숭신하는 것만도 못하여, 정토(淨土)·향림(香林)·승가(僧伽)·도성암(道成菴) 등의 사찰은 도성밖 10리 이내에 연접하였으되 일찍이 한 사람도 이에 항거하는 글을 올려 그 사찰을 헐거나 부처를 불사르는 일이 없었는데, 유독 유현(儒賢)의 향화를 받드는 곳에 대해서만 그 거리의 원근을 따져서 저지하려 든단 말입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두 관왕묘(關王廟)는 도성 밑 동쪽과 남쪽에 인접해 있고, 안일(安逸)·자수(慈壽)·인수(仁壽)도 모두 부처를 받드는 사찰인데도 도성 내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찌 지역의 원근으로 사문(斯文)의 성대한 거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무계는 북성(北城) 밖 조지서(造紙署) 위에 있는데, 지정한 곳은 승가사(僧伽寺) 근처로서 도성과의 거리가 자못 7, 8리가 넘습니다만 혹시라도 가깝다고 말할까 염려되어 지금 10리 밖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4)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8(1784)년 12월 24일

上曰, 北漢僧伽寺, 摠使果爲摘奸乎? 昌運曰, 臣往摘奸, 則毀瓦頽壁, 無復

形容，只有殘僧五六人矣。上曰，頃日彼中所送玉佛，皇帝所賜於東宮者，既受之後，不可褻置，闕中既非可奉之所，勢將奉置近寺。此非崇佛而然，事面如此，此寺可以修改以奉矣。命善曰，此則似無崇佛之嫌矣。上曰，古亦有僧舍重修之舉，此非創行之事矣。命善曰，玉佛既奉之後，僧徒住接之道，不可不念，免役等節，宜有定式矣。上曰，自廟堂一番行會，申飭，可也。仍下教曰，摠使更爲摘奸，僧寺重修一款，諸將皆已聞知，筵退後，共商舉行，宜矣。

정조10(1786)년 6월 26일

又以摠戎廳言啓曰，卽接內需司牒呈內，卽見僧伽寺僧統所告，則本寺僧徒輩，去四月分，定界內刈柴矣。摠戎廳，謂以犯境，捉去重棍，而其後北漢摠攝僧，猜忌本寺僧統，訐訴摠戎廳及管城將後，摠攝私自捉致首僧三寶等重棍，北漢文殊門內，使不得出入，此意移報摠戎廳，摠攝僧嚴治，更勿如是之意，自本營各別禁斷事草記批旨內，以其月日推之，此亦必是前帥之所爲，啓下定界之後，如是作俑，不但駭然，本寺事體，何如，則又欲極意侵犯者，前邸事節節可訝，以成服內董役之心，推及於該寺而然乎？今時摠使，捉致前使時聽令將校及摠攝等，待明日後嚴棍取招草記，前帥之治僧，猶在四月，而摠攝之作挈在近日，情節尤極痛惡，然毋論前帥若僧，如渠輩，何足深誅乎？既聞之後，在摠帥道理，不可尋常按查，此意知悉。此批答移報該廳，以爲舉行之地事，命下矣。臣馳到鍊戎臺，本營應問各人等處，盤詰查問，則本廳教鍊官邊鎮國·李泰萬·金命旭，俱以爲四月以後，元無犯松人治罪聽令之事云摠攝僧演訓，以爲四月初管城將，上去僧伽寺時，寺僧輩多有頑慢之習，傳說藉藉，故捉致該寺首僧及三寶僧，各決榻三度，而北漢所屬料窠哨官二人，例以僧伽寺僧差出，故傳令成送，則僧統輩，不爲舉行，墨削傳令之意，枚報本廳，則前大將，使管城將，詳查牒報，而姑未查實。又自僧伽寺，距北漢要路，有一暗門，而該寺僧徒，從此門往來，故知委堅閉，使不得通路，含憤逞憾之罪，一一遲晚，問于本寺僧統哲學，則以爲四月，果無犯松受棍之人，而寺中負木漢朴貴福，以他事被棍於千摠云。故更加查得，則四月十三日，本營前千摠黃泰彥入直時，以其子之遊觀本寺時受侮，貴福捉致決棍云。雖非刈柴，而事在四月，則此乃臣待罪本職時也，臣不能檢飭，致有此侵撓本寺之舉，不勝惶恐，而蓋此僧伽

寺，既有所重，則僧演訓，身爲總攝，逞憤作拏，情節叵測，不可以棍罰懲其罪，拘囚本營，以待處分之意，敢啓。傳曰，在卿元無毫分干涉之事，何必引咎乎？無論禁松與他事，李邦一已有綻露無餘者，當初內需司草記切逼句語，一併刪削後，移報本廳。大抵邦一事誠異矣，然既不責之以常性人，又不欲枉費辭教，卿之查事姑置之，摠攝事萬萬駭然。卿量宜處之，雖以摠攝事言之，邦一豈有不聞知之理乎？然又何足窮查乎？且以將校等言之，金明旭，處分纔過之後，猶不知戰，敢生吞討之計者，亦極駭然矣。以此觀之，本寺僧徒作弊之習，亦不可不嚴飭，以此知悉察飭。

5)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129호 [1913년 01월 08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長官ハ十二月二十四日附ヲ似テ左ニ掲クル寺刹住持ノ就職ヲ認可セリ. 京畿道 恩平面 僧伽寺住持 金應虛

○제358호 [1913년 10월 08일]

住持死亡 京畿道京城府恩平面僧伽寺住持金應虛ハ九月三十日死亡ノ旨京畿道長官ヨリ報告アリクリ

○제1463호 [1914년 02월 17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長官ハ左ニ掲クル寺刹住持ノ就職ヲ認可セリ. 二月六日 京城府恩平面僧伽寺住持 金敬成

○제832호 [1915년 05월 14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大正四年五月七日

異動事由：辭職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金敬成

▲異動年月日：大正四年五月七日

異動事由：兼務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朴心月

○제751호 [1929년 07월 14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大正十五年八月十五日

異動事由：死亡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金敬成

▲異動年月日：昭和四年四月十九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鄭大成

○제1728호 [1932년 10월 10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七年五月三十一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鄭大成

▲異動年月日：昭和七年八月二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鄭大成

○제3597호 [1939년 01월 18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三年九月一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鄭大成

▲異動年月日：昭和十三年十一月二十五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金貴燮

○제4129호 [1940년 10월 26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五年三月四日

異動事由：辭職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金貴燮

▲異動年月日：昭和十五年九月十一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鄭大成

○제4314호 [1941년 06월 12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五年十二月二十日

異動事由：辭職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金貴燮

▲異動年月日：昭和十六年四月八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未山茂

○제5201호 [1944년 06월 08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九年四月七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未山茂

▲異動年月日：昭和十九年五月八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恩平面

寺刹名：僧伽寺

住持氏名：未山茂

4.2 시(詩)

1) 차리백운증산인선문(次李白韻贈山人善文)

杖錫曾北住。湖海又南征。心隨流水靜。跡與浮雲并。楓岳凌雲陟。
蓬山汎杯行。三十六名山。只恨隔四明。祝願天下安。害去胸中兵。
神京咫尺地。三角插天橫。中有僧伽寺。勢壓長安城。參禪面空壁。
禮佛清磬鳴。我時負笈遊。識汝緇流英。永夜伴書燈。不眠聞舌耕。
常勉玄機靜。不屑軒冕榮。所存雖異道。相從却有情。秉性頗純靜。

同舍稱師兄。恨余塵容濁。羨爾秀骨清。別來未云幾。偶然忝科名。
 縣齋一來屆。跋涉勞遠程。禪門已啓鑰。妙訣到無生。金篦刮迷眼。
 靈臺息戰爭。中間寂不聞。世道劇紛更。重恢萬物新。布鼓亦雷鳴。
 豈料蓮花蹤。來尋細柳營。自言避西戎。暫就湖外平。燈前識舊顏。
 天涯感素誠。經年納旌節。虎鉢棲匡衡。日月今幾何。受袂竄巒荆。
 彈丸匝重溟。掩戶叢棘縈。無異狴狴牢。有若金鐵嬰。親朋俱掉臂。
 誰憐陷深坑。厚祿書斷絕。一札千金輕。跽音亦足喜。況聞咳唾聲。
 師獨過海來。穴隙倒履迎。相看青滿眼。肯論白添莖。陽山水陸窮。
 海深波浪驚。潮洲逢太顛。留衣蓋初傾。矧汝卅載舊。杖屨來雷瓊。
 羈懷賴披霧。夜坐親短檠。語激煙霞興。逸氣凌蓬瀛。羨爾繼祖師。
 愧我忝公卿。棲空心蕩蕩。失路憂惛惛。更處山水窟。鑿石開華楹。
 拏山天外出。老星秋後呈。息息莫告別。使我鄙吝萌。無嫌枕相連。
 何妨月屢盈。安知風霆霽。雷雨遍八紘。碧波亭下路。同舟利涉泓。
 師歸金水洞。我尋鷗鷺盟。兩地非風馬。須訪少微精。

[白江先生集 李敬輿]

2) 제승가골(題僧伽窟) 鄭沆

崎嶇石棧躡雲行。華構隣天若化城。秋露輕霏千里爽。夕陽遙浸一江明。
 漾空嵐細連香穗。啼谷禽閑遞磬聲。可羨高僧心上事。世途名利摠忘情。

[東門選]

제 승가골

힘준한 돌길에 구름을 밟고 올라오니
 화려한 구조가 하늘에 닿아 화성(化城)과 같아라.
 가을 이슬이 보슬보슬 천 리가 상쾌하고
 저녁 해는 멀리 한 강에 잠겼구나.
 공중에 일렁거리는 이내는 향연을 연이었고
 골짜기에 우는 한가한 새는 풍경소리와 섞갈리네.
 부럽구나 도가 높은 저 승의 마음

세상 길 명리를 온통 다 있었거니.

3) 승가사차공어촌시(僧伽寺次孔漁村詩)

佛刹依巖底。天花落講筵。高蹤尋碣石。清聽愛風泉。
一水白連海。三峯青插天。坐來塵想絕。從此欲逃禪。

[容軒集 李原]

승가사에서 공부(孔俯)의 시에 차운하다

사찰이 바위 밑에 기렸는데
천화가 설법 자리에 내렸네.
높은 자취 비석에서 찾아보고
맑게 들리는 샘물 소리 좋구나.
한 줄기 흰 물이 바다로 이어지고
푸르른 삼각산이 하늘로 솟아 있네.
앉아 있으면 속세 생각 끊어지니
이로부터 불교에 귀의하려네.

4) 억경도승가사(憶京都僧伽寺)

僧伽蘭若倚峯嶢。却算曾遊歲月遙。何日更於仙榻畔。一燈清坐度寒宵。

[泰齋集 柳方善]

5) 신열상인재승가사 인경우 내송공축색시 주초환지

(信悅上人在僧伽寺 因敬牛 來送空軸索詩 走草還之)

索吾詩句不須勤。道固難言豈易聞。試問上人何似者。可能持贈隴頭雲。
師向隴頭應自悅。我忘言句默中存。何時面目成相對。共入維摩不二門。
不二門中本寂然。恐無階級可攀緣。請師幸聽無言說。無到無無妙更玄。
妙更玄時妙更玄。聊通一線落言詮。明明百草頭頭是。笑殺龐公不會禪。
僧伽是我讀書處。往來茫然已夢中。何日更登孤塔上。平看世界一時空。

[龍門集 趙昱]

6) 승가사취음(僧伽寺醉吟)

奇峯玉立聳層霄。洛浦眞仙坐可招。鳥沒長空天地闊。雲生上界海山遙。
酌來寒井魂先爽。讀罷荒碑鬢欲凋。有意山靈留好客。青嵐吹作雨蕭蕭。
[柏巖集 金功]

7) 제승가사벽(題僧伽寺壁)

雨後晴煙鎖洞門。客來孤寺欲黃昏。空堂欹枕四山靜。隔竹帝禽潤月痕。
[晚全集 洪可臣]

8) 숙승가사(宿僧伽寺)

作客僧伽已九年。同遊人散事依然。不辭更宿禪窓月。只恐梨花有杜鵑。
[孤潭逸稿 李純仁]

9) 증유승가사(重遊僧伽寺)

重來不覺歲崢嶸。吾輩三人昔此行。塔上古皇餘舊面。岸頭新燕作春聲。
長安車馬地中殷。江漢波濤天外鳴。白酒三盃拂衣去。山僧只道老書生。
嘗與擇中，益之同遊。故及之。
[白沙集 李恒福]

승가사(僧伽寺)에서 거듭 노닐다.
거듭 오니 어느덧 한 해가 저물었는데
우리 무리 삼인이 예전에 이 곳을 왔었네.
탑 위의 고향과는 구면이 남아 있는데
언덕 머리 새 제비는 봄의 소리를 짓누나.
장안의 거마 소리는 땅에서 진동하고
강한의 파도 소리는 하늘 밖에 울리도다.
막걸리 석 잔 마시고 옷소매 떨치고 떠나니
산승은 다만 늙은 서생이라 말하누나

10) 승가사(僧伽寺)

配極尊靈嶽。棲眞闕化城。燈光萬家迴。磬韻上方清。
擾擾區中事。悠悠象外情。松風涼睡思。默坐寸心明。

[澤堂集 李植]

삼각산과 짝하는 존엄한 사찰
선정(禪定) 닦는 도량이 여기 숨어 있네
멀리 아래로는 민가의 일만 등불
하늘 위로는 사찰의 맑은 경쇠 소리
어수선한 세상일 잠깐 접어 두고
물외(物外)의 심경 유유히 젖어 보노매라
시원한 솔바람 잠이 솔솔 오락말락
말없이 앉아 있노라니 밝아 오는 마음 자리

11) 승가사(僧伽寺)

漸覺閑情熟。人間萬事慵。杖藜尋古寺。枕石近幽松。
澗壑藏春鳥。煙霞入暮鍾。只應棲此地。仙釋日相從。

[天坡集 吳翹]

12) 방승가사(訪僧伽寺)

九秋之望陪仲氏兼携晦仲子輝乘月訪僧伽寺一宿而返賦短律以記之
令節重陽後。佳期四子同。峯危懸一徑。寺迴出層空。
萬壑風斯下。諸天月正中。平生遊歷地。誰與此爲雄。

[文谷集 金壽恒]

13) 등가사후봉(登伽寺後峯)

攀峻嫌葛弱。躋險畏石滑。回回數里間。忽作千萬折。步步身漸高。
雙眼轉敞豁。茫茫原野開。鬱鬱崗巒列。亂山朝京國。百川輸溟渤。
落日當海門。天水赤如血。雲霞相送迎。島嶼互明滅。所嗟塵事迫。

無由遲明月。

[西浦集 金萬重]

14) 승가사상월(僧伽寺賞月)

暝雲覆千界。山澤莽青蒼。東峰獨延照。皦皦月出光。神颿送金魄。
忽到天中央。清暉汎水木。夜氣涵殿堂。羣品洞明鏡。萬壑流輕霜。
僧梵何寥亮。遙響振林崗。今我不能寢。起步北斗傍。澄神吸沆瀣。
一灑烟火腸。

[柳下集 洪世泰]

15) 승가사(僧伽寺)

步出彰義門。從我二三子。遙望北漢城。三角儼分峙。金湯壯國都。
信乎山河美。春風吹我衣。談笑行且止。窈窕尋繁花。逶迤逐流水。
披襟洗劒亭。慷慨悲歌起。泉潔復石白。處處多造紙。偷得半日閑。
幽賞殊未已。谷巖互出沒。崎嶇六七里。躋危攀松石。畏墜攬葛藟。
陟彼獅子嶺。如入半空裏。前有萬丈巖。陡起何峩峩。清磬落雲際。
梵宇忽入指。蟠空亘薨棟。耀日流金紫。回磴接危棧。促步輒移晷。
攀梯試登樓。不可俯以視。人工奪天造。無地而有此。斲石輦車牛。
驅民任鞭箠。層臺幾百尺。屹如列千雉。上有長壽殿。縹緲極華侈。
丹碧奪人目。如翬更如矢。四角懸風箏。空中聞宮徵。開門見佛龕。
眩晃迷尺咫。鏤屋簇金珠。築榻堆錦綺。雙懸沉香燈。流蘇交垂紫。
上寫皇帝詩。粧刻騁奇技。玉佛琉璃匣。巧妙誠無比。遊人競來萃。
日日鬧如市。居僧盡豪健。咆哮如有恃。我見駭心目。借問此何以。
有客向余言。顧君不知耳。寺名曰僧伽。小菴舊在是。前年遇邦慶。
中國往有使。維佛與彼燈。蓋乃承皇旨。其俗尚浮屠。錫茲祈福祉。
星輶奉以歸。謂是恩所被。遂焉就斯地。開築乃如彼。用此八路力。
將以垂千禩。我聞驚且嘆。注目頻徙倚。糜財與病民。未有如佛氏。
名山巍相望。終古書諸史。豈意西方像。遠來東海紀。人情艷新異。
奔波共遐邇。飛閣聳觀瞻。男女爭拜跪。碧瓦映雪砌。雲譎復波詭。
蒼生豈不哀。緇徒自相喜。空傳大國寶。永作小華恥。雖微爲此役。

亦足置之矣。况有故佛殿。何必事侈靡。廟謨尚煇燿。無人警丹祀。
微賤戒出位。耿耿徒爲爾。沉吟薄暮歸。山月生衣履。

[無名子集 尹愔]

16) 승가사(僧伽寺)

此寺聞惟夙。諸君會亦良。樹齊平俯杪。星大近攀光。
窟佛無端笑。峯碑萬古蒼。洞簫徐子捻。夜半悠生涼。

[青莊館全書) 李德懋]

승가사

이 절을 들은 지 이미 오래라
제군들의 모임이 역시 훌륭하군
나무가 가지런해 평평히 가지를 내려다보고
별이 커서 가까이 빛을 휘어잡겠네
굴 속의 부처는 무단히 웃는데
봉우리의 비석은 만고에 푸르구나
서자의 통소 소리 듣고 나서
한밤중에 홀연히 서늘해지네

17) 등승가사(登僧伽寺)

[同湛軒，燕嵒，炯庵。登僧伽寺。炯庵先歸。約以歸路會普通亭。而歷北漢遊曹溪。再合觀軒，炯庵宿。紀行之什]

太古以來開北漢。穹林鉅石相雄長。燕嵒先生飛雲履。湛軒夫子青藜杖。
高秋正值長者遊。我不辭家聞卽往。蕩春臺畔水逶迤。僧伽寺末斜陽朗。
樵路參差隱前侶。隔林唯諾空山響。縱橫崩石夾如陞。麗王馳道依稀想。
西南水陸俱分披。快哉始登庵前望。木覓山尖出半眉。可憐城邑人煙漲。
煌煌大星懸東方。木葉飛入潮音唱。郎當鈴護磨崖佛。憔悴楓依秀台像。
逢僧問路且止宿。明日褰衣踰疊嶂。是時朝陽白欲漬。霜深澗谷多悽愴。
浮嵐不重斂勢微。古松相疊瀉痕漾。昌陵店屋隱樹中。此閒一曲猶堪賞。

崎嶇暗門入山城。圓覺峯堯隣扶旺。數里身入樹中行。雨點踈踈葉聲仰。
 到寺雨大不得前。數牛之鳴宿已兩。露積峰頂若倒甕。山映樓圍可載象。
 信是奇偉心所服。水石楓林恣跌宕。東門戍削瞰東郊。地氣初霽天晴曠。
 泓渟蕭瑟不可言。遠雁流哀菊初放。羣山聚似襞積皺。大道橫如匹帛颺。
 曹溪瀑名擅百年。距茲無多遂轉向。不從前入還倒尋。峻坂之下難於上。
 危石蹲蹲被全壑。聞道霖時水頗壯。覽極神疲旋出洞。黑崖過盡纔白壤。
 屨頭栗殼遍步武。禾間草蟲跳尋丈。普通亭子今何如。主人有約曾三訪。
 粉牆周遭水聲深。古槐離立庭陰敞。於焉邂逅若合契。握手非意還恂忼。
 炯庵山人聯騎出。崩頭小奚携新釀。落落離家三四日。忽然圓聚皆無恙。
 洞簫南榮怨秋音。松明北院催夜餉。沈吟却憶前度年。絮話各叙來時狀。
 惟將真率破拘束。大笑呵呵仍抵掌。誰令此夜久不朽。願將文字傳吾黨。
 莫待悠悠事過後。繁華寂寞俱怛悵。我作此詩已隔晨。不如真境終難忘。

[貞鞋閣集 朴齊家]

18) 출한북문심승가사(出漢北門尋僧伽寺)

一逕緣雲上。春山望轉深。時聞何寺磬。獨在數峰陰。
 過雨添新澗。幽花落半林。微茫臨下界。已足淨塵心。

[惕齋集 李書九]

19) 승가사승(僧伽寺僧)

人生刺促去來今。巖壑泠泠自古音。塔雁高飛黃葉下。鐘魚時答白雲深。
 秋風作我逍遙氣。盃酒還他少壯心。爾佛吾儒忘已久。莫將同異證苔岑。

[秋齋集) 趙秀三]

20) 파납행자(破衲行者)

[余少讀書于僧伽寺。一日見一行者。衣懸鶉。持木魚來。拜寺僧。夕齋後。走上碑
 峰頂。終夜叩木魚念佛號。明朝下趁齋供。辭去。住僧有識之者曰。彼首座發願。徧
 踏國中諸寺刹。至則上上上峰。念佛終夜。雖雨雪風寒。無少苦也云]

域內千千萬萬峯。峯峯願着老禪蹤。木魚聲裡朝暉上。始覺深林夜雪封。

[秋齋集) 趙秀三]

21) 역승가사(歷僧伽寺)

百曲巖蹊細不窮。山腰禪閣倚丹楓。龍師北過豐碑屹。玉佛東來寶殿崇。

時自燕京賜玉佛一軀。安于此寺。

萬室椽題寒雨裏。重城睥睨暮煙中。西峰日沒鐘聲起。獨上危樓送遠鴻。

[與猶堂全書 丁若鏞]

승가사를 지나가면서

일백 굽이 바윗길 끝없이 뻗었는데

산허리 절간 하나 단풍에 기대어 있네

용사가 북으로 가자 큰 비석이 우뚝하고

옥불이 동으로 오니 대응보전 드높구나

[이때 연경(燕京)에서 옥불 하나를 내려주어 이 절에 봉안하였다.]

서울 장안 수많은 집 차가운 빗속이라면

겹성의 성가퀴는 저녁 연기 속이로세

서산에 해는 지고 종소리 일어날 제

높은 누각 홀로 올라 떠가는 기력 보낸다

22) 야숙승가사(野宿僧伽寺)

特地崔嵬古殿開。眞身白玉半青苔。千嶂相參雲捲盡。萬松無際月穿來。

磬殘遙夜燈依壁。僧卧高秋葉滿臺。往蹟蒼茫不須問。床頭且進遠公杯。

[存齋集 朴允默]

23) 승가사장수전감구(僧伽寺長壽殿感舊)

玉軀來萬里。金殿出層岑。報果竟何有。宿緣空自深。

雲凝留夕影。花落怨春心。香積年年供。齋僧淚滿襟。

[存齋集 朴允默]

24) 자승가사저문수암산로심험(自僧伽寺抵文殊菴山路甚險)

不有初先難。那能漸入佳。問花躑躅是。尋壑烟嵐皆。
曲曲開新面。行行忘老懷。欲窮江海色。時復倚層崖。

[存齋集 朴允默]

25) 승가사여동리회해봉화상(僧伽寺與東籬會海鵬和尚)

陰洞尋常雨。危峯一朵青。松風吹掃榻。星斗汲歸瓶。
石燈本來面。鳥參無字經。苔趺空剝落。虬篆復誰銘。

[阮堂全集 金正喜]

승가사에서 동리와 함께 해봉화상을 만나다
그늘진 골짜기에는 비가 일쏘는데
한송이 푸르러라 아스란 저 봉
솔바람은 불어서 탑 쓸어주고
별을 길러 병으로 돌아보내네
돌은 본래의 면목 입증한다면
새는 무자법문경(無字法門經)을 참견하누나
진홍왕순수비는 속절없어 박락해가니
규전을 뉘가 다시 새길 건지 원

26) 숙승가사(宿僧伽寺)

清磬落雲端。山窓五月寒。癯僧眉似雪。無語坐蒲團。

[歎齋集 卞鍾運]

27) 승가사(僧伽寺)

松濤絕壑泛天風。危石穿雲一徑通。老釋燈前休說偈。印溪明月萬緣空。

[歎齋集 卞鍾運]

28) 장유승가사(將遊僧伽寺)

偕雲峯，翠田。將遊僧伽寺。出北門。口號三絕。

咿軋便與向北城。秋林繹繹盡寒聲。新楓細菊今如許。應到山中纈眼明。

其二

眼底烟霞杖底山。秋光萬疊碧孱顏。回頭下界知何處。城闕依稀落照間。

其三

纔過平倉細路開。磧流如帶幾縈回。白雲仁壽重重出。驚叫龍拏鬼攫來。

[海翁藁 洪翰周]

29) 승가사(僧伽寺)

重巒無數擁蒼屏。樹木蕭蕭影滿庭。百劫猶存知佛力。一塵不到證山靈。
寒鍾夜入松聲迥。斷壁秋生石氣青。莫向空門談往事。古來桑宿幾人經。

[海翁藁 洪翰周]

30) 승가사춘일음수(僧伽寺春日飲水)

丹泉瀉出白雲間。四十年中再往還。名業無成筋力盡。一瓢靈液丐仙山。

[古歡堂收艸 姜瑋]

31) 제승가사(題僧伽寺)

十日僧伽寺。清泉洗俗腸。巖成千佛相。燈放一星光。
孤月照空界。歸雲擁上方。俯看塵似海。底事竭來忙。

[陽園遺集 申箕善]

32) 승가사별증대가학장(僧伽寺別贈待可學長) 乙亥

故人信宿歸。落日千峯夕。悵望立空門。烟雲勞遠目

[慕堂集 洪履祥]

33) 승가사차공언운(僧伽寺次功彦韻) 乙亥

邂逅山門會。開襟笑語清。詞垣驚峽倒。談屑劇風生。
北望連雲海。南臨壯帝城。何如塵世役。終日事榮名。

附 原韻

淨界憐孤絕。逍遙僧磬清。遙岑殘日赤。高樹晚風生。
殿有羅時佛。山連帝里城。還應留勝迹。青壁一題名。

[慕堂集 洪履祥]

34) 승가사차대가도중유음운(僧伽寺次待可道中有吟韻) 乙亥

誰劖瓊瑤插翠巒。朝朝新色異容顏。逢君盡日禪窓話。占得天遊境界閑。

[慕堂集 洪履祥]

35) 승가사차견길유회사영운(僧伽寺次見吉有懷四詠韻) 乙亥

踈夢初迴古殿邃。獨抱寒衾倦不起。西峯落月正微茫。遙憶故人雲山裏。

窓間啼鳥亦何情。聲聲喚出愁人思。右曉

春花亂發春山裏。此時憶君情何似。天邊征鴈無迴翮。欲寄音信更誰倚。

還憑小枕成午夢。片時歸魂空萬里。右晝

古寺鐘殘生夕霧。落日曖曖山色暮。相思美人在何處。萬水千山不可度。

黃昏獨立無人見。歸雲漠漠山前路。右夕

懸燈古塔僧初散。斜倚寒窓到夜半。多情新月上雲衢。分照兩地相思恨。

佳期迢遞心如結。謾教離腸九迴斷。右夜

[慕堂集 洪履祥]

36) 증승가사석(贈僧伽寺釋)

爾知我是誰。携紙乞題詩。覓句聽流水。雲閒春日遲。

[晚洲遺集 洪錫箕]

37) 제승가사(題僧伽寺)

北出都門信馬行。清溪曲折路紆縈。閒雲繞石還多態。恠鳥驚人或一聲。

入洞始知蕭寺近。隔松先喜老僧迎。茲遊便是神僊事。誰遣青童弄玉笙。

[晚洲遺集 洪錫箕]

38) 승가사증별족질중헌(僧伽寺贈別族姪仲獻)

一旬禪榻共淹留。携上層峯辦勝遊。此日沙門相送後。滿山松雪獨憑樓。

[琴湖遺稿 李志傑]

39) 승가사(僧伽寺)

寺在群峰上。開窓見海流。超然萬丈外。身與白雲遊。

[雪蕉遺稿 崔承太]

40) 향승가사(向僧伽寺)

圓覺寺中浩浩歌。廿年浮世二番過。前尋杳杳北城路。右挾茫茫西海波。
看去一山佳處盡。平分三日醉時多。僧伽古刹行將近。奈乏罇醪解渴何。

[愚園集 林聲遠]

41) 승가사(僧伽寺)

荒碑何歲月。小刹自前朝。古窟靈泉滴。寒天落木饒。
樓懸華岳翠。門擁漢江潮。送我殘僧在。殷勤度石橋。

[愚園集 林聲遠]

42) 승가사(僧伽寺)

喜拂街頭十丈塵。招提一逕度嶙峋。吟邊落筆詩頻就。坐處傳盃酒幾巡。
吾與枯筇行緩緩。雲隨流水去粼粼。華山誰謂崎嶇地。到寺還憐頭白人。

[愚園集 林聲遠]

43) 숙승가사(宿僧伽寺)

迢遞禪房在上頭。芒鞋竹杖趁清秋。詩尊袞袞今宵興。松桂依依昔日遊。
萬壑泉聲喧短○。千峯月色照高樓。偏憐一榻烟霞夢。消盡人間百斛愁。

[愚園集 林聲遠]

44) 여리도춘제익방승가사(與李道春諸益訪僧伽寺)

聯翩我行色。如鳥舉同羣。初擬南湖月。還隨北寺雲。
紅憐岩樹合。清惜澗流分。漸得山間趣。已忘塵世紛。

[東溪遺稿 崔潤昌]

45) 승가사장수전(僧伽寺長壽殿)

青山斗削殿崢嶸。石作雲梯十二層。萬里東來青玉佛。千金北買繡香燈。
祇今福地偏多寺。終古詩家愛說僧。樓閣捲簾霄漢上。坐看江海日初昇。

[三溟詩集 姜浚欽]

46) 승가도중유금시공언군서(僧伽道中有吟示功彦君瑞)

四顧高低餽列巒 虬松老石畫圖顏 突雲尋向僧伽路 剩得三休一味閑
待可(徐起) [僧伽酬唱錄 許箴 等]

47) 한북상추오식승가사(漢北賞秋午憩僧伽寺)

緩步到圓覺 松間日影疎 行行何所看 白衲青山廬

[萍湖遺稿 申命顯]

48) 승가사(僧伽寺)

山外長江遠 色青空門深 處醉還醒風 光仍與居僧

[萍湖遺稿 申命顯]

4.3 산 문(散文)

1) 승가사석상(僧伽寺石像)

三角山僧伽寺石窟。有石像。顏如老嫗。蒙頭之物。恰如儒家幅巾。背有石障。若蓮花。後刻太平四年甲子。案高麗史顯宗十五年甲子。行契丹年號。卽聖宗隆緒太平四年。而宋仁宗天聖二年也。距今庚子十三甲子。摠八百十七

年。輿地勝覽。此爲秀台道人像。

승가사의 석상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 석굴(石窟)에 석상(石像)이 있는데, 얼굴이 늙은 할머니 같고 머리에 쓴 물건은 유가(儒家)의 폭건(幅巾)과 흡사하며 등 뒤에 연꽃과 같은 석장(石障)이 있는데 그 뒤에 '태평(太平) 4년(고려 현종 15, 1024) 갑자' 라 새겨져 있다.

상고하건대, 고려 현종15(1024)년에 거란(契丹)의 연호를 썼었으니 곧 요 성종(遼聖宗) 융서(隆緒 성종의 이름)의 태평 4년이며, 송 인종(宋仁宗)의 천성(天聖) 2년이다.

지금의 정조4(1780)년까지 갑자로 따져보면 13번의 갑자년이 들어 있어 모두 8백 17년이 되었다. 여지승람(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이 석상(石像)은 수태도인(秀台道人)의 상(像)이라고 하였다.

2) 승가사방비기(僧伽寺訪碑記)

北漢之南。有僧伽寺。其上峰曰碑峰。自京師雲從街迤北。見峰巔一柱兀然如人立。俗傳麗僧道說碑。今沒字云。歲丙子秋。秋史金元春語余曰。吾上碑峰。碑有殘字。實新羅眞興王碑也。余聞之狂喜。約與之共尋。越明年六月八日。始踐之。工執墨拓具以從。由僧伽寺後麓。轉石磴數百武。得壁刻佛像甚偉。夾像而右。循嶺脊攀厓腹登焉。東自龍門諸山。南西至于海。可一舉目盡也。遂令工搨之。細加審定。除全缺不可強解。餘點畫可辨確然無疑者。凡九十有二字。如眞興王三字。巡狩二字。南川二字。皆實事可證。而與史文經緯者也。按三國史。眞興王十六年。王巡幸北漢山州。拓定封疆。二十九年。廢北漢山州。置南川州。碑蓋紀其蹟也。碑文有眞興二字。而據智證王本紀。新羅諡法始此。智證之後。歷法興至眞興。則眞興時。不應預稱其諡。似眞興後所立。據眞平王二十六年。廢南川州。還置北漢山州。而碑文有南川二字。則又似南川廢州之前也。眞興王元年。在梁武帝大同六年。眞平王元年。在陳宣帝大建十一年。則要之梁陳間刻者。又按咸興府之草芳嶺。有眞興王北巡碑。今佚。但拓本在耳。字體似楷似隸。極古雅。與此碑。若出一手。意同時所刻

也。歷數羅麗碑目。洵爲上乘。然輿地勝覽北漢誌諸書。並闕之。何哉。乃鐫名於碑之左側。以識月日。始秋史尋碑時。東籬金時顯偕之。

[雲石遺稿 趙寅永]

3) 승가사중건기(僧伽寺重建記) 癸卯

漢北之山。爲寺刹者以數十數。而求其清絕夔爽可以卓高僧之錫。想諸天之樂者。無如僧伽寺。彼興天，奉國，白蓮，花溪。非不傑然偉矣。然車馬日填於門。笙歌長聒於耳。是不過爲都人之亭榭樓觀而已。謂之空門山房則殊未也。至若道洗，文殊諸菴。固有蕭灑出塵之趣。然或寄在山背。或孤露絕頂。無以攬形勝而成洞天也。惟是寺據高峰之下。專一壑之勢。千巖爭秀而呈奇。萬山環揖而齊拱。瞰都市如庭除。挹江湖如衣帶。一望開豁。無有邊際。而懸崖陡峻。鳥道崎嶇。俗蹤之所未易到也。故寺雖小而足爲帝城之鎮刹。洵三角靈氣之萃。四土圓融之境也。寺未詳建自何代。然舊有新羅眞興王北巡碑。倘其劫於濟羅之際耶。或云羅末麗初。有法師開基于此。亦未可知也。千餘年間。沿革興替。茫無可稽。而邇來許久荒廢。佛龕不蔽風雨。衲徒靡所依庇。騷人過客亦無不咨嗟而歎歎。我皇上化被八埏。澤溥衆生。念國都之不可無鎮刹也。爰撥帑金。重建是寺。命莊園課長朴昌善董其役。開工於光武六年仲夏。以定中之月告訖焉。余宿抱貞疴。久厭闐闐之苦。一日襍被訪寺。隨喜上方。傍巖翼然。丹碧輝映者。極樂殿。靈山殿也。梵偈相聞。磬鉢交錯者。方丈室香積廚也。妥神有堂。迎客有寮。而夜有一點燈光長明於絕崖者。巖面雕釋迦之像也。閣奉藥師。亭靠巨石。豁舒成窟。點滴盈坎。酌而飲之。如醍醐之灌頂。引而導之。如長虹之架空。餘流奔駛。晝夜汨瀾於枕邊者。滿山精髓。化出一道清泉也。徜徉屢日。樂而忘返。上人醒菴楠夏永夏等語余曰寺之成有年矣。而未有記之者。敢煩于公。余曰然。是不可以無記也。重新法界。護持名山。乃無上功德也。有德必酬。凡民猶然。况禪家之慈悲乎。冥祐陰鶩。迹在杳漠。不可得以窺也。有一事可以效塵刹之報者。演因果之說。指眞妄之界。使滔滔凡愚。言下開悟。興起善念。消息惡緣。則未必不爲淑人心導世路之一助也。此則上人事也。然非漸修精進。證庭前之栢。吸西江之水者。難以語此。

尔尚勉之。若余之偷閒逃空。飲泉石而醉雲霞。翛然忘乎塵慮而脫然祛其沈疴者。皆皇恩也佛力也。並不可以無記。詎敢以不文辭。[陽園遺集 申箕善]

4)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正宗九年乙巳八月小十三日庚寅，暘。是日，與張營將趙慶興令監及成汝晦·白翼鎭·諸友，出彰義門。登僧伽寺，寺本古有，而向者冊封勅使出來時，持金佛來獻，命下軍門，自摠戎廳作三間佛殿，三間門樓，八間僧舍，三間佛尊室，丹腹照曜，眼窮東南，俯瞰松坡江北，岳在眼下，登臨可謂神爽精快矣，遊玩而向夕下山，乘月歸旅。

5) 승가사(僧伽寺)의 비석에 대한 고찰

북한산(北漢山) 남쪽에 승가사가 있다. 그 위가 비봉(碑峯)인데, 기둥 하나가 사람처럼 우뚝 서 있다. 시속에서는 고려 승 도선(道詵)의 비인데 지금은 글자가 없어졌다고 전한다.

순조16(1816)년에 운석(雲石) 조인영(趙寅永)이 추사(秋史)와 함께 답사하여 비석에 남아 있는 글자를 찾아보니 진흥왕비(眞興王碑)였다.

그래서 마침내 공인(工人)에게 탐본하게 하여 자세히 글자를 살펴보니, 완전히 닳아 없어져 억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자획이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글자가 모두 92자였다.

‘진흥왕’이라는 세 자, ‘순수(巡狩)’라는 두 자, ‘남천(南川)’이라는 두 자 같은 것은 모두 실제 사실로 증명되며 사서(史書)의 내용으로 고증을 해 본 것이다.

상고하건대,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진흥왕16(555)년에 왕이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순행하여 봉강(封疆)을 넓혀 정하였고, 29(568)년에 북한산주를 폐하고 남천주(南川州)를 두었다고 하였다.

이 비는 바로 그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비문에 ‘진흥’이라는 두 자가 있는데, 지증왕본기(智證王本紀)에 근거하면 신라의 시법(諡法)이 이때부터 시작되었고, 지증왕 뒤로 법흥왕(法興王)을 거쳐 진흥왕에 이르렀다.

진흥왕 때 미리 시호를 일컫지 않았을 것이므로 진흥왕 사후에 세운 듯하다. 진평왕26(604)년 기록에 의거하면 이때 남천주를 폐하고 다시 북한산주를 두었는데, 비문에 ‘남천’이라는 두 자가 있으니 또한 남천주를 폐하기 전인 듯하다.

진흥왕1(540)년은 양 무제(梁武帝) 대동(大同) 6년이고, 진평왕1(579)년은 진 선제(陳宣帝) 태건(太建) 11년이니, 따져 보면 양(梁)·진(陳) 사이에 새긴 것이다. 또 상고하건대, 함흥부(咸興府)의 초방령(草芳嶺)에 진흥왕 북순비(北巡碑)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탑본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林下筆記 李裕元]

6) 족질(族姪) 복초(復初) 광석(光錫)에게

[前略]

비록 조그마한 편지 한 장이지만 필법(筆法)의 신기한 것이 마치 태고적에 눈[雪] 위의 새 발자국 모양을 보고 글자를 창제(創制)한 사목 창힐(四目蒼頡 창힐이 눈에 동자가 들썩이었다는 데서 붙은 별명)의 필법과 같구려.

자자 희희이 우리 심계선생의 마음 가운데 영롱(玲瓏)한 구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성기(聲氣)가 쏟아져나와 녹침관(綠沈管 붓의 별칭) 속에 가득 스며들어 그대로 방울방울 떨어져서 필묵(筆墨)과 조화된 것이 마치 앵무(鸚鵡)의 사리덩이[舍利顆]와 같으니, 턱 아래 수염 많이 난 용모와 가을물처럼 맑은 두 눈동자의 그대를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신령한 성품을 충분히 알겠네.

봄은 저물어가는데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마치 장공(長空)에 나는 기러기와 같구려. 그러나 동지(同志) 5~6인과 함께 삼각산(三角山) 서쪽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닐 일이 있었네.

절 북쪽에 동굴(洞窟)이 있고 그 가운데는 가부좌(跏趺坐)를 하고 있는 부처가 하나 있는데, 파괴하여 광대뼈가 툭 튀어나온 데다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마치 노파(老婆)의 모양 같더군.

그 뒤쪽 석벽(石壁)에는 큰 연꽃이 새겨져 있으나 다 떨어져나가고 겨우 글자나 알아볼 수 있었네. 거기에 ‘태평 사년 갑자(太平四年甲子)’라고 써어 있었는데, 이는 아마 고려 현종(顯宗) 때인 거란의 성종(聖宗) 태평(太平) 4년으로, 금년(을유)까지를 계산해보면 8백 2년이 되네.

서쪽에 위치한 하늘에 닿을 듯한 암벽에 묵은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다 도선(道詵)이 부참(符讖 미래기(未來記) 즉 예언(豫言)과 같다)을 새기기를 ‘요승 무학(無學)이 잘못 용을 찾으러 이곳에 올 것이다.’ 하였기에 나는 놀라 마음속으로, 두 날개를 우리 심계의 겨드랑에 꽂아 주어 한 번 동북(東北)으로 날아와서 손뼉을 치고 미친 듯이 떠들며 이 고물(古物)을 완상(玩賞)하도록 할 수 없을까 하였네.

나는 요즘 지어이이(之於而以)의 글을 익혀 28일의 국광(國光)을 보려 하지만, 심계가 너무 고상하여 내게 즐겨 와서 공부하는 자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생민동(生民洞)에 급히 글을 보내어 오골(傲骨 심계(心溪)를 가리킨 말이다)을 실어오려 하네. [後略]

[靑莊館全書 李德懋]

2.3 금석문(金石文)

1) 삼각산중수승가굴기(三角山重修僧伽崛記) /李預

盖聞恒星匿彩 彰異兆於大虛 滿月端容 耀休光於賢劫 力摧魔外之衆 獨作天人之師 暨甦身之旣灰 憫世眼之將滅 故金人之體飛漢夢以告來 貝葉之詮傳竺乾而重譯 憑茲衆正 導彼群生 若聞雷而解聾 如執熱以得濯 繇是列刹相峙 丕冒幅員之區 神僧間生 漸弘調御之法 至如康會踐吳王之殿 道安登晋帝之車 石趙圖澄 姚秦羅什 則僧稠上杰 梁朝乃寶誌明公 皆化跡多奇 亦聲名甚偉 然而生前沒後 濟品物以無殊 此土他方 罄歸依而不異者 卽李唐僧伽大師獨步矣 大師俗姓何氏 西域何國人也 年三十 振錫東遊 唐國時龍朔初 隸名於楚州龍興寺 後於泗州臨淮縣信義坊 乞地施標 將立伽藍於其標下 握得故香積寺銘記 并金像一軀 上有普照王佛字 遂立寺焉 景龍二年 中宗皇帝遣使迎師入內道場

尊爲國師 帝及百官 執弟子之禮 以師事焉 尋出居薦福寺 常獨處一室 而頂上有穴 恒以絮窒之 夜則去絮 香從頂穴中出 煙氣滿房 非常芬馥 及曉香還頂中 又以絮窒之 師常濯足 人取其水飲之 痼疾皆愈 中宗一日於內殿 語師曰京畿無雨 已是數月 願師慈悲 解朕憂迫 師乃將瓶水汎洒 俄傾陰雲聚起 甘雨大降 中宗大喜 詔賜所修寺額 以臨淮寺爲名 師請以普照王寺爲名 盖欲依金像上字也 景龍四年三月二日 於長安薦福寺 端坐而化 神色如生 享年八十有三 在西土三十年 入中國五十二載 中宗卽令於薦福寺起塔 漆身供養 我而大風歛起 臭氣徧滿於長安 中宗問曰 是何祥也 近臣奏曰 僧伽大師化緣在臨淮 恐是欲歸彼處 故現此變也 中宗默然心許 其臭頓息 頃刻之間 奇香徧洽 卽以其年五月 送至臨淮 起塔供養 卽今塔是也 中宗別勅度弟子慧岸慧儼木义三人 各賜衣鉢 令嗣香火 後問萬回師曰 僧伽大師何人也 萬回曰是觀音化身也 如法華經云 應以比丘身得度者 卽皆現之而爲說法 此則是也 大宋有朝散大夫蔣之奇 秘書著作郎柳紳 天壽寺大師贊寧 各撰大師傳 中條山居士辛崇所集大師行狀 三十六條 盖有靈異 竝印行於世 故此不錄焉 案崔公致遠文集 昔有新羅代狼迹寺僧秀台 飢聆大師之聖跡 尋選勝于三角山之南面 開巖作窟 刻石模形 大師道容 益照東土 國家如有乾坤之變 水旱之災 凡所可疑之事 禱以禳之 無不立應 故遣使春秋設齋各三日 歲杪兼獻襯衣 用爲恒例 孰云乎去聖愈遠 咸嘆乎旣明且慈 至如無兒婦 稽顙而祈 卽生良胤 失馬翁淪誠以白 還得舊驂 告病苟哀 蟻榻之鬪聲忽息 求官儻切 鷺庭之滯迹俄翔 或乞鹽而海客炙來 或請帽而京姬製獻 其餘神驗 不可殫論 故我太祖開國之後 歷代之君 皆親瞻禮焉 彼唐有九帝駕幸清涼山 歸仰文殊菩薩 卽可以同日而語矣 大安六年 宣王駕幸詣窟 修齋施納寶物 以致敬焉 重瞳俯回 十里周覽 梁紋壁繪 凝野馬以頗昏 瓦縫簷牙 被 缺 邪而半壞 特命龜山寺住持禪師領賢 權住神穴寺 專掌重修之務 賢公擇工也 得般爾之巧手 度木也取豫章之良材 俾執風斤 勉施日力 奉晷容而不動 粧聖窟以增華 鹿苑可期 鷲峯無遠 仍命臣撰重修記而未奏 暨壽昌五年秋 我主上命有司 備車駕與王妃太子及祐世僧統併兩府群僚 千從萬騎 雲委霧合 匝地盈山 行幸到窟設齋 仍獻白銀香椀手爐各一事 金剛子水精念珠各一貫 純金束帶一腰 併金花果繡幡茶香衣對錦綺等 用伸歸敬之禮 仍遣禪師領賢

摠監營作之事 以畢其功焉 賢師是新羅代窟主禪師如哲所創神穴寺先祖王師子
膺之法胤也 美矣崇眞之朝 營茲植福之田 足使聖日長明 仁風永覆者也 銖衣
盡石 慈悲之室猶存 碧海飛塵 功德之林尚茂 上謂曰菩薩神通之化 招提修葺
之由 宜刻貞珉 匱流後世 爰徵不敏之伎 俾演無疆之休 臣譽乏渾金 科叨片玉
逢時積幸 濫膺文苑之備員 避命無階 輒讚梵宮之能事

時乾統六年丙戌歲十月日 謹記

[東文選 권64]

삼각산중수승가굴기 [전액(篆額)]

대개 들으니 항성(恒星)의 빛을 숨겨서 허공에 이상한 징조를 드러내고
보름달의 단아한 모습이 아름다운 광채를 현겁(賢劫)에 드러낼 때에 (부
처님께서서는) 힘써 마귀와 외도의 무리를 물리치고 홀로 하늘과 인간의 스
승이 되셨다.

인간으로의 몸이 이미 재로 변하니 세상의 밝은 눈이 사라지게 됨을 안
타까이 여겨 금인(金人)의 몸으로 한나라 황제의 꿈으로 날아와 (불교가
중국으로) 음을 고하였고, 패엽(貝葉)의 가르침을 인도에서 전하여 거듭
번역되었다. 이 많은 올바른 가르침에 의거하여 저 많은 중생들을 인도하
니 마치 우레 소리를 듣고 막힌 귀가 열리고 뜨거운 물건을 집음에 물수
건을 얻은 것과 같았다.

이로부터 여러 사찰이 서로 솟아서 세상에 가득 하였으며, 훌륭한 승려
들이 때때로 태어나 수행하는 방법을 점차 넓혀갔다. 강승회(康僧會)는
오(吳)나라 왕의 궁전에 들어갔고 도안(道安)은 진(晉)나라 황제의 수레에
올랐으며, 석조(石趙)의 불도징(佛圖澄)과 요진(姚秦)의 구마라집(鳩摩羅
什)은 승려들 중의 뛰어난 인재였다.

양(梁)나라 때의 보지(寶誌)와 명공(明公)은 모두 감화의 자취가 매우
기이하며 명성이 또한 대단히 위대하였다. 하지만 태어나기 전과 죽은 이
후에 중생들을 제도함에 다름이 없고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모두 다 귀
의하여 다름이 없는 사람은 곧 이연(李淵)이 세운 당(唐)나라 때의 승가
대사(僧伽大師)가 홀로 있을 뿐이다.

대사의 속성은 하(何)씨이고 서역의 어느 나라 사람이다. 나이 30세에

지팡이를 휘둘러 동쪽으로 오셨으니 당나라 고종(高宗, 재위 661~663년) 초기였다.

초주(楚州) 용흥사(龍興寺)에 이름을 걸어 두었다가 후에는 사주(泗州) 임회현(臨淮縣) 신의방(信義坊)에서 토지를 얻어 표지를 세우고 장차 그 표지 아래에 사찰을 세우려 하였다.

땅을 파다가 옛 향적사(香積寺)라고 새겨진 기록과 함께 ‘보조왕불(普照王佛)’이라는 글자가 있는 금불상 한 구(軀)를 얻고서 드디어 절을 세웠다. 당나라 중종2(708)년에 중종(中宗) 황제께서 사신을 보내어 스님을 내도량(內道場)으로 맞이하고서 국사로 존경함에 황제와 백관들이 제자의 예를 취하여 스승으로 섬기었다.

얼마 후 궁궐을 나와 천복사(薦福寺)에 머무르셨는데, 늘 홀로 한 방에 계셨다. (대사의) 정수리 위에는 구멍이 있어 늘 숨으로 막아 두었는데, 밤에 숨을 빼면 향기가 정수리의 구멍으로부터 나와 기운이 방에 가득하였다.

보통의 향기가 아니었다. 새벽이 되면 향기가 다시 정수리로 돌아갔고 다시 숨으로 막았다. 스님이 평소에 발을 씻으면 사람들이 그 물을 가져다 마시고 병이 모두 나았다.

중종황제께서 하루는 내전에서 스님에게 “경기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은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원컨대 스님께서서는 자비심으로 짐의 근심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심에 스님이 곧 병의 물을 뿌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생겨나 단비가 크게 내렸다.

중종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스님이) 지어 놓은 절에 이름을 내려 ‘임회사(臨淮寺)’ 라고 하였는데 스님은 ‘보조왕사(普照王寺)’ 를 이름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니 이는 금불상 위에 있는 글자에 의하려고 한 것이었다.

경룡4(710)년 3월 2일에 장안(長安)의 천복사에서 단정하게 앉아 돌아가시니 얼굴 빛은 살아계실 때와 같았다. 향년은 83세로 서역에 계신 것이 30년, 중국에 들어오신 후로 52년이었다.

중종황제께서 곧 천복사에 탑을 세우고 시신에 옷칠을 하여 공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얼마 후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 냄새가 장안에 가득하였다.

중종황제께서 “이것이 무슨 징조인가” 라고 물으니 근신이 아뢰기를 “승가대사는 교화의 인연이 임회에 있으므로 아마도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여서 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고 아뢰었습니다.

중종황제께서 잠자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자 그 냄새가 곧바로 없어지고, 잠깐 동안에 기이한 향기가 두루 퍼졌다. 곧바로 그해 5월에 임회현으로 보내어 탑을 세우고 공양하였으니 지금의 탑이 그것이다.

중종황제께서는 별도로 칙령을 내려 제자인 혜안(慧岸)과 혜엄(慧嚴), 목차(木叉) 등 3인을 정식으로 출가시키고 각기 승복과 발우를 하사하며 스님의 제사를 잇도록 하였다.

훗날 만회(萬回) 스님에게 “승가대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묻자, 만회 스님은 “관음보살의 화신이십니다. 법화경(法華經)에 이르기를 ‘마땅히 비구의 몸으로 구제해야 할 사람은 곧 그렇게 나타나서 설법한다’ 고 하였는데 이 (승가대사의)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송나라 때 조산대부(朝散大夫) 장지기(蔣之奇)와 비서저작랑(秘書著作郎) 유신(柳紳), 천수사(天壽寺) 대사 찬녕(贊寧) 등이 각기 스님의 전기를 지었고, 중조산(中條山) 거사 신숭(辛崇)이 모은 대사의 행장 36조에는 모두 신령하고 기이한 일들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인쇄되어 세상에 전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다.

최치원(崔致遠) 공의 문집을 살펴보니 옛날 신라 때에 낭적사(狼迹寺)의 승려 수태(秀台)가 대사의 신성한 행적을 듣고서 삼각산 남쪽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골라 바위를 뚫어 굴을 만들고 돌로 (대사의) 형상을 조각하니 대사의 훌륭한 모습이 동토(東土 : 우리나라)를 더욱 비추게 되었다.

나라에 천재지변이나 홍수와 가뭄의 재이가 있거나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여 물리칠 것을 빌면 그 자리에서 응험이 없었던 적이 없

었다. 그러므로 사신을 보내어 봄과 가을에 제사를 각기 3일간 드리고 연말에 아울러 임금님의 옷을 바치는 것으로서 항상적인 규칙으로 삼았다.

누가 옛 성인이 더욱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두 밝고 또한 자비롭다고 감탄한다. 심지어 아이가 없는 부인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면 곧바로 훌륭한 아들을 낳고, 말을 잃어버린 노인이 정성을 다하여 아뢰면 곧바로 옛 말을 찾으며, 병든 사람이 간절히 고하면 병상에서 신음하던 소리가 곧 멈추고, 관직을 구하는 소리가 간절하면 조정에 막혔던 자리가 곧바로 열리었다.

혹은 소금을 구하면 바다 상인이 소금을 구워 가져오고, 때로 모자를 청하면 서울의 여자가 만들어 바치었다. 그 밖의 신기한 영험들은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여신 이후 역대의 임금님들이 모두 직접 찾아와 예를 드렸으니 저 당나라에서 아홉 황제께서 청량산에 행차하여 문수보살에게 귀의하며 경의를 표한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선종7(1090)년에 선종께서 이 굴에 행차하시어 재(齋)를 지내고 보물을 시납하여 경의를 표하시었다. 두 눈동자[重瞳 : 순(舜) 임금의 눈에 눈동자가 둘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여, 국왕의 눈을 가리킴]를 돌리어 10리를 두루 살펴보시니 들보의 무늬와 벽의 그림은 먼지가 쌓여 흐릿하게 되었고 기와의 이음새와 처마의 추녀는 비바람에 반쯤 무너져 있었다.

이에 특별히 귀산사(龜山寺) 주지인 선사 영현(頌賢)을 시켜 임시로 신혈사(神穴寺)에 머물며 중수의 임무를 책임지고 맡게 하였다. 영현은 장인을 골라 반이(般爾)와 같은 재주 있는 사람을 얻고, 나무를 살펴 예장(豫章)과 같은 좋은 목재를 취한 후, 연장을 쥐고 매일 힘써 일하게 하였다.

(대사의) 모습을 받들어 본래와 같이 하고 신성한 굴은 잘 꾸미어 화려함을 더하니 녹야원[鹿園 : 석가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 설법한 곳]에 곧 이루어 질 것이고 영취산(鷹峰 : 석가가 생전에 머물며 설법을 하신

곳)이 멀지 않았다.

이어서 신(臣)에게 중수기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었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고려 숙종4(1099)년 가을에 우리 임금께서 담당 관청에 명하여 수레를 갖추어 왕비와 태자, 우세승통(祐世僧統 :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을 가리킴) 그리고 양부(兩府 :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중추원(中樞院))의 여러 신하들과 함께 천여 명의 종자와 만 필의 말을 이끌고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며 땅과 산을 가득히 매우며 행차하였다.

굴에 이르러 재를 지내고 백은 향완(香椀)과 손 향로 각 1개씩과 금강석과 수정으로 만든 염주 각 1벌, 순금 옷띠 하나, 그리고 금으로 만든 꽃과 과일, 수놓은 번(幡), 차(茶), 향, 옷, 비단 등을 바쳐 귀의하고 공경하는 예를 베풀었다. 그리고 영현선사를 시켜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치었다.

영현선사는 신라 때 이 굴의 주지였던 여철(如哲) 선사가 창건한 신혈사 조사이었던 왕사(王師) 자응(子膺)의 법제자이다. 아름답도다! 진리를 숭상하는 조정에서 이 복을 심는 밭을 만들었으니 성스러운 해가 길게 비추고 인자한 바람이 영원히 감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벼운 옷이 돌로 되어도 자비의 방은 여전히 남을 것이요 푸른 바다가 먼지 되어 날릴지라도 공덕의 수풀은 여전히 무성할 것이다. 임금님께서 “보살의 신통스런 교화와 사찰을 중수한 사유를 마땅히 좋은 돌에 새겨 후세에 전하여야 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고 (나와 같은) 보잘 것 없는 재주의 사람을 뽑아서 끝없는 아름다움을 적게 하시니, 신(臣)은 좋은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였고 아름다운 문장을 짓지도 못하지만 다행히 좋은 시대를 만나 외람되이 문장을 맡는 관료에 참여하였으니, 명령을 피할 수 없어 곧바로 사찰의 훌륭한 일을 칭송하는 바이다.

고려 예종1(1106)년 10월 일에 삼가 쓰다.

2) 승가사석조승가대사상(僧伽寺石造僧伽大師像)

太平四年甲子歲秋月 莫開 棟梁釋替光 副棟梁釋成彦

磨琢者釋光儒 釋慧^釋 鐵^鐵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1984)]

고려 현종15(1024)년 수추월(數秋月) 명개(冥開) 동량(棟梁)은 석(釋) 찬광(替光), 부동량(副棟梁)은 석(釋) 성언(成彦) 돌을 다듬은 사람은 석(釋) 광유(光儒), 석(釋) 혜(慧) 철장(鐵匠)은 구(丘)

4.4 신 문(新聞)

1) 매일신보(每日申報)

○1913년 07월 22일

[北漢山 地誌抄畧] 僧伽寺 碑峰東方에 在하며, 飲聆大師의 聖跡이니 岩을 彫야 大師의 像을 刻하였스며, 國家變災와 水旱의 災를 穰하는 時는 祈禱야 應驗이 有하였더라.

○1914년 07월 19일

[趙子 僧伽避暑] 趙重應子는 彰義門外 僧伽寺에서 數日 避暑하다가 去十七日 午後九時頃 入城하였는대 該寺留連하는 時에 弘濟院巡查派出所에서 巡查補 一名이 來到 保護하였다더라.

○1915년 11월 26일

[現代詩壇]

僧伽寺吟/松居 姜大蓮

石轟○溪谷逕深 忽聞午磬入雲林 山無俗態迎無佛 側目看看不厭心

僧伽寺口占次姜和尚韻/無佛陳人

朝靄單溪境更深 奇岩護復古禪材 万綴消盡山門寂 始覺閑雲出○心

○1924년 10월 26일

느린 가을을 마지면서(2), 白雲臺 가는 길, 僧伽寺의 閑寂

명실이 불부하난 약물풍경 암의 불상이 장관

슈양단녀지동모하나와 갓치

느는 반가히 마쳤다 다시 발을 움겨 北漢山城의 經路인 僧伽寺를 向하

게 되었다. 지나는 길가에 술집을 만났다. 日常 술 잘자시기로는 一等을 차지할 桂先生은 그곳을 지나면 술집을 엿어볼 수 업다고 들어스든마다 한잔을 해내시는 모양이다.

그곳에서 다시 內修團 의 女子동모 하나를 더- 加하여서 올너가게 되었다. 그때에 내마음은 좇치 목하였다. 스나희들 틈에 女子가 석기여서 조금 가다가 쥬저안저서 못가겟다면 엿저나 하여서! 그러나 가겟다는데야 엿저랴!

길 左右에는 아침일즉이브터 朝鮮조희 만드는 곳이 적지안케 만히 볼 수가 잇섯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가 小學校 다닐 때에 理科先生님을 따라서 見學하기 爲하여 이곳에 한번 왔든 것이 련상되다. 언으듯 僧伽寺를 向하여 올너가는 좁다란 山谷에 이르렀다. 山谷의 兩側에는 앓가브터 목구녕에서 재축을 하든 배나무가 만타. 앓가는 그대로 지났거니와 이제 는 더- 참을 슈 업다.

一行은 큰 배나무 하나를 골에스은후서 실컨 먹으려고 主人을 차젓다. 그러나 主人이 나와서 따주기까지의 여유를 기다랄 틈도 업시 나직이 매 여달린 배를 따서 맛보기 시작하였다. 떠는 배가 업스니까 팔 수 업다는 것이 主人의 對答이였다. 그러나 한 스람이 두셋식은 밧서 맛본 뒤이다.

그래서 구구하게 사자고 애쓸 필요도 업섯다. 그곳에서 다시 밧을 움겨 골작이 험한 길로 한반쯤 올라왓슬 때이다. 아! 반가워라. 扶桑紅日이 山峯오리로 身數조케 비죽이 올노오면서 “여러분 밤스이 엿더십니까?” 하고 人事를 엿줍니다. 단잠을 채 못자고 旅行에 시달린 一行은 太陽의 따듯흔 빛으로 洗禮를 밧으며, 썩은 ~하면 셔슴치게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다. 山속이라 치울줄 알고 입고 왓던 털실사쓰가 젓기 始作흔다.

붉으레 치미는 아침 해빛을 등에다 지고 산뜻~한 찬이슬을 밧노 툽툽 거더차면서 눅죽한 山우헤 올라 쉬이니 온몸이 가벼워지는 듯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느거 갓다. 나무슝 雜草스이로 눅고 나진 길을 흔밧 눅고 한밧 나직이 가를적마다 가을 맛이 몸을 숨여즈는 듯하다.

가을 나무에 누른 그늘을 몇번이나 넘고 쌀쌀하게도 말라가는 山등을

몇번이느 자미나는 거름이로 지나고 넘어 갈제 박(朴)선생(先生)의 아참 운동(運動)으로 활쏘는 形容은 배를 움켜쥐고 우슬만도 하였다. 언으듯 차저든 곳이 北漢山麓의 조고만 절 僧伽寺이었다.

北漢山內脉의 커-다란 능성이를 뒤에 지고 고요히 안젓는 이절은 決코 적다 할슈 업는 절이나 웅경거리지 안코 안옥한 곳에 절의 左右에 채마밭 이 있는 것으로던지 얼-른 보기에 山間의 커-다란 民家와 갓치도 보힌 다.

절안으로 들어서니 第一 눈에 처음으로 보히는 것이 이곳에 왓는 好奇心으로 이제는 제각기 바위에다 보기 좃케 일흠을 색여논 것이다. 그압흐 로 그 절뒤 窟 속 샘에서 나오는 물이 고혀잇는 물함속에는 맑은 물이 하나 굻득 담겨있다. 一同은 가즈고온 行具를 내려놋코 그절의 代表的으로 有名한 窟속의 藥水속으로 올라갓다.

절은 僧의 案內로 초불을 켜가지고 좁다란 바위틈으로 기여들어갈 때 그나마 꿈즈러거리다가 바위틈이 滿員이 되어서 第一次 에는 못들어가게 되였다. 절入口 左便에는 조고만 石佛을 안친 四角法堂이 있다.

그것을 볼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그 藥水샘의 窟이 그다지 神通하게 神秘的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절에서 손님을 끌기 위하여 만들어논 窟속基인 알었다. 그곳에 부처를 안친 法堂만 헐고보면 그 窟 속이라는 것은 널분 바위밧이 되고 말 것을 아라채인 까답이다.

엇젓든 온김이라 藥물이라는 것을 맛이나 보리라 하고 갓치간 羅君과 갓치 들어서니 참으로 캄캄하기 한량업다. 僧이 가지고 빗최어주는 초불 에 빗최어 박아지로 물을 떠서 먹어보니 藥水라고 먹으니까- 그런지 그 렷치 안으면 못먹을 물과 갓치도 물맛은 자미업섯다.

그리도 이 藥水를 먹으면 百가지 속病에 效果가 잇고 子女업는 이가 먹 으면 子女를 잘났는단 말을 듯고 픽 우셔바리였다. 그절에 마조 쳐다보 이는 곳에 큰바위위에 큰 石佛이 색여잇으니 이 바위일흠을 風磬巖이라고 하는데 기리가 사람의 길로 일곱길이나 되겓스며, 널피가 두어간통이나 되는 큰 石像이었다.

이 石像의 머리 兩側에 風磬 두 개가 달린 것을 보아서 이 바위에 일흔을 지은 듯 하다. 그곳에서 간 쉬인 一行은 다시 그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안은 絶壁山峯오리 우헤 잇는 碑峯을 向 하여 올라가게 되었다. [계속] [附記 僧伽寺의 由來는 紙面關係로 略함]

○1915년 11월 30일

現代詩壇: 近次僧伽寺韻/李晦明

山空木落但雲深 寥寂禪房是小林 笑殺縱橫無佛處 常時受用佛陀心

○1915년 12월 09일

현대시단

次無佛先生僧伽寺韻/朴心月

入來洞門轉轉心 數聲啼鳥繞疎林 ○到道場依塔坐 先生無佛靜吾心

次無佛先生僧伽寺韻/朴栗蒼

僧伽一寺古來深 處在皇城廿里林 奇岩怪石重重立 無佛先生種道心

2)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02월 07일

僧伽寺 北漢山 城內에 在한 僧伽寺는 新羅 法興王十一年七月七日에 創建한 古刹로 此寺에 立한 長安郡域을 一望之下에 可觀할 수 잇스며, 凉風이 不絶함으로 三伏盛炎에는 此寺에 避暑하는 者 多하며, 寺內 冷泉藥水는 其寒冷함에 氷에 勝한다고 한다.

4.5 잡지(雜誌)

1) 개벽(開闢)

개벽 제16호[1921년 10월 18일]

北漢의 一日/文一平

近日 우리 社會에 名山水를 遊賞하는 風潮가 流行하게 되어 金剛山을 探勝하는 人士도 만흐며 自頭山을 探險하는 人士도 잇슴은 天然美에 대하

야 一般社會의 趣味가 向上된 表證이니, 어찌 可喜할 現象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物累에 拘束되어 멀리 旅行하기 難함으로, 京城에서 咫尺인 北漢山이나마, 한번 登覽하리라 決心하고, 斷斷子로 더불어 發往하기는 7月 中旬의, 어느 晴朝이엇섯다. 點心準備로 如干한 食料品을 携帶하고 牛步的 發行으로 紫霞門을 出하여 左右山水를 指點하면서 高陽郡 舊基洞에 이르니, 이곳은 果木이 茂盛하고 北漢山의 秀色을 背景으로 하여, 十里清溪에 여기저기 點綴한 茅屋草堂이 深碧淺綠한 樹木사이로 隱隱히 掩映하여 宛然한 活畫圖를 生하는 觀이 있다.

首都에서 呖尺이로되 紅塵에, 물드지 아니하는, 이 清境은 곳 斷斷子の 世居하던 故郷이라, 그럼으로 路上에 犢을 牽하고 通行하는 牧童까지, 거의 다 舊識이 잇서 笑顔으로 逢迎하니 이를 傍觀하는 나도 一種 快感이 生하였다.

附近一帶에 美觀이 만흔 중에도 燦爛히 익은 林檎의 色彩와, 潺湲히 흐르는 溪水의 音響이, 代表的 清景이 될지며, 딸아 우리 審美心의 거의 全部를 奪去하게 되었다.

이가티 林檎을 愛賞하던 情이 食指를 動하게 함인지, 斷斷子は 忽然이 路傍에 잇는 自己姻戚의 草堂으로 들어가니, 나는 홀로 溪水邊에 안저 濯足하고 잇섯다.

이윽고 斷斷子が 한 褌子에 林檎을 싸들고, 나를 향하여 微笑하면서 走來하여, 힌들 우에 踞坐하니, 四圍 靜寂한 林壑에 오즉 溪聲이 聒聒할 뿐이라. 一匹靑蛙가 잇서 水中으로 跳出하여 雙目を 瞠하고 流波를 聽함도, 매우 興味있게 보인다.

이에 林檎을 共啖하며 靑蛙의 坐禪을 熟視하더니, 良久에 그 靑蛙가 다시 水中으로 跳入하여 痕跡조차 업서졌다. 數步를 隔하여 넓은 石上에 綠陰을 등지고 清風으로 洗漱하면서 橫臥하여 잇는 田夫는 아마도 半日勞役에 心身이 疲困하여 午夢을 試하는 模樣이다.

이럭저럭, 이곳서 數刻을 虛費하고 바로 目的地를 향하여 行進을 繼續하니 午天이 將近한 暴陽은 全身에서 汗醬을 絞出하여 麥帽와 苧衣를 다

적심으로, 꺾 衣帽를 脫하여 一肩에 擔하고 長嘯短歌로 山을 越하고 또 山을 越하여 幽谷에 잇는 淸溪를 차저가 먼저 洗漱하고 이어 沐浴하여 數時間의 淸快를 貪하니 人間에도 淨土의 極樂이 잇슴을 實驗하얏노라.

斷斷子是 淸興을 이기지 못하여 裸體로 巖石에 坐禪도 하며 細沙로 丘壑을 創造도 하여, 오로지 一笑를 博得하기만 힘쓰더니 이 遊戲를 畢한 後에는 汗露한 苧衣를 流水에 洗濯하여서 石上에 曬한다. 이때 나는 溪邊에 偃臥하여 麥帽도 面部를 덥혀 光線의 直射를 遮斷하고 長天의 閒雲을 管窺하면서 잠시동안 華胥의 國에 往遊할 새 寸陰을 애끼는 斷斷子是 時間의 碎屑을 버리지 안코 詩調 한 首를 지었다.

벗 모시고 이른 곳이 메스속에 물이로다,
얇은 구름 차일 앞에 넓은 돌이 펼쳤스니,
시즌 몸 빨은 옷이 한피 널려 바람마지.

나는 漢詩五言絶句를 追吟하니

浴罷淸溪上, 看雲澹忘機. 行行山日晚, 林露欲輕霏.

2인이 다시 起身하여 5,6리되북” 崎嶇한 石逕을 攀登하여 僧伽窟에 到하니, 이는 新羅石僧인 秀台란 이가 勅建한 三韓古刹이라 高麗初葉에 이르러는 大良君詢이 12歲의 幼冲으로 千秋太后의 毒手를 避하여 出家하얏을 時에 그 錫杖을 이 石窟에 住하고 自傷하는 詩句를 題하여서 泉流에 付하더니 後에 穆宗의 大統을 入承하여 丹寇의 來侵을 一劔으로 擊退하고 高麗半千年의 國基를 奠安한 英君이 되니 꺾 顯宗이다.

뿐 아니라, 그 後에도 歷代의 君主와 后嬪이 南京(漢陽)에 遊幸할 時는 흔히 僧伽窟에 參觀하얏스즉 當時에 응당 建築도 華麗壯嚴하얏스런만 無常한 風雨에 金碧이 交映하던 大琳宮도 그 全部가 이미 丘墟에 歸하여 昔日의 面影을 다시 볼 수 업고 只今 잇는 것은 40年 前에 明成皇后의 發願으로 重建한 數棟의 蘭若에 不過할 뿐이다.

法堂의 北方에 僧伽窟이 잇스니 石室模樣으로 된 天作의 洞穴이라 入口의 廣은 2,3인이 並立하여 通行할만 하나 洞長이 深邃하여 거의 數十步에 達함으로 晝間에도 오히려 暗黑하여 咫尺을 分辨키 難할 새 豫備하얏던

蠟燭에 點火하여 들고 斷斷子是 先導하며 나는 尾從하여 終點까지 들어가 보니 岩根으로 湧出하는 藥泉이, 마야흐로 醞釀되는 綠酒와 가티 石井에 盈溢하여 흐르거늘, 蠟燭을 傍石上에 着立하고 懷中에서 小瓢子를 取出하여 藥泉을 각각 한 盞씩 掬飲한즉, 그 味가 淡甘하고도 清冽하여 飲者로 一種 形容치 못할 靈感을 動케 한다.

僧伽窟의 泉流야 今日에도 依然히 涓涓하지만 當年에 詩句를 泛하던 王孫은 蹤跡이 寂寞하다. 往蹟을 寺僧에게 問한대 全然히 暗昧하여 一言을 發치 못하더니 食價를 問한즉 한 床에 70錢이라고 卽答하니 僧侶의 程度가, 이러듯 低級임은 참 悶笑할 바라. 斷斷子-因하여 感懷를 賦하니, 옛 님검 가섯거니 스님조차 다시 업나? 옛일 무려 모르세의중 「밥값은 암만요, 두어라 굴속의 한쌈 맛이 즈믄해 僧伽로다.

나는 또 漢詩五絶을 構成하니 行到僧伽窟, 泉流自古今. 王孫何處在, 只見刳灰深. 僧伽窟에서 西北으로 百數十步되는 林藪間에 巍然한 石像이 있어서 雲表에 聳立하얏음을 見할 것이니, 俗稱 風磬巖이다.

그 압해 가서 審視한즉 天然石에 佛像을 彫刻하얏는데 長이 거의 8, 9尋이 되겟스며, 廣이 數十尺이 되겟스며 頭上에 戴한 遮陽은 그 大가 數間에 達할지오 左右에 風磬이 달렸스니, 아마 이것이 俗名의 起因인 듯하다. 正宗[祖]時의 博學인 雅亭 李德懋의 著述한 蝨葉記에는 「三角山僧伽寺石窟有石像, 顔如老嫗, 蒙頭之物恰如儒家幅巾, 背有石障若蓮花, 後刻太平四年甲子, 按高麗史, 顯宗十五年甲子行契丹年號, 卽聖宗隆緒太平四年, 而宋仁宗天聖二年也, 距今庚子十三甲子, 摠八百十七年, 輿地勝覽此乃秀台道人像,」이라 하얏스니 此로 觀하면 風磬巖이 高麗時代에 製作한 秀台道人的 像됨이 分明하다.

그러나 高麗李頰의 重修記에는 「按崔致遠文集, 昔有新羅狼跡寺僧秀台, 飮聆大師之聖跡, 選勝于三角之南面, 開巖作窟, 刻石模形, 大師道容益照東土, 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災, 禱以禳之無下立應」이라 하얏스니 此를 據하면 風磬巖이 新羅時代에 製作한 秀台道人的 先師되는 어느 高僧의 像됨이 分明하다.

今에 前後二說이 各其 憑據가 잇서, 孰是孰非를 遽斷키 難하나 孤雲이 雅亭에 北하야 年代가 久遠한이만큼 當時事實에 接近할 便益이 잇슴으로, 얼마쯤 더 正確하다 認定할 수 맞게 업슨즉 이 風磬巖이 高麗時代의 製作이 아니오, 新羅時代의 製作이며, 秀臺의 像이 아니오 그 先師되는 어느 高僧의 像이라 함이 理에 當할 듯 하다. 斷斷子-感興을 吟하니

큰 바위에 사긴부터 거의 거의 열 길이라,
이마 우에 꼬진 채양 몇간으로 볼 것이다,
우느니 두 개 風磬이 즈믄 해의 한소리.

나는 또 漢詩五絶을 構成하니

空山風雨裏, 石佛幾多春, 千界皆流轉, 獨能不壞身.

步를 移하야 碑峰에 上할 새 나는 眩暈이 나서 中途에 안저 잇고 斷斷子만 奮發하야 草鞋들 脫하고서 石磴을 攀登하얏다. 이윽고 斷斷子-碑를 尺量하야 가지고 欣然히 回歸하니

碑高四尺九寸, 卍高二寸八分, 廣二尺三寸七分, 厚五寸七分,

碑體는 堅強한 花崗石이나 悠久한 歲月에 風磨雨削하며 苔蝕蘚着하야 碑面이 전혀 剝落하얏슴으로 碑文은 1字도 殘存치 아니하고 오즉 殘存한 것은 金秋史正喜의 사긴 碑石左側에 잇는 兩行47字뿐인데, 그것이나마 第1行에는 8箇字가 磨削되어 分辨치 못하겠고 完全히 보이는 것은 즉 新羅 眞興大王巡狩之碑丙子七月金正喜(以下 8箇字는 磨削不辨함) 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同來審定殘字 六十八字이라 丁丑은 距金105年前인즉, 이때까지 碑文이 68字이나 殘存하얏다 하니 그러면 既往 1,000年에 保存된 것이 겨우 爾後百年에 滅泐됨은 무슨 까닭인고. 아마도 風雨를 防禦하던 碑蓋가 破碎되어 磨削이 一層 심하게 된 것 같다. 碑頂의 卍子와 碑體의 破傷이 더욱 이런 事實을 證明치 아니하는가. 京城記畧에는 이르되 眞興王의 碑文이 무릇 12行인데 滅泐하야 分辨치 못하겠스되 可辨할 것은 그 第1行에 「眞興王及衆臣等巡狩時記」라 하고 第8行에는 「南川軍主」의 4字가 잇스니 第一行으로 觀하면 此는 眞興王 16年에 疆界를 拓定할 時에 建한 바이라 할지나 第8行을 據하면 그 後에 樹立하얏는지도 未可

知라 하여 新羅本記와 東史綱目を 引證하고 最終에는 眞興王 29년에 建한 黃草嶺碑와 前後하여서 建한 것이라 論斷하였으나 吾의 管見으로는 碑石의 初建은 비록 眞興王의 御世中에 在하였스되 後世에 重建한 것이 아니면 어찌 眞興이란 諡號를 씻을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生前에 諡號를 碑刻하였다고는 常識있는 者의 固執치 못할 바인즉 畢竟 後世의 重建에 系함이 分明하다.

後世 重建이라 함이, 족음도 古碑됨에는 損傷되지 아니할 것은 勿論이라. 저 北으로 黃草嶺碑와 南으로 伽耶郡碑와 한피, 이 北漢山碑가 新羅 眞興王의 三大境界碑가 되는 동시에 멀리 鴨綠水가 汪洋하는 저 洞溝에 特立하여 잇는 高句麗好太王碑와 서로 對立하여서 千古의 大史實을 語하는도다.

傳說에 이르되 國朝初에 王師無學이 漢陽宮址를 選定하려 하여 三角山으로부터 踏下하여 西南麓에 이르러 「無學誤尋到此」의 6字가 잇는 道說의 古碑를 發見하였다 하니, 혹, 이 眞興王碑를 錯認한 것이 아닌가.

斷斷子是 感懷를 賦하니

新羅에도 眞興王의 그 자취를 끼친 것이,
거의 거의 꺼져갈 때 六十八字 잇섯다고,
秋史氏의 사긴 것이 또 다시 흐리단 말가.

나는 漢詩五絶을 딸아지으니

眞興王已去, 石老白雲間, 無語斜陽立, 蒼涼北漢山.

이윽고 夕陽이 遠岵에 잠기고 暝色이 近林에 날 때에 山路를 下하여 平地에 이르니 宿鳥는 벌써 깃을 定하고 行人은 이미 길에 絶하여 周圍의 夜空이 森寂한데 2人의 言語만 두런두런할 뿐이다.

斷斷子是 既往에 自號를 農牛라 하니 대개 忠實淳朴하며 勤勉努力함으로써 自策함시오 厥後에 日行이라 自號하니 務實力行함을 意味함시오 老子的 謙虛와 清教徒의 嚴潔을 思慕하여 潔虛이라기도 하며 極端正直을 表示하기 위하여 慧广이라기도 하며 完美한 大我實現을 理想하여 是我乎라기도 하다가, 다시 塊車-라 하니 字義로 解釋하면 土에 魂을 含하여 一塊

를 作하얏스즉 곳 生命을 태운 肉車가 三萬餘日 가는 人生行路에 日夜로 間斷업시 行進하야 今日은 生死線第幾驛에 到着하얏다고 스스로 圈點을 付한 일도 잇섯다. 그럼으로 우리 神이 何日何站에서 下車할는지 預期키 難한즉, 아뭇조록 今日今日을 곳 一平生으로 看做하야 生을 樂함이 可하 다는 深刻한 人生觀이 잇서 今日主義를 寓하야 다시 晤庵이라 하니 字解 하면 吾日이라 스스로 頌歌하야 가르되.

나를 맞난 오늘 내날 現實 밝은 내날
내 잇서 너를 반기고 네 잇서 나를 빛내니.

라고 하얏다. 今日에 斷斷子라 함은 消極으론 慾斷과 積極으론 果斷을 가르침이니 最初 農牛로부터 現今 斷斷子라 稱하기까지 一言으로 蔽하면 靈肉一致의 生活을 하기 위하야 苦心勞力하야온 表證이니 곳 10年間 內的 生活의 史的 符號이라 그 潔白한 品格은 百合花에 比할가. 接近할스록 清香이 芬馥하는 感이 잇다.

이런 澹泊한 人士로 더부러 名山水間에 1日동안 嘯吟하며, 서로 胸衿을 披瀝함을 得함은, 가장 愉快히 여기는 바다. 崎嶇한 村路를 墻埴冥行하야 洗劔亭에 이르니 이는 仁祖反正功臣의 記念建築이라. 그 亭畔白石사이로 飛流하야 塵劫을 淘盡하는 溪水는 그 廣長舌로 300年往事를 滔滔히 說去 하거늘 이에 잠시 안저서 그 溪水의 言을 靜聽하며 一詩를 吟하니

北漢夜歸客, 暫登洗劔亭, 躑躅仍不去, 爲是聽溪聲.

深夜에 歸家하야 熟睡로써 疲困함을 醫治하니 浮生一日의 逍遙가 10年의 煩惱를 滌盡하얏다.

2) 별건곤(別乾坤)

별건곤 제23호 [1929년 09월27일]

國都以前의 京城, 上下 1300년간의 略史/翠雲生

百五年間 百濟의 國都로

閒話休題--- 그 후 239년을 經하야 百濟 近肖王26년(서기371)에 왕은 漢南(南漢)으로부터 漢山(즉 漢陽洞)엔 移都하얏스니 이것은 서울이 國都

된 시초이오(그때에 왕이 태자와 가티 3만 대병을 率하고 高句麗 平壤城을 攻하야 故國原王을 射殺하고 그 餘威로 북방을 經略코자 하야 此에 移都함) 枕流王2년 春三月에는 漢山에 佛寺를 창건하얏스니 서울에 사찰이 생기기는 이것이 嚆矢였다.

그러나 百濟 蓋鹵王21년 秋9월(서기 475년)에 이르러 일대 兵亂이 일어나섯스니 그것은 곳 고구려 長壽王의 復讎戰爭이었다. 高句麗는 往時 故國原王이 濟兵에게 被害한 것을 항상 國恥로 생각하고 百濟의 攻伐을 不休하다가 이 해 이르러서 對盧, 齊子, 再曾桀婁, 古爾萬年(再曾 及 古爾는 원래 濟人으로 嚮導가 됨)等 4猛將으로 3만의 精兵을 率하고 麗王이 自將하야 國都를 포위공격한지 凡7일에 兵을 四道로 分하야 夾攻하고 또 風을 縱하야 성문을 燒破하니 왕은 수십騎로 도주하다가 阿且城(在今峨嵯山上)下에서 桀婁 등에게 피해(桀婁가 왕을 縛하야 其面에 三唾後弒함)하고 남녀 8천여인이 麗軍에게 被虜되니 이것은 서울이 都城된 후 처음으로 적병에게 함락됨이다. 지금에 잇서서 그 때의 일을 잘 알기 어렵지만은 都破君亡--그 참패의 비통한 광경이야 엇지 형언할 수 잇섯스랴.

이 戰敗의 결과로 왕자 文周가 南奔하야 熊津(今 公州)에 新都를 세우고 漢都는 遂히 高句麗의 영지가 되야 南平壤城(즉 南京)이란 名義로 凡 77년간을 잇다가 百濟 聖王29년에 왕이 다시 高句麗를 伐하야 故地를 復하엿더니 同31년에 新羅 眞興王(14년)이 攻略하야 新州를 置하고 阿滄金武力으로 軍主를 삼으니 이로부터 漢都는 遂히 新羅의 영지가 되고 眞興王16년 冬10월에는 왕이 北漢山(三角山)에 巡幸하야 封疆을 정하고 동11월에는 漢都에까지 至하얏스니 지금 三角山 僧伽寺 北峯(碑峯)상에 잇는 眞興王의 巡狩碑는 당시에 立한 것이였다.(비문은 凡12行으로 風磨雨洗하야 字劃을 辨키 難하되 제1행에 『曰眞興王及衆臣等巡狩時記』라 하고 제8행은 『南川軍主』라 記한 것이 僅히 見하는데 同王29년에 建한 것이라 한다) 同王18년에는 新州를 廢하고 北漢山州를 置하얏다가 同29년에는 南川州로 變하엿더니 其後26년에는 다시 北漢山州로 復號하얏다.

그 뒤 新羅 太宗王8년 夏5월에 이르러 또 한 큰 나라를 만났스니 그것은 高句麗將 惱音信이 靺鞨將 生偕로 더부러 습격함이었다. 때에 麗將은 砲車와 飛石으로 城中을 猛擊하니 城中 家屋이 모다 破壞하여 一時危急에 빠졌었다. 그러나 城主 大舍(官名) 陀川은 원래의 智勇의 將으로 鐵蒺藜를 擲하여 적의 人馬가 通行치 못하게 하고 砲弩를 발사하여 적을 善히 防守하였다.

그리하여 僅히 2,800인(남녀並)으로 凡20일간을 抵死防禦하니 아모리 강대한 적도 遏지하지 못하고 退去하였다.(其時 敵營에 星이 落하고 雷雨의 災가 有함) 이것을 보고 과거 壬辰이나 丙子亂 때에 그 허다한 인민이 감히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抱頭鼠竄한 것을 보면 가튼 서울 사람이라도 其比가 遏지 霄壤의 判일 뿐이라.

그 뒤 新羅 文武王 10년에는 高句麗 유민이 唐의 官人을 殺하고 寶藏王의 外孫 安勝(淵淨土子)을 史冶島(今 仁川 士也島)로서 漢城에 迎立하여 왕을 삼고 일시 新羅의 藩王이 되었다가 其後 景德王16년 均濟개혁할 때에 北漢山州를 改하여 漢陽郡이라 하고 荒壤(豐壤) 皆伯(幸州) 2縣을 此郡에 속하였스니 서울을 漢陽이라 稱하기는 이 때부터였다.

5. 삼천사(三千寺)

5.1 개요(概要)

삼천사는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서, 신라 문무왕1(661)년 원효(元曉) 대사가 창건하였다. 그후 연혁이 전하지 않아 절의 자세한 역사는 알 수 없다.

고려사에는 현종18(1027)년 6월에 이 절과 장의사(莊義寺)·청연사(淸淵寺) 승려들이 쌀 360여 석으로 술을 빚은 것이 발각되어 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1481년]과 북한지(北漢誌)

에 따르면, 3,000여 명이 수도할 정도로 번창했다고 하며, 사찰 이름도 이 숫자에서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선조25(1592)년 임진왜란 때 승병들의 집합소로 활용되었는데 그후 불에 타 없어졌는데 이 절의 암자가 있던 자리에 진영이 중창하였다. 1950년 6·25전쟁 때 불에 탄 것을 1960년에 중건하고 1978년 성운이 중수했다.

1988년 미얀마에서 부처 사리 3과를 얻어와 석종탑을 세우고 모셔 두었고, 1994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였으며, 1996년 12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2동으로 된 복지관을 준공하여 오늘에 이른다. 건물로는 대웅보전과 산령각·선실·요사채·인덕원복지관 등이 있다.

이 중 대웅보전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에 석가모니불과 관세음보살·대세지보살의 삼존불이 모셔져 있다. 후불탱화는 영산회상도이며, 십육나한과 오백나한·신중탱화·지장보살 등이 함께 모셔져 있다.

산령각은 정면 2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인데 다른 사찰의 산신각보다 규모가 커서 북한산의 산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이 절을 ‘산신이 보좌를 튼 절’ 이라고도 부른다.

유물로는 대웅전 위쪽에 있는 마애석가여래입상이 보물 제657호로 지정되었다. 이 불상은 통일신라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양각과 음각을 섞어 조각한 독특한 작품이다. 전체 높이는 3m이고, 불상 높이는 2.6m이다. 그밖에 경내에는 대형 석조(石槽)와 대지국사(大智國師) 목암찬영(木庵燦英:1328~1390)의 비명(碑銘)이 남아 있다.

5.2 관암전서(冠巖全書) 洪敬謨

[津寬寺記]元曉和尚與眞寬祖師建此寺及三千寺。今遺址宛然。

6. 진관사(津寬寺)



진관사 대웅전



진관사 대웅전 앞

6.1 개 요(概要)

진관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진관동 354), 북한산(삼각산) 서쪽 기슭에 있는 조계종 소속 고려시대의 고찰로서 불암사, 삼막사, 보개산 심원사와 함께 조선시대에 한양 근교의 4대 사찰 중 하나였다.

진관사가 창건된 배경은 고려 현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조사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은 절이라고 전해진다. 고려 목종(제7대)이 아들이 없자 태조의 아들 옥(대량원군)을 세자로 책봉했는데 경종(제5대)의 대비였던 천추대후가 옥을 살해하려고 했다. 옥은 진관조사의 도움으로 진관사에 숨어 목숨을 건졌고 옥은 목종에 이어 현종으로 등극하여 1011년에 진관사를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록재(水陸齋)가 열리는 근본 도량으로 춘추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수록재란 물과 육지에서 해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식으로, 이곳에서 조상의 명복을 빌고, 나랏일로 죽었어도 제사조차 받지 못하는 굶주린 영혼을 위해 재를 올렸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64년 이후 복원되었다. 진관사 법전으로는 대웅전, 명부전, 홍제루, 동정각(動靜閣), 나한전, 독성전, 칠성각, 나가원(那迦院), 객실 등의 건물이 있다.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안에 석가모니 불상과 미륵보살상, 제화갈라보살상을 모셨고, 비로자나 후불탱화와 석가모니 후불탱화, 노사나 후불탱화를 봉안하였다.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건물로 지장보살과 도명존자상, 시왕상, 동자상 등이 있으며 지장보살상 뒤편에 지장 후불탱화가 있다. 명부전 옆의 독성전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독성상과 독성탱화, 산신탱화를 모셨다.

진관사에서 북한산 정상방향인 동쪽으로 이어진 계곡을 진관사계곡이라고 부르는데 암반이 잘 발달되어 있다. 암반은 경사가 급하고 작은 폭포들이 계곡을 따라 이어진다. 진관사계곡을 따라 산길을 오르면 북한산 사모바위와 비봉에 이르게 되고 이어 향로봉과 승가봉이 가까이 있다. 주변

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도봉산, 북한산성, 도선사, 문수사, 망월사, 승가사, 천축사, 화계사, 서오릉, 정릉 진흥왕순수비유지 등의 관광지가 있다. 교통은 구과발역에서 진관사입구까지 버스가 운행된다.

6.2 사 서(史 書)

1) 고려사(高麗史)

○世家 1009년 1월 16일(음)

정월. 왕이 여러 날 몸이 편치 않자 늘 내전(內殿)에만 거처하면서 신하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재신들이 크게 두려워 한 나머지 침전에 들어가서 문병하기를 청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

왕은 채충순, 최항과 함께 몰래 후사 문제를 의논한 후 황보유의(皇甫兪義)를 **신혈사(神穴寺)**로 보내 대량원군(大良院君 : 현종)을 맞아오게 했다. 이 때 서경도순검사(西京都巡檢使) 강조(康兆)가 무장한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왕을 폐위시키고 새 임금을 세울 음모를 꾸몄다.

○世家 현종총서

현종 원문대왕(顯宗元文大王)은 이름이 왕순(王詢)이며, 자가 안세(安世)이다. 안종(安宗)의 아들로, 그 모친은 효숙왕후(孝肅王后) 황보씨(皇甫氏)이다. 성종11(992)년 7월 임진일에 났으며, 조금 나이가 들자 대량원군(大良院君)으로 책봉되었다.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천추태후(千秋太后)가 그를 꺼려한 나머지 강제로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되게 했다. 처음 승교사(崇敎寺)에 있을 때 어떤 승려가, 큰 별이 사원의 뜰에 떨어지더니 용으로 변했다가 다시 사람으로 변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이 곧 왕이었다.

이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를 특출하게 여기게 되었다. 목종9(1006)년에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로 옮겨 살게 되자 천추태후가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해치려고 했다. 마침 사원에 있던 늙은 승려가 방 밑에 구멍을 파서 숨기고 그 위에 침상을 놓아두어 그를 지켜 주었다. 하루는

왕이 시냇물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한 가닥 물줄기가 백운봉(白雲峰)서 솟아나와
머나먼 큰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네.
바위 아래 샘물이라 업신여기지 말게나
머잖아 용궁까지 도달할 물이어니.
또 작은 뱀을 두고 읊었다.
뜰 난간에 또아리 튼 작은 뱀 한 마리
붉은 비단같은 무늬 온 몸에 아롱지네.
꽃덤불 아래서만 노닌다고 말 말게나
하루 아침에 용 되기 어렵지 않을 걸세.

또 꿈에 닭 울음과 다듬이 소리를 듣고 술사(術士)에게 해몽을 부탁했더니, 우리말로 풀이해서, “닭은 꼬끼오[高貴位]하고 울고, 다듬이 소리는 어근당[御近當]으로 들리니, 이는 임금이 될 조짐이오.” 라고 일러주었다. 목종 12년 2월 기축일에 왕으로 추대받아 연총전(延寵殿)에서 즉위하였다.

○世家 1090년 10월 27일(음)

왕이 신혈사(神穴寺)에 행차하여 오백나한재(五百羅漢齋)를 올렸다.

○世家 1099년 윤9월 23일(음)

왕이 신혈사(神穴寺)에 행차하였다.

○世家 1110년 10월 21일(음)

왕이 신혈사(神穴寺)에 행차했다.

○列傳 后妃 景宗 后妃 헌애왕태후 황보씨

천추태후(千秋太后)가 김치양(金致陽)과 간통하여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했다. 그 때 현종은 대량원군(大良院君)으로 있었는데, 태후가 그를 꺼린 나머지 억지로 출가시켜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에 붙여살게 했으므로 세상에서 그를 신혈소군(神穴小君)이라 불렀다.

○列傳 諸臣 蔡忠順

그때 대량원군은 삼각산(三角山)의 신혈사(神穴寺)에 있었다. 채충순이

대궐에 들어가 왕에게, “문반과 무반 각 한 사람씩을 뽑아 군교(軍校)를 거느리고 가서 맞이해야 합니다.” 라고 건의한 뒤 최항 및 고영기 등과 의논하여 선휘판관(宣徽判官) 황보유의(皇甫愈義)를 천거하였다.

○列傳 諸臣 皇甫愈義

“황보유의가 종묘 사직을 보존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친과 조부 모두 나라에 공을 세웠으니, 그도 응당 가업을 이어받아 전심전력할 것이다. 어찌 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는가?” 고 의논하고 무반으로는 낭장(郎將) 문연(文演)을 함께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채충순에게, 현종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초하게 한 후 황보유의·문연 및 별장(別將) 이성언(李成彦)·고적(高積) 등 열 명에게 그 편지를 가지고 삼각산(三角山)의 **신혈사(神穴寺)**로 가서 현종을 맞아오게 하였다.

○列傳 叛逆 강조

이에 왕은 주청한 내용을 알고 있노라고 응답했다. 이 날 김응인과 황보유의(皇甫愈義)가 **신혈사(神穴寺)**로 가서 현종을 받들고 돌아왔다.

2)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계묘 6년(1003), 송 함평 6년·거란 통화 21년

태후는 치양과 모의하여 왕의 후사로 삼으려 하였으나, 대량군(大良君)을 꺼려서 강제로 그를 출가하게 하니 대량군이 이때 나이 12세였다. 후에 삼각산(三角山) **신혈사(神穴寺)**에 거처하였는데, 태후가 몰래 사람을 보내어 해치려고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 절의 늪은 중이 방 가운데를 파서 지하실을 만들어 대량군을 숨기고는 그 위에 침상을 놓아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막았다.

○기유 12년(1009), 송 대중상부 2년·거란 통화 27년

1월 갑술일 이 때 유행간이 대량군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으므로, 왕은 일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충순에게 행간이 이 일을 알지 않도록 경계시키고, 글을 황보유의와 낭장(郎將)·문연(文演) 등 10명에게 주어

서 **신혈사(神穴寺)**에 가서 대량군을 맞이하게 하였다.

또 개성부 참군(開城府參軍) 김연경(金延慶)에게 명하여 군사 1백 명을 거느리고 교외에 가서 대량군을 맞이하게 하였다.

2월 무자일에 강조가 먼저 장계(狀啓)로 아뢰기를, “성상께서 병환이 위독하신데 세자를 정하지 못하였으니, 간악한 무리들이 왕위를 엿보고 있습니다.

또 행간 등의 참소와 아첨만 치우치게 믿어 상이나 벌을 주는 일이 밝지 못하여 이러한 위란을 초래하였으니, 이제 명분을 정하여 인심을 붙잡아 매고 간악한 무리를 제거하여 여러 사람의 울분을 통쾌하게 씻으려고 합니다. 이미 대량군을 맞이하여 대궐로 나아가는데 성상께서 놀라실까 두려우니, 용흥사(龍興寺)나 귀법사(歸法寺)에 나가 계십시오.

곧 간사한 무리들을 소탕하고 난 뒤에 맞아들이겠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아뢴 바는 이미 알았다.” 하였다. 이날에 황보유의(皇甫兪義)와 김응인이 함께 **신혈사(神穴寺)**에 이르니, 절의 중은 간사한 무리들이 보낸 사람인가 의심하여 대량군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

유의 등이, 대량군을 맞이하여 임금으로 세울 것이라는 뜻을 자세히 말하니 그제야 대량원군이 나왔다. 유의 등이 드디어 대량군을 모시고 돌아왔다.

○현종 원문대왕(顯宗元文大王)

휘(諱)는 순(詢)이며, 자(字)는 안세(安世)요, 안종(安宗) 옥(郁)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효숙왕후(孝肅王后) 황보씨(皇甫氏)이며, 성종(成宗) 11년 임진년(992) 7월 1일 임진에 났다. 천성이 총명하고 어질었으며, 학문에 통달하고 문필을 잘하였다.

처음에 머리를 깎고 승교사(崇敎寺)에 우거하였는데 그 절의 중이 일찍이 꿈을 꾸기를, 큰 별이 절 뜰에 떨어져서 용으로 변하였다가 또 사람으로 변하니 곧 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왕을 기이하게 여기는 이가 많았다. **신혈사(神穴寺)**로 옮겨 거처하였는데, 또 꿈에 답소리와 다듬잇소리를 듣고 술사(術士)에게

물으니 방언(方言 우리말)으로 해석하기를, “닭의 울음 소리는 '꼬끼오 [高貴位]' 라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말이요, 다듬잇소리는 어근당(御近當)이니, 이는 즉위할 징조입니다.” 하였다. 왕위에 있는 지는 22년이요, 수(壽)는 40세이다.

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6(1397)년 1월 28일

진관사(津寬寺)에 거둥하였다.

태조7(1398)년 1월 6일

진관사(津寬寺)에서 수륙재(水陸齋)를 베풀었다.

태종1(1401)년 10월 16일

수륙재(水陸齋)를 진관사(津寬寺)에 베풀었다.

태종14년(1414)년 2월 6일

이관(李灌)에게 명하여 전지(傳旨)하였다. “관음굴(觀音窟)·진관사(津寬寺)·대산(臺山)상원사(上元寺)·거제(巨濟)견암사(見庵寺)에 매년 2월 15일에 수륙재(水陸齋)를 행하였는데, 금후로는 정월 15일에 행하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으라.”

태종15(1415)년 11월 16일

호조(戶曹)에 명하여 진관사(津寬寺)에 쌀·콩을 헤아려 주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진관사에서 아뢰기를, “수륙재(水陸齋) 위전(位田) 1백 결(結)에 묵고 감해진 것을 제외하고 거둔 쌀·콩을 10월 수륙재에 쓰고 남아 있는 것이 정월 수륙재에 부족합니다.” 하였기 때문이다.

태종18(1418)년 3월 3일

동부대언(同副代言) 성엄(成揜)에게 명하여 진관사(津寬寺)에 가서 성녕대군(誠寧大君)을 위하여 수륙재(水陸齋)를 베풀게 하였기 때문에 향(香)을 받들고서 갔다. 사제(賜祭)하는 교서(敎書)는 이러하였다. “아! 목숨의 길고 짧은 것이 가지런하지 아니함은 타고난 천명(天命)이니 바꿀 수 없고, 부자(父子)의 지극한 은정(恩情)은 본래 천성(天性)이니 그만둘 수

가 없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 본래부터 타고난 것이나, 기수(氣數)에 앞서 정해진 것이다. 생각하건대, 네가 태어난 것은 을유년이었으니, 이제 14세인데, 일찍이 하루라도 나의 좌우(左右)를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수라를 들고자 하면 네가 반드시 먼저 맛보았고, 내가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자 하면 네가 반드시 수행(隨行)하여 모든 기거(起居)에 있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였는데, 이제는 그만이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겠느냐?

아! 슬프다. 모습이 단정(端正)하고 깨끗하여 아무런 흠이 있지 않았으며, 총명(聰明)하고 온아(溫雅)하고 효제(孝悌)함이 그 행동이었고, 글을 읽어 때때로 익히고 활 쏘기를 배워서 여러 번 과녁을 맞추었었다.

장가를 들도록 하였고, 또 대군(大君)으로 봉하였으니, 장차 어른이 되어 나의 쇠노(衰老)함을 위로하리라 여겼는데, 아! 이제 그만이니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네가 처음에 병들었을 적에 어린 아이들의 보통 일이라 생각하였으나, 병이 이미 위독하여져 비록 후회하였지만 어찌 미칠 수 있었겠는가? 기도(祀禱)하기를 꺾(闕)했음인가? 의료(醫療)가 잘못되었음인가? 희디 흰 너의 얼굴이 항상 눈에 선하고, 낭랑(琅琅)한 너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다.

아! 슬프다. 나와 중궁(中宮)이 너의 죽음을 통곡하나 또한 이제 그만 이рода. 너는 효성(孝誠)으로써 죽음에 임하여서도 아버이를 생각하였으니, 한(恨)을 먹음이 구천(九泉) 지하(地下)에서도 그만뒀음이 있었겠는가?

너는 나의 아들이 되어서 이미 효도하고 또 재주가 있어, 자식의 직분(職分)을 싫어하지 않았다. 목숨의 길고 짧은 운수(運數)는 실로 하늘에서 나오고 너의 죄는 아니니, 네가 그것을 어찌 한하겠느냐? 나는 너의 아버가 되지만, 염(歛)에서 의금(衣衾)을 볼 수 없었고, 빈(殯)에서 그 관(棺)을 어루만져 보지 못하고, 무덤에서도 또 그 광(曠)에 반드시 임석(臨席)할 수도 없으니, 천승(千乘)의 군주(君主)로서도 도리어 필부(匹夫)의 자식 사랑함과 같지 못하다. 내가 정(情)을 잊어서가 아니라 사세(事勢)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내가 한(恨)하는 것이요, 그것이 또 어찌 극위(極位)이겠는가?

아! 슬프다.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너의 직질(職秩)을 높이고 너에게 시호(諡號)를 주어 은수(恩數)의 융성함을 상례(常例)보다 다르게 한다. 이제 근신(近臣)을 보내어 진관사(津寬寺)에서 수륙재(水陸齋)를 설치하여 명복(冥福)을 빌고, 또 치부(致簿)하고 전(奠)드려 말로써 권하여 음향하게 한다. 아! 말에는 다함이 있으나 정(情)에는 끝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아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변계량(卞季良)의 글이었었는데, 양전(兩殿)의 슬프고 애통함이 지극하여, 무릇 성녕 대군(誠寧大君)을 천도(薦導)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바가 없었다. 임금이 교서(敎書)를 읽다가 반(半)쯤 이르러 자신도 모르게 흐느껴 울어서 끝 편까지 읽지 못하고 이에 물리치고, “나의 정의(情意)를 다하였도다.” 하였다.

세종1(1419)년 11월 8일

황해도 관찰사 이숙묘(李叔畝)가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진상하고, 성엄·현귀명(玄貴命) 등도 또한 방물과 말 1필씩을 진상하였는데, 방물은 시위한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총구(葱丘)에서 점심을 먹고 드디어 소신산(疎薪山)에서 사냥을 하고 실미원(實美院) 냇가에 유숙하였다. 이날에 동지돈녕(同知敦寧)안수산(安壽山)이 향과 소문 및 제문을 받들고 진관사(津寬寺)에서 여섯 번째의 재를 베풀었다.

세종1(1419)년 11월 16일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진관사(津寬寺) 중 사익(斯益)이 그 절의 계집종을 간음하였는데, 주지 연징(演澄)이 검거하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모두 잡아다가 문초하소서.” 하니, 사익(斯益)만 국문하게 하였다.

세종1(1419)년 11월 28일

의정부에서 상서하기를, “석가는 천축국(天竺國) 정반왕(淨飯王)의 아들로써, 성(城)을 넘어 출가하여, 설산(雪山)에서 도를 닦고 성중(城中)에서

걸식하였으매, 초조(初祖) 달마(達摩)와 6조 혜능(惠能)이 혹은 장삼을 입고 벽을 향하여 좌선하였으며, 혹은 옷옷을 벗어 메고 방아를 찧었으며, 종을 두고 공양하였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회암사는 불교의 수법 도량(修法道場)이요, 진관사는 수륙 도량(水陸道場)이므로, 노비를 넉넉하게 주어 공양하게 하였으니, 여기에 있는 자는 진실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욕심을 적게 하여, 불조(佛祖)의 임금을 수(壽)하게 하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의 무거운 은혜에 보답하여야 할 것인데, 이제 회암사 중 가휴(可休)·정후(正厚)와 진관사(津寬寺) 중 사익(斯益)·성주(省珠) 등 수십여 인은 항상 절의 계집종과 음욕을 방자히 행하여 삼보(三寶)를 더럽혔고 국법을 범하였습니다.

이름난 절로서 이와 같을진댄, 탄 절 중들의 더럽고 행실이 없음은 단정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절에 노비가 있는 것은 대개 예부터 내려오는 폐습에 기인한 것이므로, 갑자기 개혁하지 못하던 것이나, 이것은 중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불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법의 결함이라 하겠습니까. 공손하게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총명하고 슬기로운 자질로서,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르시어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하고 계시니, 옛날의 폐습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사를 선포함이 마땅합니다. 신 등은 원컨대 여러 절의 노비를 다 없애어 중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으로 죄에 빠지는 잘못이 없고 청정 과욕(淸淨寡欲)하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면, 이 위에 더 다행이 없을까 합니다.” 하였다.

세종3(1421)년 1월 19일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부터는 선왕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은 내자시(內資寺)가 장의사(藏義寺)에서 올리게 하고, 선후(先后)의 기일에 재올리는 것은 내섭시(內瞻寺)가 진관사(津寬寺)에서 올리게 하여, 영구히 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4(1422)년 5월 6일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권홍(權弘)을 진관사(津寬寺)에 보내어 수륙재

(水陸齋)를 지내게 하고, 호조 관서 신호(申浩)를 길상사(吉祥寺)에 보내어 나한재(羅漢齋)를 지내게 하였다.

세종4(1422)년 5월 29일

[태종의] 세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 배설하였다.

세종4(1422)년 6월 14일

[태종의] 다섯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 배설하였다.

세종4(1422)년 7월 9일

원경 왕태후의 대상재(大祥齋)를 진관사(津寬寺)에 배설하고, 동부대언곽준중을 보내어 원경 왕태후의 수릉관(守陵官) 여천 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에게 의복과 안장 갖춘 말을 내렸다. 이미 2주년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세종4(1422)년 8월 8일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은 진관사(津寬寺)로, 찬성사(贊成事) 맹사성(孟思誠)은 승가사(僧伽寺)로 보내어 재(齋)를 올려 부처에게 기도하였다.

세종4(1422)년 8월 19일

평양군(平壤君) 조대림(趙大臨)을 보내어 백재(百齋)를 진관사(津寬寺)에 배풀었다.

세종5(1423)년 5월 9일

태종 대왕의 소상(小祥) 기신재(忌辰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거행하였다.

세종6(1424)년 3월 8일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를 벌(伐)해야 남이 자기를 벌하는 것이니, 지난번에 도징(道澄)·설연(雪然)의 행동과 회암사(檜巖寺)·진관사(津寬寺)의 사건이 넉넉히 거울 삼을 만한 것이요, 지금 흥천사(興天寺) 승려의 죄는 어찌 그렇게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합니까.

이는 어찌 운수가 궁하고 악이 쌓여서, 하늘이 실로 싫어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근본(根本)까지 끊게 함은 마치 전하의 신성한 단안을 기

다리는 것인가 합니다.

옛적에 맹가씨(孟軻氏)는 피사(諛辭)·음사(淫辭)·사사(邪辭)·둔사(遁辭)를 막아내었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세 성인(聖人)의 전통을 받들었다 하여 뒷세상에서 그 공을 논하기를, ‘마땅히 우(禹)의 공에 내려가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옳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이 오랑캐의 법을 탕척(盪滌)하여 없애버리고, 크게 풍속을 변하시어 탑묘(塔廟)를 훼손하시고 경률(經律)을 불사르고, 경내(境內)에 있는 승려들은 다 속가(俗家)로 돌아가게 하고, 예관(禮官)에 명하여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여 경사(卿士)와 서민(庶民)의 상제(喪祭)에 관한 예를 정하여 품위와 등급에 차이가 있게 하고, 의금(衣衾)과 기명(器皿)도 품수가 있게 하여 도식(圖式)을 진열해서 간이하고 명백하게 하여, 아래로 우매한 백성들도 다 알기 쉽고 행할 수 있게 하면, 지난날 놀고 앉아서 먹던 무리들이 지금은 다 호미를 들고 밭이랑에 나가는 백성이 될 것이며, 부처를 섬겨 앞날에 복을 빌던 무리들은 지금은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사람으로 전환하여, 도(道)는 두 가지가 없고, 나라에는 다른 풍속이 없게 되며, 인심이 바르게 되고, 도학이 더욱 밝아, 세도(世道)가 순화할 것이니, 이는 또한 동주(東周)의 한 번에 다스려지는 성세(盛世)가 되어 전하의 앞날에 학문의 공덕과 성인의 능사(能事)가 밝게 사책에 빛을 드리워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대성(大聖)의 일이란 보통에 뛰어나기가 만 배나 된다고 할 것이니, 그것이 인심을 어질게 하고 세도(世道)를 돌려서, 돕고 끼쳐 주신 모책이 억만년 무궁한 국복의 기초가 되는 것이 또한 이에서 벗어나지 아니 할 것입니다.

세종6(1424)년 4월 5일

진관사(津寬寺)는 원속전이 60결인데, 이번에 90결과 수록위전 1백결을 더 주고, 거승은 70명이다.

세종6(1424)년 5월 9일

진관사(津寬寺)에 태종의 대상재(大祥齋)를 베풀었다.

세종6(1424)년 5월 23일

태조의 기신재(忌辰齋)를 진관사(津寬寺)에 베풀었는데, 좌대언 조종생(趙從生)을 시켜 전물(奠物)을 날날이 돌아보도록 하였다.

세종28(1446)년 4월 6일

이재(二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세종31(1449)년 4월 21일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芬)과 민신(閔伸), 예조 판서(禮曹判書)허후(許誦), 참판(參判)조극관(趙克寬), 참의(參議)이인손(李仁孫)이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샘물이 불결하고 또 땅도 좁고 하니, 만일 수리하고자 하면 수륙사뿐 아니라, 본사(本寺)도 수리하여야 하겠는데, 도로(道路)가 험조(險阻)하여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기에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중이 말하기를, ‘영국사(寧國寺)는 지세(地勢)가 매우 시원하고 정결하며, 물이 또한 맑고 깨끗하다.’ 하옵고, 옛 책에 또한 이르기를, ‘풍(風)·수(水)·화(火) 세 가지 재앙을 진압하여 나라에 유리하다.’ 하였나이다. 또 창건한 지가 오래지 않고 도로도 평탄하오니, 수륙사를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31(1449)년 5월 20일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한재가 너무 심한데, 경기도에 죄수가 4백 96이고 다른 도에도 이와 비슷하오니, 그 중에는 어찌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겠나이가. 급히 형조(刑曹)와 각도 감사로 하여금 연루자를 심리(審理)하여 경한 죄는 보석(保釋)하고,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지금 우선 그전대로 수리하고 고쳐 짓는 역사는 풍년을 기다릴 것이며, 서울과 외방의 중요하지 않은 비용은 주관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감하게 할 것이옵고, 화주승(化主僧)들이 종친의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여러 고을에 횡행하여 민폐가 적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종친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내리지 말게 할 것이며, 지금 안양(安養) 등의 절을 새로 창건하여 크게 불사(佛事)를 벌이는데, 비록 국가의 경비에는 관계되지 않더라도 역시 백성의 고혈이오니, 청하옵건대, 금지하소서.” 하였다.

세종32(1450)년 윤1월 29일

처음에 진관사(津寬寺) 간사승(幹事僧) 각돈(覺頓)이 전라도로부터 돌아와서 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에게 고하기를, “이제 초둔(草屯)을 방납(防納)하려 하는데, 나주(羅州) 등 30여 고을에서 모두 다른 사람을 시켜 방납(防納)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므로, 대군(大君)이 아뢰니, 임금 이 노하여 그 고을 정조 진봉 향리(正朝進奉鄉吏)를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더니, 모두 죄를 자복하였다. 수령(守令)을 죄주려 하였으나, 일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다만 자급만 내리게 하니, 좌승지이 의흠(李宜洽)과 우부승지 이계전(李季甸) 등이 아뢰기를, “신(信)이란 것은 임금의 큰 보배이온데, 이제 두 번이나 사면을 지낸 후에 초둔(草屯)의 방납 사건으로써 수령(守令)들을 모두 강자(降資)하오면, 인군(人君)으로서 신(信)을 보이는 도리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급을 내리는 법은 전에 없던 바로서, 폐단이 있을 듯하니, 모두 파직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에 의논하라.” 하고, 마침내 모두 파직시켰다. 각돈(覺頓)이 제도(諸道)를 왕래하면서 작폐(作弊)한 것이 심히 컸는데, 전라도에서는 마음대로 남의 아전을 곤장을 치기도 하였고, 무릇 출입할 때면 반드시 사람을 시켜 갈도(喝道)하기를 봉사 조관(奉使朝官)같이 하니, 수령(守令)들이 모두 두려워 움추리고, 감사(監司)들까지도 또한 잔치를 차려 위로해 주었으며, 또 항상 승정원(承政院)에 출입하면서 조정 선비를 흘겨보고, 여러 관청에 나가면 반드시 자리를 주어 예모를 차렸다. 뒤에 초둔의 값 쌀 1백 석을 사사로이 도적질해 썼으나, 마침내 죄를 주지 아니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2월 27일

사헌 장령(司憲掌令) 김중렴(金仲廉)이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지금 불경(佛經)을 인쇄하고 또 불경을 베껴 쓰고자 하며, 또 대자암(大慈庵)을 고쳐 짓는다고 하는데, 불씨(佛氏)의 탄망(誕妄)한 것은 어찌 신(臣)이 말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부처를 섬겨도 진실로 이익됨이 없는데,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어찌 이익이 있겠습니까? 또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 조종(祖宗)을 위해서 다시 창건(創建)했던 것입니다. 대자암(大慈庵)을 고쳐 짓는 일은 선왕(先王)의 뜻이 아니니, 마땅히 전하의 처음 정사를 보실 적에 서두를 것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불경(佛經)을 인쇄하는 일은 부왕(父王)께서 명령하신 바이고, 불경을 베껴 쓰는 일은 이보다 전에 비로소 이를 했던 것이며, 대자암(大慈庵)을 다시 창건(創建)하는 것은 선왕(先王)을 위하는 일이니, 대신(大臣)들과 더불어 이를 의논하라.”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2월 27일

선공 제조(繕工提調) 좌참찬(左參贊) 정분(鄭芬)과 병조 판서 민신(閔伸)이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는 곧 선왕(先王)을 위하여 수륙재(水陸齋)를 베푸는 곳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부왕(父王)께서 이를 다시 수리하려고 하여 재목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것은 명분(名分)이 바르고 말이 순리(順理)하므로 오히려 옳겠지마는, 이 재목을 사용하여 대자암(大慈庵)을 고쳐 짓는다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절은 지금 아직도 완전하고 튼튼한데도 이를 부수어 치워 버리고 다시 새로 짓게 된다면, 시종(侍從)과 대간(臺諫)이 장차 옳지 않다고 굳이 간(諫)할 것이요, 유생(儒生)들도 잇달아 일어나서 논간(論諫)하여 그치지 않을 것이니, 아마 전하의 생각을 괴롭힐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절은 불상(佛像)을 봉안(奉安)하려고 한 곳인데, 듣건대 단청(丹青)이 벗겨져 떨어졌다고 하므로, 내가 고쳐 짓고자 한 것뿐이다.” 하였다.

문종즉위년(1450)년 2월 28일

장령(掌令) 정지하(鄭之夏)가 아뢰기를, “불경(佛經)을 베껴 쓰고 불경을 인쇄하는 일이 비록 대행왕(大行王)이 명령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면 어찌 반드시 다 따르겠습니까? 대자암(大慈庵)을 고쳐 짓는 일도 비록 대신(大臣)들에게 의논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에 어긋난다면 대신의 말을 어찌 다 따르겠습니까? 도리에 합하면 비록 미천한 사람[芻蕘]의 말일지라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위하여 설치한 것인데, 그 고쳐 짓는 재목을 대자암(大慈庵) 불전(佛殿) 짓는 데에 옮겨 사용하는 것은, 신(臣) 등의 생각으로서는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또 대자암(大慈庵) 불전(佛殿)은 지금 완전하고 튼튼한데도 이를 부수는 것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대행왕(大行王)께서 병환이 나신 이후로 모든 불사(佛事)에 있어서 지극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도 한 가지 일도 효험이 있는 것이 없었으니, 불설(佛說)의 탄망(誕妄)한 것은 이에 있어서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지금 불사(佛事)를 행함이 비록 선왕(先王)을 위하여 추천(追薦)하는 것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로써 미루어 본다면 단연코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신 등이 그웁이 듣건대, 대자암(大慈庵)의 지붕에 덮는 기와를 구워 만드는 일은 비록 노는 사람[遊手]의 무리를 사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년에 연달아 실농(失農)하게 되니, 어찌 소비[糜費]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다하지 못한다. 추천(追薦)하는 일이 이익이 없는 것은 내가 환하게 알지 못하므로, 절박한 정리(情理)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2월 30일

두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문종즉위(1450)년 3월 1일

정창손이 아뢰기를, “모든 일은 비록 선왕(先王)께서 조치한 바이지만, 만약 도리에 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 따를 수 없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토목(土木)의 역사를 초상(初喪)에 크게 일으키는 것은 진실로 적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종묘(宗廟)·사직(社稷)이 비록 기울어지고 무너진 곳이 있더라도 오히려 감히 수리 개조(改造)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 불우(佛宇)이겠습니까?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는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위하여 설치했으니, 개조(改造)의 준비는 선왕(先王)께서 벌써 일찍이 조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國葬)을 당하여 산릉(山陵)에 조달하는 비용도 자못 많게 되니, 이때에 이르러서 개조(改造)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 못합니다. 대자암(大慈庵)은 그 처음에는 성녕

대군(誠寧大君)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요, 지금에 와서 개조(改造)하는 것도 또한 선왕(先王)의 명령은 아니며, 간각(間闕)이 견고하고 튼튼하니, 그것을 부수고 고쳐 짓겠습니까? 지금 또 채옥(彩玉)을 구워 만드는데, 신 등이 살펴서 듣건대, 부처를 위하는 이유로써 각 관사(官司)에 수용(需用)된 물품을 모두 남김없이 다 써버렸다고 하니, 반드시 장차 백성에게 인납(引納)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세(來歲)의 공물(貢物)을 미리 바치는 것을 시속에서 인납(引納)이라 칭한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초기를 당하여 이단(異端)을 숭상하고 믿어서 재물을 손상시키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덕택(德澤)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신 등은 백성이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옛날에 수강궁(壽康宮)에서 비록 한두 사람이 머리 깎는 일이 있었지마는, 이같이 후궁(後宮)의 머리 깎는 일이 많은 것은 천고(千古) 이래로 신 등은 처음 들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의 말하는 바가 그대들의 말한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 이 까닭으로 청기와를 구워 만드는 것은 정지시키고, 등룽(燈籠)은 그전 것을 그대로 수리하고 고치도록 하였으며, 대자암(大慈庵)은 내 뜻은 아니지만, 지난 번에 선왕(先王)께서 불경(佛經)을 인쇄하여 이 곳에 두었으며, 나도 또한 불경을 이 곳에 간수하려고 하는데, 다만 장소가 협착한 까닭으로 고쳐 짓는 것뿐이다. 각 관사(官司)에 수용(需用)된 잡물(雜物)이 텅 비게 된 것은 나도 이미 알고 있지만, 마땅히 부왕(父王)을 위하여 천도(薦導)하는 일에 어찌 그것의 있고 없음을 헤아리겠는가? 만약 이때가 되어 고쳐 짓지 못한다면 일은 반드시 시일이 지체될 것이다. 후궁(後宮)이 머리를 깎는 것은 선왕(先王)께서도 오히려 금지시키지 못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를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3월 1일

사헌부 대사헌 이승손(李承孫)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대자암(大慈庵) 한 암자(庵子)만 해도 동우(棟宇)가 구름 위에 솟아 오르고 금채(金彩)가 햇빛에 비쳐서 극도로 사치스럽게 하였으니, 견식(見識) 있는 분의 수치(羞耻)가 되겠는데, 어찌 반드시 층각(層閣)을 다시 일으킨 후에야 복(福)

을 포연(布演)하는 장소가 되겠습니까? 더구나 대행 대왕(代行大王)께서는 조종(祖宗)을 위해서 수륙사(水陸社)를 진관사(津寬寺)에 건립(建立)하려고 하셨는데 이 곳을 버리고서 재목(材木)을 대자암(大慈庵)에다 옮겨 사용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 태조(太祖)와 태종(太宗)께서 고려(高麗) 말기(末期)에 불교를 믿던 재화(災禍)를 친히 보셨으므로 서울 안에는 오교(五敎)를 혁파(革罷)하고서 양종(兩宗)만 두고, 외방(外方)에는 사사(寺社)를 참작하여 적당히 줄였으며, 전민(田民)을 몰수(沒收)하여 부처를 공양(供養)하는 터전을 근절(根絶)시키고, 사사 도승(度僧)을 금지시켜 중이 되는 길을 막았습니다. 대행 대왕(大行大王)께서도 그 뜻을 잘 계승하여서 중을 도태(淘汰)시키는 교지(教旨)를 여러 번 내리시어 사설(邪說)로 하여금 그 사이에 방사(放肆)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불씨(佛氏)의 요망한 것을 환하게 보고서 이를 금방(禁防)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비록 이런 두 서너 가지 일을 정지시키더라도 부왕(父王)의 남긴 뜻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며, 조종(祖宗)의 지극한 뜻에 진실로 합당할 것입니다. 신 등은 타고난 성품이 용렬하고 어리석으며, 식견이 천박하고 고루하여 정성이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에 부족하고, 힘이 임금의 그릇됨을 돌이키기에 부족하지마는, 천둥같은 위엄을 우러러 무릅쓰고 지극히 간절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異端)을 공격하는 성인(聖人)의 훈계가 명백하고, 불사(佛事)를 행하지 않는 선유(先儒)의 이론이 지극한데, 신 등이 어찌 감히 입을 다물고 자신만 보전하여 전하로 하여금 불교(佛敎)를 믿었다는 이름을 역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의 임금 사랑하는 성심으로써 반드시 임금을 과실이 없는 처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몸을 굽혀 여정(輿情)에 따르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회수(回收)하시고, 사망(邪妄)의 뿌리를 엄하게 끊어서 영원한 세대(世代)에 전해 보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父王)을 위하는 일은 내 마음에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한 것이니, 이 마음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등롱(燈籠)은 당초부터 새로 만들려고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전대로 따라 수리하였을 뿐이니 다시 이를 말하

지 말라.”

문종즉위(1450)년 3월 1일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대간(臺諫)을 불러와서, 불경(佛經)을 베껴 쓰고 절을 짓는 일을 정지시킬 수 없다는 뜻을 설명하라.” 하니, 이계전(李季甸) 등이 아뢰기를, “이것은 그들에게 간(諫)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니, 옳지 못한 듯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대자암(大慈庵)의 역사는 정지시키고 진관사(津寬寺)에 공력을 합쳐서 짓는 것이 옳겠습니다. 진관사(津寬寺)는 곧 태조(太祖)께서 조선(祖先)을 위해서 창건했던 것이고, 역대(歷代)의 조종(祖宗)께서도 그대로 두셨는데, 지금 이것이 무너지고 부서진 이유로 고쳐 짓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없으니, 누가 감히 의논해 말하겠습니까?” 하였다. 집현전(集賢殿)과 대간(臺諫)에서도 또한 말하지 아니하니, 임금이 이에 진관사(津寬寺)를 짓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뜻을 손수 써서 보였는데, 그 글은 이러하였다. “진관사(津寬寺)를 짓는 일이 옳지 못한 것이 네 가지니, 비록 새 법당(法堂)을 짓더라도 이전 절이 험착하고 누추하여 큰 불사(佛寺)를 능히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나라의 힘은 몇 해 안에는 준비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진관사(津寬寺)는 항상 거(居)하는 중이 본래부터 적으니, 만약 새로 만든 불상(佛像)과 새로 인쇄한 불경을 둔다면 도적을 방비하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 나라의 힘이 반드시 1백여 명의 중으로 하여금 항상 그 곳에 거처하게 할 수는 없다. 진관사(津寬寺)는 비록 오늘날이 아니더라도 그전에 이미 다시 창건할 것을 정해 놓고 나라에서 이미 재목과 인력(人力)을 준비해 두었으니, 그렇다면 오늘날에 부왕을 위해서 추천(追薦)한 공덕(功德)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 진관사를 지어 새로 이룩한 불경(佛經)을 간수한다면 이는 대자암(大慈庵)을 부정(不淨)한 것으로 여기는 셈이다. 그렇다면 전일에 있어 왕비(王妃)를 위해 이룩한 불경도 또한 진관사로 옮겨 둔 후에야 옳겠지마는, 그러나 일찍이 부왕의 교지(教旨)가 있었으니 옳길 수가 없다. 이미 옳길 수가 없다면 지금 이룩한 불경도 또한 마땅히 대자암에 모아 두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지금 만든 불상(佛像)도 또한 마땅히 대자암

에 모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법당(法堂)을 이룩하였더라도, 이미 새로 만든 불상과 새로 이룩한 불경을 간수하지 않는다면 부왕을 위하여 추천(追薦)한다는 뜻이 어디 있겠는가?

문종즉위(1450)년 3월 3일

예조(禮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에 덮는 기와를 구워 만드는 데에 가정(加定)한 승군(僧軍)은 경상도(慶尙道)·전라도(全羅道)에 각기 1백 50명씩이고, 경기(京畿)·황해도(黃海道)에 각기 50명씩이고, 개성부(開城府)에 1백 명이니, 각각 그 도(道)의 감사(監司)가 재촉해서 서울로 올려 보내기를 전례(前例)에 의거하고, 역사한 지 2개월 만에는 서로 교체(交遞)하게 하라. 또 재촉 독려하는 즈음에는 소란이 없을 수가 없는데, 중들이 불우(佛宇)를 짓는 것은 다른 역사에 비할 것이 아니니, 곡진(曲盡)하게 개유하여 침범 박해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3월 14일

네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문종즉위(1450)년 3월 19일

분대 감찰(分臺監察)이 인수부(仁壽府)에 앉아 있는데, 진관사(津寬寺)의 중 홍해(洪海)가 바로 공청(公廳)으로 들어와서 제가 승상(繩床)을 끌어당겨서 앉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홍해(洪海)가 교만 방자하여 예절이 없는데도 승(丞) 홍담(洪澹)과 부승(副丞) 권온(權溫)이 금하지 않고 앉게 허락하였으니, 모두 과죄(科罪)하기를 청하였는데, 명하여 논죄(論罪)하지 말게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3월 28일(

이보다 앞서 진관사(津寬寺)의 간사승(幹事僧)이 소장(訴狀)을 제출하기를, “내가 전라도(全羅道) 각 고을의 전세(田稅)의 종이[紙]와 초둔(草菴)을 대납(代納)하고 대가(代價)로 쌀 1천 1백 50석(石)을 조운(漕運)하여 서울에 온 지가 며칠이 되었는데도 선인(船人)이 나타나지 않으니, 반드시 이것은 도용(盜用)할 계책입니다.” 하였다.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추문(推問)하게 하니, 공사(供辭)가 현등사(懸燈寺)의 중 설정(雪正)에게 관련되었으므로 본부(本府)에서 이를 가두었는데, 이때에 와서 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어제 의금부(義禁府)에서 어찌 죄 없는 중을 가두었느냐?” 하니, 의금부 제조(義禁府提調) 이맹진(李孟畛)·윤형(尹炯)·이선제(李先齊)가 마침 일을 아뢰기 위해 왔는데, 이맹진 등이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의 쌀을 둔 곳을 추문(推問) 핵실(覈實)하니 선주(船主) 김상(金尙)의 공초(供招)에, ‘현등사(懸燈寺)의 중 설정(雪正)이 쌀 1백 20여 석(石)을 운반해 갔다.’ 고 하므로 그 이유를 묻고자 한 것 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신미(信眉)는 선왕(先王)께서 존중(尊重)하던 중이고, 현등사(懸燈寺)는 신미(信眉)가 거주한 절이므로, 그 절의 중도 또한 지계(持戒)가 있으니 만드시 불의(不義)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현등사(懸燈寺)에서 쌀을 운반해 간 것은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이를 알고 있을 것인데, 어째서 그 절의 중을 가두었는가?” 하고는 즉시 석방하도록 하였으며, 뒤에도 물을 일이 있으면 불러 와서 문도록 하고 침범하여 소요(騷擾)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3월 28일

여섯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문종즉위(1450)년 4월 28일

좌의정(左議政) 황보인(皇甫仁)·우의정(右議政) 남지(南智)·우찬성(右贊成) 김중서(金宗瑞)·우참찬(右參贊) 정갑손(鄭甲孫)이 아뢰기를, “전일에 신(臣) 등이 충청도(忠淸道)의 녹전(祿轉) 남은 쌀 1천 80여 석(石)을 마땅히 진관사(津寬寺)의 간사승(幹事僧)에게 주어 절을 조성(造成)하는 비용으로 삼고 금년에 각도의 초둔(草菴)을 대납(代納)하는 폐단을 없애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전지(傳旨)하였으니, 신(臣) 등은 황송하게도 임금의 보살핌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 합니다. 그러나 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를 다 진술하여 숨김이 없는 후에야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를 짓는 것은 곧 세종(世宗)께서 조종(祖宗)을 위한 일이었으므로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용(需用)되는 비용을 이에 간사승(幹事僧)이 전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 등의 초둔(草菴)을 대납(代納)하고 그 대가(代價)를 거두어 쓰게 한 것은 실제 국가에 폐해가 없도록 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듣건대 간사승(幹事僧)이 바로 각 고을에 도착하여 여리(閭里)에 거리낌없이 다니면서 갑절이나 되는 수량을 받고 있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쌀 1천 80여 석(石)을 진관사(津寬寺)에 주고, 만약 모자란다면 작년에 대납(代納)한 것의 미수(未收)된 대가(代價)가 있는 고을에 명령하여 거두어서 진관사(津寬寺)에 주도록 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국고미(國庫米)로써 방패(防牌)를 사역(使役)하여 절을 짓게 한다면 거의 세종(世宗)께서 조종(祖宗)을 위하시는 뜻을 실추(失墜)시키지 않으며 백성들도 원망하지 아니하여 일이 쉽사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중들의 대납(代納)을 금지하더라도 잡인(雜人)들이 몰래 숨어서 청탁하여 대납(代納)하게 되니 그 폐단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다같이 이것을 대납(代納)할 경우라면 공처(公處)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오늘 아침에 정분(鄭奉)의 말을 들으니, 또한 내 뜻과 의견이 멀지 않다.” 하였다. 김종서(金宗瑞)가 다시 아뢰기를, “중들의 대납(代納)하는 폐단이 이보다 더 심함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차라리 자기의 재물이 없어질지라도 백성의 재력(財力)은 차마 손상(損傷)시킬 수 없다.’ 하였는데, 지금 각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대납(代納)에 시달려서 원망을 감당하지 못하니, 다만 지둔(紙菴)뿐만 아니라 유밀(油蜜) 등의 잡공(雜貢)까지도 모두 대납하게 되므로 유밀(油蜜) 1두(斗)에 쌀 1백 두까지 징수하게 됩니다. 그외의 잡승(雜僧)들도 진관사(津寬寺)의 간사승(幹事僧)이라고 거짓 일컫고는 세력에 의지하여 협잡(挾雜)을 시행하는 자가 자주 있게 됩니다. 지금 진관사(津寬寺)의 역사(役事)는 선왕(先王)의 유지(遺志)이므로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산릉(山陵)의 역사(役事)가 이미 끝나면 방패(防牌)가 할 일이 없을 것이니, 비록 이들을 사역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울의 성(城)이 무너진 곳이 매우 많고 경복궁(景福宮)도

또한 수증(修葺)할 곳이 있으며,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집 밖에 난간과 담을 축조(築造)하라는 유교(遺敎)가 있는데, 어찌 방패(防牌)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진관사(津寬寺)에 사역할 수가 있겠는가? 또 어찌 유독 중들의 대납(代納)만이 폐해가 있고 다른 사람의 대납은 폐해가 없겠는가?” 하였다,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대납(代納)은 법 밖의 일이니, 사람마다 법을 두려워한다면 능히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들은 대납하라는 명령을 빙자하고서 바로 각 고을에 도착하여 온갖 방법으로 폐를 끼치게 되니, 달리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경(卿) 등이 두세 번 이를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내 뜻으로는 비록 중들로 하여금 대납(代納)하게 하더라도, 그 고을에 명령하여 수합(收合)하여 중에게 준다면 폐해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각 고을 수령(守令)들이 중이 대납(代納)한 초둔(草菴)을 대납(代納)한 값을 거두어 주는 데 시일이 늦었다고 하여 좌죄(坐罪)되어 파출(罷黜)된 후로부터 간사승(幹事僧) 각돈(覺頓)의 무리가 스스로 좋은 수가 났다고 여겨 팔뚝을 걷고 기세(氣勢)를 올리고 그 무리들이 역마(驛馬)를 타고 주군(州郡)에 거리낌없이 다니면서 수령(守令)들을 능멸하니, 수령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감히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민가집에서 징수를 독촉하여 값어치[價值]를 묻지도 않고 한결같이 중들의 하는 대로 들어주었다.

문종즉위(1450)년 5월 9일

의정부(議政府)에서 각 관사(官司)의 공물(貢物)의 대납(代納)을 금지시키는 법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계목(啓目) 내에 진관사(津寬寺) 간사승(幹事僧) 외의 잡승(雜僧)들은 대납(代納)을 못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잡승(雜僧)은 전일의 설정(雪正)·도명(道明)과 같은 등류이다. 그러나 이 일은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알면서도 이를 하였으니, 또한 재리(財利)만을 꾀한 것은 아니다. 또 육전(六典)에 기재된 공물(貢物) 이외에 대납(代納)을 못하게 하는 법이 있는데, 다만 지금 거듭 밝혔을 뿐이다. 만약 이 법을 제정한다면 후일에 국가에서 혹시 대납(代納)할 일이 있으

면 장차 어떻게 이를 처리하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대납(代納)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민간 각호(各戶)마다 수량을 갑절로 해서 대가(代價)를 거두게 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신(臣) 등은 원하건대, 일체 모두 금지시켜 못하게 하고, 국가에서 만약 대납(代納)시킬 일이 있으면, 또한 특지(特旨)로써 이를 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그 폐단을 알면서도 대납(代納)하게 되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하민(下民)들이 대납(代納)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많지마는, 그러나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그 대납(代納)하는 사람과 서로 응하여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지못해서 스스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들이 만약 힘을 써서 이를 금지시킨다면 어찌 대납(代納)의 폐단이 있겠습니까? 청컨대 모름지기 금지시키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금약 조장(禁約條章)은 내가 장차 초고(草稿)를 만들어 경(卿)들에게 보이겠다.” 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각도(各道)의 각 고을 수령(守令)들로서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일 때문에 파직(罷職)된 사람을 이미 의금부(義禁府)로 하여금 마감(磨勘)하게 하여 차등(差等)을 두어 아뢰게 하였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아뢰기를, “파직(罷職)시킨 것은 선왕(先王)의 명령인데, 수개월(數個月)이 되지 않아서 차등(差等)으로 서용(敍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위의 사람들은 종신(終身)토록 서용(敍用)하지 않는 죄는 아니니, 그들로 하여금 차등(差等)으로 하지 말고 그 재품(材品)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신 등이 살펴서 듣건대 연안(延安)·나주(羅州) 등 고을의 수령(守令)은 더욱 죄가 없다 하며, 나주(羅州)의 경재소(京在所)에서도 또한 상언(上言)하였으니, 먼저 서용(敍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즉위(1450)년 5월 16일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대가(代價)는 수령(守令)이 참작하여 수렴(收斂)하고 친히 감시하여 면대(面對)해서 주는 법이 육전(六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진관사(津寬寺)에서 대납(代納)하는 전

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의 종이[紙]·유둔(由菴)과 교서관 별요(校書館別寮)에서 대납(代納)하는 경기도(京畿道)·충청도(忠淸道)·황해도(黃海道)의 정탄(正炭)과 성조목(成造木)·번와목(燔瓦木)과 귀후소(歸厚所)에서 대납(代納)하는 황해도(黃海道)·강원도(江原道) 정탄(正炭)의 대가(代價)를 간사 승인(幹事僧人) 등이 바로 각 고을에 도착하여 민가(民家)에 거리낌 없이 다니면서 갑절의 대가(代價)를 수렴(收斂)하여 민간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금후(今後)에는 승인(僧人)이 대납(代納)하는 공물(貢物)은 승인(僧人)으로 하여금 직접 가지 못하게 하고, 각기 그 소재지(所在地)의 수령(守令)이 참작하여 대가(代價)를 거두어 도목장(都目狀)으로 시행하여 예(例)에 의거하여 선가(船價)를 주어 수송(輸送)하여 간사승(幹事僧)에게 전해 주도록 하며, 만약 금령(禁令)을 어겨 대납(代納)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가(代價)는 관청에 몰수(沒收)할 것을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즉위(1450)년 5월 27일

백일재(百日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문종즉위(1450)년 7월 10일

안평 대군(安平大君)이용(李瑢)·좌찬성(左贊成) 정분(鄭莘)·예조 판서(禮曹判書) 허후(許詡)·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이조 참판(吏曹參判) 이사철(李思哲)·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 등에게 명하여, 진관사(津寬寺) 짓는 것을 가서 보게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7월 17일

제5조의 탄(炭)과 부등방목(不等方木)의 값은 충청 감사(忠淸監司)의 이문(移文)에 의거하여, 이미 호조(戶曹)로 하여금 작성하여 수교(受敎)하였고, 그 나머지 잡물(雜物)은 지난 번에 진관사(津寬寺) 별요(別寮) 등의 대납(代納)의 폐단으로 인하여 이미 거듭 밝히어 엄하게 금하였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헌부(憲府), 외방에서는 감사(監司)가 엄하게 문초하여 다스리고, 물화(物貨)는 모두 관(官)에 몰수하게 하여 그 금방(禁防)이 이미 지극하니, 반드시 다시 의논할 것이 없고, 육전(六典)

에 실려 있으면서 아직 값을 정하지 않은 인삼(人蔘) 등물 같은 것은 마땅히 호조로 하여금 작성하여 아뢰어 올리게 하소서.

문종즉위(1450)년 7월 26일

진관사(津寬寺) 감조관(監造官)이 승정원(承政院)에 고하기를, “공장(工匠)과 역도(役徒)가 월봉(月俸)을 받지 못하여, 날마다 광흥창(廣興倉)에서 있기 때문에, 일을 폐하게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곧 지평(持平) 이영구(李英耆)를 불러 말하기를, “이제부터 감찰(監察)은 본부(本府)에 사진(仕進)하지 말고, 바로 광흥창에 나가 앉아서, 오는 대로 곧 주게 하라.”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8월 13일

쌀 50석(石)을 진관사(津寬寺)의 조성소(造成所)에 주도록 명하고, 또 호조(戶曹)에 명하여 노자를 주어 이를 수송(輸送)하도록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0월 8일

진관사(津寬寺)를 지은 중[僧] 1백여 인에게 차등 있게 직(職)을 상주었다.

문종즉위(1450)년 10월 27일

임금이 글을 읽어 보고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나의 뜻으로서는 옛날에도 10월에 번개와 천둥의 변(變)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조금 겨울철이 따뜻해질 조짐은 있으나 아직도 번개와 천둥은 없었으니, 확실하게 그것이 재이(災異)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고 하는 것은 근일에 의논한 편민조건(便民條件)을 내리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흥작(興作)이 그치지 않는다.’ 고 하는 것은 진관사(津寬寺)·대자암(大慈庵)과 사신(使臣)의 집을 지은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대신(大臣)이 영합(迎合)한다.’ 고 하는 것은 정분(鄭奉)이 축성(築城)한 일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좌우(左右)에서 임금을 가리운다.’ 고 하는 것은 도승지(都承旨)가 진관사(津寬寺)의 일을 맡았던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너희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 이름을 말하

여 조목별로 진달(陳達)하지 않고 인이불발(引而不發)하는 것은 장차 성상의 문기를 기다렸다가 말하려는 까닭에 그 사연을 숨기고 있습니다. 대체로 ‘은혜가 백성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편민 조건(便民條件)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大臣)이 영합(迎合)한다.’는 것은 축성(築城)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합니다. ‘좌우(左右)세력이 커져서 임금 을 가리운다.’는 것은 도승지(都承旨)의 진관사(津寬寺)를 맡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요, ‘임금을 가리운다.’는 것은 정부(政府)·육조(六曹)에서 아뢰는 일과 못백성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저 대간(臺諫)의 말을 억누르고 아뢰지 않는 것을 이룸인데, 신 등은 되풀이하여 생각 하여도 그것이 임금을 가리우는 일인지 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0월 28일

안완경이 대답하기를, “근일에 편민 조건(便民條件)을 의논하여서 정하였으나 실제 혜택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말하기를, “흥작(興作)이 그치지 않는다고 함은 무엇을 이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래 백성들이 이미 피폐(疲弊)하였는데 쓸데없이 변방의 성(城)을 쌓았습니다. 무릇 나라 안의 영선(營繕)과 진관사(津寬寺)의 역사를 바야흐로 일으키고, 또 선공감(繕工監)의 관리들로 하여금 가서 재목(材木)을 베게 하고, 도청(都廳)을 파(罷)하지 아니하여 선공 본감(繕工本監)이 병폐를 받고 있습니다.” 하였다. 말하기를, “‘간언(諫言)을 따른 실상이 없다.’고 함은 무엇을 이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일에 신 등이 아뢰는 일이 심히 많아서 일일이 열거(列擧)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해청(海靑)과 물선(物膳)을 진헌(進獻)하고 사신(使臣)에게 노비(奴婢)를 주는 일은 신 등이 청한 적이 두 번이었으나 윤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복(衣服)의 승(升)의 수와 갓[笠]의 대[竹] 수는 비록 작은 일인 것 같으나 실은 풍속(風俗)의 사치스럽거나 검소해지는 기틀과 관계됩니다. 또 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맹손(權孟孫)이 불긴(不緊)한 병을 가지고 온천(溫泉)에 목욕한다고 칭탁하고 주(州)·군(郡)에 폐를 끼쳤으니, 마땅히 파출(罷黜)해야

합니다. 양화도(楊花渡)·삼전도(三田渡)의 승(丞)은 모두 세가(勢家)의 자제(子弟)를 제수(除授)하였는데, 이를 고치도록 청하였습니다. 정음청(正音廳)을 혁파하고, 평안도 절제사(平安道節制使)를 혁파하고, 대자암(大慈庵) 불사(佛事)를 정지하고, 2품 이상의 승출(陞黜)을 없애고, 요승(妖僧) 신미(信眉)의 작호(爵號)를 고치자는 따위의 일은 전번에 두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한 번도 유윤(兪允)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0월 30일

또 듣건대 충청도보은현(報恩縣)에 창건하는 복천사(福泉寺)는 지극히 사치하고 화려하다 하는데, 그 재목과 기와를 운수하고 단청[丹靑]을 마련하는 것은 모조리 백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연전에 방납(防納)한 초둔(草菴) 값의 쌀을 또한 민호(民戶)로 하여금 운수하여 납입(納入)시켜 그 폐단이 심히 컸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날 불씨(佛氏)를 섬기는 거조(擧措)를 다만 추복(追福)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불당을 짓는 것이 하나라도 적지 아니할 것이요, 백 개라도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근래 서울[京師]에 있어 진관사(津寬寺)·대자암(大慈庵)과 같은 두 절을 창건하였는데, 또 어찌 외방(外方)에 사사(寺社)를 짓기에 급급하여서 흠휩(欽恤)히 여기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힘을 수고롭게 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손상시켜 백성들의 원망을 사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또 듣건대 근일에 사리(舍利) 몇 매(枚)를 금중(禁中)에 안치(安置)하니, 종실(宗室)의 부녀(婦女)가 우러러 예배(禮拜)하고 보시(布施)하는 데 혹시 남에게 뒤질까 하여 능단(陵段)을 바치고 병이(餅餌)를 공양(供養)하기를 사치스러울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하고, 또 그 보시한 능단을 다른 날 불씨(佛氏)를 섬기는 밀천으로 삼을 것입니다. 또 대궐 안에서 주자(鑄字)를 고쳐 만들어 장차 경문(經文)을 찍어서 궁중(宮中)의 부녀와 환시(宦寺)로 하여금 모두 쉽게 깨칠 수 있게 한다니, 듣는 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부터 인주(人主)가 궁금(宮禁) 중에서 은밀(隱密)히 하는 일은 외간(外間)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마침내 속으로는 실상 이를 좋아하면서도 겉에서는 정대(正夫)한 것처럼 말하다가 천고(千古)에

비웃음을 남긴 자가 많습니다. 전하께서도 그것을 또한 마음속으로 성념(省念)하신다면 이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동궁(東宮)이 나이가 바야흐로 어린데, 진실로 어린 때를 당하여서 바르게 양육(養育)해야 합니다. 이제 곧 호불(好佛)의 습속이 궁금(宮禁)에서 먼저 유행하니, 동궁(東宮)으로 하여금 귀에 짓고 눈에 배어서 다른 날 승신할 실마리를 열게 한다면 그것이 또한 옳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또 대자암(大慈庵)·진관사(津寬寺)를 짓는 제색(諸色) 공장(工匠)으로서 상림원(上林園)의 직(職)을 받는 자와, 그 별감(別監) 구실의 화원(畫員)의 무리로서 관작(官爵)을 받는 자가 매양 비목(批目)에 외람되게 많은 것을 봅니다. 작록(爵祿)은 인주(人主)가 선비를 대접하는 공기(公器)인데, 비록 미관 말직(微官末職)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장(工匠)·천례(賤隸)의 무리이라면 비록 공로(功勞)가 있다 하더라도 미곡(米穀)으로 상주는 것이 옳고 이들에게 포백(布帛)을 내려 주는 것도 또한 옳은데, 어찌 외람되게 관직(官職)을 주어서 사류(士類)의 명분(名分)과 섞이게 하겠습니까? 그 불가한 것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따위의 해(害)는 특별한 그 대강일 뿐이요, 만약 그 상세한 것을 말한다면 이러한 몇 가지 일 이외에도 그 얼마만큼 해(害)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략]

우정언(右正言) 구인문(具人文)이 아뢰기를, “성상이 비록 ‘초둔(草菴)의 대납(代納)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나, 그러나 지금 진관사(津寬寺) 간사승(幹事僧) 각돈(覺頓)이 각도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일을 관장하는데, 그 일이 바야흐로 한창이니, 이것도 또한 성상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또 부녀(婦女)가 절에 오르는 것은 서울의 산(山)이 거든 헌부(憲府)로 하여금 대졸(臺卒)을 발하여 보내도록 허락하여서 이를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각돈(覺頓)의 일은 예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겠다. 대졸(臺卒)을 보내어 부녀(婦女)를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법이니, 어찌 다시 이를 세우겠는가?”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1월 1일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일찍이 예조로 하여금 마련 [磨勘]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실로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일이니, 사람들의 말에다 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진관사(津寬寺)의 간사승(幹事僧) 각돈(覺頓)이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것으로 인하여 부채(負債)가 실로 많은데, 만약 갑자기 이를 일체 금지한다면 저들 중들은 부채(負債)를 어떻게 갚겠는가? 우선 내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금지하는 것이 편하겠다. 상(喪)이 끝난 뒤에는 불사(佛事)도 점차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하였다. 안완경이 말하기를, “충청도의 백성들이 복천사(福泉寺)를 중창(重創)하는 재목(材木)과 기와를 운수하기 때문에 폐를 받음이 실로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또한 내가 아직 듣지 못한 것인데, 과연 있었는가? 안평 대군(安平大君)이 세종(世宗)의 영혼을 극락에 가게 하기 위하여 사재(私財)를 내어 이 절을 개창(改創)하므로, 나는 폐가 이 같은 데 이른 것을 알지 못하고 단청[丹靨]의 도구를 주었다. 그러나 이미 창건(創建)한 절이니, 철거하여 허물 수는 없다. 그 재목과 기와를 운수하는 것은 진실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1월 4일

장령(掌令) 하위지(河緯地)가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대자암(大慈庵) 간사승(幹事僧)이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하는 것으로 인하여 주(州)·군(郡)을 횡행(橫行)하면서, 폐를 여러 가지로 일으킵니다. 충청도(忠淸道)가 더욱 심한데, 또 보은(報恩)의 복천사(福泉寺)를 짓기 때문에 도(道) 전체가 폐를 받으니, 청컨대 이를 금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그마한 일인데 정부와 헌부(憲府)에서 그 폐를 극론(極論)하는구나. 그러나 이 절 짓는 것을 나도 또한 알고 있다. 그 금지하지 않는 까닭을 이미 일찍이 말하였다.” 하였다. 하위지가 또 아뢰기를,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불사를 맡아서 감독하였기 때문에 어의(御衣)를 특별히 하사하였고, 좌승지(左承旨) 정이한(鄭而漢)이 불사(佛事)를 맡아서 감독한 노고 때문에 과전(科田)을 하사하였는데, 실로 불가

(不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이한에게 과전(科田)을 내려 준 것은 특별히 예(例)에 따른 것뿐이다. 무릇 억측(臆測)하는 말은 항상 많이 맞지 않는 것이니, 대저 군자(君子)의 마음은 군자의 마음으로 헤아리고, 소인(小人)의 마음은 소인(小人)의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1월 17일

진관사(津寬寺)를 지은 중 30여 인에게 직(職)을 차등 있게 상주었다

문종즉위(1450)년 12월 16일

예조 판서 허후(許詡)와 병조 판서 민신(閔伸)·도승지 이계전(李季甸)에게 명하여 진관사(津寬寺)에 가서 수리하는 상황을 살피게 하였다.

문종즉위(1450)년 12월 17일

도승지 이계전(李季甸)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진관사(津寬寺)에 가 보니, 영조(營造)를 이미 끝마쳤습니다. 벽돌로써 깎다면 벽돌을 굽는 공이 심히 크니, 돌을 다듬어서 까는 것이 그 공력을 조금 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돌을 다듬는 공력이 자못 많으니, 벽돌로써 까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다시 마련[磨勤]하여 공력을 줄이기에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문종1(1451)년 1월 4일

하위지 등이 또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 간사승(幹事僧)으로 하여금 경상도 각 고을의 공포(貢布)를 실어나르게 하고 그 값을 거두게 하니, 실로 큰 폐단이 됩니다.” 하니, 예조 판서 허후(許詡)가 아뢰기를, “이미 본도(本道)에 이문(移文)하여 고핵(考覈)하게 하였는데, 그때에 회보(回報)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고핵하여서 아뢰어라.” 하였다.

문종1(1451)년 1월 11일

안평 대군(安平大君)이용(李瑢)·병조 판서 민신(閔伸)·이조 참판 이사철(李思哲)·도승지 이계전(李季甸)이 영릉(英陵)에 나아가서 함께 비석을 살펴보았다. 그때에 진관사(津寬寺)의 대자암(大慈庵)의 역사(役事)와 비

석을 우찬성 정분(鄭奉)과 민신(閔伸)이 오로지 맡아 보게 명하고 대군(大君)과 도승지로 하여금 참여하여 맡아 보게 하였다. 도승지는 신임하는 근신(近臣)이요, 대군은 왕실의 의친(懿親)이며, 제조(提調) 민신(閔伸)은 군졸을 장악하였고, 정분(鄭奉)은 국정(國政)을 맡았으므로, 그 다른 의논을 없애고 일의 공역을 쉽게 이루고자 함이었다. 정분(鄭奉)은 사람됨이 정교(精巧)하기가 남보다 뛰어나, 이제 비석의 제도는 모두 정분이 지휘하여 계획하고 민신(閔伸) 이하는 다만 “예 예” 하였을 뿐이었다. 매양 가서 볼 때를 당하면 추종(騶從)이 너무 많아 역기(驛騎)의 번거로움과 공역(供億)의 비용으로 그 폐단이 작지 않았다. 비록 대신들이 자주 왕래하였으나 그 실은 일의 공역에는 도움이 없었다. 이사철(李思哲)도 또한 도승지이었을 때 참여하여 감독하였으므로, 이제 옛날 그대로 감독하여 맡아 보게 하였다고 한다.

문종1(1451)년 2월 16일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승지(李崇之)가 계문하기를, “황금(黃金)과 하엽록(荷葉綠)은 불상을 그리고 진관사(津寬寺)를 단청하는 데에 모두 소비하고 남은 것이 얼마 없습니다. 이 물건들은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만약 쓸 곳이 있으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이 또 계문하기를, “전하께서 종묘와 문소전(文昭殿)·영녕전(永寧殿)에도 아직 채색을 아니하였는데, 절에는 어찌하여 채색으로 꾸밈니까?” 하였다.

문종1(1451)년 2월 21일

안완경이 아뢰기를, “신이 성상을 부처에 혹하였다고 함은 아닙니다. 진채(眞彩) 사용을 금지함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진관사(津寬寺) 단청을 오로지 금은 진채(金銀眞彩)를 썼으니, 매우 적당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진채를 쓰지 마소서. 또 진관 수륙사(津寬水陸社)를 이미 지었는데 어찌하여 해가 지나도록 일을 과하지 아니합니까? 원컨대 이 역사(役事)를 멈추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사(官寺)는 진채(眞彩)를 써도 가하기 때문에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불당(佛堂) 대자암(大慈

庵)에 비하면 줄었다. 수록사는 비록 이미 이룩되었으나, 승도(僧徒)가 거처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쳐 짓는 것이고 장려(壯麗)하게 꾸미려는 것이 아니며 또 부처를 믿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문종1(1451)년 3월 28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이제 혜빈(惠嬪)이 사는 곳을 따로 세우니, 바깥 사람이 모두 불당(佛堂)이라 합니다. 이미 궁(宮) 북쪽에 불당을 세웠는데, 지금 또 세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공인(工人)을 시키지 아니하고 중들이 시켜 짓는다고 하나, 진관사(津寬寺)의 역사(役事)를 아직 마치지 못하였는데 토목의 역사가 잇따르니, 청컨대 멈추게 하소서.

하물며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따로 한 집을 마련해 살게 하면 그 친족이 드나들면서 와 보는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궁금(宮禁)을 엄하게 할 수 없으니, 대체(大體)에 또한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의 후궁을 자수궁(慈壽宮)에 같이 있게 함이 마땅하나, 혜빈이 본래 병이 있는데, 부모의 상사(喪事)가 지난 뒤로부터 그 병이 더욱 중하여 여러 후궁과 같이 있는 것이 마음에 미안하기 때문에 영풍(永豐)의 집 곁에 스스로 집을 하나 샀는데, 내가 두어 간 집을 짓게 하여 편히 있도록 한 것뿐이다.

혹 한 간에 부처의 화상을 설치하는 것은 본디 중의 집에서 하는 일인데 어찌 금할 수 있겠느냐? 비록 자수궁에 있을지라도 이를 하지 않겠는가? 이 집을 불당(佛堂)으로 만든다고 함은 심히 무리(無理)한 말이다.” 하였다.

문종1(1451)년 4월 29일

진관사(津寬寺)에 수록사(水陸社)를 만든 중 2백 18인을 대선사(大禪師)로 제수하였다.

문종1(1451)년 5월 18일

진관사(津寬寺)의 수록사(水陸社)가 준공되었음을 고하니, 제조(提調) 우

찬성(右贊成) 정분(鄭奉),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신(閔伸) 및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사철(李思哲),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였다.

문종1(1451)년 5월 19일

대사헌(大司憲) 정창손(鄭昌孫)이 혜빈궁(惠嬪宮)의 별실(別室)을 영건(營建)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극진히 아뢰니, 임금이 부드러운 말로 해명하였다. 정창손이 또 진관사(津寬寺)의 토목(土木) 일의 허비(虛費)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경(卿)이 마땅히 가서 편부(便否)를 살펴보아야 하리라.” 하고, 대신(大臣)이 나가고서, 도승지 이계전이 대사헌은 의리로 보아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힘써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헌부(憲府)가 짓지 않기를 바라므로, 가보고서 편부를 알게 할 따름이다. 대사헌이 가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말하는 것이 옳으면 마땅히 좃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남의 말을 어기면서 좃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의 충언(忠言)을 좃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니, 우부승지(右副承旨)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대사헌이 가보아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사헌이 중들을 부리지 말고 일꾼을 부리기를 바라는 것은 그 본의(本意)가 아니고, 영건(營建)을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대사헌을 시킨 것은 편부를 실지로 알게 하고자 함인데, 지금 경 등이 가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바로 바깥 사람들이 내가 바른 말을 꺼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정창손의 본의는 알 수 없으나, 중들이 폐단을 일으키는 것을 미워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 뜻을 대사헌에게 말하라.” 하였다.

문종1(1451)년 5월 2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대사헌(大司憲)의 계(啓)에 따라 진관사(津寬寺)를 고쳐 짓는 것이 온당한가를 의논하게 하시므로 이제 조성 제조(造成提調) 정분(鄭奉)과 의논하니, 정분이 말하기를, ‘세종(世宗)께서 일찍이 수륙사(水陸社)를 다 지으면 진관사의 본사(本寺)를 개수

(改修)하려 한다 하셨는데, 이제 그 절을 보건대 기울고 무너진 곳이 많으므로 실로 개수하여야 마땅하겠거니와, 수륙사를 짓고 남은 목재와 기와 및 공급한 쌀이 이미 많으며 일꾼은 중들이 스스로 하니, 국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합니다. 신 등도 또한 국력(國力)을 힘입지 않고서 중들이 스스로 한다면, 중이 절을 짓는 것은 제 분수의 일이니, 무슨 안될 것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문종1(1451)년 5월 22일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맨먼저 대자사(大慈寺)의 역사를 일으켜서 사치하고 화려하기가 견줄 데가 없어 지금 사람들로서 그것을 보는 자는 송연(竦然)하지 않는 자가 없어 동방(東方)에는 다시 없는 것이라 생각하니, 전하께서도 어찌 이런 극단에 이를 줄이야 아셨겠습니까? 신 등은 이미 지난 일을 뒤미처 허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 밖의 일을 알 만합니다. 지금 진관사(津寬寺)의 수륙사(水陸社)가 비록 세워졌으나, 그 꾸미는 일과 섬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많으며, 그 예전의 세운 중의 거처도 그대로 수리할 만한데 또 모두 다 새로이 지으려고 하니, 재물의 비용과 공력에 드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도, 전하께서는 오히려 일을 관장하는 자의 말을 의심하십니다. 당초에 일을 관장하던 자가 방책을 아를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공재(公材)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민력(民力)을 고달프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 그 말이 매우 교묘하였을 터인데, 마침내는 인부에게 식량을 관가에서 주어 먹였어도 아직 준공하지 못하였는데도, 또 더 별려서 그 일을 넓힙니다.

문종1(1451)년 5월 27일

대사헌(大司憲) 정창손(鄭昌孫)이 아뢰기를, “진관사(津寬寺)를 반드시 고쳐 지을 필요는 없으니, 청컨대 정지시키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쓰러져 가고 무너졌다고 들었으므로, 옛터에다가 그대로 수증(修葺)하게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대저 사사(寺社)가 무너져 장차 사람을 덮칠 염려가 있으면, 비록 먼 곳에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고쳐 지어야 하나, 이제 듣건대 진관사는 심하게 무너진 것이 아니

므로, 예전 그대로 수리하여야 할 따름인데, 지금 공역(工役)을 크게 일으켜서 오로지 새 재목을 써서 고쳐 짓습니다. 요즈음 백성의 힘이 매우 피곤하니, 정지시키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사(家舍)는 튼튼한 것을 귀하게 여기거니와, 만약 보수하여서 튼튼할 수 있다면 어찌 반드시 고쳐 지어야만 하겠는가? 새 재목을 써서 고쳐 지어야 할 곳은 고쳐 짓는 것이 옳고, 예전대로 보수할 만한 곳은 보수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이계전(李季甸)에게 말하기를, “경(卿)이 여러 번 진관사에 가 보았고, 또 헌부(憲府)의 말을 잘 들었으니, 경이 잘 처리하라.” 하니, 이계전이 말하기를, “이제 조종(祖宗)을 위하여 새로 수륙사(水陸社)를 지었거니와, 만약 진관사의 본사를 고쳐 짓지 않으면 몇 해 뒤에 반드시 기울고 허물어지기에 이를 것이고, 이미 기울고 허물어지기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백성의 힘을 써서 고쳐 지어야 하니, 나라의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만약 남은 재목과 기와로 중들을 사역하여서 고쳐 지으면, 나라의 힘을 들이지 않고서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정창손이 또 아뢰기를, “김숙리(金叔利)는 본디 재행(才行)이 없는데, 외람되게 동반(東班)의 벼슬을 제수(除授)받았으니 청컨대 파출(罷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빈(大賓)이 청한 까닭에 서용(敍用)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이에 앞서서는 비록 대빈이 청하더라도 오직 서반(西班)을 제수하였을 뿐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서용한다면, 청컨대 서반에 서용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어질다면 동반에 쓴들 무엇이 해로우랴? 또 윤봉(尹鳳)이 만약 봉사(奉使)하여 온다면, 더욱 불가하다.” 하였다.

문종1(1451)년 7월 10일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경성(京城)으로부터 진관수륙사(津寬水陸社)까지 향(香)을 받들고 경행(經行)하는 길에 혹 버려진 주검이 있으면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청컨대 한성부(漢城府) 및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엄중히 고찰(考察)하게 하고, 아울러 진관사(津寬寺) 동구(洞口)의 좌우(左右)에 사람의 매장(埋葬)을 금하여 길을 깨끗하게 하

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문종1(1451)년 7월 28일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 김종서(金宗瑞)가 아뢰기를, “본관(本館)의 성전(聖殿) 동무(東廡)·서무(西廡) 및 동재(東齋)·서재(西齋)는 모두 비가 새고, 난간과 담장도 무너져 내려서 문묘(文廟)의 체모(體貌)에 빛이 없습니다. 더구나 성전은 큰 집이므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이룩하기 어려우니, 빨리 모두 수축(修葺)하여야 하나, 다만 요사이 국가에 일이 많아서, 아직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진관사(津寬寺) 지붕을 덮고 남은 기와로써 본관의 현 기와에 합하면 쓰기에 넉넉할 것이나, 다만 절의 기와를 성전에 쓸 수는 없으니, 청컨대 동서 요아(東西窯牙)로 기와를 구워서 고쳐 덮게 하소서. 또 성전의 남문(南門)은 신문(神門)이라 부르는데, 지금 악기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실로 난잡(亂雜)하니, 역시 따로 3, 4간(間) 집을 지어서 악기를 간직하고, 반수(泮水)도 다 메워졌으니 아울러 파내게 하소서. 또 양현고(養賢庫)는 오로지 양현(養賢)을 위한 것인데도 그 노비(奴婢)는 상의원(尙衣院)에 속한 자가 자못 많습니다. 태종조(太宗朝)에 한 조그만 계집종이 어전(御前)에서 모셨는데, 물으시기를, ‘너는 어느 사(司)의 종이나?’ 하니, 대답하여 아뢰기를, ‘양현고의 종입니다.’ 하니, 성상께서 ‘양현고의 노비를 내가 어찌 감히 부리겠느냐?’ 하고, 곧 내보냈습니다. 신은 양현고의 노비로서 상의원에 속한 자 중에서 긴요한 공장(工匠) 외에는 모두 본고(本庫)로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가상히 여기어 이를 허락하였다.

문종2(1452)년 3월 13일

승정원(承政院)에 명하기를, “의산위(宜山尉)남휘(南暉)가 제조한 불상(佛像)을 사헌부에서 그 도금(塗金)한 것을 깎아 없애기를 청하는데, 다 이루어진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 이미 이루어졌다면 부수어 버릴 수는 없으니, 진관사(津寬寺)와 장의사(藏義寺) 등의 절에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都承旨)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사사로이 불상(佛像)을 제조한 것은 율(律)에 중죄(重罪)로 되어 있으니, 만약 버려두고

캐묻지 않는다면 오히려 될 수 있지만, 만약 성상(聖上)께서 교지(教旨)로써 구처(區處)한다면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서 말한 것이지, 내가 불상을 존숭(尊崇)한 것은 아니다. 만약 잠정적으로 버려두고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허락한다면, 이는 불상 제조를 도리어 용서하여 그 뜻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하니, 강맹경(姜孟卿)이 아뢰기를, “신 등은 진실로 성상께서 불교를 믿지 않는 줄로 알고 있사오니, 오늘에 아뢰는 바는 성상께서 불교를 숭상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차인(差人)에게 명하여 옮겨 두게 한다면, 두렵건대, 어리석고 미혹한 백성들이 성상께서 불교를 존숭(尊崇)한다고 여겨, 바람에 쓰러지듯이 다투어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버려두고 캐묻지 않는다면 불교를 숭상한다는 이름은 다만 남취(南暉)의 한 몸에만 있을 뿐입니다. 만약 옮겨 둔다면 속아서 혹(惑)하는 폐해가 장차 온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로써 감히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사헌부를 불러서 불상을 다 제조했는지의 여부(與否)와 구처(區處)할 일을 물어보라.” 하니, 지평(持平) 김윤복(金閔福)이 아뢰기를, “이미 다 완성되어 도금(塗金)했으니, 그 배 속에 간수한 금은(金銀)과 주옥(珠玉)은 금물(禁物)이므로 관청에서 몰수하고, 불상(佛像)은 그때에 명을 받들어 흥천사(興天寺)에 옮겨 두었습니다.” 하였다.

문종2(1452)년 3월 14일

공조(工曹)에 명하기를, “진관사(津寬寺)를 조성(造成)하는 재목은 도봉산(道峰山)과 삼각산(三角山)의 소나무를 베어서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단종즉위(1452)년 7월 18일

정인지(鄭麟趾) · 이사철(李思哲) · 민신(閔伸) · 이사순(李師純) · 박연(朴堧) · 이순지(李純之) · 강맹경(姜孟卿) 등이 왕명을 받들고 영릉(英陵)에 가서 두 대군 및 정승과 같이 의논하여 다른 혈을 살렸는데, 영릉의 서혈(西穴)이 길하다 하였다. 그 때에 경기도(京畿道) · 강원도(江原道) · 충청도(忠淸道) · 황해도(黃海道)와 당번 선군(當番船軍) 및 경중(京中) 시사(市肆)의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니, 쌀 값이 뛰어올라서 면포 1필의 값이

4두였다. 민신과 정분(鄭夔) 등이 감역(監役)하는 데 친히 지휘봉을 잡고서 이를 감독하였는데, 역사가 거의 이루어지자 이를 버리었으니,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정분은 사리에 통달(通達)하고 재능이 많고 이사(吏事)에 뛰어나서 오랫동안 선공 제조(繕工提調)가 되어 불당·대자암(大慈菴)·진관사(津寬寺)의 역사를 모두 관장하였다. 임금의 뜻에 영합하기를 힘써서 이 때문에 작위(爵位)가 정부에 오르게 되었는데,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국사를 그르치는 것은 반드시 잔열(孱劣)하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 재주와 지혜가 남아도는 자로 말미암아 그러하였다. 토목의 역사는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재산을 손상하여 원망이 자심한데, 이제 정이상(鄭二相)은 그 말을 들으면 흰히 트여서 막힘이 없고,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과대(夸大)하기에 힘써서, 묘당(廟堂)의 대신으로서 공사(工師)의 일을 좋아하니, 다른 날에 반드시 국사를 그르칠 것이다.” 하였다. 그 때 공조 좌랑(工曹左郎) 홍원숙(洪元淑)·선공 주부(繕工注簿) 김우묘(金雨畝)가 낭청(郎廳)이 되어서 일이 조금 느리면, 곧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를 꺼들러서 욕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혹은 그들이 대신의 체모를 잃었다고 비난하였다. 김우묘는 정분(鄭夔)의 이웃에 살았던 인연으로 벼슬을 얻어 드디어 주부에 이르렀는데, 그 대우함을 이렇게 함은 진실로 그 연고였다.

단종즉위(1452)년 윤9월 12일

1. 진관사(津寬寺)·별요(別窯)·귀후소(歸厚所)·교서관(校書館)의 대납 공물가(代納貢物價) 및 민간 징채(徵債)는 아울러 명년 가을을 한(限)하여 징수하지를 마소서.

단종1(1453)년 6월 21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의 계집종 연비(延非)가 흥천사(興天寺)에 있을 때 전 진관사(津寬寺) 주지(住持) 각돈(覺頓)과 몰래 간통하여 아이를 낳았으므로, 연비(延非)를 잡아다가 국문(鞫問)하였으나,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 사람들을 국문(鞫問)하니, 모두 말하기를, ‘각돈(覺頓)이 항상 그 집에 왕래하면서 간통하여 계집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각돈(覺頓)을 신임(信任)하여, 진관 수륙사(津寬水陸社)를 짓도록 하였으나 정욕(情欲)을 자행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탐오(貪汚)한 일도 매우 많았습니다. 만약 몸을 구금(拘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장차 도망하여 숨을 것이니, 청컨대 가두시어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傳旨)하기를, “신윤저(申允底)의 일은 이미 특명(特命)으로 제수하였으니, 고칠 수가 없다. 황보인(皇甫仁)과 각돈(覺頓)의 일은 정부(政府)에 의논하게 하겠다.” 하였다.

단종1(1453)년 6월 24일

중 각돈(覺頓)을 옥(獄)에 가두었다. 각돈이 탐인(貪忍)하고 흉포(凶暴)하여 간사하게 속이고 꾀가 많았다. 처음에 권연(勸緣)을 업(業)으로 삼다가 일찍이 청계사 암주(淸溪寺菴主)가 되었는데, 토목 역사를 감독하여 다스리는 데 능하였다. 마침 세종이 진관사 수륙사(津寬寺水陸社)를 중수(重修)하고자 하여 토목 역사를 능하게 맡아볼 만한 자를 널리 구하니, 선공 제조(繕工提調) 정분(鄭笨)이 각돈을 천거하여 영선(營繕)을 주장하도록 하였다. 전농시(典農寺)의 면포(綿布)를 주도록 아뢰어서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利子)를 취하였고, 또 여러 고을의 지둔(紙菴)을 대납(代納)하도록 하니, 【띠를 엮어서 만든 것을 국속(國俗)에서 둔(菴)이라 칭한다.】 그 값을 백성들에게 거두어서 토목 역사의 밑천으로 하였다. 전라도(全羅道)·황해도(黃海道)의 수령(守令)들이 조금 그 일을 어긴 것이 있었는데, 각돈이 무고(誣告)하게 죄를 엮어서 와서 아뢰니, 문종이 즉시 수령 30여 인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서 국문(鞫問)하게 하고, 곧 그 직(職)을 파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돈이 자못 위복(威福)을 떨치니, 사람들이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싫어하였다. <각돈이> 그 무리와 더불어 역마(驛馬)를 타고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곡식(穀食)을 취하니, 이르는 곳마다 결붕(結棚)하여 스스로 그 위에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아래서 곡식을 바치게 하고, 이익을 조금도 남김 없이 긁어내니, 백성들이 심히 괴롭게 여겼다. 절이 이미 이루어지자, 그대로 주지(住持)로 임명되었

는데, 재산을 축적(蓄積)한 것이 거만(鉅萬)이었고, 이로써 환시(宦寺)와 권귀(權貴)에게 뇌물을 주어서 구(救)하는 바를 문득 들어 주게 되니, 세력이 조정의 권귀(權貴)와 같았다. 일찍이 양주 교도(楊州敎導) 윤심(尹深)의 첩(妾)을 빼앗고, 또 흥천사(興天寺) 옆에 거주하던 여자 연비(延非)를 간통(奸通)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두 집에 묵으면서 음탕(淫蕩)하고, 방종(放縱)한 짓을 자행하였으나 사람들이 감히 누구인가를 묻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연비(延非)의 거주하는 부(府)의 관리가 헌부(憲府)에 신보(申報)하여, 헌부에서 발차(發差)하여 잡아 오니 <각돈이> 무리하게 말하기를, “수고롭게 근심할 것이 없다.” 하고, 드러내놓고 비난(非難)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음을 쓰지 않았다. 드디어 구금(拘禁)하여 잡아 두게 되자, 헌부(憲府)에서 수금(囚禁)하기를 조금 엄하게 하니, 몰래 문도(門徒)로 하여금 귀근(貴近)과 환시(宦寺)들에게 뇌물을 주게 하였다. 사건을 노산군(魯山君)에게 아뢰었으나 그 사건을 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정부(政府)에서도 또한 마음을 쓰지 않았다. 마침 헌부 관리(憲府官吏)들이 다른 일로써 좌천(左遷)되니, 사건은 잠잠하여져 묻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 각돈이 잡혀서 헌부(憲府)에 이르렀을 때 묻기를, “절 옆의 과부(寡婦) 여자 연비(延非)는 네가 주장하는 집인데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니, 각돈이 성난 목소리로 대답하기를, “무릇 도하(都下)의 과부로서 아이를 가진 자는 모두 나의 소행이란 말인가?” 하고, 조금도 놀라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남을 알보고 거만하게 구는 것이 이와 같았다.

단종1(1453)년 6월 30일

장령(掌寧) 조계팽(趙季砦)을 불러서 전지(傳旨)하기를, “너희들이 아뢴 신자수(申自守)의 일은 처음에 논하지 말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다시 청하였기 때문에 이미 파직(罷職)하도록 하였는데, 다시 무엇을 더 하겠는가? 각돈(覺頓)은 본래 병이 있는데, 또 진관사(津寬寺)를 맡아 보았으니, 우선 보방(保放)하도록 하라. 만약 사증(詞證)이 명백(明白)한데도 오히려 승복(承服)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다시 아뢰어라. 내가 마땅히

다시 상량(商量)하겠다.” 하니, 조계팽(趙季砦)이 아뢰기를, “전에 감옥의 죄수가 많이 죽었으므로 피혐(避嫌)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간원(諫院)에서 추핵(推覈)하면 반드시 본사에서 능히 검찰(檢察)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형조(刑曹)의 당상에서 또 좌랑(佐郎) 구달충(具達忠)을 보내어 피혐(避嫌)하기를 계청(啓請)하니, 모두 정부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였다.

세조3(1457)년 9월 7일

왕세자의 초재(初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세조3(1457)년 9월 14일

세자의 이재(二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세조3(1457)년 9월 21일

왕세자의 삼재(三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세조9(1463)년 6월 12일

정업원 주지(淨業院住持) 니승(尼僧) 해민(海敏)이 아뢰기를, “강도(強盜) 20여 명이 경기고양(高陽)의 정수암(淨水庵)에 이르러, 승인(僧人)의 의복(衣服)·잡물(雜物)을 겁탈(劫奪)하고, 불을 놓아 활을 쏘아서 승인(僧人)들도 또한 쏘았더니, 도적 1인이 화살을 맞아 죽고, 4명은 화살을 맞고 도망하였습니다. 청컨대 군사(軍士)를 발하여 수색하여 잡게 하소서.” 하니, 즉시 명하여 선전관(宣傳官)·부장(部將)·진무(鎭撫) 등에게 각각 군사 20인을 거느리고, 동서(東西)의 강성산(江城山) 진관사(津寬寺)와 고양현(高陽縣) 등지에 나누어 가서 수색하여 잡게 하고, 또 한성부(漢城府)와 고양현(高陽縣)으로 하여금 수색하여 잡게 하였다.

예종1(1469)년 6월 27일

봉선사(奉先寺)가 이루어지니, 중 학열(學悅)과 학조(學祖)에게 명하여 가서 제도(制度)의 공졸(工拙)을 살펴보고, 그대로 머물면서 감독하게 하였다. 학열과 학조가 <봉선사를> 살펴보고 말하기를, “모당(某堂)은 기둥이 너무 높고, 모각(某閣)은 재목을 다듬은 것이 정(精)하지 못하며, 모당(某堂)은 장지[障子]가 질박(質朴)하다.” 하며, 당장 험도록 하니, 동역

제조(董役提調)와 낭관(郎官)이 서로 돌아보며 두 손을 모으고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다. 또 영전(影殿)을 헐려고 하였는데, 영의정 한명회와 능성군구치관이 도제조(都提調)로 마침 가서 ‘헐 수 없다.’고 고집하여, 왕복(往復)하기를 두세 번이나 한 연후에 그만두었다. 학열이 사람을 보내어 아뢰기를, “절을 마땅히 속히 지어야 하니 조치하는 것을 늦출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도성사람과 수레를 써서 나무와 돌을 운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부득이 좃아서, 수레가 5백여 냥(兩)에 이르렀다. 수일이 지나서 임금이 구치관에게 묻기를, “학열이 아뢰지도 않고 마음대로 승당(僧堂)을 헐었는데, 경은 어찌하여 저지하지 않았는가?” 하니, 구치관이 대답하기를, “신이 절에 도착해 보니 이미 헐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으니, 학열이 병을 핑계하여 가버렸다. 학열은 간사(幹事)를 잘 하여 누조(累朝)에서 총애를 받아, 진관사(津寬寺)와 대자사(大慈寺)·낙산사(洛山寺) 등의 절을 맡아 영조하여, 민력(民力)을 모두 소모하였는데, 지금 또 이같이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재물을 손상시키고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때 사람들이 분하게 여기었다.

성종즉위(1469)년 12월 5일

[대행왕의] 초재(初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성종즉위(1469)년 12월 12일

이재(二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성종1(1470)년 1월 10일

육재(六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성종5(1474)년 4월 27일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두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성종5(1474)년 5월 11일

진관사(津寬寺)에서 대행 왕비의 사재(四齋)를 베풀었다.

성종5(1474)년 6월 3일

진관사(津寬寺)에서 대행 왕비(大行王妃)의 칠재(七齋)를 베풀었다.

성종14(1483)년 4월 1일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대행 대비(大行大妃)의 초재(初齋)는 장의사(莊義寺)에서, 이재(二齋)는 진관사(津寬寺)에서, 삼재(三齋)는 봉선사(奉先寺)에서, 사재(四齋)는 정인사(正因寺)에서, 오재(五齋)는 장의사(莊義寺)에서, 육재(六齋)는 회암사(檜巖寺)에서, 칠재(七齋)는 봉선사(奉先寺)에서 백제(百齋)는 정인사(正因寺)에서 올리되, 청컨대 내자시(內資寺) · 내섬시(內贍寺) · 예빈시(禮賓寺)에서 윤차(輪次)로 공판(供辦)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14(1483)년 4월 12일

이재(二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베풀었다.

성종14(1483)년 8월 16일

예조(禮曹)에 전지하기를, “양종(兩宗) 안의 불당(佛堂)으로, 원각사(圓覺寺) · 장의사(藏義寺) · 진관사(津寬寺) · 봉선사(奉先寺) · 복세암(福世菴) · 용문사(龍門寺) · 만복사(萬福寺) 등의 절은 선왕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던 곳이라 잡인(雜人)을 출입하게 하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엄중히 금지하도록 하고, 여기는 자는 제서(制書有違律)로써 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15(1484)년 6월 8일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 안침(安琛) 등이 차자(筓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공신(功臣)은 국가에 훈로(勳勞)가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고, 조사(朝士)는 관가에 직수(職守)가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으나, 불씨(佛氏)의 무리로 말하면 일하지 않고 놀며 먹으므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백성의 조세를 먹으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제 해마다 가물어 흉년이 들기 때문에 국용(國用)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직전(職田)의 조세를 관가에서 죄다 거두고 공신에게 내린 전지(田地)에서도 그 반을 관가에서 거두는 것은 대개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다만 사사전(寺社田)에 대하여는 진관사(津寬寺) · 장의사(藏義寺) · 각림사(覺林寺)에서 3분의 2를 거두는 외에는 다 미치지

않았으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간(臺諫)이 말이나 글로 한두 번 아뢰는 것이 아닌데, 아직 윤택하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들은 섭섭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크게 강단(剛斷)하여 물 흐르듯이 간언(諫言)을 따르시어 사사전을 죄다 관가를 시켜 거두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신들이 또 듣건대, 재아(宰我)가 묻기를, ‘군자(君子)가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쇠퇴할 것입니다.’ 하니, 공자(孔子)가 매우 그르게 여기며 말하기를, ‘군자가 상중(喪中)에 있으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삼가 듣건대, 교묘(郊廟)의 음악은 오래 폐지할 수 없다 하니, 특별히 익히게 하여도 괜찮겠으나, 기악(伎樂)으로 말하면 본디 아음(雅音)이 아닌데, 어찌하여 음악을 멈추어야 할 때에 서둘러 가르치겠습니까? 청컨대, 멈추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사사전의 조세는 관가에서 거둘 수 없다. 기악의 일은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성종18(1487)년 1월 23일

신 등은 삼가 듣건대, 선민(先民)의 말에 이르기를, ‘불씨(佛氏)의 피해는 양(楊)묵(墨)보다 심하다.’ 고 하였으니, 예로부터 현인(賢人) 군자(君子)는 깊이 막고 힘써 분별(分辨)한 것이 많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통촉해 보시는 것인데,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우선 그 국가를 좀먹는 것을 들어서 그 만의 하나를 대략 진술하겠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반승(飯僧)하는 비용을 관찰하면, 개경사(開慶寺)는 소금이 53석 5두, 회암사(檜巖寺)는 소금이 60석, 진관사(津寬寺)·장의사(莊義寺)는 소금이 모두 20석, 정업사(淨業寺)·정인사(正因寺)는 소금이 모두 60석, 연경사(衍慶寺)·복천사(福泉寺)는 소금이 93석 5두, 승효사(崇孝寺)·보은사(報恩寺)는 소금이 모두 50석, 각림사(覺林寺)·대자사(大慈寺)·용문사(龍門寺)는 소금이 모두 1백 20석, 내불당(內佛堂)은 소금 5석, 말장(末醬) 5석 5두, 쌀 31석 2두, 마포(麻布) 8필, 면포 10필, 봉선사(奉先寺)는 소금 1백 석, 말장 6석 5두, 황두(黃豆) 48석, 쌀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원각사(圓覺寺)는 소금 10석, 말장 6석 5두, 황두 48석, 마포 10필,

면포 20필, 연굴암(演窟菴)·복세암(福世菴)은 소금이 모두 10석 6두, 말장 5석, 쌀 27석 6두, 양종(兩宗)은 소금이 모두 40석이고 선승(選僧)하는 해는 쌀이 모두 30석, 황두가 30석이니, 1년의 소비가 적지 않은 데 이릅니다. 10년을 합하여 보면 소금이 총계 6천 2백 20석 10두, 말장이 2백 30석, 황두가 1천 2백 30석, 쌀이 1천 7백 4석, 마포 2백 80필, 면포 5백 필이며, 20년을 쌓으면 소금·쌀·말장·황두가 총계 1만 8천 7백 60석이 넘고 마포·면포가 1천 5백 60필인데 공불(供佛)하는 비용이 또 대단히 많습니니다. 이로써 적(敵)을 방어하면 무슨 적인들 이기지 못하겠으며, 이로써 성(城)을 지키면 어느 성인들 튼튼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는 데 쓴다면 수십 만의 열고 굶주린 백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오랑캐를 대접하는 데 쓴다면 수십 년간의 청구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고흥(膏血)을 짜서 쓸데없는 곳에다 버리는 것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또 조라치(照刺赤)가 저들을 복종하여 섬기는 것은, 이것이 또한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만약 선왕(先王)과 선후(先后)를 위해 명복(冥福)을 올리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신 등은 그웁이 의혹됩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화락(和樂)한 군자(君子)는 복을 구하되 올바르지 않음이 없도다.’ 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효성으로써 제사하여 하늘에 계시는 신(神)에게 대할 뿐인데, 어찌 부처에게 귀의하여 그 복을 구하겠습니까? 더구나 임금의 한 몸은 사방(四方)과 만백성의 의표(儀表)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 등은 진실로 전하께서 정일 집중(精一執中)하는 학문으로써 증희 경지(緝熙敬止)의 공(功)을 더하사 불도(佛道)를 믿지 않는 마음이 깊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사망의 만백성이 국가에서 여러 사찰에 반승(飯僧)과 공불(供佛)하는 것이 저와 같고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준 것이 또 이와 같다는 것을 듣는다면, 국가에서 불도를 믿지 아니한다고 이르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물을 가지고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고기잡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물을 버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 말을 믿도록 하는 것만 못하다.’ 고

하였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그 의식비(衣食費)를 없애어 국용에 보태게 하고, 그 복종하며 섬기는 사람을 없애어 본사(本司)로 돌아오게 하여서 사방의 만백성으로 하여금 대성인(大聖人)의 하시는 바가 보통보다 만 배가 뛰어남을 알게 하면, 만백성의 의혹을 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저 조폐(凋弊)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관사(官司)도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종24(1493)년 1월 21일

승정원(承政院)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장의사(藏義寺)·진관사(津寬寺) 두 절에서 기신재(忌辰齋)를 올릴 때 각기 절에 소속한 중[僧]을 뽑아 보내도록 하여 나무를 지게 하였었는데, 폐단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병조(兵曹)로 하여금 정병(正兵) 15명을 뽑아서 정하여 나무를 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을 설치한 것은 시위(侍衛)를 위한 것인데 나무를 지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청컨대 예전대로 중들로 하여금 나무를 지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1(1495)년 1월 7일

제2재(第二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행하였다.

연산9(1503)년 1월 27일

전교하기를, “장의사(藏義寺)·진관사(津寬寺) 등의 수륙재(水陸齋)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며, 향축(香祝)을 드릴 때 꼭 조관을 보내는 것은 어찌서이며 또 무슨 일을 위해서인가?” 하니, 승정원이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사전(祀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해당 관사에도 반드시 전례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상고해 보니, 성화(成化)19년에 향축을 모두 위계(位階)가 높은 조관을 차임해 보내어 매년 2월 15일에 거행했는데, 선왕(先王)·선후(先后)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왕 때부터 이미 있었으니, 갑자기 고쳐서는 안된다. 충찬위(忠贊衛)의 등류로써 차임해 보내라.”

하였다.

연산10(1504)년 윤4월 10일

승지 강징(姜澂)이 왕명을 받들고 가서, 대행 대비의 두 번째 재(齋)를
진관사(津寬寺)에서 거행하였다.

4)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

朝鮮總督府內務部地方局 編 [1911년]

津寬寺事蹟 高陽郡

津寬寺在漢陽之乾三角之坤揖艮回抱岩巒秀麗泉石清灑實埜塏而年久事往雖非
無可考但野語云麗朝津寬寺大師結廬於此而逢王子之出奔而養之後更爲嗣卽高
麗顯宗也因封爲國師創刹於是而石柱石砌等諸刪磨石物皆其時之所役而石無楮
乏錄便無書契以前時消息無異畚間於誰而質於何或當時董事者未遑之致歟或立
石編楮而蕩於兵火歟式剝落樵手而然歟溪山無語難以扣也京大寂寺塔側有丈餘
穹碣卽圓覺寺碑而其詞曰東有佛岩西有津寬南有三幕北有寶蓋山深源寺松都玄
化寺碑亦有封津寬祖師爲國師及建刹尊崇之說據斯二碑則固非虛說間值否運
兵火燒燼僧殘寺廢久矣崇禎戊辰後八十年丁亥六月及我肅廟朝入昭儀墓於此爲
墓所建寺刹於舊基墟而鍾梵更振香烟復凝者今數百年也姑寫所聞以爲之記

5)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421호 [1912년 01월 25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長官ハ各頭書ノ日附ヲ似テ左ニ掲クル氏名ノ者ヲ各
寺刹ノ住持ニ就職ヲ認可セリ. 明治四十四年年十二月二十八日 高陽郡 神穴
面 津寬寺 洪鐵牛

○제825호 [1915년 05월 06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 : 四月二十九日

異動事由 : 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 :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 : 津寬寺

住持氏名： 洪鐵牛

○제321호 [1928년 01월 27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 昭和二年八月三十一日

異動事由： 任期滿了

寺刹所在地：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 津寬寺

住持氏名： 權豐谷

△異動年月日： 十一月九日

異動事由： 就職認可

寺刹所在地：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 津寬寺

住持氏名： 金明煥

○제1221호 [1931년 02월 02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 昭和五年十一月八日

異動事由： 任期滿了

寺刹所在地：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 津寬寺

住持氏名： 金明煥

△異動年月日： 昭和五年十一月二十六日

異動事由： 就職認可

寺刹所在地： 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 津寬寺

住持氏名： 尹慧雲

○제2155호 [1934년 03월 19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 昭和八年十一月二十五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尹慧雲

△異動年月日：昭和八年十二月十九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林玉山

○제3042호 [1937년 03월 09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一年十二月十八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林玉山

△異動年月日：昭和十二年一月二十一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林玉山

○제3946호 [1940년 03월 18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五年一月二十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林玉山

△異動年月日：昭和十五年三月七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林玉山

○제5002호 [1943년 10월 04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八年二月六日
異動事由：死亡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林玉山

△異動年月日：昭和十八年九月十四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津寬寺
住持氏名：金海明煥

6.3 시(詩)

1) 진관사주지명신혜선(津寬寺住持明信惠扇)

曾從禪苑聽詩名。紈扇今將寄厚情。莫訝論交違兩地。須知結業在三生。
閑閑最羨雲林臥。役役多慙世網嬰。方丈幾時聞軟語。借曹溪水濯塵纓。

[三灘集 李承召]

2) 진관사(津寬寺) 庚午

草色連斜徑。春光迷遠野。山樓坐寂寥。落日見樵者。

[謙齋集] 趙泰億]

3) 자진관사(自津寬寺)

夜投興聖庵。逢仲協同宿。翌朝。逢儒川公子深源 滯，密城公子敬夫[棫]，

李子晦[廷燁] 遂聯轡訪清潭水石。暮抵西山密城山庄。宿焉。時適小雨。

九日津寬寺。三更興聖庵。偶然逢勝客。相與訪清潭。

水落千岩出。霜濃萬木酣。不妨村舍憇。小雨解停驂。

[謙齋集] 趙泰億]

4) 진관사차련구운(津寬寺次聯句韻)

緩步微吟入洞遲。小溪深處弄漣漪。居僧叉手笑相語。山鳥山花要客詩。

[謙齋集] 趙泰億]

5) 진관사지감경오년간(津寬寺志感庚午年間)

津寬寺志感庚午年間 隨伯氏讀書處也。舊日棟宇已成灰燼。新構亦已久矣。

津寬古寺澗之濱。劫火經年棟宇新。二十年間人事變。春風駐馬獨傷神。

[謙齋集] 趙泰億]

6) 공회승흥유진관사(公會乘興遊津寬寺)

士述，公會乘興遊津寬寺。歸言水石之勝。

顧余頹然病卧。中心飛動而已。悵然題諸君詩軸

十里津寬寺。如何一見難。愧吾緣老病。於爾遜清歡。

雲氣峯巒抱。秋聲水石寒。新詩各在袖。持以畫圖看。

[樊巖集] 蔡濟恭]

7) 진관사(津寬寺)

華山一面梵宮尊。幽壁娟娟雲水昏。僧出高松寒洗鉢。客從流水晚敲門。

樓看洞雨朝來處。石帶潭龍夜過痕。深坐中峯蒼翠半。月明孤磬對清言。

[海石遺稿 金載瓚]

8) 진관사호운(津寬寺呼韻)

初地入雲松。數里清澗道。金殿麗王作。往跡浮雲掃。洞天極幽窅。
周覽卽事好。雨深古寺暝。猿鳥入懷抱。寄語空門友。香山有九老。

[而已广集 張混]

9) 동왕보경도진관사(同王步庚到津寬寺)

淒淒松韻絃咽。湫湫池光鏡寒。憶昔同遊厚夜。嗟吾依舊儒冠。

[前年偕步庚伯氏步明來此。今作泉下人故云云]

奇觀連篔老礎。幽情藜桂森松。絃歌日遣雷沸。闌闌居非宿舂。

[而已广集 張混]

10) 투숙진관사(投宿津寬寺)

琳宮秋夜客經過。仙梵微微月隱柯。病以十年遊始再。勝如此地較無多。
雲光人立荒臺石。泉脉篔連遠壑蘿。空翠天香禪意定。我同猿鳥息巖阿。

[而已广集 張混]

11) 진관사(津寬寺)

春雨沈沈翳梵臺。坐間仙漏不相催。毒龍夜靜依潭卧。怖鶴山空遶殿來。
鳴磬響穿群壑暝。懸燈光颭遠林開。燒檀暗數浮生理。何似堂坳覆一杯。

[而已广集 張混]

12) 숙진관사(宿津寬寺)

春氣催人適野心。津寬寺僻愛重臨。鳴沙泯泯新流活。幽壑皚皚舊覆深。
鍾罷花奴來喫飯。詩成木客與和吟。存亡十載浮生感。山月曾無異古今。

[楓阜集 金祖淳]

13) 향진관사도중(向津寬寺道中)

麥光艸色綠連空。自愛吾行在野中。山晚棠梨臨水白。春殘躑躅照人紅。
角巾墊盡林宗雨。雙袖携來禦寇風。啼鳥休煩泥滑滑。禪門遊屐喜相同。

[存齋集 朴允默]

14) 진관사(津寬寺)

廢址頽垣歲月闌。石林寥落數僧寒。巖崖互出皆奇相。泉瀑爭流不一端。
勝地如今遺蹟遠。他山從此擅名難。斷橋紅樹回頭處。都作天台畫裏看。

[存齋集 朴允默]

15) 과진관사간경중수(過津寬寺間經重修)

舊址高樓出巋然。始知福地有新緣。名傳一國猶今日。劫閱三韓是幾年。
水發仙源分石澗。山開淨界簇金蓮。世人供佛知何限。輦致金錢到萬千。

[存齋集 朴允默]

16) 금종원석[직] 독서진관사. 유희기시서회
(金從元石[鑠] 讀書津寬寺. 有懷寄詩敘懷)

華山西畔卽津寬。吾弟縹囊住此間。懸想上方長夜樂。萬林風雪一燈寒。

[梅山集 洪直弼]

17) 진관사천석(津寬寺泉石)

下馬理山屐。招提在上頭。燈傳梅一片。石出劫千秋。
移席看雲起。飛觴任水流。問津迷寶筏。那識箇中幽。

[果齋集 成近默]

18) 진관사도중(津寬寺途中)

秋山忽滿目。長路任倭遲。礪菊明香處。巖松返照時。
輕輿隨俯仰。班鬢苦低垂。行盡招提界。纔成四韻詩。

[海翁藁 洪翰周]

19) 숙진관사(宿津寬寺)

幾年重到法王庭。今日峰巒不變青。一壑松笙清佛界。三更粥鼓鬧山靈。
枕邊泱泱聞流水。木末踈踈見遠星。饒舌偶然逢拾得。哦詩說偈兩堪聽。

[海翁藁 洪翰周]

20) 선도진관사(先到津寬寺)

暮春。與徐綱堂汝心 應淳，魚聖執 允中。偕作清潭之遊。先到津寬寺
白雲冉冉飛。忽見峰數三。憶在我屋裏。日夕儼相參。不有跋涉苦。
何由眞境探。候我綠巖峴。期子玉泉庵。茲事那能已。宣鬱勝苓稜。
陽林暖朝霞。惠風散輕嵐。春物日以暢。匏繫人何堪。况復欣良選。
隨處興欲酣。脩溪引客路。縈紆西復南。巖扃翳丹翠。水木清華湛。
縱然違所適。窈窕亦名藍。山月皎如燭。時與一僧談。夜來枕上夢。
泠然到清潭。 [眉山集 韓章錫]

21) 진관사우하정보당(津寬寺遇荷汀葆堂)

津寬寺遇荷汀葆堂。時荷亭。方以減省廳郎官。

議一切事宜。葆堂新舉孝廉對策候選。癸未

契濶侵尋曠起居。新年消息喜何如。才高易了三千牘。恩重難酬尺一書。
小雪霏微春雁後。殘鐘依約曉鷄初。儒冠報國多迂濶。共對香燈一懺除。
漢北江南取次行。禪窻重話隔年情。賢書不負周官意。清詔眞慚漢使名。
手裏杯樽忘客路。枕邊鐘漏憶王城。西曹後夜應相念。一笠娑婆太瘦生。
聞二堂。以夏官郎。有直所夜會之約 [明美堂集 李建昌]

22) 진관사(津寬寺)

平郊漠漠寺門迥。苔逕澹澹前宵雨。瀑布青山渾宿面。四載遊跡依梵宇。
仰看天時三月半。細葉丰茸祇園樹。萬壑雲煙常在下。誦經高僧不出戶。
砌石元來重修新。伽藍却是麗朝古。香積厨中引流泉。鐘磬樓虛松以補。
欲種善根宜福田。遠公教我清淨圃。浮生百年如大夢。衣食之際摠辛苦。
可學禪家無上乘。浩劫逍遙極樂土。連峰繞閣浸紅霞。杏花影重蓮臺午。
閑庭草色映袈裟。講席翩翩馴鴿羽。漱飯純用薇蕨菜。行歌坐詩送春煦。
青鴿巢邊紫燕隨。寺門新翠雨晴時。連峰日晚初涵影。峭壁花濃不見枝。
過客探春詩句細。老僧參講磬聲遲。前朝舊跡餘樓石。人世滄桑未可知。

[儉巖山人詩集 范慶文]

23) 귀로입게진관사(歸路入憩津寬寺)

深深三角下。古寺有津寬。潤道殘花亂。松橋細雨寒。
遠公何處在。佛力至今看。白髮猶餘興。諸天暫卸鞍。

[足睡堂集 洪仁謨]

24) 오계진관사(午憩津寬寺)

行到津寬日歎西 偷閒扶醉坐清溪 遊人去後誰能樂 禽鳥山林上下啼
[萍湖遺稿 申命顯]

6.4 산문(散文)

1) 진관사수육사조성기(津寬寺水陸社造成記)

報本追遠。王政之所先。利物濟生。釋教之所重。二者雖殊。皆仁心之發。而慈孝之誠所不能自己者也。昔者聖帝明王之道。尊祖敬宗。以廣其孝。博施濟衆。以廣其仁。其所以報本者可謂至。而利物者可謂弘矣。佛氏之說。以爲人死不滅。隨其所作善惡。輪轉受生。而佛能以慈悲拔苦與喜。濟其淪溺。生者若爲事佛飯僧。以導其利。則死者之神。飢可得飽。苦可得樂。以至成佛。永免輪轉之報。而生者亦蒙饒益。於是孝子慈孫以至愚夫愚婦。莫不靡然爭歸於佛。猶恐不逮。舉世滔滔是崇是尚。水陸無遮平等之會。尤其法之最勝者也。洪武丁丑正月乙卯。上命內臣李得芬沙門臣祖禪等若曰。予有邦家。惟賴祖宗積慶。圖報先德。靡所不力。又念臣民或死王事。或自殞命。而無主祀。飢餓顛躓於冥冥之中而莫之救。予甚愍焉。欲於古刹。爲建水陸道場。歲設以追祖宗冥福。且利群生。爾往相之。越三日丁丑。得芬等與書雲觀臣尚忠。陽建沙門志祥等。相自三角山至道峯山。復命曰。諸刹不若津寬寺之勝。於是上令置道場於是寺。爰命大禪師德惠。志祥等召集僧徒。以事營作。內臣金師幸尤致力焉。以其月庚辰。始興其役。二月辛卯。上親臨觀。定其三壇位次。三月戊午。又幸觀之。至秋九月。功乃告訖。三壇爲屋皆三間。中下二壇。左右又各有浴室三間。下壇左右。別置祖宗靈室各八間。門廊廚庫。莫不備設。凡五十

有九間。不侈不陋。以中厥度。是月二十四日癸酉。上又親觀。丁丑。命召臣近。記其始末以示後世。臣近竊聞人倫之道莫先於孝。王者之德亦莫大於孝。宗祀之禮。追崇之典。王者報本之孝。何以加於此乎。然而聖人之心猶不自足。以至配天於郊。配帝於明堂。其所以尊崇之者極矣。恭惟我主上殿下以神武之資。仁孝之德。誕受天命。肇建國祚。功光祖宗。澤被群物。而奉先之思。夙夜益虔。配天之祀既極。而歸佛之心亦切。使我祖宗在天之靈。親受佛記。獲證妙果。以建無祀之鬼咸蒙利澤。誠孝所感。至矣盡矣。推是心以及物。由親而疎。由幽而明。自今日至無窮。其功德之大。利澤之遠。豈易量哉。

[陽村集 權近]

진관사 수륙사 조성기

근본에 보답하고 먼 조상을 추모하는 것은 왕도 정치의 먼저 할 일이요, 물건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구제하는 것은 불교에서 중히 여기는 바이니, 두 가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인(仁)한 마음씨에서 출발하는 것이요, 사랑하고 효도하는 정성으로서 저절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옛날 어진 왕과 밝은 군왕의 도리는, 조상을 높이고 종친을 공경하여서 그 효도를 넓히며, 널리 베풀고 못 사람을 구제하여서 그 인(仁)을 넓히니 여기에 의하여 근본에 보답하고 물건을 이롭게 하는 일이 넓다고 하겠다.

석가모니의 설(說)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가지은 선악에 따라 윤회하여 태어나는데, 부처님이 자비를 베풀어, 고생을 없애고 기쁨을 주며 물에 빠져 들어감을 건져 주시니, 산 사람이 부처님을 섬기고 중을 대접하여 복리로 인도한다면 죽은 귀신이 주리다가도 배부를 수 있고 괴롭다가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부처가 되어 길이 윤회의 응보를 면하고, 산 사람도 역시 부유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고 한다.

이리하여 효자와 자손(慈孫)에서 우매한 부부까지 모두 휩쓸려 다투어 불도(佛道)로 돌아가지 않는 이가 없고, 혹시라도 믿지 못할까 걱정하여 온 세상이 거침없이 이를 높이고 이를 받는데 수륙무차평등(水陸無遮平

等)의 모임은 더욱 그 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태조6(1397)년 1월 2[을묘]일에, 임금이 내신(內臣) 이득분(李得芬)과 스님 신하(神下) 조선(祖禪) 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국가를 맡게 됨은 오직 조종(祖宗)의 적선에서 나온 것이므로 조상의 덕을 보답하기 위하여 힘쓰지 않아서는 안 된다.

또 신하와 백성 중 혹은 국사에 죽고 혹은 스스로 죽은 자 가운데 제사를 맡을 사람이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고, 얻어져도 구원하지 못함을 생각하니, 내가 매우 근심한다.

옛 절에도 수륙도량(水陸道場)을 마련하고 해마다 재회(齋會)를 개설하여 조종의 명복을 빌고 또 중생을 이롭게 하려 하니, 너희들은 가서 합당한 곳을 찾아보게 하라.” 하였다.

사흘째 되는 정축일에 이득분 등이 서운관(書雲觀)의 신하 상충(尙忠)·양달(陽達)·중 지상(志祥) 등과 함께 장소를 찾아 삼각산에서부터 도봉산(道峰山)까지 둘러보고 복명하여 말하기를, “여러 절 중에 진관사(津寬寺)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고 하니, 여기서 상이 명령하여 도량을 이 절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대선사(大禪師) 덕혜(德惠)·지상 등을 명하여, 중들을 소집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는데 내신(內臣) 김사행(金師幸)이 더욱 힘썼다. 그 달 경진일에 역사를 시작하였으며 2월 신묘일에 상이 친히 와서 구경하고, 3단(壇)의 위치를 정하였으며 3월 무오일에도 거동하여 구경하였다.

가을 9월에 이르러서 공사가 끝났다. 3단이 집이 되었는데 모두 3칸이며 중·하의 두 단은 좌우쪽에 각각 욕실(浴室) 3칸이 있고, 하단 좌우쪽에는 따로 조종의 영실(靈室) 8칸씩을 설치하였다.

대문·행랑·부엌·곡간이 갖추어지고 시설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두 59칸인데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아 제도에 맞았다.

이 달 24일 계유에 상이 또 친히 구경하시고 명하여 신(臣) 권근을 불러, “그 시말을 적어 후세에 보이라.” 고 하였다. 신 권근이 삼가 들으니, 인륜의 도는 효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군왕의 덕도 역시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조종 제사의 예법과 존하 법전은, 군왕으로서 근본을 보답하는 효도가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

그러나 성인의 마음으로는 아직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 하늘을 짝하여 교(郊)에 제사드리고 황제를 짝하여 명당(明堂)에 모시는 데까지 이르니 그 존송하는 것이 극진하다고 할 것이다.

공손히 생각하니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신무(神武)하신 바탕과 인효(仁孝)하신 덕으로 천명을 받들어 국가를 창건하시니 공은 조종에 빛나고 은택은 온갖 물건에 끼쳤는데 선조를 받드는 생각이 주야로 더욱 정성스러웠다.

하늘에 배향하는 제사를 이미 극진히 하고 부처에 귀의하는 마음이 또한 간절하여 우리 조종의 하늘에 계신 영혼으로 친히 부처의 복을 받고, 묘한 인과(因果)를 증험할 수 있게 하며 주인 없는 귀신까지도 모두 그 이로운 은택을 입게 하시니, 성효(誠孝)에 감동하는 바가 지극하고 극진하다.

이 마음을 미루어서 만물에 미치지 친한 데에서 먼 곳으로, 어둔 곳에서 밝은 곳으로 하여 금일부터 무궁토록 전한다면 그 공덕의 크고 혜택의 원대함을 어찌 쉽게 측량할 수 있겠는가.

2) 진관사기(津寬寺記)

自清潭越阜。走坂行數里許。沿華岳行。屢有向背。峯嶸蔽虧。雲日明晦。誦沈隱侯千雲非一狀。蘇端明峯多巧障日之句。歎其極工。山徑五步一折。每當折處。喘而噓。數息徒行數十里。亦是初有。脚腫足繭。彳亍蹙蹙。坐難復起。起難移步。與松互相扶肩而行。每逢樵童。屢詢蘭若所在。邈迤多曲折。雖已深入。而前路益杳然。約行數里。始見杉栝成園。層峯出其上。可忖寺邇也。又進十餘弓而是爲津寬寺。乍憇巡檐。而行穿歷堂奧。檢閱其間架。則種種具宜。曲曲藏用。以及乎庖湑井白而無所缺。面勢平敞。岳巒呈奇。多林木。龍鱗虬髯。彌遍山谷。寺於京城甚近。頓無怡神曠懷之處。只爲游惰放浪者之逋藪。無得而稱焉。權陽村近水陸造成記云洪武丁丑。上命內臣暨寺僧祖

禪等。建水陸道場於古刹。以追祖宗冥福。且利羣生。禪等返命曰相自三角山至道峯山諸刹。不若津寬寺之勝。上令置道場於是寺。二月親臨。定其三壇位次。三月又幸觀之。至秋九月告訖。三壇爲屋。各有浴室。下壇左右別置祖宗靈室。門廊厨庫。莫不備設。是月癸酉。上又親觀。命臣近記其始末。以示後世。北漢志云寺在小南門外三千洞。元曉和尚與真寬祖師建此寺及三千寺。今遺址宛然。觀於記文所載。寺蓋前朝巨刹。而今餘數三僧寮。三壇亦未詳其處。似非是寺之謂。且北漢志成於英廟乙丑。而稱以遺址宛然。則可以諗古有而今無。寺之刱建年月。雖不可攷。或於乙丑之後。改建於遺址歟。抑或以他寺而冒其名歟。寺無談古之釋。莫能明言。是日宿于寺中。

[冠巖全書 洪敬謨]

3) 삼각산 중수승가굴기(三角山重修僧伽崛記) 李預⁵⁾ 撰

전략(前略)

특별히 귀산사(龜山寺)의 주지(住持)인 선사(禪師) 영현(領賢)에게 명하여, 임시로 신혈사(神穴寺)에 거주하면서 다시 수리할 사무를 맡게 하셨다. 영현공은 목수는 옛날 반이(般爾)와 같은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고, 재목은 예장(豫章)과 같은 좋은 나무로만 골랐다.

중략(中略)

선사(禪師) 영현(領賢)을 보내어 공사 전체를 감독하여 그 일을 완성하게 하셨다. 영현 선사는 바로 신라 시대에 이 굴의 주지였던 선사(禪師) 여철(如哲)이 창건한 신혈사(神穴寺)의 처음 조사(祖師)이며, 왕사(王師)인 자응(子膺)의 법운(法胤) 불가에서 법통을 계승하는 아들이다.

이하생략(以下省略)

[東文選六十一 記]

4) 북한산성기(漢北山城記)

5) 이에(李預) : 본관은 인주(仁州), 정신현비(貞信賢妃 : 선종의 비)의 아버지이다. 문종 때 급제하여 상서공부원의랑, 상서예부시랑, 한림학사, 동지중추원사, 지중추원사, 지중추원사, 정당문학 형부상서, 검교대위, 형부상서 정당문학이 되었으며, 중서시랑평장사에 이르렀다.

[前略]高麗李頴重修記云按崔致遠文集。昔有新羅狼跡寺僧秀台。飢聆大師之聖跡。選勝于三角山之南面。開巖作窟。刻石摸形大師道容。益照東土。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灾。禱以禳之。無不立應。曰文殊寺，曰重興寺，曰龍巖寺，曰輔國寺，曰普光寺，曰扶旺寺，曰元覺寺，曰國寧寺，曰祥雲寺，曰西巖寺，曰鎮國寺，曰太古十二寺羅列於前後峯巒之間而太古寺在重興寺左峰。高麗僧普愚住此。扁以太古。做永嘉體作歌。樓觀曰沆漉樓在重興寺洞口。跨溪而有偃龍橋。上建重樓曰山映樓。在重興寺前。有小橋覆以閣。卽此樓也。曰洗心樓在西巖寺前溪上。行宮在上元峯下。內外殿爲五十八架。倉廩曰經理廳。上中下倉。三營門留倉。而並屬於揔戎廳。置管城將守之。古蹟曰古石城在重興寺北。周九千四百十七尺。有石門及門址。曰**神穴寺**高麗顯宗祝髮寓此寺。千秋太后屢遣人謀害。有老僧穴地於室而匿之。上置臥榻。以防不測。王咏溪詩云一條流出白雲峯。萬里滄溟路自通。莫道潺湲巖下在。不多時日到龍宮。曰閔公遺樓。卽高麗文仁公閔漬遺址。在水口門內。名其巖曰閔漬巖。寺曰閔漬寺。寺今爲西巖寺。余於十二日。自津寬寺道南門入城。一宿于重興寺。一宿于太古寺。周覽諸勝。迨東門下牛耳洞天。又一宿于在澗亭而還。卽十五日也。[冠巖全書 洪敬謨]

5) 영동사(詠東史)

[其四百十五]陽賊私通郁亦烝。一兒何愛一何憎。大良君奉東朝命。**神穴寺**中勒作僧。詢旣長。封爲大良院君。太后皇甫氏與外族金致陽通。生子謀爲王。後忌大良君。逼令爲僧。出居三角山**神穴寺**。

[其四百十六]太后致陽欲害詢。陰謀凶計及重宸。由來一女傾人國。幾致王金亂僞眞。太后數遣人謀害大良君。有老僧穴地匿詢。上置卧榻。以防不虞。及穆宗疾篤。致陽謀殺詢。仍欲作亂。王召蔡忠順曰。太祖之孫。惟大良君在。卿與崔沆盡心匡扶。勿使社稷屬異姓。

[其四百十七]急召大良欲正名。乘時康兆又稱兵。將相無人渾可歎。任他廢立自橫行。穆宗送人迎大良君於神穴寺。仍徵西北面巡檢使康兆入衛。兆因先迎立大良君。逼王并太后移忠州。遣人弑王於積城。又殺致陽父子。放太后于黃

6) 청파혜빈궁급진관승사제공역소
(請罷惠嬪宮及津寬僧舍諸工役疏)

五月二十日 掌令時 [撫松軒集 金淡]

장령 김담이 문종1(1451)년에 올린 상소문. 先祖의 後宮이 거처하는 慈壽宮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惠嬪宮을 신축하는 것은 國庫의 낭비이며, 津寬寺에 승려들이 기거할 水陸社를 건립하는 것은 民弊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들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의 상소이다. 왕이 혜빈궁을 짓기 위한 材木과 礎石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혜빈을 위해 새로운 佛堂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 가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진관사 僧舍도 별도의 經費나 백성의 勞役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守令이나 監司에게 조달하도록 지시하는 결과적으로 백성들의 賦稅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 공사를 중단하여 흉년을 당해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할 것을 건의했다.

臣等前日面陳數事并未蒙 允反覆慮之不
能自己又瀆 上聰臣等竊觀唐太宗嘗曰前
世帝王拒諫者多云業已爲之或云業已許之
終不爲改如此而欲無危亡得乎其云已爲已
許者蓋以不失信爲辭爾夫爲不可爲許不可
許已失大信矣而欲守規規小信不亦未乎今
殿下以爲惠嬪宮材木礎石已備不可中止
臣等竊謂苟爲不可則雖已立當亟撤之不當
辭以已爲况具木石而已乎夫宮禁不可不嚴
今立是宮於閭巷之間與人居鱗雜實爲淺露

近無父無君之輩使之爭勢買寵誇張施設無
所不至或至親往尊禮敬之如神溺於誕說不
擇去就而無所防閑恐非所以預養德義永共
福祿之道伏望斷之於早曲加裁抑以全親親
之息不勝幸甚
批曰宗室好佛豈是狂妄之事且經三年則必
無事佛者矣
請罷惠嬪宮及津寬僧舍諸工役疏
五月二十日 掌令時

有乖大體且既有慈壽宮則 先祖後宮當與
共處一如平昔可也 升遐未幾而掖聚自便
豈一國臣民所忍觀聞哉此雖出於 母后之
命空以義開陳而 先朝後宮所欲一一剋從
豈帝王之孝乎近日都下喧傳為惠嬪新造佛
堂此尤非所宜播人見聞也方國家閒暇財力
有餘之日猶且斷不可為况連歲不稔民生困
苦流離未復加以國家多事儲峙罄竭而營繕
相繼役及卒伍或至因番不下木石工匠連年
在公不暇顧其生業此不可不慮也而 殿下

3

猶以為木石已具不可中止此臣等所以缺望
者也夫大抵昇平無事則所慮率在營繕土木
者人主既恃其昇平掌事之人又欲因是以要
寵自利巧說者百端人君一為所中則亦以為
此出於不得已也此不至勞民也此不至傷財
也其始也甚為簡易事已始矣漸而增之終必
至過制而後已苟如是不已雖欲財不殫民不
困其可得乎秦皇漢武之疲弊天下不徒苛暴
與黷武而已故古之有為之主必先勤儉節用
重於興作如漢文帝惜十家之產一臺之基既

4

成而不築唐太宗鑑隋之弊一殿之材已具而
不營其用心如此故遂致海內富庶外戶不閉
不亦偉哉 殿下即政之初首興大慈之役後
麗無比今人見之者莫不踈然以為東方所無
殿下亦安知至於此極乎臣等非推究既往
以此推之可知其他今津寬水陸社雖已創立
其修葺砌級未畢者尚多其舊創僧居亦可因
而葺之又欲一嘗創新財費工力所八無算而
殿下猶疑掌事之說當初掌事者進策必曰
如是則不費公財如是則不勞民力其說甚巧

5

率至官給糧餉人夫而尚未告成又鋪張之以
廣其事夫諸道貢物實取土產之宜或因水運
之便是祖宗定賦厚民之本意也今令幹事僧
代納而悉以布米取償於其民民雖欲自納并
皆抑代而徵償違定賦之本意矣借以一事論
之草菴一番計除田租一斗而今取償過一石
他物類此不必枚舉代納之禁著在令甲平人
犯之置之於罪論以賊污終身不叙獨聽僧徒
恣行無忌富商大賈輻湊聘奸以至權貴或有
借僧為名而恬不為恠法者所與一國共之而

6

上自毀之何以令下自己巳年各道守令被罪之後僧徒鷓鴣張翥以威勢郡縣畏縮競爲苛刻拏克閭閻以應其求惟其所欲而不敢違日者幹事僧侵撓忠清道境內諸寺諸寺僧徒訴于監司監司不敢直問以至啓請監司而如此况守令乎人心之畏縮於此益可見矣非特此也慶尚道稅布輸轉之價厥初量其道里遠近以定多寡使輸布者得食其米今割其半以與幹事若曰初定價數過優州縣利之干請或行雖割其半亦足相當而其價之多寡不與於民比

7

之代納尤爲無弊是大不然其價既寡則必無應募者應募者既無則其輸之勞必歸於民矣國家若知取價之過重空量減以與民以抒其力今乃無故而取其半既徵其價又役其力是何理耶代納雖甚害民猶用其力坐取輸價實爲無名取之既以無名又用之於無益之事而猶云無弊可乎凡士大夫既有學識且有統察而貪污不法者比比有之况以無識僧徒乎夫天之生財有數不在官則在民故生寡食衆古今所患今幹事非取其徒乃取於民非徒坐食

8

之衆又巧取之侵剝民財一入其手無復檢劾恣其所爲干請國家日益月增民安得不至於困民既困則國誰與不困哉近者或令引納後年貢物或令各官隨空無弊上納此誠出於不得已也然雖曰引納至明年未嘗除其所納非特不除又引納之一引其納無計除之自名引納實爲倍徵特巧其名耳雖曰隨空無弊物不自至守令亦安能自辦而不取之於民哉頃歲頻遭飢荒生民之困既極而以應不時之需可乎雖甚賤物又求之不時亦至貴而難得於是

9

官定物數督之嚴急民不能堪名爲隨空無弊實爲民患特巧爲之辭爾凡一徵納監司必倍國家所徵之數守令又必倍之國家所求甚少而民之受惠不啻此民之所以日就困窮而不振者也原其所以實由國家興作既廣調用無節以至於此爾苟不斷興作不節調用而欲救此弊正猶不濬其源而求其流之清矣今 嚴下命停進上雜物又命停罷營繕其所以救災恤民之意可謂至矣然一雨時至則將必雜然復興矣是豈戒懼修省以誠答天之意乎漢之

10

文帝高麗文宗致世殷富號為持守之賢君必有所為卓然及觀行事之蹟不過恬靜無為而已伏望 殿下特命亟罷惠嬪宮之役津寬僧居亦令仍修其舊凡諸營繕與別科取民一皆永斷停不急之務絕無用之費清心省事勤恤民隱以培國脈不勝幸甚

批曰爾等之言善矣然於慈壽宮無惠嬪可處之所故不得已以京山村木暫構一室倘八處慈壽宮必營別室然後可居若津寬寺則今日幹事僧圖進閣稍增於舊故命勿加於舊且

以舊材仍舊修葺耳

請勿闕內修軍器中官掌松禁疏 六月十日掌

令時

臣等近以闕內修軍器中官掌松禁等事有乖大體昧死塵瀆 天威嚴重敷陳無緒未盡所懷更將妄見以瀆 天聰臣等竊聞古先帝王之政必以委任責成為貴上不可以代其天下不可以勤其上若為上而親有司之事豈獨天下不可為一縣亦不可為也奚獨一縣一冢亦不可為也非止乎不可為也將至人心解體

7) 진관사칠성신중감로정권선문 (津寬寺七星神衆甘露慎勸善文)
草堂集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所藏]

6.5 신 문(新聞)

1) 매일신보(每日申報)

○1915년 05월 29일

和無佛陳人津寬寺唵/水原郡 龍珠寺 松居堂大蓮

人間此景亦奇頭 宿霧平沈畫角浮 紫府綠何花盡老 琴書竹石意中幽

○1915년 06월 02일

和無佛先生遊津寬寺韻/續蒼 李琦鎔

附薛攀藤踞上頭 半天花雨散閣浮 謝公未了看山履 岐路相分恨更幽

○1927년 07월 06일

津寬寺에 火災, 집 삼간 소실

고양군 신도면 진관외리(高陽郡 神道面 津寬外里) 일번지 진관사(津寬寺)

경내에 잇는 리왕직(李王職) 묘수가옥(墓守家屋) 림영승(林役性)의 집에서
륙월이십구일 오후열두시경에 불이 이러나 개와집 이십간내에 세간을 태
운후 동 삼십분경에 진화하얏는바 손해는 구십원이라 하며, 원인은 실화
라 한다.

2) 동아일보(東亞日報)

○1927년 02월 07일

津寬寺/高陽一 記者

津寬寺 神道面 津寬外里에 在한 津寬寺는 三角山 西麓에 一大 巨刹로
水石이 三角山境內에 第一이니 寺上에는 瀑布가 淸來하고 寺下에는 白玉
石이 ○處에 疊疊하니 可謂 滿瀑이 爭流요 千岩이 競秀하는 勝地니 距今
九百十二年 高麗 顯宗이 津寬禪師에게 受學하가 卽位하신 後로 此寺를 建
立하시고 禪師로 國師를 封 하섯다는데 大雄殿과 其他 殿閣이 雄大하기로
畿內寺刹中 一位를 占할만 하다고 한다.

○1955-05-28

道風案内 津寬寺

位置

津寬寺(진관사)는 서울 北方二十里(북방이십리)가량에 있는 북한산비봉
(北漢山碑峰)의 書錄(서록) 松林中(송림중)에 안응하게 자리잡고 있는 서
울 附近(부근)의 四大名刹(사대명찰)의 하나였다. 靈泉(영천)고개를 벗어
너서 汶山(문산)가는 길로 約十五里(약십오오리)쯤 나가자면 서울시(시)와
京畿道(경기도)의 接境(접경)이 되는 舊把撥(구과발)에 이르게 된다.

舊把撥(구과발)은 고양군 신도면(高陽郡神道面)에 所屬(소속)되고 있으
며, 이곳 支署(지서)앞 國道(국도)로부터 東(동)쪽으로 갈려진 가름길을
따라 約五里(약오리)쯤 감돌아 올라가면 바로 津寬寺(진관사)가 있는 신
도면 진관리(神道面津寬里)에 當到(당도)하게 된다.

沿革(연혁)

津寬寺(진관사) 寺蹟記(사적기)에 依(의)하면 高麗八代(고려팔대) 임금

이신 顯宗大王(현종대왕)이 僧(승) 津寬祖師(진관조사)를 爲(위)하여 創建(창건)한 것이라고 傳(전)하고 있다.

卽(즉) 顯宗(현종)이 일직이 大良君(대량군)이라 稱(칭)하고 北漢山(북한산) 神穴寺(신혈사)에 寄寓(기우)하며 修學(수학)할 즈음 太后(태후) 皇甫(황보)는 그 人物(인물)이 非凡(비범)함을 꺼리며, 大良君(대량군)을 害(해)코저 圖謀(도모)하였으나 神穴寺(신혈사)의 老僧(노승) 津寬祖師(진관조사)는 臥榻(와榻) 長椅子(장의자) 下(하)에 大良君(대량군)을 감추어 그를 救(구)한 일이 있는데 그後(후) 大良君(대량군)이 王位(왕위)에 올르게 되자 顯宗二年(현종이년)에 生命(생명)의 恩人(은인)인 津寬祖師(진관조사)에게 報答(보답)하기 爲(위)하여 절을 建立(건립)하고 津寬寺(진관사)라 부르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朝鮮朝(조선조)에 이르러 世祖十年(세조십년)에 火災(화재)로 因(인)하여 本寺(본사)가 燒失(소실)하였으므로 成宗元年(성종원년)에 이를 再建(재건)하고 英祖十年(영조십년)과 哲宗九年(철종구년) 그리고 高宗十六年(고종십육년)과 二十一年(이십일년)의 四次(사차)에 걸쳐 大修理(대수리)을 加(가)한바 있었는데 지난 事變中(사변중) 爆擊(폭격)으로 因(인)하여 거의 全燒(전소)하고 現在(현재)에는 그 殘影(잔영)만이 쓸쓸히 남아있다.

風光(풍광)

따라서 일직이 서울 附近(부근)의 四大名刹(사대명찰)의 하나로서 有名(유명)하던 津寬寺(진관사)의 옛모습은 全(전)혀 찾아볼길 없으나 이곳을 中心(중심)으로 한 一帶(일대)의 風致(풍치)는 묵어진 老松(노송)과 함께 秀麗(수려)한 岩巒(암만) 그리고 清麗(청려)한 泉石(천석)으로 하루를 즐기는 消風地(소풍지)로는 滿點(만점)이다.

더구나 舊把撥(구과발)로부터 절에 이르기까지는 질편한 논밭사이로 車道(차도)가 잘 닦여져 있어 드라이브를 兼(겸)한 하이킹地(지)로도 絶好(절호)의 位置(위치)를 占(점)하고 있다.

6.6 잡 지(雜 紙)

1) 개벽(開闢)

○개벽 제50호 [1924년 8월 1일]

京城의 藩屏인 高陽郡

名勝地로는 櫻花명소로 내외에 선전하는 牛耳洞(일명 櫻雲洞) 五加里, 綠陰 조흔 淸涼里, 藥水名地貞陵里, 綠磻里, 水石조흔 洗劔亭, 北漢山, 城北洞외에 *島(일명 楮子島)栗島, 孔德里, 西江, 老姑山, 津寬寺, 永道寺, 淨土寺, 奉元寺등이 最著하고 古蹟으로는 壬亂時 3대 勝捷地의 1인 幸州城(有權慄大將 勝捷碑)과 李如松의 敗蹟하던 碧蹄驛이 유명하고 且大慈山에 高麗 충신 崔瑩장군의 묘와 崇禎宮人 屈씨의 묘가 有한데 崔瑩의 묘에는 지금까지 草가 생치 안이함으로 赤塚이라 칭하니 東滄洲詩에 高陽餘古墓 春墓不敢生이 卽是다.

2) 삼천리(三千里)

○제7권 제1호 [1935년 1월 1일]

勝地行脚/申琳

X일 X일 늦은 하늘엔 티 한점 업시 맑아게 개였다. 동역 하늘로부터 떠 오르는 明朗한 太陽이 閃先을 四海에 發射하자 앗참 煙氣가 자욱하든 大地는 그만 暗黑의 꿈 속에서 깨는 듯 하였다.

서울에 10여년 잇스면서 아직도 津寬寺를 구경 못하엿든 나는 XX學校 학생들이 遠足가는 期會에 同行하게 된 것을 깃겁게 생각하엿다. 일즉 일어나 鍾路에 나와 *灰色의 밤 속에 깊히 잠들엇든 새벽거리를 요란스럽 게 다라나는 西大門行의 電車를 잡아 타고 高宗建陽 元년에 세운 獨立門 압까지 다다렀다.

벌써 어린 학생들이 수 십명이 모왔다. 갖처 西大門 XX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될 때 平穩하든 나의 心海에는 한 줄기의 暴風갓흔 亂想이 떠오 른다.

(間略) 바로 이곳에 잇는 난의 동무가 가진 苦楚를 바드며 꽃피는 봄, 丹楓지는 가을, 이슬 나리는 전역 몇몇 번이나 畵息에 눈물을 흘렸으며 서름에 한숨을 쉬었으며 穉齡을 가삼을 쥐여 뜨더슬 것을 생각하니 가삼 압혀 난다.

그들은 생각에 생각 回想에 回想으로 하로에도 몇몇 번식 唇氣樓와 갓 혼 空想의 樓閣을 窺고 잇슬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의 自然景을 그리고 父母와 동무를 그리고 世態가 변하는 것을 預言케도 그리고 잇을 것을 생각하니 그만 눈물이 흐르려는 것을 억지로 禁하였다.

어느 듯 벌서 無學峴에 다다렀다. 누구의 記錄을 보면 이곳은 國初 太祖 때 智囊이라는 無學禪師가 들붙쳐 하나를 두엇든 곳이라 하여 癖사람들이 이것을 紀念키 위하여 無學峴이라 한다고 한다. 無學과 同音인 舞鶴이라고도 하고 母岳峯 밋헤 잇다고 하여 無學峴이라 한 것은 誤傳됨이라고 한다.

또한 옛날 옛적에 이 近間에 人跡이 적었슴으로 혼자서 旅行키는 極히 危險함으로 同伴을 要하는 이미에서 「모와서 간다」는 이미라고 한다. 그 뿐 아니라 鞍狀으로 되엿다 하여 鞍峴이라고도 쓰고 길마재라고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母岳頂上에는 烽火의 터가 두 곳이 잇는데 烽火불이 두 개가 켜질 때는 敵兵이 나타났다는 暗號가 되고 세 개가 켜질 때는 敵兵이 來襲한다는 暗號가 되엿다고 한다. 이 暗號에 따라서 釜山 義州 會寧 等地에서 急報를 傳하는 방법이 되엇든 바 지금 無線電信과 갓 혼 作用을 하엿다 한다.

바로 이 無學峴에서 5마장쯤 되는 弘濟院에 다다렀다. 이 院이란 것은 길가든 사람이 자는 곳이란 이미인데 高麗時代에는 僧侶로 이것을 직히게 하여 병든 사람의게 藥을 주고 헛 떠러지면 旅費 못가진 길손의게 無料로 자게 하엿다 한다. 지금 社會事業과 彷彿한 것이엿다고 한다.

그리고 이 院에는 특히 公館이란 것이 잇서서 國王이 卽位하실 때 支那에서 使臣이 오면 朝廷에서 迎思門까지 出迎하여 使臣을 이 公館에서 旅

裝을 풀고 禮服을 가라입게 하든 곳이라 한다.

또한 이 부근에 哲宗의 生母 龍府府大夫人 廉씨의 御墓가 잇섯는 바 처
음 哲宗이 이 부근에 잇슬 때 더할 나위 업시 구차하야 生母가 도라 갔을
때 治喪할 凡節이 업서서 兄弟가 그 屍體를 運搬하야 겨우 埋葬하엿다가
후에 大統을 承하심에 도라가신 生母께 卽位의 盛典을 보여 디리지 못함
을 冤痛히 녀이사 「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 라는 古書를 생각하
시고 다시 營葬하섯다.

이러튼 곳이 지금은 火場人으로 되여서 하로에도 몇 名式의 屍體가 뼈
까지 타버린다. 나는 문득 가슴을 찢으는 哀痛의 追憶이 일어났다. 바로
6년 전 봄 꽃피고 새울고 물흐르기 시작하든 때 오날 갖치 온 이 學校선
생과 생도와 갖치 朴圓菴先生을 火場하시던 일이 다시금 생각힌다.

嗚呼라 6년 전 살이 게실 때 朴先生과 갖치 단이던 땅도 그 따 하날도
그 하날 山川도 그 山川이엇만 朴先生은 이미 火場場에서 한 소박 재로
化하여린버 후 靈魂이나마 彼界에 가세서 잘 계시든고? 구름 일 듯 하는
空想이 나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엿다. 나의 精神은 그만 부연 안개 속에
잠기는 듯 하엿다.

弘濟院을 지나서니 고요한 별판의 空氣는 부드럽기 곳이 업다. 百鬼亂
舞하는 서울바닥에서 물이고 부닥기든 사람으로서는 恨업시 부드러운 이
大自然에 陶醉하지 안을 수 업섯다.

그러나 200여명의 우리 一行의 우슴소리 말소리 노래소리는 고요히 잠
들고 잇든 四圍의 空氣를 흔들어 노왔다. 그림 갖흔 山野의 景致를 바라
보면서 어느 듯 津寬寺에 다다렀다.

津寬寺는 果然 仙境갓다. 蒼蒼히 둘러싼 松林이 잇고 이리저리 훗터져
잇는 奇岩怪石이 잇고 비단결 갖치 맑에 흐르는 물결이 잇고 처량하게 우
는 새 소래가 잇는 津寬寺는 참으로 神祕롭다.

聖神의 그림갖흔 무삼 幼影이 떠오른다. 帽子와 신발을 버서 던지고 땀
나는 발을 아름다운 냇물 속에 잠구고 옥어진 습자이로 閑暇한 햇발이 고
요히 흐르고 잇는 것을 바라보면서 넓다란 바우에 몸을 언고 한가히 안저

서 自然히 偉力과 神祕에 醉하여 默想하였다.

아! 津寬寺의 이 大自然! 차저오는 사람으로 하여곰 胸裏에 高遠幽玄의 冥想을 몇몇 번이나 자아내게 하였든고? 다시금 몸을 움직여 듯자리를 請하여 절(寺)大廳에 안저서 津寬寺의 來歷을 일보는 사람의게 물으니 이 러하다. 지금으로부터 968년 전 즉 高麗 顯宗大王 初時 創設하였다 한다.

顯宗大王后母皇甫(睦宗大王母)가 適子인 睦宗大王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庶子인 顯宗大王을 지극히 미워 하얏는 바 大良君(顯宗大王되기 前)을 죽 이기까지 하랴고 함으로 大良君은 도망하야 津寬大寺를 訪問하고 딱한 사 정을 말함애 津寬大寺는 크게 同情하야 臥床 밧바닥을 파고 大良君을 숨 게 주엇다 한다.

그리하야 大良君은 12세부터 19세까지 이 곳에 修學하였다 한다. 그 후 睦宗大王이 昇遐함에 따라 大良君이 顯宗大王이 되엇다 한다. 잇때 顯 宗大王이 津寬大寺의 옛 恩惠를 생각하시고 津寬寺를 創設한 것이라 한 다.

또한 李太祖께서 無主孤魂을 위하야 水睦社라는 機關을 朝鮮서 처음 이 곳에 두엇든 것이라 한다. 지금은 60년간 잇는 主持林 王山大寺(75세 된) 가 잇서서 寺를 保管하고 잇하여슬 뿐인 바 해마다 零渡간다고 한다.

이리고 보니 들여 오는 새소래쫓차 닥쳐오는 愁心을 하소靚△는 듯이 들인다. 우리는 午後 5時 半 이 절을 背景으로 紀念寫眞을 찍고 200여명 女學生의 清雅한 목소래로 불네내는 노래로서 愁心과 閑寂에 싸인 津寬寺 를 慰安하고 발길을 돌엇다.(끝)

7. 도성암(道成菴)

7.1 사 서(史 書)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선조29(1596)년 3월 3일(경오)

사문(寺門)을 지나 동남으로 가다가 길이 셋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동문(東門)으로 통하여 왕래하는 길로 성 밖에 수도암(修道菴)·도성암(道成菴) 등의 암자가 있고 그 밑은 곧 우이동(牛耳洞)이며, 하나는 동남문(東南門) 석가현(釋伽峴)으로 통하여 사을한리(沙乙閑里)로 내려가는 길이며, 하나는 문수봉(文殊峯)을 넘어 창의문(彰義門)으로 통하는 탕춘대(蕩春臺)의 앞들이 내려다 보이는 길입니다.

광해7(1615)년 2월 25일(임인)

우리 나라 사람이 유선(儒先) 숭배하는 것은 도리어 승려들의 잡배가 그의 술업을 숭신하는 것만도 못하여, 정토(淨土)·향림(香林)·승가(僧伽)·도성암(道成菴) 등의 사찰은 도성밖 10리 이내에 연접하였으되 일찍이 한 사람도 이에 항거하는 글을 올려 그 사찰을 헐거나 부처를 불사르는 일이 없었는데, 유독 유현(儒賢)의 향화를 받드는 곳에 대해서만 그 거리의 원근을 따져서 저지하려 든단 말입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두 관왕묘(關王廟)는 도성 밑 동쪽과 남쪽에 인접해 있고, 안일(安逸)·자수(慈壽)·인수(仁壽)도 모두 부처를 받드는 사찰인데도 도성 내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찌 지역의 원근으로 사문(斯文)의 성대한 거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무계는 북성(北城) 밖 조지서(造紙署) 위에 있는데, 지정한 곳은 승가사(僧伽寺) 근처로서 도성과의 거리가 자못 7, 8리가 넘습니다만 혹시라도 가깝다고 말할까 염려되어 지금 10리 밖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광해7(1615)년 2월 25일(임인)

선정신(先正臣) 조식(曹植)의 도덕에 대해 그 경중과 천심을 후학들이 헤아릴 바는 아닙니다마는 강상(綱常)을 부지하고 의리(義理)를 천명하여 비록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일맥정기(一脈正氣)가 오히려 마멸되지 않은 것은 모두 이분의 힘입니다. 선비들이 이분이 남긴 자취를 추앙해서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조용히 수양하며 귀의할 곳을 삼고자 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도성 근처에 서원을 건립하는 것을 전례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한 일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유선(儒先) 숭배하는 것은 도리어 승려들의 잡배가 그의 술업을 숭신하는 것만도 못하여, 정토(淨土)·향림(香林)·승가(僧伽)·도성암(道成菴) 등의 사찰은 도성밖 10리 이내에 연접하였으되 일찍이 한 사람도 이에 향거하는 글을 올려 그 사찰을 헐거나 부처를 불사르는 일이 없었는데, 유독 유현(儒賢)의 향화를 받드는 곳에 대해서만 그 거리의 원근을 따져서 저지하려 든단 말입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두 관왕묘(關王廟)는 도성 밑 동쪽과 남쪽에 인접해 있고, 안일(安逸)·자수(慈壽)·인수(仁壽)도 모두 부처를 받드는 사찰인데도 도성 내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찌 지역의 원근으로 사문(斯文)의 성대한 거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무계는 북성(北城) 밖 조지서(造紙署)에 있는데, 지정한 곳은 승가사(僧伽寺) 근처로서 도성과의 거리가 자못 7, 8리가 넘습니다만 혹시라도 가깝다고 말할까 염려되어 지금 10리 밖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숙종6(1680)년 7월 8일(을미)

한성부(漢城府)에서 아뢰기를, “동도 감역관(東道監役官)이 보고한 바를 곧바로 접수하였는데, 관장하는 바 이외의 산의 도성암(道成菴)의 옛터는 본래 금표(禁標)의 안쪽이고, 서울 주산(主山)의 내맥(來脈)인데, 병진년 이후부터 장원서 제조(掌苑署提調) 윤휴(尹鑄)가, 그 소나무 사이에 잣나무 두 그루가 있는 것으로 임금에게 바친다고 일컫고, 그 산 전부의 땅을 본서(本署)의 관장으로 돌렸으며, 암자의 중들이 소나무를 몰래 베어낸 것이 3백 80여 그루에 이르러, 형조(刑曹)로 옮겨 가두었으나 사면을 만나 풀려 났고, 장원서(掌苑署)에서는 또 첩문(帖文)을 만들어 중에게 주어 산지기 무리로 하여금 밭도 들여놓지 못하게 했으며, 이 뒤로부터 소나무를 베어 내는 것이 날로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도성암 옛터를 본부(本府)에 도로 예속시켜 벌목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예전과 같이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6(1680)년 8월 3일 (기미)

特進官具鎰所啓，臣亦有所懷，敢此仰達。道成菴近處，自本府禁斷，而丙辰年，臣待罪右尹時，尹鑄以道成菴，屬於掌苑署，稱爲栢子田，成給勿禁帖於僧徒，斫伐松木，使山直等，不得接迹，故其時監役趙聖龜，馳進摘奸，則斫伐松木，八十餘株云，而卽遣郎廳，更爲摘奸，則三百八十餘株矣。尹鑄以此含憾，言于臺官，論劾監役，終至汰去。曾在孝宗朝，生松斫伐三十七株者，摘奸現告，則監役特出六品事，旣爲定奪，而趙聖龜獨以見忤尹鑄之故，至於被劾，事涉冤枉矣。掌苑署提調，同爲入侍，道成菴還爲本府禁斷事，敢此仰達矣。知事閔維重曰，重興洞栢子，則使山直禁斷，以此供上，而道成菴則元不干涉，故其成冊，旣已放火，僧徒亦爲治罪，還屬於本府，而其時監役之因此見忤被劾，誠嗤拙矣。金壽恒曰，其時監役，似當收用矣。上曰，道成菴漢城府禁斷監役趙聖龜，收用事，言于銓曹。

숙종11(1685)년 1월 9일 (기사)

臣雖未知其時曲折之如何，而概言其山城形勢，則三角諸峯，鱗次列立，而城子與峯巒，連亘相接，只有三路，一由道成菴，一由釋伽峴，一由文殊峯，而其餘，則皆巉巖鐵壁，四面削立，人無着足之地，若有數十萬人防守，則賊雖有累萬衆，無若我何。

숙종37(1711)년 10월 1일 (병진)

本城自京都可通者，有三條路。西則自弘濟院·綠巖峴之間，北出津觀里前，達於西門，可三十餘里。其路本是小路，地勢平夷，少治則可成大路。東則出興仁門，由貞陵前路，過牛耳·彌阿里及道成庵前，達于東北門，可二十餘里。其道，亦無險絕處，善治則行車，可至城門外，而以役軍之數小，半治而置之，實爲可惜。宜令城役所，更加繕治矣。前頭大駕，若欲行幸，則此二路之外，似無他路。金重器，新出一路，出彰義門，由北郊壇，西緣山脊而上，達於東門，可十五六里，最爲捷徑，而縈回屈折，間多峻急，壘石繞崖，每年水潦，崩頽可慮。金重器之意，蓋欲臨急取近矣。平時不可由此路行幸，而但東門高大，可容輦輿，東北差小，僅可容小輿矣。上曰，所達諸條，令廟堂斯速商確稟處。道成庵前路，卽令善治，可也。

숙종37(1711)년 10월 3일 (무오)

本城，自京都可通者，有三條路，西則自弘濟院·錄藝峴之間，北出津觀里前，達于西門，可三十餘里，其路本是小路，地勢平夷，小治則可成大路。東則出興仁門，由貞陵前路，過牛耳·彌阿里及道成庵前，達于東北門，可二十餘里。其道，亦險絕處，善治則行車可至城門外，而以役軍之數少，半治而置之，實爲可惜。宜令城役所，更加繕治矣。前頭大駕，若欲幸行，則此二路之外，似無他路。金重器，新出一路，出彰義門，由北郊壇，西緣山脊而上，達于東門，可十五六里，最爲捷徑，而縈回屈折，間多峻急，壘石繞崖，每年水潦，崩頽可慮。重器之意，蓋欲臨急取近矣。平時不可由此路行幸，而但東門高大，可容輦輿，東北差少，僅可容小輿矣。上曰，所達諸條，令廟堂斯速商確稟處，道成庵前路，卽令善治，可也。

숙종38(1712)년 3월 6일 (기축)

政院啓曰，傳曰北漢外殿，今方修治，而內殿，則自上年修粧云矣。幾至完畢耶？且沙河里道路，亦云修治矣，其已修治乎？竝問啓〈事〉，命下矣。招問營建廳郎廳則以爲，外殿則昨才定礎，而內殿則上年十月蓋瓦而後，窓戶·廳板·樓棧等物，已爲襞鍊，而方修粧，而至於土役，山高谷深，比他倍寒，時未解凍，勢將稍待日氣和暖，方始出役云。且道路修治事，亦問于禁衛營則以爲，自山城東門，至道成菴前路，則該營次知，上年九月，已爲修治，而城低高峻處，未及解凍之故，自五六日前，方爲修治。而至於沙河里近處，則十里內，五部次知，十里外，楊州次知，而此與山路有異，故例於舉動之時，臨時修治云矣。敢啓。傳曰，知道。

숙종38(1712)년 3월 15일 (무술)

引見時，兵曹判書崔錫恒所啓，山城外道路修治，非軍門所可次知，而爲慮畿邑民力之凋弊，自東門外城底，至道成庵前路艱險處，自軍門當爲修治，而至於橋梁，則以些少募軍，勢難獨當。分付楊州，使之造橋之意，敢達。上曰，分付楊州，使之舉行，可也。

숙종38(1712)년 4월 2일 (갑인)

都提調李頤命曰，道成菴近處，若設晝停則似好，而若然，則是兩處晝停也。上曰，兩處晝停，有弊矣。頤命曰，城內新建小樓，自上小輿改乘時，暫憩此

樓，自廚房預備某物，進御後，仍詣將臺，似好矣。上曰，依爲之矣。頤命曰，司僕提調李濡，以調馬事，昨往北城，回來後，通於小臣，以爲道成庵之近處道路，雖已修治，本來險傾，決不可以駕輜作行，若以人夫替行則似好。

숙종39(1713)년 7월 18일 (계해)

府前啓，請還收黃順中絕島定配之命，仍令該曹嚴鞫得情，依律處斷。措辭見上 請遂安郡守吳命老罷職不敘。措辭見上 新啓，宮家折受，爲弊民間，蓋已久矣。四五年來，幸我聖上，深軫民隱，諸宮折受之不便者，特命革罷，孰不欽仰聖德，而臣等，近伏聞三角東麓，自道成菴以下，迤至道峯山接界，周圍三四十里之地，竝與寺刹而盡入於兩王子柴場折受之中，多定山直，廣設標木，旁近豪民，凭籍作挈，罔有紀極。都民芻牧，專賴於此處，而今乃不得接跡於標內云，噫，此山，旣是國都之來龍，京城之咫尺，則其不可輕易折受也，明矣。

숙종39(1713)년 7월 19일 (갑자)

掌令洪好人·趙鳴鳳啓曰，三角，實爲國都之鎮山，京城之咫尺，而三百年來，都下萬民，芻牧之所，專賴於此，則宮家之輕易折受，事涉不便，故臣等，相議論啓，至有令該曹稟處之命矣。追後聞之，兩宮元無折受之事，而道成菴重建之後，延祔君房，只以願堂爲名，而宮屬輩，私自禁斷云，臣等不勝驚駭之至。

7.2 시(詩)

1) 과도성고기(過道成故基)

古之道成菴 今焉壞道斜 蕭慘鴨脚樹 旖旎蕎麥花 居僧感茲過 披爐愜釋伽
薪窮慄在茲 灰變理豈他 莽莽孟夏物 已被迅商加 成毀苟一串 安所憐浮家

[三淵集 金昌翁]

8. 문수사(文殊寺)



1911년 문수사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 촬영]



이승만 대통령 문수사 방문기념사진 [1960년경]

8.1 개요(概要)

문수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기동 삼각산에 있는 절로서 문수암이라고도 하며, 고려 예종4(1109)년 탄연(坦然) 스님이 창건하였고, 조선 문종1(1451)년에 연창공주(延昌公主)가 중창하였다.

1921년에 삼성각을 중창(重創)하고 오백나한전을 개축(改築)하였고, 그 후 6.25동란으로 소진(燒燼)된 것을 1957년 주지 서신수(徐信洙) 스님의 발원(發願)으로 고(故) 박충식(朴忠植) 국회의원이 개축(改築)하였다.

1983년 5월에 허혜정(許慧淨)스님이 주지(住持)로 부임(赴任)하여 삼성각(三聖閣)과 나한전(羅漢殿)을 재 개축하고 약 40평으로 된 천연동굴(天然洞窟)을 굴법당(窟法堂)으로 장엄(莊嚴)하여 사찰을 찾는 모든 불자들에게 환희심(歡喜心)을 갖고 기도(祈禱)와 참배(參拜)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문수사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의 어머니가 이 절에서 나한에게 백일기도를 한 뒤 이승만을 낳았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1960년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 들러 참배하였고, 이 때 이승만 대통령이 쓴 문수암이라는 현판이 요사에 걸려 있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나한전·산신각·요사채 등이 있다. 대웅전의 문수보살상은 고종의 비 명성황후(明成皇后: 1851~1895)가 모신 것이고, 석가모니불은 영친왕 이은(李垕)의 비(妃)인 이방자(李方子: 1901~1989)가 모신 것이다.

8.2 사서(史書)

1)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의종21(1167)년 9월 일(음)

삼각산(三角山) 승가사(僧伽寺), 문수사(文殊寺), 장의사(藏義寺) 등에 행차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문종1(1451)년 5월 5일(임인)

사헌 장령(司憲掌令) 나홍서(羅洪緒)를 명소(命召)하여 말하기를, “듣자니 너희들이 연창위(延昌尉)가 고사(古寺)를 중창(重創)한 일을 추핵(推劾)한다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하려 하는가? 예전에 소사(所司)가 관음굴(觀音窟)을 헐고자 하니 세종(世宗)께서 헐지 말도록 명하셨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관음굴을 헐지 않은 까닭은 신 등이 미처 모릅니다. 신 등이 근일에 문수사(文殊寺)를 중창한다는 것을 듣고, 일을 주관(主幹)하는 중을 불러서 물으니, ‘연창위가 일찍이 집의 북쪽에 불우(佛宇)를 세웠다가 곧 헐었는데, 이제 그 재목으로 이 절을 중창한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수교(受敎)를 참고하니, 혹 비가 새거나 쓰러져 가는 곳을 바로 세우거나 차양(遮陽)하는 것 외에는 그 밖의 간각(間閣)을 새로 짓는 일까지도 모두 금지하며, 혹 쓰러져 가기 때문에 고쳐 짓는 것이라도 관가에 알리지 않으면 역시 헐어버리게 하였습니다. 이 절은 으레 헐어버려야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명하여 영선(營繕)에 관하여 금지하는 조건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고, 나홍서에게 말하기를, “입법(立法)에 ‘헌 것을 헐고 새로이 고친다.’ 하였으니, 연창 공주(延昌公主)가 옛터에 중창하는 것은 본디 안될 것이 없다. 마땅히 각년(各年)의 입법한 뜻을 다시 상고하여, 만약 법을 어긴 것이 있으면 금지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문종1(1451)년 5월 5일(임인)

장령(掌令) 나홍서(羅洪緒)가 아뢰기를, “신 등은 교지(教旨)에 이른바 ‘헌 것을 헐고 새로 고친다.’ 고 한 것은, 헌 재목과 기와를 써서 그 옛터에다가 수보(修補)한다는 것이고, 옛 집을 일부러 헐고서 새 재목을 써서 짓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문수사(文殊寺)는 헐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나홍서와 우부승지(右副承旨) 강맹경(姜孟卿)을 인견(引見)하여 각년(各年)의 입법(立法)에 의거하여 가부

(可否)를 논란(論難)하고,

나홍서에게 말하기를, “그 절을 헐려면 먼저 그 절의 간각(間閣)이 예전에는 몇 간(間)이었는데 지금은 몇 간을 더 지었으며, 예전에는 몇 장(丈)이었는데 지금은 몇 장을 더 높였는가를 상고한 뒤에 그 시비를 논의 하여야 마땅하였다. 또 그 헌 재목이 모두 썩어서 쓸 수 없다면, 새 재목을 쓰지 않고서 어찌하겠는가? 비록 새 재목을 썼더라도, 옛 간각의 수를 넘지 않았다면, ‘헌 것을 헐고 새로 고친다.’ 는 법에 맞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 중을 추문(推問)하더라도, 고신(拷訊)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나홍서가 말하기를, “그 중은 이미 죄를 결단하여 환속(還俗)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입법을 상고하지 않고서 갑자기 그 중을 죄를 주어도 옳은가? 그 절은 헐지 말고 그 중도 환속시키지 말라.” 하므로 드디어 헌부(憲府)에서 모두 피혐(避嫌)하기를 청하였으나, 운허하지 않았다.

3)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36(1710)년 10월 13일(갑술)

第念局勢雖不寬敞，人無可居之處，而惟重興寺上邊，文殊寺之東，拱溪寺之西，左右洞壑，地勢不便，稍有土膚，不至束狹，似可以容人居也。顏毀城子，人雖曰修補則可，而若非改築，則不可矣。

정조21(1797)년 윤6월 11일(기유)

行上護軍金持默曰，北漢埋鹽處果詳問，則訓倉所積之鹽爲五十石，其外皆是炭也。或埋於東門內，或埋於文殊寺洞口矣。上曰，埋置今爲幾年云乎？持默曰，年數未及詳知矣。上曰，欲掘之，則山脈無或有穿鑿之慮乎？卿其問之，詳錄以入，可也。上曰，詣臺臺臣入來。

4)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36(1710)년 10월 14일(음)

路由水口，有石門舊址，即所謂西門也，城雖崩圯，尚有石築基址，而進入內城，又有城門，此則距寺僅數百步許，若稍加修治，亦可以通牛馬任載，而城基內山谷之間，處處有水，雖大軍留屯似無不足之患，而山上松木古甚茂盛，松蟲之後，雖不如前，深峻處，猶頗長養，比諸南漢樹木，而似有勝焉，都城不遠之地，有此天險之處，仍爲棄置，誠可惜也，第念局勢，殊不寬敞，人無可居之處，而惟重興寺上邊，**文殊寺**之東，曹溪寺之西，左右洞壑地勢少平，稍有土膚，不至束狹，似可以人居也，頽毀城子，人雖曰修補則可而，若非改築則不可矣，既有舊城餘石及疊疊山石，雖可省功，高峰絕頂則用力倍他，恐難容易也，敢以所見，姑舉梗概，且其山圖出草以來，而忽遽未及正書，待禁衛御營兩大將看審還來後，臣亦當同陳所懷於榻前，其時竝進之意，敢啓，傳曰，知道。

8.3 시(詩)

1) 유삼각산문수사(遊三角山文殊寺)

獨上高臺屬晚晴。雲開俯瞰漢陽城。天邊波浪長江走。霜後精神列嶽寧。
溪路却憑樵客問。藥名時與寺僧評。三更睡覺禪窓下。松桂花陰繞鶴聲。

[久堂集 朴長遠]

2) 삼각산문수사(三角山文殊寺)

城南十里平沙白。城北數朶重岑碧。老守踈慵放早衙。出遊浩蕩尋幽跡。
還他駕鶴揚州天。添却騎驢華山籍。官事欲了無奈癡。賞心易失尤堪惜。
黃裾唱引大俗生。碧眼相携有高格。試攀崎嶇石逕斜。漸出像籠林嶺隔。
俯臨絕谷但蒼茫。上到危巔增跼躅。晴峯距日纔數尋。雲棧凌虛幾千尺。
鳥飛杳漠楚天低。野廣分明漢江畫。非煙西望即仙洲。大浸南連通水驛。
一迴徙倚獨嗟咨。八極須臾可揮斥。懸磴參差九十層。舊躅依稀上下屐。
奇哉不世青蓮宮。云是大智真人宅。石崛呀開苔蘚斑。林龍眩晃丹青射。
睥睨宛若福城東。寶趺高馭金猊脊。相望遍吉長者居。誰識法界玄開闢。

大慈的的蠲煩惱。一掬涓涓貯靈液。遊人恐觸天龍噴。卜領試呪盃梭擲。
 煙霞影裏孤塔白。鍾梵聲中一燈赤。依然勝會移普光。應有妙供來香積。
 聞昔先王焚御香。至今中使祈宗祏。我來適值雲揚秋。僧留歡賞山色夕。
 倚簷列岫玉嵯峨。當檻瑤林錦狼籍。喜飡蔬食飫清芳。旋借蒲團寄安適。
 語闌缺月入深扉。夜久微風吟聳栢。最憐禪榻靜寥寥。忽笑人生何役役。
 未能容易掛衣冠。倘可功名垂竹帛。清眠恰被健稚呼。紅暈已動鴉輪赫。
 擬追台崖招手人。愧同盧嶽攢眉客。莫嫌塵語污青山。曾演綸言直丹掖。

李藏用[동문선 수록]

삼각산 문수사

성의 남쪽 10리엔 희디 흰 모래벌판 / 城南十里平沙白
 성의 북쪽엔 두어 떨기 푸른 봉이 겹겹인데 / 城北數朶重岑碧
 늙은 태수 게을러 일찍 공무 끝내고 / 老守疏慵放早衙
 훨훨 나다니며 좋은 경치 찾아 가네 / 出遊浩蕩尋幽跡
 양주의 학을 탐은 그만두고 / 還他駕鶴揚州天
 화산의 나귀 타는 명부에 한 사람 보태리 / 添却騎驢華山籍
 관사를 마치려 하나 어리석어 무가내요 / 官事欲了無奈癡
 구경에 철 잃을까 가석하기 때문일세 / 賞心易失尤堪惜
 노랑 옷들 벽제함은 너무나 속된 일 / 黃裾唱引大俗生
 푸른 눈과 함께 감이 더욱 높은 격이것다 / 碧眼相携有高格
 비탈진 돌길을 한참 돌아가다가 / 試攀崎嶇石逕斜
 인간 세상 벗어나니 고개 숲이 또 막히네 / 漸出像籠林嶺隔
 깊은 골을 굽어보니 아득하기만 / 俯臨絕谷但蒼茫
 가파른 봉에 올라보니 더욱 오들오들 / 上到危巔增跼蹐
 갠 봉우린 해와 상거가 겨우 두어 길인 듯 / 晴峯距日纔數尋
 구름 속 잔도는 허공에 몇천 자를 솟았는고 / 雲棧凌虛幾千尺
 나는 새 가물가물 남천이 나직하고 / 鳥飛杳漠楚天低
 넓은 벌판을 또렷이 한강이 쪽 그었네 / 野廣分明漢江晝
 서쪽으로 바라보니 연기긴 듯 신선 물가 / 非煙西望卽仙洲

남으로 흘러 흘러 큰 물과 통해 / 大浸南連通水驛
 한 번 올라와 홀로 탄식하니 / 一廻徒倚獨嗟咨
 팔극을 금방 내휘두를 듯 / 八極須臾可揮斥
 가파른 돌층계 울퉁불퉁 90단에 / 懸磴參差九十層
 희미한 옛 자취는 나무신이 앞뒤굽 / 舊躅依稀上下履
 어허 이게 세상 아닌 청련궁일세 / 奇哉不世青蓮宮
 이르되 대지진인이 이룩한 절이라고 / 云是大智真人宅
 췌 뚫린 석굴 벽에 이끼가 아롱지고 / 石窟呀開苔蘚斑
 번쩍이는 용 숲 속에 단청이 휘황하구나 / 林龍眩晃丹青射
 인자한 부처님 얼굴 복성 동쪽 그대로인 듯 / 眸容宛若福城東
 가부좌로 높게 금사자를 타셨네 / 寶趺高馭金猊脊
 편길장자 계시는 곳 마주 바라보나 / 相望遍吉長者居
 법계 현관을 누라서 열 줄 알리 / 誰識法界玄關闢
 대자비의 환한 얼굴이 속세 생각 덮어주고 / 大慈的的蠲煩惱
 영천이 졸졸 흘러 더운 번뇌 가시는데 / 一掬涓涓貯靈液
 유인이 천과 용의 꾸지람이 두려워서 / 遊人恐觸天龍嗔
 북처럼 잔을 던져 주문 외고 물 마시네 / 卜領試呪杯揆擲
 이내랑 안개 속에 흰 탑 홀로 우뚝 섰고 / 煙霞影裏孤塔白
 종 소리 은은한데 붉은 등 하나 켜 있네 / 鍾梵聲中一燈赤
 수승한 법회는 보광에서 옮겨온 듯 / 依然勝會移普光
 갖가지 묘한 공양은 향적에서 오는 듯 / 應有妙供來香積
 들으니 선왕께서 어향을 사르셨다고 / 聞昔先王焚御香
 지금도 중사(궁중의 내시)들이 종사의 복을 비네 / 至今中使祈宗祐
 내가 오니 때마침 가을인데 / 我來適值雲揚秋
 중의 만류로 머물러 저녁 산빛을 보게 되네 / 僧留歡賞山色夕
 처마 끝의 산봉은 옥처럼 뽀죽뽀죽 / 倚簷列岫玉嵯峨
 난간 앞의 숲에는 비단필을 두른 듯 / 當檻瑤林錦狼籍
 산나물에 깨끗한 밥을 반가이 배불리 먹고 / 喜飡蔬食飫清芳

포단을 빌어 앉아 곤한 몸을 쉬노라니 / 旋借蒲團寄安適
 이야기가 조용하자 하현 달이 문에 들고 / 語闌缺月入深扉
 밤이 깊자 미풍이 잣나무를 스치는데 / 夜久微風吟聳栢
 대견할손 선탑은 이리 고요하다마는 / 最憐禪榻靜寥寥
 우스워라 인생은 어찌 저리 부산한고 / 忽笑人生何役役
 쉽사리 벼슬 옷을 못 벗어버리는 몸 / 未能容易掛衣冠
 혹시나 공명을 죽백에 드리울 건가 / 倘可功名垂竹帛
 아이눔이 부르기에 번쩍 단잠을 깨니 / 清眠恰被健稚呼
 먼동이 벌써 터서 붉은 해가 솟았네 / 紅暈已動鴉輪赫
 태애(台崖)에 손짓하며 부르는 이 좃으려다 / 擬追台崖招手人
 여산(廬山)의 눈썹 찡그리는 손 됴이 부끄럽네 / 愧同廬嶽攢眉客
 진세의 말로 청산을 더럽힌다 꺼려 마소 / 莫嫌塵語污青山
 일찍이 단액에 입직 임금 말씀 받았던 몸 / 曾演綸言直丹掖

3) 차운문수승권(次韻文殊僧卷)

文殊路已十年迷。有夢猶尋北郭西。萬壑倚筇雲遠近。千峯開戶月高低。
 磬殘石竇晨泉滴。燈剪松風夜鹿啼。此況共僧那再得。官街七月困泥蹄。

[簡易集 崔岵]

문수사 승려의 시권(詩卷)에 차운하다.

문수사 길 밟아 본 지 십 년이라 흐릿한데
 꿈속에선 북쪽 성곽 서쪽 교외를 찾는다오
 대 지팡이 짚고 서면 골에 구름이 왔다 갔다
 문을 열면 봉우리 위에 밝은 달이 떴다 졌다
 경쇠 소리 아련한데 돌구멍에 새벽 물소리
 등잔 심지 돋을 때면 솔바람에 사슴의 울음
 이 경지를 스님과 함께 언제 다시 가져볼까
 관청 길은 칠월 장마 진흙탕만 질퍽한데.

4) 문수춘사(文殊春事)

文殊傾社去。春服旣成時。採擷愁春損。新芳夜又肥。

[簡易集 崔岏]

문수춘사

벗님네 모두 모아 문수사(文殊寺)로 향하나니
봄옷 지어 입는 때가 돌아왔기 때문이라
나물 캐는 아가씨들 봄기운 껴지나 앓을는지
걱정 마오 새 향초가 밤중에 또 살진다오.

5) 문수사야회(文殊寺夜會) 姜敦友姜子中同會

崔九山千疊 透迤路幾重 偶隨閑興去 仍與故人逢
暮烟凝古木 秋氣聳羣峰 舉筆方題寫 兇懷且可容

[萍湖遺稿 申命顯]

6) 문수사여둔우자중야회(文殊寺與敦友子中夜會)

永壺月色爲誰明 一片心期話重輕 頽臥山窓吟不寐 寒鍾忽報五更聲

[萍湖遺稿 申命顯]

6) 문수사여강돈우강자중야회(文殊寺與姜敦友姜子中夜會)

秋山步步夕陽曛 恠石奇巖路不分 危岸層層松翠滴 清溪曲曲水聳聞
良朋虛席仍紅葉 老釋迎門自白雲 醉後長歌禪塔下 兩三猿鶴好爲羣

[萍湖遺稿 申命顯]

8.4 산 문(散文)

1) 한북산성기(漢北山城記)

北漢本高勾麗北漢山郡。一云南平壤。百濟溫祚王取之。十四年丙辰築城。近肖古王二十六年辛未移都。蓋鹵王二十一年乙卯高勾麗長壽王來圍。蓋鹵王出走城遂廢。我

肅宗三十七年辛卯。卽溫祚舊址築城。以爲保障之所。城周七千六百二十步。爲二十一里餘。門有十四。曰北門，大東門，大西門，大成門，中城門作虹蜺設譙樓。小東門，小南門亦作虹蜺。西暗門，白雲峯暗門，龍巖寺暗門，東暗門，青水洞暗門，扶旺洞暗門，袞裳堂暗門。高低不一。又有水門一而中城門在元曉義相兩峯之間。爲西邊水口。低下淺露。將壺有三。曰東將壺在奉聖庵後峯。南將壺在羅漢峯東北。北將壺在中城門西北。池二十六。井九十九。壬辰上駕幸。巡視城堞。歎其天作之險。蓋山之形便。東西北絕險無地。而仁壽，白雲，萬景三峯屹立于後。稍西曰露積峯。下有重興寺。而萬景峯東轉逶迤。爲釋迦峯，普賢，文殊等峯。展翼爲兄弟。又南爲白岳山。而自文殊一枝轉西爲七星峯。七星出兩支。落爲羅漢甑峯，大望，義相諸峯。至重興水口。一支西走爲僧迦峯。香林寺後峯白雲峯。西轉爲靈鷲，元曉兩峯。至重興水口西止。四面諸峯壁立如削。自成城郭。眞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之地。但山形局勢。殊不寬敞。恐難容衆。而重興之南。文殊之東。曹溪之西。左右洞壑。地勢少平。山谿之寂著者曰三角山。山有仁壽，白雲，萬景三峯巒岿如角故名。一名華山。又稱華嶽。我東之山起於白頭。至平康之分水嶺。西出一支。連峯疊嶂。起伏迤邐。至楊州西南爲道峯。又爲三角。實京城之鎮。仁壽峯卽三角之第一峯。四面純石削立。一巖贅於峯背。故又稱負兒岳。高勾麗東明王之子沸流，溫祚。南行至漢山。登負兒岳。相可居之地。卽此峯也。白雲峯在仁壽之西。一名白雲壺。卽山之最高處。萬景峯在白雲之南。峻拔奇壯。與仁壽爭雄。露積峯在萬景之西。湧峙磅礴。形如露積故名。文殊峯在普賢西。下有文殊窟。中有甘泉。鍊石像文殊與五百羅漢。峯之名以此。侍者峯在白雲壺下。登臨可盡一城之形勝。將軍峯在重興寺西。高麗崔瑩戰地故名。義相壺在彌勒峯下。新羅義相祖師住錫處。元曉壺在義相壺北水口上。義相之弟元曉住錫於此。日日出，盤龍，化龍，潛龍，臥龍，天龍，紫丹，德藏，釋迦，普賢，走馬，靈鷲等峯。羅絡四方。不可殫記。太古，游仙，瑤艸，曲龍之壺。長春，玉流，青溪，靈泉，隱仙，叫龍，白雲，紫霞之洞。盤龍，月印，女妓之潭。國寧，祥雲之瀑。分占而擅勝。寺刹曰香林寺在碑峯南今廢。高麗顯宗庚戌之亂。移安太祖梓宮于是寺。丙辰還塋顯陵。戊午契丹蕭遜寧來侵。又移安于是。己未復塋。曰清凉寺今廢。舊址未詳。高麗李資玄在清平山。睿宗幸南京。遣其弟資德諭赴行在。留是寺。嘗引見問養性之要。待遇甚厚。曰僧伽寺在碑峯東今廢。高麗李頊重修記云按崔致遠文集。昔有新羅狼跡寺僧秀台。飢聆大師之聖跡。選勝于三角山之南面。開巖作窟。刻石模形大師道容。益照東土。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災。禱以禳之。無不立應。曰**文殊寺**，曰重興寺，曰龍巖寺，曰輔國寺，曰普光寺，曰扶旺

寺, 曰元覺寺, 曰國寧寺, 曰祥雲寺, 曰西巖寺, 曰鎮國寺, 曰太古十二寺羅列於前後峯巒之間而太古寺在重興寺左峰。高麗僧普愚住此。扁以太古。做永嘉體作歌。樓觀曰沆瀣樓在重興寺洞口。跨溪而有偃龍橋。上建重樓曰山映樓。在重興寺前。有小橋覆以閣。卽此樓也。曰洗心樓在西巖寺前溪上。行宮在上元峯下。內外殿爲五十八架。倉廩曰經理廳。上中下倉。三營門留倉。而並屬於揔戎廳。置管城將守之。古蹟曰古石城在重興寺北。周九千四百七十七尺。有石門及門址。曰神穴寺高麗顯宗祝髮寓此寺。千秋太后屢遣人謀害。有老僧穴地於室而匿之。上置臥榻。以防不測。王咏溪詩云一條流出白雲峯。萬里滄溟路自通。莫道潺湲巖下在。不多時日到龍宮。曰閔公遺樓。卽高麗文仁公閔漬遺址。在水口門內。名其巖曰閔漬巖。寺曰閔漬寺。寺今爲西巖寺。余於十二日。自津寬寺道南門入城。一宿于重興寺。一宿于太古寺。周覽諸勝。迨東門下牛耳洞天。又一宿于在澗亭而還。卽十五日也。 [冠巖全書 洪敬謨]

8.5 신 문(新聞)

1)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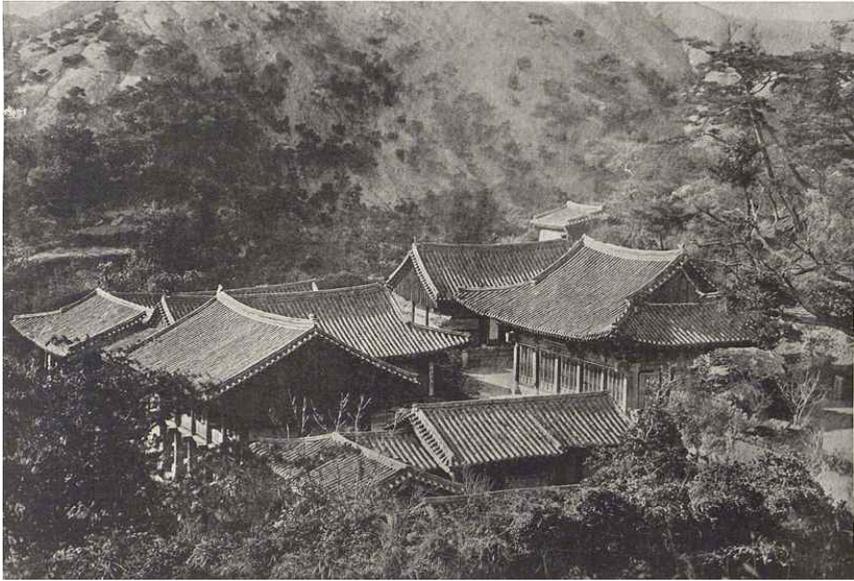
1913년 7월 22일 北漢山 地誌抄畧

[寺刹] 文殊寺 文殊峯下에 在함. 五百羅漢의 塑像이 有호고 且大石窟이 有하며, 北漢山一帶 風光의 中心点이오 此邊 一帶의 楓樹가 多호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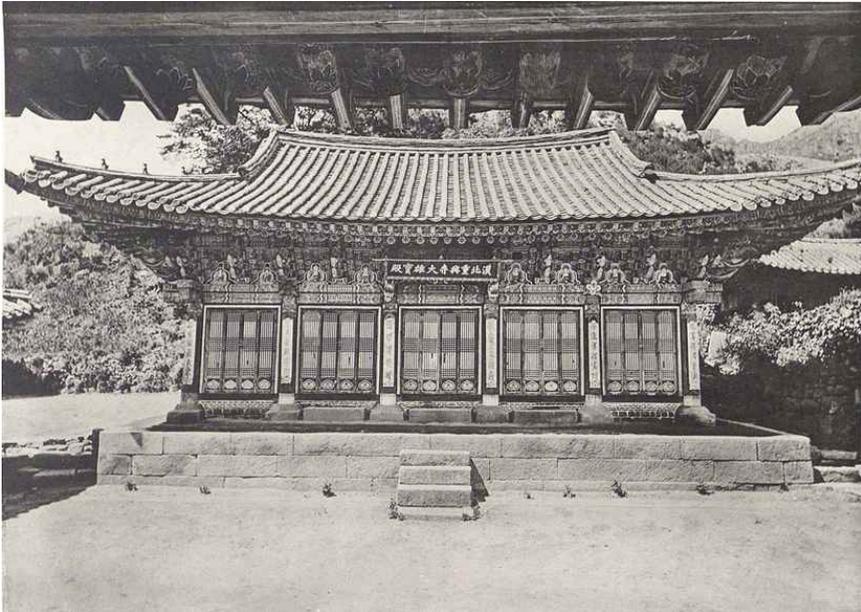
9. 중흥사(重興寺)

9.1 개요(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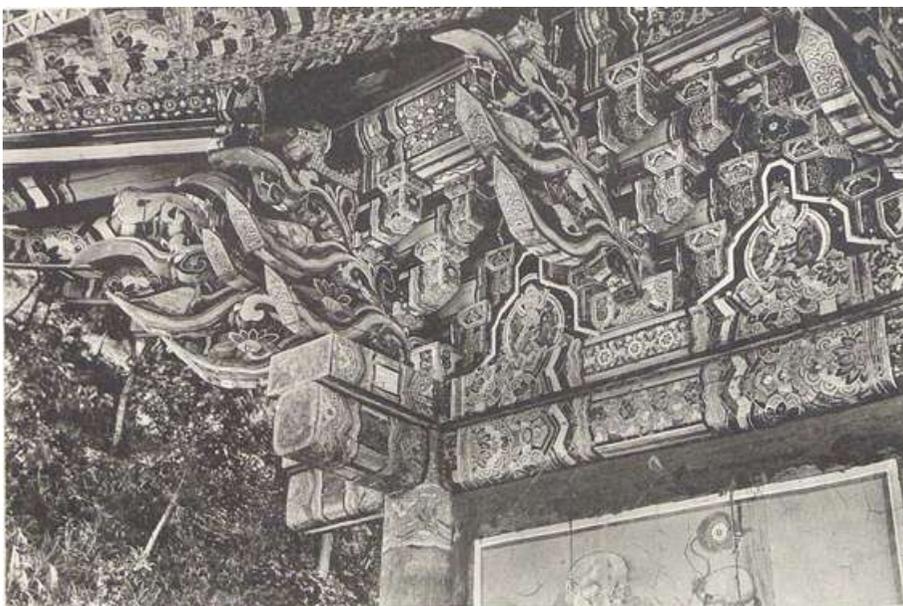
중흥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에 있었던 절로서 창건연대는 미상이나 고려 말에 고승 보우(普愚)가 중수하였다. 이 절이 대찰(大刹)의 면모를 갖춘 것은 숙종39(1713)년에 북한산성을 축성한 뒤이며, 축성 당시는 30여 칸에 불과한 사찰이었으나, 성이 완성된 후에 증축하여 136칸을 만들었다.



중흥사 전경 (1902년 촬영) [조선고적도보(12) 1932년]



중흥사 대웅전 (1902년 촬영) [조선고적도보(12) 1932년]



대웅전 외부 추녀 [조선고적도보(12) 193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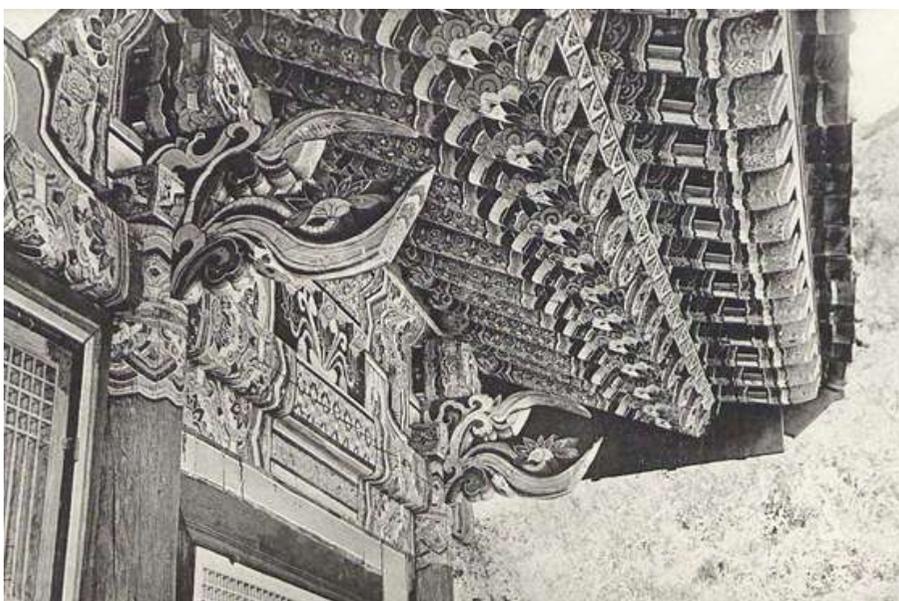


대웅전 내부 (1902년 촬영)



극락전 정면 추녀 (1902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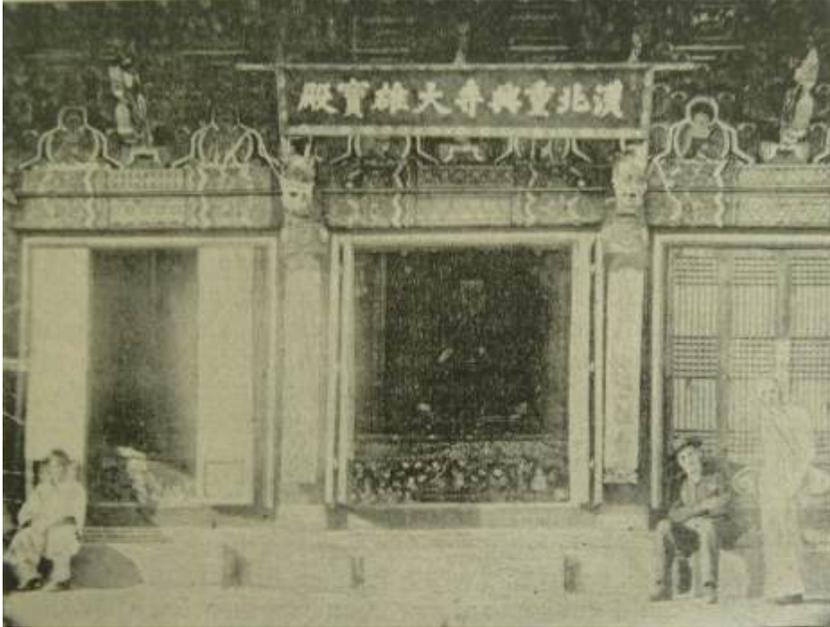
[조선고적도보(12) 1932년]



轉輪殿 외부 추녀(1902년 촬영) [조선고적도보(12) 1932년]



북한산 중흥사 대응보전 본존불
Morning Calm 배56호[1895.2]



북한산 중흥사 대웅보전 전면
Morning Calm 베69호 [1896.8]

성문과 수문(水門), 장대(將臺)와 창고 등을 지키기 위한 승군(僧軍)이 성 안에 주둔하였는데 이 절은 승군이 주둔하였던 북한산성 안의 용암사(龍巖寺) · 보국사(輔國寺) · 보광사(普光寺) · 부왕사(扶旺寺) · 원각사(圓覺寺) · 국녕사(國寧寺) · 상운사(祥雲寺) · 서암사(西巖寺) · 태고사(太古寺) · 진국사(鎭國寺) 등을 관장하였다.

왕실에서는 8도의 사찰에 영을 내려 1년에 6차례에 걸쳐 번갈아 의승(義僧)을 뽑아 올리게 하여 11개 사찰에 주둔시켰다. 승군의 정원은 360명으로 11개 사찰에는 각각 수승(首僧) 1인과 승장(僧將) 1인을 두었으며, 이들을 총지휘하는 본부로 승영(僧營)을 설치하고 승대장(僧大將) 1인을 임명하여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겸임하게 하였다.

이 절은 승대장이 머물렀던 북한산성의 승영이었다. 그리고 이들 승병들의 주둔에 필요한 물품과 군기물(軍器物)을 저장하기 위한 승창(僧倉)을 이 절을 비롯한 여러 사찰에 두었다.

승영 당시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누각인 만세루(萬歲樓)와 나한전(羅漢殿)을 두었고, 동쪽에는 산신당(山神堂)이 있었다고 하며, 대웅전 안에는 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1915년에 홍수로 무너진 뒤 중건되지 못하였고, 현재에는 주춧돌과 축대만 남아 있다.

9.2 사 서(史 書)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종11(1411)년 5월 19일

술[酒]을 중지하였으니, 가뭄을 근심한 때문이었다. 또 명하여 공사간(公私間)에 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하였다. 무당 70여 명을 백악산(白岳山) 산당(山堂)에 모으고, 또 중의 무리를 중흥사(重興寺)에 모이게 하여 비를 빌었다.

지리지 경기 양주 도호부(楊州都護府)

진관사(眞觀寺) 【삼각산(三角山) 서남쪽에 있다. 나라에서 수륙재(水陸祭)를 지내며,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2백 50결(結)을 주었다. 】

승가사(僧伽寺) 【삼각산(三角山) 남쪽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1백 45결(結)을 주었다. 】

중흥사(重興寺) 【삼각산(三角山) 아래에 있다. 선종(禪宗)에 붙이고 밭 2백 결(結)을 주었다. 】

세조14(1468)년 3월 22일

호조(戶曹)에서 홍주(洪州)에 사는 사노(私奴) 무리대(無里大) 등과 공주(公州) 정병(正兵) 진식충(陳息忠) 등의 장고(狀告)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중흥사(重興寺)의 중[僧]과 장안사(長安寺)의 중들이 각각 그 절의 전세(田稅)를 수납(收納)한다 하여, 민간(民間)에게 억지로 갑절이나 침어(侵漁)하기를 자행(恣行)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살 곳을 잃게 하였으니, 청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鞠)하게 하고 징수한 것은 본주(本主)에게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34(1539)년 5월 20일

한숙이 학조의 초사를 들고 와 아뢰니 【‘동래(東萊)에서 나와 정처없이 떠돌다가 중흥사(重興寺)에 머물렀는데 승가사에서 재(齋)를 올린다는 말을 듣고 와서 자다가 붙잡혔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승가사의 원주승(元住僧)을 잡아다가 면질시키고 중흥사의 중도 잡아다가 학조의 행적을 물어보라.” 하였다.

중종34(1539)년 5월 21일

윤은보에게 전교하기를, “중흥사(重興寺) 중의 초사와 승가사(僧伽寺) 중의 초사가 서로 같다. 지금 다시 학조가 평소에 날쌔고 빠른 적이 있었던가를 물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학조를 다시 힐문하라.” 하였다.

선조25(1592)년 6월 28일

도원수 김명원이 치계하기를, “중흥사(重興寺)의 중 행사(行思)가 환속(還俗)하여 류중립(柳中立)으로 이름을 짓고서 개연(慨然)히 성안으로 들어가 적정(賊情)을 염탐하려는 뜻을 가지더니, 이윽고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보통문(普通門)으로 들어가니 왜인 5~6명이 죽 벌여 앉아 누구냐고도 묻지 않았다. 여러 곳을 두루 살펴보니 인가는 전부 비었고 외처(外處)의 잡인이 많이 모여 있었다. 왜장(倭將)이 상아(上衙)에 있는데 장표(章標)를 앞다투어 받기에 나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왔다. 이어 그들의 하는 짓을 보니, 여러 장수들은 객사(客舍)의 상방(上房)과 대동문(大同門)의 서윤(庶尹) 관아와 학당(學堂) 등처에 나누어 거처하는데, 장춘원(長春院)을 헐어 내어 군영(軍營)으로 개조(改造)하느라 토목 공사를 일으켜 오랫동안 주둔할 계획임을 암시(暗示)하였으니 당분간은 서쪽으로 올 것 같지 않다. 오는 길에 영유(永柔)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말에 「오늘 성안에 들어가 우연히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왜적들이 서로 이야기하기를, 금년에는 철이 늦어 전진하기 어려우니 서울로 올라가 새해를 맞은 뒤 명년에 요동을 침범하겠다.」’ 고 했다.’ 하였습시다.” 하니, 조정에서 이에 중립에게 상을 주어 사과(司果)로 삼았다.

숙종36(1710)년 12월 18일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우의정(右議政) 김창집(金昌集)·좌윤(左尹) 김진규(金鎭圭)가 함께 들어갔는데, 대개 도제조(都提調) 이이명(李頤命)이 김창집·김진규와 함께 북한(北漢)에 가서 살펴보고 막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각각 소견을 진계(陳啓)하게 하였는데, 김창집이 전일에 이기하(李基夏)가 바쳤던 도형(圖形)은 미진(未盡)한 바가 있다 하여 다시 도본(圖本)을 바치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면의 뾰족한 봉우리는 험준(險峻)하기가 견줄 데가 없었습니다. 단지 산기슭이 좌우로 질출(迭出)하여 안에 평평한 곳이 없었으며, 중흥사(重興寺)에 백제(百濟)의 궁터[宮址]가 있는데, 창고(倉庫)를 지을 만하였으나, 백성들이 거처할 곳은 진실로 용접(容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둘레는 대략 30여 리인데, 성을 쌓을 수 있는 것은 14리에 지나지 않았고, 성도 또한 높게 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숙종38년(1712)년 11월 10일

병조 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북한 산성(北漢山城)의 행궁(行宮) 자리는 중흥사(重興寺)의 옛터만 못하니, 행궁을 다시 이 곳에 옮기어 세우도록 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였다.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숙종4(1678)년 6월 10일

漢城府啓曰, 近來國綱解弛, 禁止松木, 任意斫伐, 已極可駭, 而至於三角山下神穴里禁山處, 則自前與楊州牧, 每每相爭, 蓋神穴面距京城, 以行人作路計之, 則幾至三十里, 自城北計之, 則步數未滿十里。且以輿地勝覽所載觀之, 則三角山, 爲京城鎮山, 佛宇所錄重興寺下, 亦註云在三角山, 古跡所錄神穴寺下, 亦註云在三角山, 故本府則以此爲京城屬山, 而楊州牧則以神穴面居民, 應本州之役, 故以爲當屬於本州, 以此爭報備局, 積有年所。[中略] 分授人等, 今方捉來鈎問, 分輕重科罪, 而莫重山麓, 不可不速爲區別禁斷, 令備邊司劃卽處決, 俾無日後如此之弊, 何如? 傳曰, 允。

숙종36(1710)년 10월 13일

訓鍊大將李基夏啓曰，臣於初十日，承命出往洪福，看審城基，蓋在京都行龍大過峽處，而去京城五十里，自佛谷前峯，所謂凡乙於缺北出一枝，轉而向西，又轉而南東，出一枝，轉南向西中，出二崗，第一崗爲洪福青龍內水口山，第二崗爲外水口山，而四面險阻，且無切迫窺峯，築城周回，以內水口第一崗爲限，則比南漢差小，以第二崗爲限，則比南漢稍大，而其欲以第二崗爲限者，蓋慮城內水泉不足，故欲取第一崗下龍淵之意也。以目今水落之時觀之，則誠有是慮而然。聞谷中居民之言，雖於大旱，谷谷有水氣，故每患水田太洽，逢旱然後始得云，以此推之，則泉井之不足，亦似無患矣。且以外勢言之，城在絕險之內，而賊無圍住之勢，我有傳通之路，凡干命令，又以循山而行，古今以此地，謂可合處，必當取之於十里之外，而城之四方，高峻險絕，運一塊之石，當十倍用力，其勢固難，若用土，或燔斲築之，數年之內，完然失望，且其內外諸山，見方濯濯，取柴無路，軍兵炊爨，亦將缺二行不留意者，未知料理推移於何處，此皆猝難辦集者也。缺北漢則臣出去之日，路由東道，審望山之形勢，還歸之路，由西道，又見山之形勢，東西兩邊，絕險無比，而仁壽峯·白雲臺·萬景臺三峯，是爲三角山，屹立于後，稍西曰露積峯，下有重興寺，而萬景峯，東轉逶迤，爲釋迦峴，普賢·文殊等峯，文殊展翼，爲兄弟兩峯，又南爲狗蹲峯·白岳山，而自文殊峯，一枝轉西，爲七星峯，七星出兩枝，一枝落爲羅漢·甌峯·穴望·蒙相諸峯，至重興水口，一枝西走，爲僧伽峯，香林寺後峯白雲峯，西轉爲嶺鷲元曉兩峯，至重興水口而止焉，四面諸峯，鐵壁如削，自成城廓，人難接足，真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者也。故相臣李德文集中，雖曰主山，後路到白雲而斷焉，問于僧人，則仁壽·白雲兩峯之間，有一鳥道，傳命可通，其他東西南三方，則載卜往來，雖未可爲之，步行則不難云矣。臣之入重興寺也。路由水口，有石門舊址，卽所謂西門也。城雖崩，尚有石築基址，而進入內城，又有石門，此則距寺僅數百步許，若稍加修治，亦可以通牛馬任載，而城基內山谷之間，處處有水，雖大軍留屯，似無不足之患，而山上松木，古甚茂盛，松蟲之後，雖不如前，深峻處，猶頗長養，比諸南漢樹木，而似勝焉，都城不遠之處，有此天險之地，仍爲棄置，誠可惜也。第念局勢雖不寬敞，人無可居之處，而惟重興寺上邊，文殊寺之東，拱溪寺之西，左右洞壑，

地勢不便，稍有土膚，不至束狹，似可以容人居也。頽毀城子，人雖曰修補則可，而若非改築，則不可矣。既有舊城餘石及纍纍山石，雖可省功，高峯絕頂，則用力倍他，恐難容易也，敢以所見，姑舉梗概，且其山圖，出草以來，而忽遽未及正書，待禁衛·御營兩大將看審還來後，臣亦當同陳所懷於榻前，其時竝進之意，敢啓。傳曰，知道。

숙종36(1710)년 10월 20일

其勢雖曰窮蹙，不猶愈於脫身而跳走者耶？萬山環擁之中，地勢不平坦，而目今爲荒峽深藪，驟看雖若狹窄，量其方圓，則前後左右，可爲方數十里，比之南漢，殆又過之。卽今**重興寺**傍近稍平易處，可營行宮及府署，而其餘可置倉廩之處，不一而足。高高下下，因其地勢，可作人家者，亦足爲數萬餘間。

숙종37(1711)년 6월 9일

又所啓，小臣頃往北漢，看審城基，則初入水門之際，甚爲窄迫，而過**重興寺**，以西內外俱險，以東山勢平夷，而外面真是天險也。城內雖狹，周回亦廣，可以容衆，而泉脈似無不足之患。但築城之後，必先措置軍餉，然後可以守城，此誠廟堂之次第經紀事也。金重器言于臣曰，以山勢觀之，**重興寺**基址甚好，若營建行宮，則無出于此，而第曾有沙汰之患，不免頽壓寺宇，雖欲營建行宮於此，沙汰甚爲可慮云。臣亦看審其形勢，則**重興寺**後，有峯峻急，西邊一麓，昨年大雨，沙汰頽壓於寺舍，東邊一麓，又有沙汰之處，以此見之，峯下當中，營建行宮，最爲可慮矣。重器於他處，得可建殿宇之基，臣與之同往看審，則傍有古寺基址，一山中最廣闊處也。若捨重興，則無過於此，臣與重器之意，欲與此斷定，而事體亦重，非臣等之所可擅便，不可無更爲詳審之道，而亦令觀象監地師，看審宜當，故敢達。都提調李□□曰，此山形勢，臣亦往見，論以風水，雖未知其如何，而**重興寺**基址爲當中，百濟亦建行宮于此，捨之可惜。但沙汰可畏，則當有變通，行宮營建亦重，宜令任事諸臣更審，且令地師，相基他處，宜矣。上曰，前定之處可慮，則以他處改定，而地師看審事，依所達爲之。

숙종37(1711)년 7월 5일

上曰，千張雖似太多，非爲一時盡用，依所達成給，可也。出舉條宇杭曰，北

漢行宮之基，人皆以重興寺爲可合矣。以其有沙汰疑慮之故，政定他處之意，頃已仰達，而事體重大，臣只與金重器，看審以定，終涉未安。今將率地師往見，故敢達，下詢大臣而處之，何如？上曰，何如？宗泰曰，重興寺基，儼然當中，觀其體勢，行宮似當營於此處，而既有所可慮，移卜他基，則其事重矣。雖有主管堂上，而六卿中工判或禮判，偕往詳察，似當矣。

숙종37(1711)년 10월 1일

水口如是低闊，故百濟時，已有兩重內城，其最內重興寺前，有石門處，雖未必築其外，一重則山脚犬牙相錯，溪谷甚狹，古址當築處，又不過百餘步。

숙종37(1711)년 10월 1일

其處雖曰難着足，疾捷者猶可攀登。自外初見處，無連絡城堞，似爲虛疏。宜令本軍門，更加設堞矣。行宮營建處，亦爲看審，則不無可論者，重興寺基，雖當中，前溪甚逼，左麓嘗崩，以此移營於今基，比重興比〈倍〉寬矣。

숙종37(1711)년 10월 3일

行宮營建處，亦爲看審，則不無可論者。重興寺基，雖當中，前溪甚逼，左麓嘗崩，以此移營於今基，比重興倍寬矣。內殿砌礎已排，柱樑已豎，而其向東北，前面多風雨。

숙종38(1712)년 11월 10일

上曰，軍器寺烏銃三千柄，移送，可也。行兵曹判書趙泰采所啓，臣日昨，往見北漢，有所懷，故不得不仰達矣。周覽重興寺基址，則地勢向陽最爲平夷，第前臨活水，雖似狹窄，作橋平治，則亦可稍闊，且傳言者之宮闕遺基，而中城築基，至今宛然，行宮新建之際，宜以此定之，而第重興寺後麓，曾有沙汰之患，其在慎重之道，不無疑慮，捨此，則無可合處，不得已擇定他所矣。臣於今番，登柴丹將壇，則行宮內外，直爲壓臨，通望無礙，非人力之所容障蔽，一朝脫有警急，則大將當坐於柴丹峯，既無相蔽，勢將壓臨，極爲不便，臣未知國家將幾百年太平，而既以陰雨之備，有此築城建闕之舉，則豈可以一時移建之弊，不早變通乎？臣意則重興基址，可合移建，而寺後山麓，不甚高峻，日後沙汰之患，似無所慮，故敢此仰達。上曰，登柴丹峯，則可以俯見宮中矣。泰采曰，新闕，或可移建，而柴丹峯，則誠合將壇之所，不可棄之矣。上

曰，柴丹峯將壇，決不可棄之矣。李濡曰，兵判往見北漢，來見臣，亦以此言之，而臣意則當初遣禮官，看審其基，諸大臣，亦皆相議後稟定，營建行宮，而當寒始役，必欲及春舉動前訖功，故或欠完固，不無前頭傾仄之慮，而纔完其役，旋即移建，事體莫大。且其地形，左右雖狹，前面頗爲闊遠，似勝於重興地坐矣。從容商確處之，恐爲得宜。泰采曰，國家若幸屢百年太平，則焉用彼城闕，而若以網繆之策言之，則不可以今日無事而緩忽也。至於重興寺前備局倉，則監董之人，專爲一時誇功之計，間數雖多，儲積不便，此亦將未免改作之舉，而重興寺，亦將移於他處，前頭定爲行宮處所，則似爲便當矣。濡曰，今臣所達，非爲遷就而然矣。當初以重興坐地前面窄迫之故，禮官率地師，審定新基，雖或移建，不可不更令地師，看審重興基址，量度形勢之可以排置與否，而有所裁定，實合於慎重之道矣。泰采曰，將壇壓臨宮中，形勢不便，故有此所達，而地理，則臣所未曉也。刑曹判書朴權曰，兵判所見，雖如此，安知他人所見，又與兵判必同耶？所造倉舍，若固無形，則當罪其監造者，豈可數數毀改耶？且行宮，事體極爲重難，亦不當以一人之言，遽議移建矣。泰采曰，刑判所達，未能詳知其間形勢而然矣。備局倉舍，元非自朝家造作之事，募得幹事人，給帖文若干張，使之監造矣。雖有未盡處，何可罪之乎？行宮事，則臣之所見如此，故欲一陳達矣。朴權曰，地勢如何，及以帖文募人來造事，臣未及詳知，而大臣所達從容商確後更議云者，似合於慎重之道矣。濡曰，此乃重事也。不可以一人之言，卽爲變通，姑待明春，臣亦往見後，更爲稟定，似好矣。上曰，重興寺前面，亦爲狹窄矣。知中樞府事李基夏曰，臣意則自當初以爲，重興之基，當作行宮之所矣。諸臣往審定基後，見卽今行宮之基，則前面雖爲闊遠，地勢頗似峻急，且有柴丹壓臨之病，終不若重興之平夷，以臣所見之如此，言于金重器，則以重興有沙汰之慮答之，更爲詳察，則重興寺左邊山崖，曾有若干崩汰處，以致別堂之傾仄云，而以卽今形勢觀之，似無更崩之慮。至於重興倉舍之不便，誠如泰采之言矣。上曰，移建行宮事，更爲看審後，稟處，可也。

숙종44(1718)년 윤8월 10일

北漢有上下兩倉。下倉則在於中興寺[重興寺]前，果是李弘[李弘]·徐萬興等

所造而蒙賞者，上倉則在於行宮洞口，卽安龜瑞·金甲鳴之所造，而特以其米穀貸下未償之故，至今不爲論賞之由，亦以具陳於前書，而諫臣之避辭，有若以方外不干之人，許貸其米穀者然，此是錯認之致也。

숙종45(1719)년 2월 4일

副護軍李挺周以爲，伏以北漢·蕩春之設築，實是國家大計，非臣膚淺之見，所可妄論，而旣承獻議之命，何敢終默？北漢天險之地也。北東南三面，峯高嶺峻，地勢阻阨，西邊雖似稍低，亦且險固，脫有緩急，使一大將守之，足以憑險拒敵，而第水根甚淺，**重興寺**前，雖有一道溪水，若當深冬，則輒皆凍涸，至於泉井，絕無而僅有，大駕若率都民以入，則其勢實難久住。

영조26(1750)년 4월 28일

又以敦寧府言達曰，北漢山城幸宮，譜冊奉安閣，極其狹窄。當此御牒別爲奉安之時，事體與前自別，發遣郎廳，看審移奉處所，則幸宮近處，公廡無可合處。而**重興寺**別館，自是公廡，且無所關，今式年爲始，移奉于此館之意，敢達。令曰，知道。

영조27(1751)년 1월 29일

上曰，置之。尙魯曰，昨年敦寧府以北漢行宮行閣奉安之譜冊，移奉於**重興寺**別館之意草記達下。則其時本曹堂上，以此筵稟，自上御筆書下，有依前奉安，仍舊貫之命。

정조23(1799)년 1월 25일

沈象奎，以摠戎廳言啓曰，謹依宣傳官金樺口傳下教，本廳屬北漢**重興寺**居接金興宅夫妻，米一石·錢文五兩，御倉契居李泰渭處，米十斗·錢文三兩，姑先助給，而差病間，各別救療之意，敢啓。傳曰，知道。

3) 일성록(日省錄)

정조23(1799)년 1월 25일

[강] 摠戎廳以**重興寺**居接人金興宅御倉契居民李泰渭米錢助給啓

[목] 該廳啓言謹依宣傳官金□口傳下教本廳屬北漢**重興寺**居接金興宅夫妻米一石錢五兩御倉契居李泰渭處米十斗錢三兩姑先助給差病間各別救療矣

순조 32(1832)년 6월 24일

[강] 命北漢漂戶及滄死人恤典依別恤典例題給遣宣傳官摘奸

[목] 總戎使柳相亮狀啓以爲卽接北漢管城將沈能俊所報則以爲今月二十二日夜暴雨本城行宮後麓及山谷處處沙汰行宮東行閣七間水刺間挾門一間及山映樓六間中城門軍鋪三間頽漂而行宮內外墻垣五十五間管城所庫舍四間御倉庫舍一間 **重興寺** 墻垣四間圓覺寺義僧廳石築一間墻垣二間普光寺寮舍一間墻垣二間西巖寺寮舍石築五間及民戶四十五家竝爲漂流人命漂死三十名內男十二名女十八名云萬萬驚慘別遣營校眼同城將爲先奉審行宮而漂頽之行閣與庫舍待快霽當爲改建致死入命則多發城民盡數鈎拯後自臣廳頽壓民家竝各別顧助而屍身掩埋及漂戶奠接等節另加申飭舉行計料教以人命之多數滄死已極驚慘而民戶之入於漂沒者亦甚可矜別遣宣便官摘奸以來各別申飭使之星火鈎拯其掩埋之需依各道別恤典例自總廳題給頽壓民戶亦爲另加助給俾卽結構奠接後竝爲狀聞會減滄死人有身還者亦爲蕩減事一體分付

헌종 13(1847)년 4월 13일

[강] 御春塘臺行西北別付料試射及瑞蔥臺頒賞

[목] 總衛營北漢僧校卒柳葉箭入格 **重興寺** 主掌僧淨默貫二中木二疋射料軍官僧暢俊僧將僧泰信貫一中邊一中竝木布各一疋僧體默等二名邊二中各布二疋射料軍官僧善欣等七名邊一中各布一疋鳥銃入格書記僧致薰貫二中邊一中帖加僧誠順等十八名邊一中各布一疋各營頒賞以次舉行訖降座乘馬出青陽門由協陽門還內

4)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4(1678)년 6월 9일(음)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 금산(禁山)의 소나무를 임의로 베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삼각산(三角山) 아래 신혈리(神穴里)의 금산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양주(楊州) 고을과 번번이 시비가 있는 곳입니다. 대체로 신혈리는 서울에서 행인(行人)이 통행하는 길로 따지면 거의 30리에 달하고, 성북(城北) 모퉁이에서 산 밑 직선거리를 계산

하면 10리가 채 안됩니다. 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린 것을 보면 삼각산은 서울의 진산(鎭山)이라 하였고 불우(佛宇)에 관한 기록에도 중흥사(重興寺) 밑의 주(注)에 삼각산에 있다고 하였으며, 고적(古跡)에 대한 기록 가운데 신혈사(神穴寺) 밑의 주에도 삼각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부에서는 이를 서울에 속한 산이라 하고, 양주 고을에서는 신혈리 주민이 본 고을의 역(役)에 응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본 고을에 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숙종36(1710)년 10월 14일(음)

훈련대장 이기하(李基夏)가 홍복(洪福)과 북한(北漢)의 두 성터를 살펴보고 서계하였는데, 이르기를

"신이 초10일 명을 받들고 나아가 홍복의 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대체로 서울에서 뻗어 온 산맥(山脈)이 크게 **꼭 솟았다가 낮은** 곳에 있으며, 서울과의 거리는 50리였습니다. [中略] 인수봉(仁壽峰)과 백운대(白雲臺)·만경대(萬景臺)의 3봉은 곧 삼각산(三角山)으로서 뒤에 우뚝 서 있고, 약간 서쪽에는 노적봉(露積峰)이 있으며, 그 아래에 중흥사(重興寺)가 있습니다. 만경대는 동쪽으로 뻗어서 구불구불 에워둘러 석가현(釋迦峴)·보현(普賢)·문수(文殊) 등 봉우리를 이루고, 문수봉은 나래를 펴서 형제(兄弟) 두 봉우리를 이루었으며, 또 남쪽으로 구준봉(狗蹲峰)과 백악산(白岳山)을 이루었습니다.

숙종37(1711)년 6월 10일(음)

이번 6월 초9일 약방에서 입진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제조 김우항(金宇杭)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지난번 북한산에 가서 성터를 살펴보니 처음에 수문(水門)을 들어설 때에는 몹시 험작하였으나 중흥사(重興寺)를 지나니 서쪽으로는 안팎이 다 험하였고 동쪽으로는 산세가 평탄하였으나 바깥쪽은 참으로 천험(天險)이었습니다. 성 안은 비록 좁았으나 둘레가 넓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고 우물도 부족할 염려는 없을 듯하였습니다. 다만 성을 쌓은 뒤에는 반드시 먼저 군량을 준비하여야만 성을 지킬 수 있는데 이는 묘당에서 꼭 순차적으로 경영해야 할 일이옵니다. 김

중기(金重器)가 신에게 말하기를 '산세로 보면 **중흥사**의 터가 매우 좋으나 행궁(行宮)을 짓기로 하면 이곳보다 나은 곳이 없겠는데 다만 전에 산사태가 있어 절집을 덮친 일이 있으므로 이곳에 행궁을 짓고자 해도 사태가 몹시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이곳 산세를 살펴보니 중흥사의 뒤에는 높고 가파른 봉우리가 있고 서쪽 능선은 작년의 큰 비에 사태가 나서 절집을 덮쳤으며 동쪽 능선에도 사태가 난 곳이 있었습니다. 이로 보면 봉우리 아래 중앙이 되는 곳에 행궁을 짓는 것은 가장 염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김중기(金重器)가 다른 곳에 전우(殿宇)를 지을 만한 곳이 있을까 보자고 하여 신과 함께 가서 살펴보니 **중흥사** 곁에 옛 절터가 있었는데 이 산 가운데에서는 가장 넓은 곳이었습니다. 만일 중흥사를 버린다면 이곳보다 나은 곳은 없었습니다. 신과 김중기(金重器)의 의견은 이곳으로 단정하고 싶으나 사체가 중하여 신 등이 임의로 할 일이 못되므로 다시 상세히 살피는 도리가 없을 수 없겠고 또 관상감(觀象監)에서나 지사(地師)도 살펴보아야 하겠기에 감히 진달하옵니다."하고,

도제조 이이명(李頤命)은 아뢰기를 "이 산의 형세는 신도 가 보았는데 풍수(風水)로 논하면 어떨런지 몰라도 **중흥사**의 터는 중앙에 위치하고 백제 때에도 이곳에 행궁을 지었으니 버리기는 아까우나 다만 사태가 두려우면 변통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행궁을 짓는 것도 중대한 일인 만큼 책임있는 제신으로 하여금 다시 살피게 하고 지사도 다른 곳에 터를 보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앞에 정한 곳이 염려스러우면 다른 곳으로 바꾸되 지사더러 살피게 하는 일은 아뢴 대로 거행하라."하였다.

숙종37(1711)년 7월 8일(음)

호조판서 김우항(金宇杭)이 아뢰기를 "북한 산성에는 중흥사(重興寺)만이 있는데 사찰을 많이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승도(僧徒) 중에서 몇 사람을 모집하여 책임지고 재물을 수합하여 먼저 몇 곳에 승사(僧舍)를 짓게 하였으나 만일 돌보아 주는 일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공명첩(空名帖)을 얻어 보태 쓰기를 원하고 있으니,

일반의 통정첩(通政帖)과 절충첩(折衝帖) 각 3백 장과 가선첩(嘉善帖) 1백장 및 승려의 통정첩 2백 장, 가선첩 1백 장, 합 1천 장을 만들어 주도록 분부하여 앞으로 사찰을 지을 때에 참작하여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천 장은 다소 많은 것 같으나 연속해서 진청(陳請)할 수 없이 이렇게 양달하는 바이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하였다.

숙종37(1711)년 7월 9일(음)

호조판서 김우항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행궁 터를 사람들은 모두 중흥사(重興寺)가 가합하다고 하나 사태(沙汰)의 염려가 있을런지 모르니 다른 곳으로 바꾸자고 지난번에 양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체가 중대하여 신과 김중기(金重器)만이 살펴보고 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하여 지금 지사(地師)를 데리고 가 보려 하옵기에 감히 아뢰옵니다. 대신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하였다. 영의정 서종태가 아뢰기를 "중흥사의 터는 엄연히 한 중앙에 있어 그 형체나 국세를 보면 행궁은 꼭 그곳에 지어야 하겠으나 기왕 염려된 바가 있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잡기로 한다면 그 사체가 중대합니다. 비록 주관 당상이 있기는 하지만 육경(六卿) 중에서 공판(工判)이나 예판(禮判)이 함께 가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하였고,

좌의정 김창집이 아뢰기를 "이 일은 축성 공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혼자 살펴서 정할 수도 있는 일이나 호판(戶判)의 뜻은 사체가 중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신 등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려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예판이 함께 가서 보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숙종37(1711)년 10월 3일(음)

이이명이 아뢰기를 "작년 겨울에 신이 명을 받들고 다른 대신과 함께 그 터를 살펴보고 돌아와 그 형세를 아뢰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은 본래 이성이 흠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 성첩을 새로 쌓고 길을 닦아 놓아 면목은 꽤 훌륭하였으나 그 흠이 되는 곳은 끝내 달라지지 않았

습니다. 성 안에는 간혹 밭을 붙이지 못할 데가 있어 성을 순행(巡行)할 수 없고 골자기는 험한 곳이 많아 완급에 다달아 서로 통래할 수 없으며, 어떤 방면에 적이 쳐들어와 성첩에 붙는다 하더라도 평지에 있는 군졸이 제때에 응원할 수 없습니다. [中略] 수구가 이토록 낮고 넓기 때문에 백제(百濟) 때에 이미 이중(二重)의 내성(內城)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안쪽의 중흥사(重興寺) 앞에 석문(石門)이 있었던 곳을 꼭 쌓을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밖의 한 겹은 산 기슭이 개의 이빨처럼 맞물려 골자기가 매우 좁은데 옛터의 쌓았던 곳과도 1백여 보(步) 밖에 되지 않으니 이곳만은 꼭 쌓아야 하겠는데 돌이 남아나도록 많아 일하기는 쉽겠습니다. [中略] 김중기의 의중은 대체로 급할 때에 가깝게 가려고 한 것이나 평상시에는 이 길로 행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동문은 높고 커서 연(輦)이 들어갈 수 있고 동북문은 다소 작아 작은 수레만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진달한 여러 항목을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상의하여 품처하게 하고 도성암의 앞 길은 지금 잘 닦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5) 동정고(東典考)

○東宮寮屬

英宗戊申文學趙顯命撰祖鑑進東宮上親製序文命侍講院刊印弁卷癸丑命講書院有楞嚴經非所以教吾孫之道送置北漢重興寺正宗丁巳謂申大羽曰今擇僚先蔭而後文蓋崇儒之意也庚申領相李秉模言春坊兼輔德以堂上僚屬差出純祖乙亥命東宮書筵值齋日以召對行之賓客依法講例入參值陵廟修改日過時刻行之遵列朝聖教也

○山城

京畿道漢城府北漢山城[楊州]在京城北三十里東北距楊州三十里肅宗辛卯設築石城○重興寺北城周九千四百七尺有山如露積稱露積山[輿地勝覽]開城府大興山城在天摩聖居之間肅宗丙辰設廣州南漢山城在京城東南四十里漢水之陰北距故治五里而遙本百濟舊都也溫祚王十三年自慰禮移都立城闕移慰禮民戶歷十二世三百八十餘年至近肖古王二十六年移南平壤[卽今京都]我朝壬辰以來多有

意於是城而當國者莫克建白[谿谷集]

6) 정리고(程里考)

方輿總志 한성부(漢城府)

總攝所在總衛營北漢僧校卒柳葉箭入格重興寺主掌僧淨默貫二中木二疋射料軍官僧暢俊僧將僧泰信貫一中邊一中竝木布各一疋僧體默等二名邊二中各布二疋射料軍官僧善欣等七名邊一中各布一疋鳥銃入格書記僧致薰貫二中邊一中帖加僧誠順等十八名邊一中各布一疋各營頒賞以次舉行訖降座乘馬出青陽門由協陽門還內有十一寺二庵倉庫八處

7)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별집 변어전고(邊圉典故) 산성(山城)

경기도 한성부(漢城府) 북한산성(北漢山城, 양주(楊州)에 속한다)은 경성(京城)에서 북쪽으로 30리에 있으며, 동북으로 양주와의 거리가 30리이다. 숙종(肅宗) 신묘년(1711)에 석성(石城)을 쌓았다. 중흥동 석성(重興洞石城)은 중흥사(重興寺) 북쪽에 있으며, 주위가 9천 4백 17척(尺)이고, 성 중에는 산이 있는데 노적가리 같다 하여 노적산(露積山)이라고 일컫는다.

《여지승람》

9.2 시(詩)

1) 방중흥사(訪重興寺)

高秋霜露洗林丘。喜見三峰天畔浮。絕壁冷霞餘雨氣。壞城斜日映寒流。
藤蘿古道深難取。燈火禪房暝始投。勝處每懷長往志。會攀叢桂共僧留。

[農巖集 金昌協]

중흥사(重興寺)를 찾아가다

늦은 가을 서리 내리니 나뭇잎 떨어지고
세 봉우리 쳐다보니 하늘 끝에 떠있네.

골짜기에 찬 노을 뜨니 비 오기는 틀렸고
 옛 성터에 해 기우니 흐르는 찬물에 비치네.
 텅굴 속의 옛 길은 찾기 어렵고
 비쳐오는 등불향해 절간을 찾아가네.
 절경 속에 있어 찾아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험한 층계 올라가 스님과 함께 머물렀네.

2) 차중흥승인언축운(次重興僧印彦軸韻)

山影樓高水檻空。飛泉遙掛夕陽中。何當淨掃蒲團坐。萬壑涼風與爾同。

[月沙集 李廷龜]

중흥사 승려 인언(印彦)의 시축에 적힌 시에 차운하다.

산영루 누각은 높고 물가 함(檻)은 텅 비었는데
 나는 듯한 폭포수는 멀리 석양 속에 걸렸어라.
 그 언제나 포단을 정갈히 청소하고 앉아서
 만학천봉 부는 서늘한 바람 그대와 함께 썰가나.

3) 숙중흥사(宿重興寺)

芒鞋曉踏重興洞。携琴晚入重興宿。庭前寒木風蕭蕭。階外暗水鳴瀾瀾。
 空堂闕寂門不扃。蝙蝠聯翮飛入屋。憑軒坐階人語靜。浪奏一聲山中曲。
 聲終曲罷僧來謁。碧眼脩眉皆老禿。急洗茶鼎塔間移。添膏更明佛前燭。
 人參共煮雜山薰。滿甌甘辛傾入腹。因炊客飯汲寒溪。滑匙新稻嚼香玉。
 坐來月出前山高。夜深清籟生澗谷。長天玉露明如洗。時見寒光連砌竹。
 禪房入臥土床暖。書生一身溫飽足。明朝飛杖穿雲去。白雲一峯天外碧。

[養心堂集 趙晟]

4) 중흥사제등월축(重興寺題燈月軸)

重興十七首新詩。老眼看來喜可知。泉石始經才子弄。山林應盡寶藏奇。
 玉蟲逐卷光猶爛。圓桂當中影不移。他日蘭亭堪絕唱。吾人雖病欲相隨。

嘉清庚子冬。先生與沈守慶，尹潔。讀書三角山重興寺。賦詩。

名曰燈日軸。後宋鈍菴寅，鄭林塘惟吉，
李鵝溪山海，沈一松喜壽。皆次韻題其軸。

[草堂集 許曄]

5) 차승유원증견어차음중흥사 (次僧由員曾見於車音重興寺)

三角山天一方。重興寺山之陽。僧來水雲消息。六月枕簟生涼。

[息庵先生文集 黃暹]

6) 중흥사동암(重興寺東庵)

獨行三角欲何求。玉骨干霄碧洞幽。太古清風聞寶月。雲臺霞氣想丹丘。
樓前花影迷人意。枕底流聲供客遊。滌盡煩襟宵寐穩。東峯蘭若小如舟。

[童土集) 尹舜舉]

7) 태고암암재중흥사상두유고비(太古菴菴在重興寺上頭有古碑)

太古孤菴外。浮圖兩塔邊。殘碑尋細字。文在結繩前。

[壺谷集 南龍翼]

8) 삼각산지중흥사(三角山之重興寺)

[頭流聰上人。曾於丙申年間。一見於三角山之重興寺。伊後不復知其所適。今忽見訪於朗州謫居。投贈近體一詩。躑躅杖一枝。留一宿而去。風誼之高。有足多者。回思舊遊。依依若昨日事。而楊枝豆子。倏已二十春秋矣。孰謂復續奇遇於嶺海千里之外耶。此誠不可不歸之數也。余之不作詩久矣。厚意不可不報。上人索之且勤遂依韻草綴以贈之]

羈人蹤跡風飄葉。老釋心期月印潭。鵬舍相逢知有數。虎溪何必笑成三。
重興古寺思千里。方丈群峯跨兩南。携贈瘦筇無處試。且容孤夢到禪庵。

[文谷集 金壽恒]

9) 숙중흥사(宿重興寺)

承命看審北漢城址。李判樞 頤命 金參判 鎮圭 同行。宿重興寺。金台有詩。輒次其韻。

鼎坐山中夜。憂虞共一心。網繆存險要。涉歷遍高深。
倚杖層巒夕。牽輿絕壑陰。千秋魏臣語。堪爲聖君吟。

其二

廊廟同寅義。招提一席親。相期輔明主。先講得斯民。
地利從天險。時憂豈塞塵。頽波誰一柱。弱力愧千勻。

原韻

乙卯冬。先人奉命來審北漢。不肖今又作此行。而天時人事。適多相感者。聊寓言志。
弱國網繆計。餘生感慨心。山谿險雖極。根本慮猶深。
撫蹟惟殘雪。傷時又積陰。公私無限恨。竟夜只悲吟。

[夢窩集 金昌集]

10) 태고사귀로(太古寺歸路)

登山暎樓少愁。夜投重興寺宿。

白頭吾不畏西風。看盡霜崖萬樹楓。隣寺踏來山暎裏。一樓留坐澗寒中。
雲歸衆壑潭無跡。月照澄潭併是空。夜久隔窻聞落葉。對床眠與老僧同。

[柳下集 洪世泰]

11) 추일유중흥(秋日游重興)

[八月二十八日。陪伯氏携昌大。訪重興寺留宿。翌日。過文殊菴。由蕩春臺而還]
閑來浪迹訪禪居。習氣多年故未除。一道泉聲經雨後。九秋楓葉染霜初。
關心節序相摧欲。托意雲烟任卷舒。興到詩成聊偶爾。不須多事吮毫書。
迢遞禪方襯帝居。秋來落葉滿庭除。悠然逸興詩成後。搖落閒愁酒散初。
半壑雲烟工點綴。一區泉石穩鋪舒。眼中無限關心事。都付騷人落筆書。
偶訪重興釋子居。數叢山菊遶階除。溪心巖石流溥久。峰頂伽藍結構初。
萬壑秋光濃欲滴。三更夜氣靜仍舒。時聞清磬消塵慮。剪燭無眠看佛書。伯氏
重興峰壑近辰居。倚杖西風百慮除。山鑿六丁通道後。石留媧帝補天初。
烟霞滿眼塵襟靜。鍾磬澄心道氣舒。目下茫茫迷浩劫。龍堂閑讀梵王書。昌大
踈雲深樹擁禪居。起掃飛霜步石除。落葉亂鳴僧定後。恠禽驚叫酒醒初。
專耽丘壑心方遠。久薄榮名氣自舒。叔夜未諳孤往意。風塵空有絕交書。昌大

上界尋真起我慵。夕陽來倚最高峰。千層嶽翠深無限。九點人烟杳幾重。
 遊客水邊初拄杖。老僧雲外已鳴鍾。登山不盡悲秋感。更訪前朝學士蹤。
 尋秋幽興強疎慵。直上三山第一峰。石罅澄潭深幾曲。樹顛晴靄○千重。
 遲遲盡日穿雲屐。遠遠斜陽隔岸鍾。怊悵浮名還自誤。任教禪子笑塵蹤。
 秋風雙屐起余慵。策馬西來看碧峰。馳出闔閩數十里。脫離塵俗幾千重。
 飛泉石竇何年雪。深樹禪門薄暮鍾。傳語居僧掃紅葉。莫教樵子躡仙蹤。昌大
 來時何劇去何慵。爲有招提在碧峰。西上文殊最高頂。東臨江漢幾回重。
 秋天霜露千林葉。落日松杉萬壑鍾。欲向山僧問故事。道說碑古草迷蹤。昌大
 層巒縹緲近諸天。林末崎嶇鳥道懸。杯裏畫圖臨絕壑。杖頭環珮落清泉。
 道說遺塔空秋葉。閑積虛巖但暮烟。俯視積蘓今幾劫。欲從雲外訪真仙。
 咫尺都門有洞天。斷崖深處碧蘿懸。吟邊活畫穿雲岫。脚底晴雷赴壑泉。
 佛寺遙鍾敲落日。墨池芳草鎖寒烟。驅驅又向紅塵裡。悵望琳霄鶴背仙。
 秋風一上蔚藍天。脚下星辰盡倒懸。山逕屈蟠千歲樹。石門飛洒萬重泉。
 游人履屐凌清漢。佛宇簷楹近紫烟。添却月中清玉笛。不妨呼我作詩仙。昌大
 松杉合沓不分天。道盡遙岑一水懸。忽見名區宜卜築。坐令幽意篤林泉。
 湍流盡洒陰崖雪。墟落秋連近郭烟。紫竹青鞋紅葉路。路人呼作畫中仙。昌大
 [損窩遺稿 崔錫恒]

12) 추일유중흥(秋日游重興)

[八月二十八日。陪伯氏携昌大。訪重興寺留宿。翌日。過文殊菴。由蕩春臺而還]

佳節重陽近。清霜已滿林。空庭生暝色。古井落秋陰。
 路轉塵寰隔。鍾鳴佛坐深。山樓他夜月。雙屐擬重尋。
 盡日清溪曲。行歌松桂林。西風滿地起。萬壑結層陰。
 客路秋雲暮。僧門落葉深。桃花武陵水。春日可重尋。昌大
 溫祚開基地。文殊現往壇。客從紅樹裏。僧在白雲端。
 巒嶺山蹊斷。陰森石竇寒。居然塵慮散。清磬數聲殘。
 發興尋仙洞。披襟憩石壇。倦驂來木末。清磬落雲端。
 霜重楓林晚。夜深松籟寒。何年重勅寺。殿閣尚摧殘。伯氏

昨過興聖寺。今上普賢壇。路轉孤雲外。人行亂樹端。
蒼茫山日遠。寂歷洞泉寒。悵望幽期晚。毋令叢桂殘。昌大
[損窩遺稿 崔錫恒]

13) 도북성중흥사(到北城重興寺)

日勢向暮。樂命先從大城門入京。又用前韻。口占。
山深西日去如飛。背郭村家欲掩扉。却恨同來還作別。大城門外爾先歸。
[杞園集 魚有鳳]

14) 유한북만반중흥사(遊漢北晚飯重興寺)

仍向興國寺投宿韋史 申尚書載酒踵至相與欣然共賦
十里楓林遠躡蹤。終朝行盡幾重峰。山門要遣閒心事。空谷那期此過從。
勾斷其誰堪一筆。輪囷宜子瀉千鍾。看山休笑息息甚。這箇廬山亦假容。
茲遊稍可慰殘年。佳話承天自古傳。躡跡雲厓同歷井。論心禪榻是歸田。
腔腸無奈難隨俗。骨相何曾不做仙。吾輩晚逃寬此地。一毛孔裏納三千。
[圭齋遺藁 南秉哲]

15) 차승축운증견어중흥사(次僧軸韻曾見於重興寺)

三角山天一方。重興寺山之陽。僧來水雲消息。六月枕簟生涼。
[息庵集 黃暹]

16) 중흥사봉송중부고양지행(重興寺奉送仲父高陽之行)

仙界蹙音斷。沙門晝不開。新青庭合草。舊綠戶封苔。
幽鳥鳴春意。閑僧訝客來。去留無限恨。回首白雲臺。
[無何堂遺稿 洪柱元]

17) 유중흥사차동유침조대한장운 (遊重興寺次同遊沈措大漢章韻)

行經危石訪禪門。洞府深深晝亦昏。知是松林蘭若近。數聲清磬隔溪聞。

重疊丹崖繞畫屏。眼中三角襯天青。白雲臺有仙人在。邀我登臨啓玉扃。
 山僧無事管深秋。萬壑松陰石路脩。閒掃滿庭霜後葉。不知遊客已登樓。
 蒲團何事不成眠。亂耳瀧瀧石上川。霜葉滿庭紅似錦。絕勝花雨下諸天。
 嶽神元自有靈異。肯許塵蹤也少留。不向瀆巖巖上坐。逢人那得說山遊。

[琴湖遺稿 李志傑]

18) 중흥사(重興寺)

太古菴前萬歲樓。百層危檻枕峯頭。山分三角排雲立。水出雙溪抱寺流。
 釋子梵鐘林外轉。遊人筇屐雪中留。普光歸路猶餘興。明日佳期漢上舟。

[菑墅集 韓敬儀]

19) 계중흥사(憩重興寺)

行到重興寺 禪堂朝日紅 幽花沾夜露 古木起秋風
 水石梵樓畔 丹青寶閣中 試看千佛像 方覺世緣空

[萍湖遺稿 申命顯]

9.3 산 문(散文)

1) 유삼각산기(遊三角山記)

還自金剛。余懷悄然不樂。真唐人所謂峴山回首望。如別故鄉人者也。經年禮部。接應文墨。益不適意。連上三章乞解官。孤坐書室中。門外忽有剝啄聲。問之。乃重興老釋性敏，沙彌天敏也。性敏。余空門友也。約遊三角素矣。有書曰。山中霜晚。楓葉政酣。過數日則衰矣。若有意來訪。毋失此時云。余方遐想蓬萊。飄然有御風浮游之意。得此書。意不自制。即理屐戒行。

[月沙集 李廷龜]

삼각산 유람기

금강산에서 돌아온 뒤로 나의 심정이 쓸쓸하여 즐겁지 않으니, 참으로 당(唐)나라 사람이 이른 바 “고개 돌려 현산을 바라보니, 마치 고향을

이별한 사람 같구나. [峴山回首望 如別故鄉人] ” 라는 격이었다.

한 해 동안 예부(禮部)에서 문묵(文墨)의 일을 접응하노라니 더욱 마음이 답답하기에, 연이어 세 차례 상소하여 해직(解職)을 청하였다. 그리고 서실(書室)에 앉았노라니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며 사람이 찾아왔다.

누구나고 물어보았더니 바로 중흥사(重興寺)의 노승 성민(性敏)의 사미(沙彌) 천민(天敏)이었다. 성민은 나의 공문(空門)의 벗으로, 삼각산을 유람하기로 서로 약속한 지가 오래이다. 그가 보낸 서찰에 “산중에 늦가을 서리가 내려 단풍잎이 한창 곱습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시들 것이니, 구경 오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였다. 내가 바야흐로 멀리 봉래(蓬萊)를 생각하며 신선처럼 표연(飄然)히 유람하고 싶던 터라, 이 서찰을 받자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즉시 신발을 손질하여 신고 서둘러 출발하기로 하였다.

2) 북한산성기(漢北山城記)

北漢本高勾麗北漢山郡。一云南平壤。百濟溫祚王取之。十四年丙辰築城。近肖古王二十六年辛未移都。蓋鹵王二十一年乙卯高勾麗長壽王來圍。蓋鹵王出走城遂廢。我肅宗三十七年辛卯。卽溫祚舊址築城。以爲保障之所。城周七千六百二十步。爲二十一里餘。門有十四。曰北門，大東門，大西門，大成門，中城門作虹蜺設譙樓。小東門，小南門亦作虹蜺。西暗門，白雲峯暗門，龍巖寺暗門，東暗門，青水洞暗門，扶旺洞暗門，袈裟堂暗門。高低不一。又有水門一而中城門在元曉義相兩峯之間。爲西邊水口。低下淺露。將臺有三。曰東將臺在奉聖庵後峯。南將臺在羅漢峯東北。北將臺在中城門西北。池二十六。井九十九。壬辰上駕幸。巡視城堞。歎其天作之險。蓋山之形便。東西北絕險無地。而仁壽，白雲，萬景三峯屹立于後。稍西曰露積峯。下有重興寺。而萬景峯東轉逶迤。爲釋迦峴，普賢，文殊等峯。展翼爲兄弟。又南爲白岳山。而自文殊一枝轉西爲七星峯。七星出兩支。落爲羅漢甑峯，大望，義相諸峯。至重興水口。一支西走爲僧迦峯。香林寺後峯白雲峯。西轉爲靈鷲，元曉兩峯。至重興水口西止。四面諸峯壁立如削。自成城郭。眞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

之地。但山形局勢。殊不寬敞。恐難容衆。而重興之南。文殊之東。曹溪之西。左右洞壑。地勢少平。山谿之寂著者曰三角山。山有仁壽，白雲，萬景三峯巒岬如角故名。一名華山。又稱華嶽。我東之山起於白頭。至平康之分水嶺。西出一支。連峯疊嶂。起伏迤邐。至楊州西南爲道峯。又爲三角。實京城之鎮。仁壽峯卽三角之第一峯。四面純石削立。一巖贅於峯背。故又稱負兒岳。高勾麗東明王之子沸流，溫祚。南行至漢山。登負兒岳。相可居之地。卽此峯也。白雲峯在仁壽之西。一名白雲壺。卽山之最高處。萬景峯在白雲之南。峻拔奇壯。與仁壽爭雄。露積峯在萬景之西。湧峙磅礴。形如露積故名。文殊峯在普賢西。下有文殊窟。中有甘泉。鍊石像文殊與五百羅漢。峯之名以此。侍者峯在白雲壺下。登臨可盡一城之形勝。將軍峯在重興寺西。高麗崔瑩戰地故名。義相壺在彌勒峯下。新羅義相祖師住錫處。元曉壺在義相壺北水口上。義相之弟元曉住錫於此。日月出，盤龍，化龍，潛龍，臥龍，天龍，紫丹，德藏，釋迦，普賢，走馬，靈鷲等峯。羅絡四方。不可殫記。太古，游仙，瑤艸，曲龍之壺。長春，玉流，青溪，靈泉，隱仙，叫龍，白雲，紫霞之洞。盤龍，月印，女妓之潭。國寧，祥雲之瀑。分占而擅勝。寺刹曰香林寺在碑峯南今廢。高麗顯宗庚戌之亂。移安太祖梓宮于是寺。丙辰還葬顯陵。戊午契丹蕭遜寧來侵。又移安于是。己未復葬。曰清涼寺今廢。舊址未詳。高麗李資玄在清平山。睿宗幸南京。遣其弟資德諭赴行在。留是寺。嘗引見問養性之要。待遇甚厚。曰僧伽寺在碑峯東今廢。高麗李頴重修記云按崔致遠文集。昔有新羅狼跡寺僧秀台。飢聆大師之聖跡。選勝于三角山之南面。開巖作窟。刻石摸形大師道容。益照東土。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災。禱以禳之。無不立應。曰文殊寺，曰重興寺，曰龍巖寺，曰輔國寺，曰普光寺，曰扶旺寺，曰元覺寺，曰國寧寺，曰祥雲寺，曰西巖寺，曰鎮國寺，曰太古寺十二寺羅列於前後峯巒之間而太古寺在重興寺左峰。高麗僧普愚住此。扁以太古。做永嘉體作歌。樓觀曰沆瀣樓在重興寺洞口。跨溪而有偃龍橋。上建重樓曰山映樓。在重興寺前。有小橋覆以閣。卽此樓也。曰洗心樓在西巖寺前溪上。行宮在上元峯下。內外殿爲五十八架。倉廩曰經理廳。上中下倉。三營門留倉。而並屬於揔戎廳。置管城將守之。古蹟曰古石城在重興寺北。周九千四百十七尺。有石

門及門址。曰神穴寺高麗顯宗祝髮寓此寺。千秋太后屢遣人謀害。有老僧穴地於室而匿之。上置臥榻。以防不測。王咏溪詩云一條流出白雲峯。萬里滄溟路自通。莫道潺湲巖下在。不多時日到龍宮。曰閔公遺棲。卽高麗文仁公閔漬遺址。在水口門內。名其巖曰閔漬巖。寺曰閔漬寺。寺今爲西巖寺。余於十二日。自津寬寺道南門入城。一宿于**重興寺**。一宿于太古寺。周覽諸勝。迨東門下牛耳洞天。又一宿于在澗亭而還。卽十五日也。

[冠巖全書 洪敬謨(一七七四：英祖五十~一八五一：哲宗二)]

3) 중흥사반자(重興寺飯子)

三角山重興寺飯子入重十五棟梁僧承銳

乾統三年癸未二月日造 大匠盧玠謹記

[韓國金石全文(1984)]

중흥사 반자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 반자(飯子)이다. 무게는 15근이 들어갔다. 동량(棟梁)은 승(僧) 승윤(承銳)이다. 건통(乾統)3년(숙종 8, 1103) 2월 일에 만들었다. 대장(大匠) 노진(盧玠)이 삼가 기록한다.

4) 중흥사향로(重興寺香爐)

至正四年五月日敬造青銅縷銀香爐一座奉獻于三角山重興寺大殿佛前將此功德用祝皇帝萬歲國王千秋天下太平同願僉議政承蔡河中平山郡夫人梁氏徹明勸善比丘悟如眞悟戒瑚縷手中郎將金卿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群生皆共成佛道

[韓國金石全文(1984)]

[고려] 충혜왕 복위5(1344)년 5월 일. 은(銀)을 입힌 청동향로(靑銅香爐) 1좌(座)를 공경히 만들어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 대전(大殿)의 부처님 앞에 봉헌(奉獻)하였다. 이 공덕(功德)에 힘입어 황제의 만수무강[皇帝萬歲]과 국왕의 장수[國王千秋] 및 천하가 태평[天下太平]하기를 기원하였다.

침의정승(僉議政承) 채하중(蔡河中)과 오산군부인(午山郡夫人) 양씨(梁氏), 철명권선비구(徹明勸善比丘) 돈여(悟如), 진오(眞悟), 계호(戒瑚), 누수(縷手) 중랑장(中郎將) 김경(金卿)이 함께 발원하여 이 공덕이 우리와 다른 모든 중생에게 미치어 모두 함께 불도(佛道)를 이루기를 기원하였다.

5) 고성유점사 풍악당대사비(高城楡岾寺楓嶽堂大師碑)

[발췌문] 선사(禪師)의 법명(法名)은 보인(普印)이고 호(號)는 풍악당(楓嶽堂)이다. 선사에게는 본디 호가 없었는데, 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의 지명을 따서 호를 지었다. 그 선조는 금천 편씨(衿川片氏)인데 고양(高陽)의 시촌(柿村)에서 태어났다. 북한산(北漢山) 중흥사(重興寺)에서 출가하였고 구룡동(九龍洞) 초당(草堂)에서 입적하였다.

영조50(1774년) 6월 일 세우다.

9.4. 신 문(新 聞)

1) 황성신문(皇城新聞)

○1900년 11월 5일

論說北漢秋賞

◎北漢三角山은 漢城北方之鎮山이니 曾聞天塹地關이 眞鬼斧之所鑿焉이라 時值楓林이 正酣하야 與二三同志로 挈壺而登臨하니 果然三朶金芙蓉이 北極을 直撐하얏스니 東史에 一名은 負兒山이오 又曰華山이라 高以英尺計컨 된 二千六百三十四尺이니 帝甸之第一名山이라 陟白雲之臺하니 仙閣이 咫尺이오 星辰을 可摩라 盪胸徘徊하니 天風이 灑襟이라 古人華山詩의 只有天在上이오 更無山與齊라는 句語가 此山에 準備하 神韻이로다 飲鳥啄之水하고 過香爐之峰하야 登重興寺之萬歲樓하니 木犀天香에 霜月이 淨潔하되 心淸骨冷하야 夜不能寐라 梵宇에 有古傳玉器一部와 玉爐一座하니 卽唐惠能祖師 | 游於印度라가 携歸而供佛於此云하니 亦一千年古物也러라 朝來視

之호니 下界烟霞가 混混茫茫然 永海三萬頃이러라 一塵不染之瀟灑空檻이 有
 曰山暎樓호니 蒼壁은 倚雲호고 清流는 噴玉이라 泉水西流호야 出于西水口
 호며 山谷이 雙分而深長호디 佛殿古寺는 占於西南谷裡호고 離弓武庫는 在
 於東南谷裡호며 人家는 三五籬落이 依山傍水焉이러라 蠟屐에 去後齒호고
 出于大南門호시 絳葉이 殷紅호고 石逕이 稜稜호디 南望濟物호며 西眺沁都
 호니 浩然有望洋之懷焉이라 數罷文殊之羅漢호며 聽罷僧伽之木魚호고 縱目
 而俯之호니 帝城萬戶에 佳氣가 葱籠焉이러라 噫라 近不過三舍之地에 孰不
 見之리오마는 余所以記其行者는 美哉라 山河之固여 眞韓國之實也라호노라

2)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7년 01월 29일

明進학교特別補助記

興國寺任員, 幹事員鄭慧月 二十圓, 會員全海松 二圓, 張雷應 二圓,
 리虎峯 壹圓, 日憲 一圓, 최斗惺 拾兩, 리讚湖 壹圓, 리妙覺 壹圓,
 丁德오 拾兩, 重興寺任員, 贊成員孟凋荷 四圓, 會員秩, 최寬喜 一圓,
 金正基

○1907년 07월 11일

清工可矜

北漢重興寺는 自昔保障之地요 行宮所重이 與他迥別이라 一自回祿後에 重
 建之方이 無期러니 劉尙三 尹緯求 兩人이 感發慈悲之心호야 如干物力을
 自備호고 僧侶로 協心하야 該寺重建之意로 請願于宮內府호야 稟承處分호
 야 得差監董之任後에 擇日開基호고 十一道各寺刹에 勸□次로 派送호고 如
 干木石鐵物를 冶鍊호며 築臺를 始役호야 清人의게 工價三千五百圓에 契約
 호고 三十餘名을 雇聘호야 月臺를 建築호야 九十餘日에 一新竣役호니 高
 가 廿餘尺이오 長이 四百餘尺이라 호는데 所謂勸善取전은 新總攝僧月初에
 沮戲로 狼狽되야 該役事가 中途停止되고 內下錢도 尙今未下호신 故로 于
 今주년에 工價를 償報치 못호야 유尹兩人이 清人의게 見迫이 甚호야 유
 곁은 尙在拘留于裁判所中이고 清人等은 呼泣道路에 推尋無路호야 將以呈

訴于該領事^{ᄃᆞ}야 交涉宮內府^{ᄃᆞ}야 推尋^{ᄃᆞ}는 說이 有^{ᄃᆞ}더라

3) 매일신보(每日申報)

○1913년 07월 22일

北漢山 地誌抄畧

[寺刹] **重興寺** 登片峯下에 在^{ᄃᆞ}더니 今으로브터 十年前에 燒失에 歸하얏더라. 元來 神大寺라 稱^{ᄃᆞ}는 高麗顯宗의 僑居하던 處이오, 王室用 藥材는 必로 此寺南方에 東禮臺가 有^{ᄃᆞ}고 前□에는 西望臺가 有^{ᄃᆞ}니 此山頂 最高地에 建^{ᄃᆞ}야 昔詩僧軍에 敵을 哨^{ᄃᆞ}는 것이라.[北漢山 巡查駐在所는 此寺의 舊基]

○1921년 4월 28일

槿域誌(74), (44) 名勝古蹟, (1) 京畿道, [6]十三層塔(前回續)

[발췌문] **重興寺**는 北漢山城에 在^{ᄃᆞ}니라 新興寺本堂額文에 曰所謂 興天寺者 神德王后 康氏 大明洪武二十八年丙子八月二十三日昇遐 封陵于 國都皇華坊曰貞陵創寺于都中

○1921년 05월 09일

槿域誌(85), (44) 名勝古蹟, (1) 京畿道, [33]北漢山城 離宮

[발췌문] [離宮]右에는 香林寺, 積石寺, 僧伽寺, 三千寺, 津寬寺, 道成庵, 文殊寺, **重興寺**, 龍岩寺, 轉國寺, 普光寺, 元覺寺, 國寧寺, 祥雲寺, 太古寺, 鎮國寺, 元曉庵 等の 大伽藍을 置^{ᄃᆞ}야 僧兵을 養^{ᄃᆞ}얏다^{ᄃᆞ}나 多數는 皆廢頽^{ᄃᆞ}야 存^{ᄃᆞ}는者-無^{ᄃᆞ}고 其中에 僅히 文殊山下의 文殊寺와 太古山下의 太古寺와 元曉봉下의 元曉庵은 傾壞^{ᄃᆞ}는 屋宇를 □홀뿐이오. 且**重興寺**는 去丁酉年頃의 火災로 燒失되얏더라.

4) 동아일보

○1927년 2월 6일

巡廻探訪 [발췌문]

王考(왕고)에는 多數(다수)의 人家(인가)가 此處(차처)에 有(유)하엿스나

伊今(이금)에는 僅(근)히 重興寺(중흥사) 太古寺等(태고사등)의 幾個(기개)의 古寺刹(고사찰)이 殘存(잔존)할 뿐이오.

○1927년 2월 7일

巡廻探訪/高陽一 記者

[重興寺]北漢山城內에 在한 重興寺는 朝鮮古寺中에도 著名한 古寺刹이라. 高麗顯宗이 祝髮安居한 處하는데 國內에는 三位의 佛像을 安置하였고 印度에서 供佛한 白玉香爐, 香盒, 玉燈臺等の 千年傳來古物이 遺傳한다고 한다.

○1939년 10월 28일

北漢山城一巡

重興寺(중흥사)로 말하면 三十六年前(삼십육년전)에 甲午八月大火(갑오팔월대화)에 烏有(오유)로 되었지만 一時(일시)는 口宇三百六間(구우삼백육간)으로 大法堂(대법당), 門樓(문루), 僧寮(승료), 繡戶紋窓(수호문창), 화동채란(畫棟彩欄)에 金碧(금벽)이 燦然(찬연)하여 國內(국내)의 宗刹(종찰)이었으며, 僧軍(승군) 四百(사백)이 常住(상주)하여 都城(도성)을 守衛(수위)하였섯고.

10. 용암사(龍巖寺)

10.1 사 서(史 書)

1)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충렬왕34(1308)년 10월

겨울 10월. 중문에 방을 붙여 말하기를, “왕륜사(王輪寺) 주지 인조(仁照), 용암사(龍巖寺) 주지 용선(用宣), 선암사(仙巖寺) 주지 약굉(若宏) 및 최단(崔湍)·권한공(權漢功)·김지겸(金之謙)·김사원(金士元)·최실(崔實)·환이(桓頤)·오현량(吳玄良)·강방언(姜邦彦)·이진(李珍)·강융(姜融)·조통(趙通)·조적(曹頤)·조석(曹碩)·최현(崔玄)·정자우(鄭子羽)·

최중공(崔仲公)·문점(文沾)·이백겸(李伯謙)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히 부르지 않는 한 들어올 수 없다.” 라고 하였다.

2)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29(1447)년 윤4월 7일(무진)

사헌부 장령 이형증이 아뢰기를, “개성에 부자가 대개 80인이온데 각각 부자 한 사람씩을 천거하게 하여 천거되지 못한 자 50인에게 각각 면포 3필씩으로 총계 1백 50필을 징수(徵收)하고, 또 4사람이 부자 명단에서 삭제되기를 요구한즉 모두 면포 5필씩으로 총계 20필을 징수하였삽고, 또 부자 함우지(咸羽之)가 단자(緞子) 3필로 뇌물을 바치고 면제되기를 요구하였다가 일이 발각되매 곧 그 물건을 몰수하고 또 면포 10필을 징수하였사오매, 우지(羽之)의 사위도 또한 부자의 명단에 든 것을 집이 빈한한 것으로 사양하므로 또한 면포 10필을 징수하여 몹시 가혹하고 각박 하오며, 또 방위를 피한다 칭탁하고 용암사(龍岩寺)·송림사(松林寺)·광명사(廣明寺) 등 절로 옮겨 거처하면서 개성부(開城府)로 하여금 여러 달을 공역(供億)하게 하고, 공작색(工作色)을 설치하여 여러가지 물건을 사사로이 만들어서 감고(監考)하는 아전들과 구실아치들에게 주며, 또 부중(府中)의 단자(緞子)로써 지붕 있는 가마를 만들며, 부락 백성들의 술을 사서 쓰고도 그 술값을 주지 않아서 갈려갈 때에 부락 백성들이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사람을 전라도에 보내어 자기(磁器) 등속의 물건을 구해 왔으며, 무녀(巫女) 진주(眞珠)로 하여금 집안에 출입하게 하여 비첩(婢妾)과 서로 질투하기에 이르고, 무녀로 더불어 간통한 정상이 이미 드러나 있사오니, 이것이 그 대략이옵고 이미 자복한 것은 면포(綿布) 징수한 일, 공작색(工作色) 설치한 일, 자기(磁器) 구해 들인 일들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송사를 결단함에는 모름지기 사면(赦免) 이전인가 이후인가를 가려야 하는데, 이런 일이 사면 이전의 것들이 아니냐.” 하였다.

정조22(1798)년 5월 12일(을해)

특히 총융사 김지묵(金持默)을 파직하고 신대현(申大顯)을 그 대신으로 삼았다. 이는 용암사(龍巖寺)의 창고에 불이 난 사실을 즉시 상문(上聞)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숙종 37년(1711년) 02월09일(음)

이우항(李宇恒)도 아뢰기를 "우물은 과연 김중기(金重器)가 진달한대로 부족할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이 산의 동, 남, 북 3면은 극히 험절하여 가히 열기 어려운 천험이라 하겠으나 더러는 내부가 좁다고 말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가면 과연 너무 좁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로 들어서면 몸을 숨길 곳이 가장 많고 수구는 주산(主山)이 높기 때문에 낮고 평평한 것 같지만 실은 그리 낮지 않으며 한미산이 누르는 듯한 형세가 있다 하더라도 대포는 아마 넘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설사 넘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인들 어찌 방비하는 도리가 없겠습니까? 다만 군함을 실어 들이는 일만은 평지와 비교할 바가 아니고 성내는 돌 길이 좁고 위험하며 한강(漢江)까지는 20리나 된다고 하니 이 점이 어려울 듯합니다. 축성 공사는 간간이 반절만 쌓아도 체성(體城)이 이루어질 곳도 있고 여장(女牆)을 쌓아야 할 곳도 있으나 공사는 대단하게 힘을 드릴 것은 없겠습니다. 다만 중흥사(中興寺)의 터가 그다지 넓지 않아 종사(宗社)를 옮겨 올 경우 협착(狹窄)한 염려를 면할 수 없겠고 용암사(龍巖寺)의 터도 넓지 않으며 또 많은 돌이 중첩하여 골짜기를 메우고 있으니 마군(馬軍)은 용납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하였다.

정조22(1798)년 05월12일(음)

총융사(摠戎使) 김지묵(金持默)의 장계에 용암사(龍巖寺) 고사(庫舍) 12칸이 소실(燒失)되었다는 일에 대한 판부(判付)에서 “비변사에 계하(啓下)하라. 검찰(檢察)을 잘하지 못하여 10여 칸의 고사를 불태웠으니 이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기율(紀律)을 알 수 있다. 일이 어제 있었는데 아침의 빈연(賓筵)에서 본청(本廳)의 곡물에 관한 일로 상하(上下)가 말을

주고 받음이 순순(諄諄)할 뿐만이 아니었는데 애당초 실화(失火)한 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 비록 듣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놀랍다. 당해 총융사 김지묵에게는 불서(不殺)의 벌전으로 시행하고 성장(城將)은 새 총융사로 하여금 곤장을 쳐서 도태하게 하며 창고를 관리한 장교는 유사(攸司)에 회부하여 법을 상고해서 엄중히 다스려 뒷날을 징계하게 하고 엄히 신칙하여 고쳐 지은 뒤에 본사에서 적간하고 상황을 초기(草記)하게 하라.” 하였다.

정조22(1798)년 07월02일(음)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총융사 김지묵(金持默)의 장계로 인하여 용암사(龍巖寺) 창고 12간이 불에 탄 일에 대해 판부(判付)하시면서 다시 지으라고 엄중 신칙한 뒤 본사(本司)에서 적간한 상황을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당해 절의 창고를 다시 지은 상황에 대해 해영(該營)에서 방금 보고가 왔으므로 본사 낭청을 파견하여 적간하고 왔는데, 낭청이 돌아와 고하기를, ‘12간 창고는 5월 20일에 역을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완전히 새로 다시 지었고, 토역(土役)과 기와를 덮는 일 역시 모두 완전히 마쳤습니다.’ 고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4) 추강집(秋江集) /南孝溫

송경록(松京錄)

성종16(1485)년 9월 8일 조금 있다가 용암사(龍巖寺)로 올라갔다. 절은 일명(一名)이 암방(巖房)이다. 수목이 하늘에 닿고 큰 것은 둘레가 몇 아름이나 되었다. 아래에 비스듬히 가로지른 큰 바위가 있고 낙엽이 바위를 덮었다. 한수가 우리들을 인도하여 바위 위에 앉게 하였다. 평지를 굽어 보니 안계(眼界)가 매우 넓어 앉아서 한참 동안 감상하였다. 한수가 말하기를 “여기는 우리 태조(太祖)께서 회군(回軍)할 때에 군사를 멈춘 곳입니다.” 하였다. 바위 뒤에 조각달 모양처럼 굽은 토성(土城)이 있으니, 이른바 내성(內城)이라는 것이다. 한수가 말하기를 “태조께서 나라를 세

운 이듬해 계유년(1393, 태조2)에 이 성을 쌓아 고려 왕씨(王氏)의 옛 고장을 격리시켰습니다.” 하였다.

5) 옥오재집(玉吾齋集)/(宋相琦

북한산 유람기 [遊北漢記]

보광사(寶光寺)는 남쪽 산기슭에 있는데 또한 누추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였다. 금위영 별관은 동문 안쪽에 있는데 지세와 별관의 규모가 어영청 별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곳에서부터 성가퀴를 따라 가다가 장대(將臺)에 올랐다. 비할 데 없을 만큼 높고 가팔라 온 산의 형세가 거의 다 보였고, 백운봉과 노적봉 등 여러 봉우리들이 손에 닿을 듯 펼쳐져 있었다. 서남쪽으로는 강과 바다가 아득히 구름과 안개 사이로 둘러져 있었다. 이곳은 작년에 임금께서 행차하셨을 때 머물렀던 곳이다. 새로 지은 용암사(龍巖寺)는 백운대(白雲臺) 아래에 있었다. 주위가 맑고 산뜻하여 앉아 설만하였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다 중흥사(中興寺)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었다.

10.2 시(詩)

1) 도용암사서벽상(到龍巖寺書壁上)

身到龍巖疑玉境。口嘗龜井認冰漿。

門有龜井。味甚佳。

千金難賭僧窓味。山雨浪浪睡一場。

[東國李相國集 李奎報]

용암사에 이르러 벽 위에 쓰다

몸이 용암에 이르니 신선의 경지인 듯

입으로 구정을 맛보니 얼음물인 듯

문 앞에 구정이 있는데 맛이 매우 좋았다.

천금으로도 승창의 맛을 사기 어려워

산 비가 낭랑한데 한바탕 잠을 잔다

2) 향룡암사(向龍岩寺)

以凍泉依細石爲韻作絕句

欲尋東庵去。青峰互迎送。藍輿度深竹。山路白雲凍。

其二

青青冬柏樹。紅萼雪中妍。少坐溪邊石。揮手弄寒泉。

其三

東庵在何許。一磬隔雲微。僧老如枯木。觀音但相依。

其四

恠石如高人。超然出塵世。回頭看西峰。遂忘雲路細。

其五

獨行溪路幽。蒼蒼遠林夕。白雲忽滿前。盡是峰頭石。

[頭陀草 李夏坤]

3) 용암사(龍岩寺)

欲向龍岩宿。清鍾落遠林。峰危萬石白。僧老一庵深。

坐佛超塵世。歸潮見古今。寺樓登更好。不怕臘天陰。

[頭陀草 李夏坤]

4) 제용암사(題龍巖寺)

寺在名山最上頭。清秋八月客來遊。憑軒俯視滄溟水。島嶼微茫點點浮。

[蘆洲集 金兌一]

5) 차삼각팔경운(次三角八景韻)

躑躅開無筭。山霏洗渥紅。須登最高看。領畧盡邊中。

龍巖寺烟花[星湖全集 李瀼]

6) 용암사(龍巖寺)

泐泐水聲轟轟巖 寺樓東北又西南 深深佛殿無人到 白衲叢中我獨參

[萍湖遺稿 申命顯]

11. 보국사(輔國寺)

11.1 사 서(史 書)

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고종19(1882)년 7월 21일 (을사)

摠戎廳啓曰, 卽接管城將鄭濟旻所報, 則今十九日人定時, 淸人七人, 自本城輔國寺暗入來, 留宿於輔國寺, 而二十日辰時量, 出去大西門外云矣, 敢啓。傳曰, 知道。

총융청이 아뢰기를, “방금 관성장(管城將) 정제민(鄭濟旻)의 보고를 접하니, ‘이달 19일 인정(人定) 때 청(淸) 나라 사람 7명이 본성(本城)의 보국사(輔國寺)에 몰래 들어와서 보국사에서 유숙하고 20일 진시(辰時)쯤 대서문(大西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였습니다. 감히 아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2) 양촌집(陽村集) 權近

보각국사비명(普覺國師碑銘) 우왕11(1385)년 가을에 50일 동안의 백산개도량(白傘蓋道場)을 설치하여 온갖 재변을 물리치게 하였는데, 명망 높은 유생들과 학식 있는 승려들이 많이 와서 청강하였고, 마지막에는 임금까지 행차하여 예를 베풀었다.

우왕12(1386)년에는 대비(大妃) 안씨(安氏)가 현릉(玄陵)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하여 보국사(輔國寺)에 불정회(佛頂會)를 베풀고 선사를 초청하였으며, 왕은 또 수창궁(壽昌宮)에 초대하여 소재석(消災席) 재앙의 소멸을 비는 자리)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돌아갈 때에는 대언(代言) 이직

(李稷)을 딸려보내 존경을 표하였다.

11.2 시(詩)

1) 우중보국사(雨中輔國寺)

蕭蕭秋雨過山門。滿壁藤陰盡日昏。寺古仍成蓮世界。僧貧猶有菜田園。
乳猫施食偏相慣。寒鵲聽禪不肯喧。回看庭前紅濕處。楓人寂寞欲傷魂。
[存齋集 朴允默]

2) 보국사후월(輔國寺候月)

禪扉候月不辭寒。却恨山高未早看。氣透溪西疑灑雪。形開峯外想懸盤。
心如待鶴望雲遠。情似懷人坐夜闌。忽有明光通淨界。回頭笑指玉輪團。
[存齋集 朴允默]

3) 보국사(輔國寺)

寺門空翠重。山色已深秋。磬落諸天靜。雲生一壑幽。
清泉僧洗衲。紅樹客登樓。望極東臺上。蒼然昔日遊。
[儉巖山人詩集 范慶文]

4) 보국사(輔國寺)

小庵空谷裏 上有白雲過 滿眼蕭條意 秋花傍砌多
[萍湖遺稿 申命顯]

12. 보광사(普光寺)

12.1 사 서(史 書)

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35(1759)년 3월 28일 (무신)

又命書傳教曰，普光寺，卽園守護之刹，曾宿處，而頃聞前禮判所奏，昔御處，當重修云，山城外，例給僧帖，而僧帖有弊，以儲置米三十石劃給事，分付備局。

영조36(1760)년 4월 26일 (경자)

上曰，奉恩寺，今聞猶有尙不重建者云，內需當該次知中官，從重推考，其令卽爲顧助。出傳教 上曰，普光寺，頃者顧助後，有尙不重建者云，賑廳木一同，錢百兩，卽爲劃給事，分付。

영조45(1769)년 3월 14일 (정유)

軍職廳與軍門將校，諸宮所屬，亦皆來助，而普光寺僧，奉元寺僧，其皆來助。

정조11(1787)년 8월 16일 (신해)

上敎天衡曰，招致普光寺僧，問瘼以奏。天衡承命出回奏曰，祭享時六守僕責納草屨之弊，德坡峴往來官行時，肩輿軍及各邑出使校卒討食等事，爲弊云矣。上曰，守僕輩覓屨事，分付禮曹，俾勿更侵，校卒討食事，使畿營各別禁飭，可也。

정조11(1787)년 8월 23일 (무오)

以普光寺僧書啓，傳于南鶴聞曰，本寺卽駐蹕之地，旣令承宣，召問弊瘼，各米三斗，木一疋題給事，分付賑廳。

정조11(1787)년 8월 27일 (임술)

南鶴聞，以賑恤廳言啓曰，普光寺僧等列名單子判付內，本寺卽駐蹕之地，旣令承宣，召問弊瘼，各米三斗，木一疋題給事，分付賑廳事，命下矣。普光寺僧五十四名，發遣本廳郎廳與留營中軍，眠同分給次，使之來待畿營矣。卽者僧等十四名，來待畿營，而以爲他僧徒四十名，或以老病守寺，或以私故出他，不得來待，今此賜給米木，渠輩謹當受出搬運，一一均分云，事勢旣如此，則有難強令盡數待命，普光寺僧徒五十四名，每名米三斗，木一疋式，合米十石十二斗，木一同四疋，僧統首僧處，郎廳中軍，眠同都下，使之輪去，各自分受後，形止，馳告本邑，自本邑轉報巡營，自巡營狀聞事，竝爲分付之意，敢

啓。傳曰，知道。

순조32(1832)년 7월 8일 (임자)

宣傳官白最洙書啓，臣於本月初三日未時量，敬奉承政院所下聖教，卽地馳往北部字內，逐坊摘奸是白乎則，連日霖雨，民家墻垣，在在崩頽是白乎乃，前月摘奸以後，姑無全家頽壓之患是白遣，轉往城外及北漢山城，詳細看審是白乎則，民家及寺刹，或有全家之頽壓，或有如干之圯傷是白如乎，謹以家主姓名·間數幾許及某刹某處所幾間頽壓，列錄于後是白乎祿，人命漂淪無乎，馳啓云云。[中略] 圓覺寺義僧廳三間全頽，普光寺寮舍後面一間頽壓，國寧寺義僧廳五間內二間頽壓，大廳六間內一間頽壓，軍器庫二間內一間頽壓。

2)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영조35년(1759)년 3월 28일(음)

전교하기를, “보광사(寶光寺)는 원(園)을 수호하는 사찰로서 일찍이 묵었던 곳이다. 지난번에 전 예조판서의 아빔을 들으면 옛날 임어(臨御)했던 곳을 중수해야 한다고 한다. 산성(山城)에는 으레 승첩(僧帖)을 지급하지만 승첩이 폐단이 있으니 저치미(儲置米)에서 30석을 획급해 주라고 비국에 분부하라.” 하였다.

영조35년(1759)년 7월 14일(음)

이번 7월 14일 약방의 입시에 예조판서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전교하기를, “보광사(普光寺)의 익랑(翼廊)을 창개(創開)할 때 본주(本州)에 영을 내려 저치미(儲置米) 20석을 도와주도록 예조에 분부하되 조보(朝報)에는 내지 말라.” 하였다.

3)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李德懋

☆북한산(北漢山)으로 독서하러 가는 이중오(李仲五)를 보내는 서(序)

보광사(普光寺)의 법당(法堂) 화재를 예방하는 뜻으로 수초를 그린 천장에는 영조37(1761)년에 유람한 3명의 성명(姓名)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지? 다행히 거미줄을 쫓고 살피면 우리 3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으리라.

☆북한산(北漢山) 유람기

보광사(普光寺). 날이 저물어 성문에 이르니 바로 산이 끝나는 곳이다. 성문의 아래는 지형이 약간 낮고 단풍나무[楓]·남나무[楠]·소나무[松]·삼나무[杉]가 수없이 많으며, 텅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가 잘 울린다. 찬 기운이 처음으로 사람을 엄습하였다. 드디어 보광사에 이르러 법당(法堂)의 오른쪽 조정(藻井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으로 수초(水草) 모양의 그림을 그려넣은 천장)에 세 사람의 성명(姓名)을 크게 써 놓았다. 화상(和尚)들은 모두 무예[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벽실(壁室)에는 창·칼·활·화살 등을 저장하고 있었다. 향훈 무렵에 태고사(太古寺)에 도착하여 투숙하였다.

12.2 시(詩)

1) 북한보광사서시허정숙(北漢普光寺書示許正叔)

挑燈細酌黃花酒。一榻團圓到夜深。傾蓋居然如舊識。賢兄曾有大公心。

[慕山遺稿 權憲]

2) 북한보광사동제익념운(北漢普光寺同諸益拈韻)

層氷積雪正玄冬。漢北遊筇上絕峰。林外蒼茫何處寺。雲端縹緲數聲鐘。

花宮引路僧穿竹。石榻題詩客倚松。此日旅遊還勝會。一樽書劔喜相逢。

[菑野集 韓敬儀]

13. 부왕사(扶旺寺)

13.1 사 서(史 書)

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19(1795)년 11월 5일 (임자)

其一, 抄出稍饒僧, 使之移入於扶旺寺事也。同是一城, 同是僧徒, 而移此就被, 反或有騷擾之慮, 令帥臣, 詳察事情便否, 從長善處, 何如? 傳曰, 允。

2)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李德懋

북한산(北漢山) 유람기

부왕사(扶旺寺) 이 절은 북한산 남쪽 깊은 곳에 있다. 골짜기는 청하동(靑霞洞)이라 하는데 동문(洞門)이 그윽하고 고요하여 다른 곳은 모두 이와 짝하기 어렵다. 임진 왜란 때 승장(僧將) 사명대사(四溟大師, 惟政)의 초상이 있는데, 궤[梧]에 의지하여 백주미(白麈尾 흰 사슴 꼬리로 만든 총채)를 잡았으며, 모발은 빠져 없고 배를 지나는 긴 수염만이 남아 있다. 서쪽 벽에는 민환(敏環)의 초상이 있다.

13.2 시(詩)

1) 부왕사(扶旺寺)

遙入楓林去。驚禽飛不停。老僧迎款款。幽瀨逝泠泠。
巖篆何年刻。佛頭自古靑。翔雲寺稍近。歸路犯寒星。

[靑莊館全書 李德懋]

부왕사

멀리 단풍 숲으로 들어가니
놀란 새들이 곧장 날아만 가네
늙은 중은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윽한 여울은 시원스레 흘러가네
바위에 새긴 전자(篆字)는 얼마나 오래 되었는고
부처 머리는 예부터 푸른빛 그대로네
상운사가 차츰 가까워지니
돌아오는 길에는 차가운 별에 덤벼드리.

2) 부왕사(扶旺寺)

看山何處好。扶旺古禪林。日落峯如染。楓明洞不陰。
鍾魚來遠近。禽鳥共幽深。漸覺頭頭妙。靈區愜道心。

[阮堂全集 金正喜]

부왕사

산 구경은 어디가 좋은고 하면
부왕이라 옛날의 선림이라네
해 지니 봉우리는 물든 것 같고
단풍 밝아 골짜기는 어둡지 않네
종어소리 원근에 들려오는데
온갖 새들 유심을 함께 즐겨라
머리머리 절묘함을 차츰 깨치니
영구는 곧 도심과 서로 맞거든.

3) 부왕사(扶旺寺)

佛光峰影互因依。黃葉林中一磬微。山鳥元來多舌相。蒼松也是白雲非。
苦海茫茫回首處。幾般熱惱幾般閒。白雲流水還平地。未信從前石路艱。

[阮堂全集 金正喜]

부왕사

부처 빛 뒤편 그림자 서로 타고 엮혔는데
노란 잎 수풀 속에 풍경소리 가느라네
산새란 본래부터 수다가 많은 거라
푸른 솔이 옹다거니 흰구름이 글타거니
고해라 아득아득 고래를 돌린 곳에
열뇌는 몇 가지며 한가는 몇 가진고
흰 구름 흐르는 물 도리어 평지라서
돌길이 어렵다는 예전 말 믿지 않네.

4) 입북한숙부왕사명일귀(入北漢宿扶旺寺明日歸)

近看華嶽復城東。面面青峯削不同。天外捫蘿愁絕壁。山腰憑堞已高風。
雲臺悵望身難到。香閣經行意暫空。一宿便歸休敗興。共霑飛雨出花中。

[李參奉集 李匡呂]

5) 북한부왕사(北漢扶旺寺)

丁亥臘月。癡叟洪尚書以特旨除內院提舉。監製瓊玉膏于北漢扶旺寺。

送扶昇見招。先行西郊。道中口號。

山城去天尺。延矚心賞諧。蒼松萬千樹。六花開亦佳。到此有懊恨。

未遂後塵偕。縱欲留行跡。大雪[一作雪深]恐復埋。

[而已广集 張混]

6) 우숙부왕사(雨宿扶旺寺)

僧宇論文正好時。五更鐘梵度山遲。二人聲價南金重。十載營爲白髮垂。
寂寂照燈開士樹。踈踈聽雨墜公池。微吟起坐千峰曉。此意世間知不知。
世味辛酸閱歷深。病身翻憶老雲林。虛齋獨養難言氣。絕峽多聞未譜音。
石出風霜呈古態。夜分星月破秋陰。同君一宿禪房穩。莫遣晨涼卧內侵。
游子秋懷夜與長。高樓時出佛前香。襟虛衆壑皆靈籟。夢覺諸天捻白光。
遙寺僧歸一點火。孤城鴈叫百重霜。今來欲問玄玄理。更宿老僧巖下房。

[而已广集 張混]

7) 북한산성지부왕사(北漢山城之扶旺寺)

上之十三年癸酉十月九日。余以內醫院提調承命監煎惠慶宮進服瓊玉膏於北漢山城之扶旺寺。向歲己巳十一月。亦作此行。今且五年。雖時候早於前。而楓葉盡枯。雪皓陰壑。大異於山外光景。夜宿禪寮。曉起合藥安鼎。望西北高峯。朝暉漾紫。鳥雀始稍翔鳴於崖松澗樹間。亦可知此山之深且高也。覺此身纔出埃壘器擾之外。良足欣然。己巳而後有癸酉。則安知癸酉之後。又無此行也耶。

三角祗一山 中開宵仙宙 浮雲生足下 罡風鳴衣袖 西海俯可唾 培塿積如蕘
石廩特自拔 仁壽勢獨秀 臣職嘗御藥 靈丹茲幸就 持歸獻金闕 萬年山不瘦

[斗室存稿 沈象奎]

8) 부왕사감전경액설야기풍고(扶旺寺監煎瓊液雪夜寄楓臯)

天上侈傳白玉京。人間忽有可何名。誰期諸佛辦今夜。欲挾飛仙忘此生。
顚眩汞砂流瑟瑟。仰驚金粟散莖莖。豈無雪月他時好。清絕難兼萬仞城。

僕來此已五日。自入白雲山門。以不作詩爲解脫法門。亦坡老懺斷綺語之意也。雪旣旋霽。月又盈魄。於所謂仙遊臺。徘徊眺賞。夜久益覺空明。滉漾。清爽之氣。沁人心骨。萬山寂歷。五蘊俱空。殆不禁喜而欲狂。遂復癢作。拈坡韻率成。如有持金剛經色觸戒者。當罰我以掃雪頭陀。真堪拍手呵呵也。

[斗室存稿 沈象奎]

9) 부왕사만기(扶旺寺晚起)

三角參天劔色青。丹楓撩亂及禪庭。將心安處初無語。見性圓時却忘形。
作物外遊偏澹泊。棄人間事欲居停。晨牕鍾歇爐香細。石面禽言摠欲醒。

[存齋集 朴允默]

10) 류숙부왕사(留宿扶旺寺)

與北里洪大雅兄弟趙大雅。留宿扶旺寺。翌朝山暎樓送別。

又明日歸路相逢。袖出悵別詩一首見示。次韻。

不有前緣重。能成再遇奇。菊花溪上酌。楓葉道中詩。
皓月論心細。清風襲袂吹。須勤山史錄。留與後人知。

[存齋集 朴允默]

11) 부왕사(扶旺寺)

山路登登一策扶諸天風物畫難圖危樓落日仍清

[萍湖遺稿 申命顯]

14. 원각사(元覺寺)

14.1 사서(史書)

1) 묵재일기(默齋日記)李文楨

孟夏四月 大 癸巳

廿四日戊申 磨石物不精 役夫帖字 懸元覺寺鍾于南大門 貞陵鍾于東大門 行朔祭 作石人基址

廿九日癸丑 左相所啓, 懸元覺寺鍾于南大門, 貞陵鍾于東大門, 曳夫各千餘名, 有壓死三人云.

2) 옥오재집(玉吾齋集) 宋相琦

북한산기(遊北漢記) 국녕사(國寧寺)와 원각사(元覺寺)가 원효봉(元曉峰) 아래에 있었지만 바빠서 미처 들르지 못했다

15. 국녕사(國寧寺)

15.1 개요(概要)

국녕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며, 북한산성(北漢山城) 축성 후 숙종 39(1713)년에 승(僧) 청철(淸徹)과 철선(徹禪)이 창건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사찰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유정(惟政)이 수도를 하던 터로 추정되고 있다.

창건 때는 총 86칸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으며, 그 후 자세한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1991년 화재로 모두 불에 탄 것을 능인선원(能仁禪院)에서 1998년 10월부터 중창하여 현재는 대웅전과 산신각·종각·요사채가 있다. 부근에는 신원불명의 한월당(漢月堂) 대선사의 부도가 있다.

15.2 사서(史書)

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17(1741)년 1월 18일(갑신)

朴弼理, 以經理廳言啓曰, 卽接管城將牒報, 則城內中洞內居軍官李震昌所告內, 渠之異姓五寸姪金順才, 年二十歲兒, 爲虎攫死, 而頭骨與足皮, 則僅得推尋於國寧寺後洞, 而身體則沒食云。北漢雖曰城內, 高峯處設堞甚低, 曾前或有虎越之弊矣。卽者有此虎攫殺人之患, 事極驚慘, 方令管城將, 各別機捕, 而三軍門善放砲手, 多送山城, 以爲同力必捕之地, 宜當。以此, 分付, 何如? 傳曰, 允。

순조32(1832)년 7월 8일 (임자)

圓覺寺義僧廳三間全頽, 普光寺寮舍後面一間頽壓, 國寧寺義僧廳五間內二間頽壓, 大廳六間內一間頽壓, 軍器庫二間內一間頽壓。

2) 일성록(日省錄)

순조32(1832)년 7월 8일

[假注書李維馨兼春秋金聖默宣傳官白最洙鄭宅善朴來益以各部頽壓戶數摘奸書啓] 白最洙書啓以爲臣敬奉聖教馳往北部字內逐坊摘奸則前月摘奸以後姑無全家頽壓之患故轉往城外及北漢山城詳細看審則或有全家頽壓或有如干圯傷及某刹某處所頽壓列錄于後而人命漂淪則無全頽八戶頽壓二十五戶漂流一戶圓覺寺義僧廳三間全頽普光寺寮舍一間國寧寺義僧廳二間大廳一間軍器庫一間頽壓

15.3 시(詩)

1) 국녕사류숙숙상인방(國寧寺留宿淑上人房)

三人同一趣。蘭若夜相過。地較慈恩僻。山如蜀道多。
岩風墜疎葉。潭月隱危柯。神境欣相會。忘言自不哦。
靈區視天上。從昔少經過。古塔寒空遠。疎鍾夜響多。
吟蟲扶客座。別葉舞秋柯。幽興吾方熟。君何欲罷哦。
偶起高樓望。飛星澗上過。僧眠如許靜。客意一何多。
月隱黽黽穴。霜深烏雀柯。王猷疎曠士。咄咄未同哦。

王步庚有約未偕故云

儻得高岑輩。試携此地過。使當十夜盡。不啻百篇多。
後輩猶窺管。前遊是則柯。何如一作爲蝸室內。塊坐費空哦。

又懷步庚期不至

踈燈澹欲晦。高閣磬聲過。列宿開門近。遙泉倚枕多。
殿寒僧向竈。林曙鳥分柯。詩卷都焚棄。難忘此夜哦。

[而已广集 張混]

2) 입국녕사(入國寧寺)

寺門何處萬株松。一逕盤雲重復重。列巘摩天新洗劍。深泉殷壑暗鳴鐘。
佛前夢了三生結。方外情多二客從。準擬他年同夏臘。老師爲我肯相容。
遇絕佳時氣便豪。化城秋色不虛遭。三山坐席如相下。寸木岑樓可使高。
幾度謝公摧屐齒。空然孟浩落眉毫。不知真正金沙界。南北當時枉費勞。

[而已广集 張混]

3) 차삼각팔경운(次三角八景韻)

洞邃初迷路。微從石扇通。祇應三國際。王業屬山中。

國寧寺石門[星湖全集 李瀾]

15.4 신문(新聞)

1) 매일신보(每日申報)

1913년 07월 22일 (一千九百十三年七月二十二日)

北漢山 地誌抄畧

香林寺：碑峰南에 在호야 高麗顯宗 庚戌의 亂에 太祖神宮을 此寺에 移호고 七年 丙申에 顯陵에 還葬호고 九年 契丹 蕭遜寧이 來侵호는時에 又茲에 移安호고 十年에 還葬호심.

積石寺

清凉寺：高麗睿宗王時에 養性要를 研究ᄃ야 必要一篇을 王에게 進ᄃ음에 王은 歎賞ᄃ야 待遇가 甚히 厚ᄃ았더라.

僧伽寺：碑峰東方에 在ᄃ며, 飲聆大師의 聖跡이니 岩을 彫ᄃ야 大師의 像을 刻ᄃ았으며, 國家變災와 水旱의 災를 穰ᄃ는 時는 祈禱ᄃ야 應驗이 有ᄃ았더라.

三千寺：小南門外에 在ᄃ다云

道成菴：東大門外에 在ᄃ다云

文殊寺：文殊峰下에 在ᄃ 五百羅漢의 塑像이 有ᄃ고 且大石窟이 有ᄃ며, 北漢山一帶風光의 中心點이오 此邊一帶의 楓樹가 多ᄃ더라.

重興寺：登片峯下에 在ᄃ더니 今으로브터 十年前에 燒失에 歸하ᄃ았더라. 元來 神大寺라 稱ᄃ는 高麗顯宗의 僑居ᄃ던 處이오, 王室用藥材는 必코 此寺 南方에 東禮臺가 有ᄃ고 前○에는 西望臺가 有ᄃ니 此山頂 最古地에 建ᄃ야 昔時僧軍이 敵을 哨ᄃ는 것이라. (北漢山巡查駐在所는 此寺의 舊基)

岩龍寺：日出峯下에 在ᄃ다云.

輔國寺：禁御營下에 在ᄃ야 僧琢心의 建立에 係ᄃ음.

普光寺：大成門下에 在ᄃ야 僧雪輝의 建立에 係ᄃ었다云.

扶旺寺：鶴巖峰下에 在ᄃ야 僧尋雲의 建立이라云.

元覺寺：甑峰東方下에 在ᄃ니 僧信楚의 建立에 係ᄃ었다云.

國寧寺：我相峰下에 在ᄃ야 僧濟徽徽峯의 建立에 係ᄃ었다云.

祥雲寺：靈鷲峰下에 在ᄃ니 僧懷秀의 建立이라云.

西岩寺：水口門內에 在ᄃ니 僧廣拜의 建立이라云.

太古寺：太古臺下에 在ᄃ니 高麗의 僧普愚가 此에 住ᄃ었다云ᄃ음. 朝鮮太祖 幼時에 太古祖師에게 就ᄃ야 研學ᄃ 處이오, 太古寺라 稱ᄃ은 祖師의 名으로 因ᄃ음이라.

鎮國寺：路積峯下에 在ᄃ니 僧聖能의 建立이라云.

南聖菴：龍巖峰下에 在ᄃ니 僧聖能의 建立이라云.

九曉菴：元曉峰下에 在ᄃ니 僧聖能의 建立이라云.

津寬寺：三千洞에 在함.

白雲寺

津寬寺는 高陽郡 神穴面에 屬하고 道成菴은 京城府 崇信面에 屬함. 太古寺, 扶旺寺, 祥雲寺, 文殊菴, 僧伽寺를 除은 外는 皆自然 廢滅함에 至하고 今에는 僅히 其遺跡만 有함.

16. 상운사(祥雲寺)

16.1 개요(概要)

상운사는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370번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경계를 이루는 북한산 원효봉(元曉峰) 남쪽 중턱에 있는 사찰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이다.

신라 때 원효(元曉, 617~686) 대사가 삼천사(三千寺)와 함께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승병(僧兵)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조선 경종2(1722)년 승병장 회수(懷秀)가 옛 절터에 130여 칸을 중창하면서 절 이름을 노적사(露積寺)로 바꾼 것을 순조13(1813)년 승병장 태월(太月)과 지칭(智廳)이 중건하면서 다시 상운사라 하였다.

고종1(1864)년 공홍(巨弘)이 극락전을 중건하고, 고종35(1898)년 한암(漢庵)이 큰방을 중건하였으며, 1912년 주지 법연(法延)과 덕산(德山)이 법당을 중수하였다.

그후 1980년대에 법당을 중건하고 요사채를 다시 세워 오늘에 이른다. 건물로는 대웅전과 삼성각·범종각·요사채 2동이 있고, 유물로는 고려 중기에 제작된 석탑과 석등 부재가 있다. 이 중에서 석탑은 기단부와 1층 탑신만 전한다. 절 뒤에는 원효가 좌선하였다는 바위가 있다.

16.2 이재집(頤齋集) 李義肅

[華嶽日記 歲戊寅秋] 仍到祥雲寺。寺居靈鷲峯下洞口。幽深可喜。夕飯留

宿。是日行五十餘里。

16.3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관보(官報)

제129호[大正] 1913년 01월 08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長官ハ十二月二十四日附ヲ似左ニ掲クル寺刹住持ノ就職ヲ認可セリ.

京城府 恩平面 奉聖菴 住持 崔三昡

京城府 恩平面 文殊菴 住持 趙寶成

京城府 恩平面 元曉菴 住持 鄭華駟

京城府 恩平面 祥雲寺 住持 權漢菴

京城府 恩平面 僧伽寺 住持 金應虛

제1221호[昭和] 1931년 02월 02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五年十月三十一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崔尙玄

제2094호[昭和] 1934년 01월 06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八年十月三十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崔尙玄

▲異動年月日：昭和八年十一月一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崔尙玄

제3069호[昭和] 1937년 04월 10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一年十月三十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崔尙玄

▲異動年月日：昭和十二年二月九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吳法延

제5430호[昭和] 1945년 03월 04일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五年二月八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吳本法延

▲異動年月日：昭和二十年一月二十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 高陽郡 神道面

寺刹名：祥雲寺

住持氏名：宮本松一

16.3 시(詩)

1) 祥雲寺。與諸君唱和

洞天孤僧迎。鳥啼蕭寺空。尚憶露積古。移來結構雄。白澗瀉哀湍。
碧籜翳殘紅。冉冉峰上雲。颼颼谷中風。月出天地白。照我樽酒中。
高唱子不讓。幽思我無窮。古來怨白日。誰復信蒼穹。不如一痛飲。
須看此琳宮。 [春洲遺稿 金道洙]

2) 向祥雲寺

吟軋藍輿去。飛泉樹杪聞。一僧歸遠壑。孤磬落寒雲。
山疊松逾暗。巖回路更分。寺樓深不見。渾欲絕人羣。
 [海翁藁 洪翰周]

3) 送友人祥雲寺讀書

布衣勤苦獨書詩。愛爾長貧立志奇。方爲取閑禪室去。欲先窮理古經持。
心清澗月虛相照。坐穩春山靜不移。努力要須充遠操。人生多失少年時。
 [寒泉遺稿 鄭敏僑]

4) 祥雲寺

高着禪菴露積齊。登臨方覺絕攀躋。山空石佛如聞語。境靜林禽不擇栖。
流水落花渾與逝。返雲斜日自相低。憑崖忽復生遐想。眼力遙通海以西。
 [寒泉遺稿 鄭敏僑]

5) 自清潭入北漢。夜宿祥雲寺。

遍踏清潭到北漢。斜陽下馬入城行。可憐白髮看秋色。却喜清樽坐磬聲。
三日青山元有分。一宵明月更多情。香燈蓮榻同僧宿。頓覺塵緣太平輕。
 [東溪遺稿 崔潤昌]

6) 祥雲寺

乾坤牢落此登臨。蕭颯西風復一吟。林杪鐘鳴僧院靜。巖間松老鶴巢深。
孤雲細作他山影。寒澗偏生晚壑音。佇待今宵新月上。蒲團聽梵好開襟
 [儉巖山人詩集 范慶文]

7) 祥雲寺

步步青蘿逕。居然抵白雲。林寒猶薄翠。花落或餘芬。
一水何曾息。三峯獨不羣。暮投孤寺宿。清磬絕塵氛。

[華泉集 李采]

8) 憇祥雲寺

與李學士休吉[基慶]李正言善始[在璣]沈承旨華五[奎魯]

沈典籍君實[英錫]李端川仲謙[檢]同遊北城憇祥雲寺

開鑿山城不記年。祇園惣在白雲邊。巘巖色古僧同老。澗水聲長客未眠。
萬樹交紅霜後葉。半山橫白夕陽烟。仙仙雨腋冷風起。吾輩前身是洞仙。

[三溟詩集姜浚欽]

17. 서암사(西巖寺)

17.1 개요(概要)

서암사(西巖寺)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던 절로서 조선 숙종 때 북한산성 축성 후 숙종37(1711)년에 산성 수비를 위하여 창건된 13개 사찰들 중 하나로서 수문 안쪽에 있었다. 규모는 133칸이며, 승려 광헌(廣軒)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처음에는 고려 문인 민지(閔漬:1248~1326)가 살았던 유지(遺址)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민지사(閔漬寺)로 불렸다. 수문 일대의 산성 수비 역할을 담당하다가 19세기 말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절은 전하지 않는다.

서암사는 상번역(上番役)의 승병을 주둔시켜 산성의 경계와 수비임무에 종사했던 중요한 사찰이다. 따라서 북한산 서암사지(北漢山 西巖寺址)는 2007년 8월 13일 대한민국의 경기도의 기념물 제140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등산로 개설등으로 유적이 훼손되고 있어 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향후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의 원형복원에 노력이 필요하다.

17.2 가암유고(可庵遺稿) 金龜柱

[遊北漢記]

乍立水口。水勢凜然。不可久處。遂下憇洗心樓。樓後有西巖寺。古僧廣軒所創也。高麗隱士閔漬所居遺址在傍。故曰閔漬寺。今改爲西巖寺。本朝鄭東溟斗卿詩。閔老幽棲處。樵夫亦自傳。小微星不見。七里灘依然。至今五百餘年。相傳爲山中異事。寺樓之宏大遜於重興。而綺麗過之。因出寺後。穿林攀石行數百步。出西門路。

17.3 시(詩)

1) 서암사(西巖寺)

萬疊青山外 兀然一塔高 緩筇扶醉下 詩思更能豪

[萍湖遺稿 申命顯]

2) 숙서암사(宿西巖寺)

朝送白雲去。暝歸還北林。殘楓馬踏遠。流水客來深。

巖月平生話。霜鐘宿昔心。自然清不睡。樽酒屢成斟。

[雷淵集 南有容]

3) 서암사효음(西巖寺曉吟)

枕底宿雲動。高窻易得明。春星僧獨起。曉磬鳥先鳴。

山暝猶花氣。樓清自水聲。仙源知幾里。今日又閒行。

[晉菴集 李天輔]

4) 서암사(西巖寺)

客至山寺暝。夕磬猶未歇。却坐清溪石。携來碧峰月。幽巖延遠白。

澄影散疎樾。風泉漸多聲。羣壑涼籟發。樽酒不成醉。泠然清神骨。

[月谷集 吳瑗]

5) 숙서암사(宿西巖寺)

東江之上釣魚翁。偶到華山誰與同。卓犖三峰天淨後。澄清一氣月明中。
身超萬事紅塵遠。夢在孤舟碧海空。獨宿西巖秋夜永。松風澗水自無窮。

[雪橋集 安錫微]

6) 조향서암사(朝向西巖寺)

三角參天起。眞面見青山。藜杖臨溪上。花叢傍石間。藤蘿相貫穿。
筋力共躋攀。瀑濺欣傾耳。杯行輒破顏。老僧留偈去。飛鳥伴雲還。
細閱傳燈錄。三千世界閒。

[四名子詩集 車佐一]

7) 서암사(西巖寺)

萬松青鬱鬱。殘寺認西巖。石氣浮僧院。楓香滿客衫。
水流源是一。峯出角爲三。誰識無言處。冥然道意參。

[存齋集 朴允默]

8) 서암사(西巖寺)

登登三百折。落落一千尋。乍轉楓林影。更穿榭葉陰。
窮閣依岸小。殘堞抱山深。今夜西巖月。應明禮佛心。

[海翁藁 洪翰周]

9) 서암사(西巖寺)

逢永嘉僧勝演。言舊住仙刹。能道余與來初前遊事。又能語及板上所題詩。嗟乎。仙刹之遊。今已十數年。來初已作泉下人。余亦窮獨衰病。容髮凋換。漠然無人世之樂。撫念往時。已屬前塵。今聞勝演語。依依如夢中人事。朋好從游。盃酒歌吟。極意而恣歡。已不可復得。良可悲也。遂走筆書贈一律一絕。

天地吾惟在。陶淵憶舊詩。浮雲紛不定。流水去何之。
古峽禽聲老。春樓雨色悲。西巖明月夜。心際有僧知。

禽聲雨色。用前詩意。

又

十年人事不勝悲。雨峽春樓夢裏期。閔漬巖前雲衲語。分明道我落淵詩
[菊圃集 姜樸]

10) 서암사화사회운(西巖寺和士恢韻)

出門還異境。步步少塵埃。宿雨人猶去。名山客又來。
城深幽鳥在。石老晚花開。閔漬今千古。西巖酌一盃。

又

老去風流日覺稀。情如病鵠倦忘飛。今朝好仗諸公力。看水看山得意歸。

又

故人莫道伽倻勝。我識中興較却優。若使孤雲留顧眄。等閑泉石壓紅流。
[菊圃集 姜樸]

11) 숙서암사(宿西巖寺)

易識誠難忘。名區二子同。逢僧霜髮古。坐石綠潭空。
萬有皆身外。何由老此中。西樓侵曉上。肅肅更天風。

又

雲荒樹老七仙家。翠壁支筇倚晚霞。不恠潭心紅映日。遶巖無數水丹花。
[菊圃集 姜樸]

12) 서암사천석(西巖寺川石)

巖寺蕭然隱洞門。洗心樓下聽雷喧。粼粼石白開平壑。潑潑川長活遠源。
澈底深潭涵樹影。懸崖飛瀑濕苔痕。若將此界爲題品。道院楓溪伯仲論。
長文評曰此詩圓活可誦。 [靜坐窩集 沈潮]

13) 차삼각팔경운(次三角八景韻)

千岑圍一石。左右水流淙。時有道衣者。扶筇立正中。
西巖寺盤石 [星湖全集 李滉]

18. 태고사(太古寺)



京畿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前 浮屠
[朝鮮古蹟圖報]



태고사 전경

18.1 사 서(史 書)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영조36(1760)년 11월 6일

임금이 경현당에 나아가서 우의정·금위장(禁衛將)·총융사(摠戎使)를 인견하였다. 호조(戶曹)와 총융청(摠戎廳)에 명하여 북한 산성의 태고사(太古寺) 뒤에 비각(碑閣)을 짓게 하였으니, 태조(太祖)의 어휘(御諱)가 있기 때문이다.

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36(1760)년 11월 6일

上曰, 太古寺碑文, 印來見之, 則有御諱, 而乃判三司門下侍中時也。百祥曰, 臣則聞之矣。鳳漢曰, 臣則未聞矣。鎭海曰, 臣則見之矣。濟恭曰, 臣亦見之, 而碑文乃李穡之作也。上曰, 牧隱其時人乎? 百祥曰, 太祖朝文字, 多牧隱之作矣。上曰, 碑石之大, 如何? 百祥曰, 事有所重, 而石之大, 似不至於不能造閣矣。

영조36(1760)년 11월 7일

上曰, 注書出去, 都承旨蔡濟恭召入。賤臣煥猷, 承命趨出, 與都承旨蔡濟恭偕入進伏。上親書親製太古寺小識, 命濟恭讀訖, 仍命度支摸刻。禮曹判書李益炆, 史閣奉安後還入進伏。上曰, 奉安乎? 益炆曰, 奉安矣。

영조37(1761)년 5월 22일

尹東暹, 以摠戎廳言啓曰, 北漢太古寺後碑文, 有國初御諱, 旣奉覽之後, 豈敢仍前? 其令摠戎廳待解凍製閣事, 上年十一月初六日命下矣。碑閣去月二十九日, 使本廳軍官前僉使朴萬楷監董爲役, 今五月十九日畢役之意, 敢啓。傳曰, 知道。

3) 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306호 [大正] 1913년 08월 07일

住持就職認可 京畿道長官ハ七月二十三日附ヲ似テ左ニ掲クル寺刹住持ノ
就職ヲ認可セリ. 京城府恩平面 太古寺住持兼務 金瑢泰

○제828호[大正] 1915-05-10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大正三年四月二十九日

異動事由：兼務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洪鐵牛

○제701호[昭和] 1929-05-07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四年四月十一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李慈訓

○제1752호[昭和] 1932-11-09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七年四月十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李慈訓

△異動年月日：昭和七年十月十九日

異動事由：再任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李慈訓

○제2322호 [昭和] 1934-10-05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九年五月二十五日

異動事由：辭職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李慈訓

△異動年月日：昭和九年七月十九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朴云實

○제3408호 [昭和] 1938-05-30

住持異動 住持異動左ノ如シ

△異動年月日：昭和十二年七月十八日

異動事由：任期滿了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朴云實

△異動年月日：昭和十三年四月十一日

異動事由：就職認可

寺刹所在地：京畿道高陽郡神道面

寺刹名：太古寺

住持氏名：金允植

18.2 시(詩)

1) 태고암(太古菴) 菴在重興寺上頭 有古碑

太古孤菴外。浮圖兩塔邊。殘碑尋細字。文在結繩前。

[壺谷集 南龍翼(1628~1692)]

2) 태고암증밀상인(太古庵贈密上人)

絕頂茅庵小。雲霞生坐床。禪心持半偈。慧眼鑑他方。

古栢庭前立。寒花塔底香。眞如卽此是。不必問空王。

[柳下集 洪世泰]

3) 태고사귀로(太古寺歸路) 登山暎樓少憇。夜投重興寺宿。

白頭吾不畏西風。看盡霜崖萬樹楓。隣寺踏來山暝裏。一樓留坐澗寒中。

雲歸衆壑渾無跡。月照澄潭併是空。夜久隔窻聞落葉。對床眠與老僧同。

[柳下集 洪世泰]

4) 숙북한태고사(宿北漢太古寺)

與畿伯李君範[箕鎮] 宿北漢太古寺 拈杜詩韻

未信閻浮世界寬。山林容我始追歡。白雲洞府新詩遍。流水禪房一宿寒。

令節肩輕遊澆酒。衰年定有掛門冠。丹楓細菊如相待。獨殿重陽倚醉看。

[圃巖集 尹鳳朝]

5) 동숙태고사(同宿太古寺)

[仲秋 與國寶兄及羣弟遊華山 赤岸李仲晦丈 相顯 追至 同宿太古寺 朝起次岸翁韻]

空山浙瀝曉霜清。滿目秋光繞粉城。白瀑危欄聞颯爽。青藜細路踏欹傾。

晴雲萬里峰爭出。紅樹千巖日更明。詩老相携眞不意。飄然謝屐恣閒行。

[月谷集 吳瑗]

6) 태고사(太古寺)

下馬禪門一聲清。飄然椶竹入山輕。煙霜衆壑秋容淨。楓樾千巖夕氣晴。

溫祚雄圖遺堞盡。麗朝舊刻老苔生。邦家設險勞籌策。鑿翠樓譙拱列營。

[月谷集 吳瑗]

7) 태고사(太古寺)

杜宇叫山花木深。禪房默坐自禪心。幽雲不盡千峰態。流水長存萬古音。
溫祚故城疎雨度。普愚遺碣老僧尋。林端處處磬聲發。落日神龍泓下吟。

[春洲遺稿) (金道洙)

8) 태고사차금형보운(太古寺次金澗甫韻)

寺在峭巖近北辰。憶曾高卧度三春。僧敲清磬下幽鳥。馬踏閒花來遠人。
巖竇淡雲生意態。泓心孤月動精神。玄冬臘雪重遊夜。猶拂當年筇筴塵。

[春洲遺稿) (金道洙)

9) 태고사(太古寺)

松門寂寂閉煙霞。飯後西林日未斜。春暮山僧猶望幸。古宮來掃滿庭花。
時有行幸之議云

[樊巖集 (蔡濟恭)]

10) 태고사(太古寺)

落日重興感。春風太古遊。空山碑有閣。寂寞聖名留。

[性潭集 宋煥箕]

11) 숙태고사(宿太古寺)

楓杉蕭蕭隱行宮。更有禪菴幾處同。露滴虛簷星近斗。磬聲遙落石潭中。

[靑莊館全書 李德懋]

태고사(太古寺)에 묵다

단풍나무 삼나무 행궁(行宮)을 가렸는데

중의 암자 또 있어라 몇 곳이 같으나.

처마 끝에 이슬 듣고 북두성 가까우니

경(磬) 소리 아스라이 석담 속에 떨어지네.

12) 동남자휴부수 남여수홍래 숙태고사 조향청하동문
(同南子休復秀 南汝修鴻來 宿太古寺 朝向青霞洞門)

束裝催曉飯。流水語遲遲。紅樹三人憇。青霞九月期。
秋生溫祚國。山寂普愚碑。日出林霏歇。寒菴木未危。

[青莊館全書 李德懋]

자휴 남복수(南復秀), 여수 남홍래(南鴻來)와 함께
태고사에서 묵고 이튿날 아침에 청하동 어귀로 향하다

행장을 챙겨 새벽밥 재촉했지만
흐르는 물처럼 이야기가 끝이 없어라.
단풍나무 아래 세 사람이 함께 쉬면서
청하동(靑霞洞)에 구월까지 가기로 약속하네.
가을은 온조의 나라에 왔는데
산에는 보우(普愚)의 비석이 고적하구려.
해 뜨고 숲 안개 걷히자
쓸쓸한 암자 나무 끝에 우뚝하네.

13) 잠계태고정(暫憇太古亭)

携李仲五 時福 循三清洞。

逍遙於挹清亭。冉冉不覺登白岳。旣夕。暫憇太古亭。

歷花春裕簇浮紅。潭倒挹清亭影崇。昔望烟霞遙不極。一登天地莽依空。
羣江遠赴平蕪際。萬堞爭翻夕照中。敢過先賢棲隱宅。楓溪之左卽聽松。

[青莊館全書 李德懋]

중오 이시복(李時福)을 데리고 삼청동을 돌아 읍청정에서 놀다가 어느새

백악에 오르니 벌써 석양이라 잠깐 태고사(太古寺)에서 쉬며

꽃철 지나는 겹옷엔 불음이 떠오르고
못에 비치는 읍청정은 그림자가 높아라
옛날 바라볼 때 자욱한 안개 멀어서 끝이 없더니

이제 오르니 하늘 땅 아득히 허공에 의지했네
 못 강은 질펀한 들 사이로 달려오고
 수많은 성가퀴는 저녁 놀에 번쩍이네
 감히 선현의 은거하던 집을 그저 지나리
 풍계의 왼편은 성수침(成守琛)이 거처하던 곳이네

14) 태고사(太古寺)

義相開山祖。宗風闡少林。秋牕如聽偈。晨磬悅傳心。
 寺古峰相守。僧寒雲與深。低回祇樹下。哀壑但清吟。
 [楓臯集 金祖淳]

15) 오후태고사(午過太古寺)

林間隱約小茅亭。水到三池靜可聽。丞相遺風山漠漠。詩人剩馥草青青。
 從來倫理何曾晦。此日頑懦恣欲醒。回首溪邊空悵望。雨昏花落閉丹扃。
 [存齋集 朴允默]

16) 북한태고사(北漢太古寺)

三經四書重修板。躬領還藏于北漢太古寺。詩以識之。備山中故事。
 玉版珍藏重。天寒不敢辭。肩勞輸遠日。魂愕涉危時。
 虔奉僧應襲。冥扶佛亦慈。今朝功始竣。紀述有新詩。
 [存齋集 朴允默]

17) 숙태고사(宿太古寺)

人在高樓月在山。一聲長嘯渺茫間。星輝炯炯簷全聳。松影幽幽戶半開。
 社肉何煩孺子手。秋蔬偏賴老僧顏。此夜衰吾非婁老。莫問前身去復還。
 娟娟東嶺月。冉冉入禪扉。溪靜幽蛟出。林寒宿鳥稀。龕藏供後帶。
 壁掛講餘衣。妙契雖無語。虛懷亦實歸。 [存齋集 朴允默]

18) 숙태고사념당인운(宿太古寺拈唐人韻)

禪房獨據最高岑。歷盡千巖復萬林。客到秋楓爲選勝。佛留古壁自無心。

襟虛漸覺超塵遠。境寂方知入洞深。一宿餘緣應未已。他時重擬共幽尋。
纔過石門但碧岑。忽聞清磬度疎林。渺無車馬非入境。靜對雲山是佛心。
萍會因成三界約。菊醅政趁九秋深。呼僧細講摩天路。藜杖明朝與爾尋。

[錦谷集 宋來熙]

19) 태고사(太古寺)

洞府深深石逕迴。三峰秀色政崔嵬。秋空月冷征鴻夜。古寺鐘高禮佛臺。
憑檻却看楓樹晚。移尊相對菊花開。襟期自此多蕭散。一宿禪房意未裁。

[儉巖山人詩集 范慶文]

20) 등태고사감회(登太古寺感懷)

往跡淒涼問石龜。客遊無事淚何垂。巖巖氣象山長在。烈烈精忠天或知。
簾外月明前夜色。雨中樹老幾秋枝。此亭轉眄皆陳跡。但聞黃昏鳥雀飛。
一作悲

[可庵遺稿 金龜柱]

21) 방태고사(訪太古寺)

絕崖崩石亂。微逕問歸僧。莫道諸天遠。登登我亦能。
古菴懸絕頂。法力賴扶持。檜色參天老。巖形拔地危。
境高雲氣宿。山迥海濤疑。寂寞塵根淨。虛靈只自知。

[一广遺稿 金相日]

22) 지태고사(至太古寺)

善始 君實 華五 仲謙先下山 余與李學士轉向清潭

宿霧重城北。朝陽積石西。四山爭拱佛。衆壑怱歸溪。
樽前清緣淨。筇前萬類低。關心下山屐。歧路不相齊。

[三溟詩集 姜浚欽]

23) 숙태고사(宿太古寺)

佛燈何耿耿 秋氣正蕭蕭 步上白雲塔 俯臨明月橋

隨時緣業介 藥醉夢魂消 隱几翛然興 不知夜已朝

[萍湖遺稿 申命顯]

18.3 산문(散文)

1) 태고암가(太古庵歌) [太古和尚語錄 洪普愚(高麗) 著]

倒行逆施無軌則着卻青州破布衫。藤蘿影裏倚絕壁。眼前無
 法亦無人。日暮空對青山色。兀然無事謂此曲。西來音韻愈離
 的爾。穿石誰同唱和靈山少室。讀相拍誰將太古沒。絃琴應此
 今時。無孔笛君不見太古庵中太古事。只道如今明歷。歷百千
 三昧在其中。利物應緣常寂寂。此庵非但老僧居。塵沙佛祖同
 風格。決定說君莫疑。智亦難知識。莫測回光返照尙茫茫。直下
 承當猶滯跡。道問如何還大錯。如不動如頑石。放下着莫妄
 想。即是如來大圓覺。歷劫何曾出門戶。暫時落泊今時路。此庵
 本非太古名。乃因今日云太古。一切多中一。一不得中常
 了。能其方亦其圓。隨流轉處悉幽玄。若問我山中境。松風
 蕭瑟月滿川。道不修禪不養水。沈燒盡爐無煙。但伊虛歷恁麼
 過。何用區區求其然。徹骨清兮徹骨貧。活計自有威音前。開來
 活唱太古歌。倒騎鐵牛遊人天。兒童觸目盡伎倆。與轉不得徒

2

太古庵歌
 吾住此庵。吾莫論。深深密密無塵塞。函蓋乾坤沒向背。肯住東
 西與南北。珠樓玉殿未爲對。少室風規亦不式。燉破八萬四千
 門。那邊雲外青山翠。山上白雲白。又白山中流泉滴。又滴誰人
 解。看白雲容。晴雨有時如電掣。誰人解聽此泉聲。千回萬轉流
 不息。念未生時早是訛。更擬開口成痰。藉藉經雨幾春秋。有
 其閑事知今日。飽也滄細也滄。任爾人人取次喫。雲門糊餅趙
 州茶。何似庵中無味食。本來如此。舊家風誰敢與君論。奇特一
 毫端。上太古庵。寬非寬兮窄非窄。重重刹上箇中。盡過量機路。
 衝天直三世如來。都不會。歷代祖師出不得。愚愚。愚。愚。主人公。

1

勞眼皮穿。庵中醜拙。只如許。可知何必更重宣。舞罷三臺歸去
 後。青山依舊對林泉。
 高麗。南京重興萬壽禪寺長老諱普愚號太古向曾爲此一段
 大事。立志去。下苦硬工夫。來見處透脫。絕意路出。思惟非
 言像之所能拘。欲潛隱蓬結菴寺之三角山。以自號扁其菴。
 亦名太古。以道自適。放意於泉石間。述太古歌一章。丙戌春。
 出鄉至大都。不憚路途勞役。尋跡而來。丁亥七月。到余山石
 菴。寂寥相忘。道話半月。觀其動靜安詳。聽其言語。諳實。將別
 前。出示向者所作太古歌。余乃潛密展紙。老眼增明。誦其歌
 也。淳厚味。其句也。閑淡。真得空慧。已前消息。非今時。尖新堆
 釘者。而可方比。則太古之名。不謬也。余久絕。願應。管城子。忽
 焉。踴躍。不覺。書于紙尾。復爲詞曰。
 先有此菴。方有世界。世界壞時。此菴不壞。菴中主人。無在不
 在。月照長空。風生萬竅。至正七年丁亥八月。旦。日。湖州霞霧
 山。唐石屋老衲。七十六歲書。

3

吾住此庵吾莫識
 深深密密無壅塞
 函蓋乾坤沒向背
 不住東西與南北
 珠樓玉殿未爲對
 少室風規亦不式
 燦破八萬四千門
 那邊雲外青山碧
 山上白雲白又白
 山中流泉滴又滴
 誰人解看白雲容
 晴雨有時如電擊
 誰人解聽此泉聲
 千回萬轉流不息
 念未生時早是訛
 更擬開口成狼藉
 經霜經雨幾春秋
 有甚閑事知今日
 麤也滄細也滄
 任備諸人取次喫
 雲門糊餅趙州茶
 何似庵中無味食
 本來如此舊家風
 誰敢與君論奇特
 一毫端上太古庵
 寬非寬兮窄非窄
 重重刹土箇中藏
 過量機路衝天直

내가 사는 이 암자 나는 모르나
 한 없이 깊고 은밀하여 옹색하지 않아
 천지를 모두 가두어도 앞뒤 없으니
 동서남북 어디에고 머무르지 않네
 구슬 누각 옥전각도 비길 바 아니고
 소림의 옛 가풍도 따르지 않았는데
 팔만사천의 관문을 쳐부수니
 저편 흰구름 저 멀리 청산이 푸르구나.
 산 위의 흰구름 희고도 희나
 바위밑 우물물 흐르고 흘러도
 어느 누가 저 흰구름 알아줄 것인가
 비 내리고 그치는 것이 번개와 같은데
 어느 누가 우물 소리 들어줄 것인가
 천 구비 만 구비 씬 없이 흐르는데
 한 생각 내기 전에 벌써 어긋나노니
 입을 열려 할 때 더욱 부질없으리
 비 오고 서리 내린 봄 가을이 얼마인데
 어찌 한가로이 오늘을 알겠는가
 거친 밥이나 부드러운 밥
 모두 제각각이 먹으니
 운문의 호떡이나 조주의 차라 하여도
 이 암자의 아무 맛없는 음식만 하라
 본래부터 이러한 옛 가풍을
 누가 감히 그대에게 기특하다 말하리
 한 터럭 털끝 위의 태고암
 넓은 듯 좁은 듯이
 겹겹이 극락정토 그 속에 있고
 넘치는 가르침의 길 하늘에 닿아 있으나

三世如來都不會
 歷代祖師出不得
 愚愚訥訥主人公
 倒行逆施無軌則
 着却青州破布衫
 藤蘿影裡倚絕壁
 眼前無法亦無人
 旦暮空對青山色
 几然無事歌此曲
 西來韻曲愈端的
 徧界有誰同昌和
 靈山少室謾相拍
 誰將太古沒絃琴
 應此今時無孔笛
 君不見
 太古庵中太古事
 只這如今明歷歷
 百千三昧在其中
 利物應緣常寂寂
 此菴非但老僧居
 塵沙佛祖同風格
 決定說君莫疑
 智亦難知識莫測
 回光返照尚茫茫
 直下承當猶滯跡
 進問如何還大錯
 如如不動如頑石
 放下着莫妄想

삼세여래라도 알 수 없으니
 역대 조사도 벗어나지 못하도다
 어리석고 어눌한 암자의 주인
 도리를 쫓지않고 행함에 궤칙이 없으며
 청주의 헤진 삼베장삼 헐렁하게 입고서
 등녕쿨 그늘 속 층층절벽에 기대어 서니
 눈앞에는 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아침 저녁 부질없이 청산을 마주하네
 일없이 우뚝앉아 이 노래를 부르나니
 서쪽에서 온 그 가락 더욱 분명하구나
 온 세계에 그 누가 이 노래에 화답할까
 영산과 소림에서 부질없이 손뼉만 치네
 어느 누구 오래된 줄 없는 거문고로
 구멍 없는 피리 부는 내 노래에 맞장구 치겠는고
 그대 보지 못하는가
 태고암의 옛스런 일들을
 다만 지금처럼 뚜렷하기만 한데
 백천 삼매 온갖 묘리가 그 속에 있으니
 인연에 응해 온갖 것을 이롭게 하니 깊고도 고요하도다
 이 암자 노승만 머물지 않고
 수많은 부처와 조사(祖師)가 풍격을 같이 한다
 확실하게 말하노니 그대 의심치 말라
 지혜나 알음알이로는 헤아리기 어렵도다
 돌이켜 살펴보아도 오히려 어둡고 아득하며
 심신을 참을 실증하는 곳에 두어도 자취에 걸리네.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 크게 어긋나 돌아오고
 여여부동해도 쓸모없는 돌과 같네
 내려 놓아라, 망상을 하지 마라

卽是如來大圓覺 곧 이것이 여래의 대원각이니라
 歷劫何曾出門戶 영원토록 잠시 문호를 나왔으나
 暫時落泊今時路 잠시 떨어지면 지금의 길이로다.
 此庵本非太古名 이 암자 본래로 태고암이 아닌 것을
 乃因今日云太古 오늘에 이르러서 태고라 하네
 一中一切多中一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一不得中常了了 하나도 없는 데서 항상 또렷하네.
 能其方亦其圓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여
 隨流轉處悉幽玄 유를 따라 어디든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네
 君若問我山中境 누가 나에게 산중의 경계를 물으면
 松風蕭瑟月滿天 솔바람 소슬하고 달빛은 하늘에 가득하오.
 道不修禪不參 도도 닦지 않고 선도 하지 않아
 水沉燒盡爐無烟 다 탄 향로에 연기는 피지 않고
 徹骨清兮徹骨貧 사무치게 맑고 사무치게 가난하여도
 活計自有威音前 살길은 본래부터 스스로 있네
 但伊騰騰恁過 그런대로 그렇게 지내는 거지
 何用區區求其然 어찌 구구히 사를 향을 구하랴.
 徹骨清兮徹骨貧 사무치게 맑고 사무치게 가난해도
 活計自有威音前 살길은 본래부터 스스로 있네
 閑來浩唱太平歌 한가히 태평가 부르며
 倒騎鐵牛遊人天 무쇠소를 거꾸로 타고 인간계와 천상에서 노니노라
 兒童觸目盡伎倆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재주를 내지만
 曳轉不得徒勞眼 생각처럼 안되어 피곤만 하네
 庵中醜拙只如許 암중의 지저분함과 졸망함이 나와 같은데
 可知何必更重宣 아는 일을 어찌 일부러 다시 밝히려.
 舞罷三臺歸去後 삼대에서 춤추고 돌아간 후에
 淸山依舊對林泉 청산은 변함없이 숲과 우물물을 대하고 있네

2) 북한산(北漢山) 유람기

태고사(太古寺) 절의 동쪽 산봉우리 밑에 고려(高麗)의 국사(國師)인 보우(普愚)의 비(碑)가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짓고 권주(權鑄)가 글씨를 썼다. 국사의 시호는 원증(圓證)이고 태고(太古)는 호이다.

신돈(辛旽)이 권세를 잡자 글을 올려 그 죄를 논하였으므로 당시의 임금에게 축출되었으나 불가(佛家)로서 탁월하게 충절이 있는 자이다. 입적(入寂)하자 사리(舍利) 백 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세 곳의 부도(浮屠)에 저장하였다.

비(碑)의 후면에 우리 태조(太祖)가 나라를 세우기 전의 벼슬과 성명(姓名)이 있는데 벼슬은 판삼사사(判三司事)라고 되어 있다. 영조 임금이 금년에 특별히 명하여 비각을 지어 덮게 하였다. 숙민상인(肅敏上人)이라는 자가 있는데 조금은 글을 알고 성품이 온화하고 담박하여 말을 나눌 만하였다. 조반을 먹고 용암사(龍巖寺)로 향하였다. [靑莊館全書 李德懋]

3) 태고사원증국사탑비(太古寺圓證國師塔碑)

圓證國師塔銘(篆題)

高麗國國師大曹溪嗣祖傳佛心印行解妙嚴悲智圓融贊理王化扶宗
樹教大願普濟一國大宗師摩訶悉多羅利雄尊者諡圓證塔銘并序
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領藝文春秋館事臣李穡奉教撰
前奉翊大夫判典校寺事進賢館提學臣權鑄奉教書丹并篆額
上之十一年正月十日左代言臣仲容傳旨若曰國師太古浮屠汝其銘之臣謹案國師諱普愚號太古俗姓洪氏洪州人也考諱延贈開府儀同三司上柱國門不侍中判吏兵部事洪陽公妣鄭氏贈三韓國大夫人夫人夢日輪入懷旣而有娠以大德五年辛丑九月二十一日生師師成童穎悟絕倫十三投檜巖廣智禪師出家十九叅萬法歸一話元統癸酉寓城西甘露寺一日疑團剝落作頌八句佛祖與山河無口悉吞却其結句也後至元丁丑師年三十七冬寓梅檀園參無字話明年正月初七日五更豁然大悟作頌公句打破牢關後清風吹太古其結句也三月還揚根草堂侍親也師嘗看千七百則至巖頭密啓處過不得良久忽然捉敗冷笑一聲云巖頭雖善射不覺露濕衣辛巳春住漢

陽三角山重興寺卓庵於東峯扁曰太古倣永嘉體作歌一篇至正丙戌師年四十六遊燕都聞竺源盛禪師在南巢往見之則已逝矣至湖州霞霧山見石屋珙禪師具陳所得且獻太古庵歌石屋深器之問日用事師答訖徐又啓曰未審此外還更有事否石屋云老僧亦如是三世佛祖亦如是遂以袈裟表信曰老僧今日展腳睡矣屋臨濟十八代孫也留師半月臨別贈以拄杖曰善路善路師拜受迴至燕都道譽騰播天子聞之請開堂于永寧寺賜金襴袈裟沉香拂子皇后皇太子降香幣王公士女奔走禮拜戊子春東歸入迷源小雪山躬耕以養者四年歲壬辰夏玄陵邀師不應再遣使請益勤師乃至秋力辭還山未幾日新亂作丙申三月請師說法于奉恩寺禪教俱集玄陵親臨獻滿綉袈裟水精念珠及餘服用師陞座闡揚宗旨天子賜雜色段疋袈裟三百領是日分賜禪教須德法筵之盛古所未有師請還山玄陵曰師不留我倍道矣四月二十四日封爲王師立府曰圓融置僚屬長官正三品尊崇之至也留居廣明寺明年辭位不允師夜遁玄陵知師志不可奪悉送法服印章于師所壬寅秋請住陽山寺癸卯春請住迦智寺師皆應命丙午十月辭位封還印章仍乞任性養真玄陵從之辛晡用事故也先是師上書論晡曰國之治真僧得其志國之危邪僧逢其時願上察之遠之宗社幸甚戊申春寓全州普光寺晡必欲置師死地百計莫能中後以師將遊江浙白玄陵曰太古蒙恩至矣安居送老是渠職也今欲遠遊必有異圖請上加察其言甚急玄陵不得已從之晡下其事推訊之誣服師之左右錮于俗離寺己酉三月玄陵悔之請還小雪辛亥七月晡誅玄陵遣使備禮進封國師請住瑩源寺師以疾辭有旨遂領寺事凡七年戊午冬被今上命始至寺居一年而還辛酉冬移陽山寺入院之日上再封國師先君之思也壬戌夏還小雪冬十二月十七日感微疾二十三日召門人曰明日酉時吾當去矣可請知郡封印口占辭世狀數通時至沐浴更衣端坐說四句偈聲盡而逝訃聞于上上甚悼癸亥正月十二日降香茶毗其夜光明屬天舍利無筭進百枚于內上益敬重焉命攸司諡曰圓證樹塔于重興寺之東峯曰寶月昇空作石鍾藏舍利者凡三所加恩陽山楊根舍那是寺浮圖之傍所立是已作石塔以藏之者迷源小雪也臣穉竊伏惟念先王崇信釋教可謂極矣而讒說行乎其間太古扶持宗教亦可謂至矣而患難及于其躬此所以因緣果報雖聖人有所不能免也歟至於聲名洋溢華夏舍利照耀古今代豈多見哉臣穉再拜稽首而銘曰

惟師之心 海濶天臨 惟師之跡 浮懷飛錫 歸而遇知 王者之師
躬耕小雪 隱現維時 時維驚城 竊弄刑名 如雲蔽日 何損於明

月墜崑崙 餘光之存 舍利晶瑩 照耀王門 惟三角山 翠倚雲端
樹塔其下 興國恒安 惟師之風 播于大東 臣拜作銘 庶傳無窮

洪武十八年乙丑九月十一日

門人前松廣寺住持大禪師 釋宏 立石

(陰記)

門徒

國師智雄尊者 混脩 王師圓應尊者 粲英內願堂妙嚴尊者祖異

內願堂國一 都大禪師元珪都大禪師廣化君玄嚴

(右第一列)

大禪師

守西 袒宏 慈紹 旋軫 一寧 定柔 尚聰 惠廉 慧深 慶敦 等九十人
禪師

信規 昂皎 德齊 義瓊 壽允 乃由 乃圭 省岑 天亘 惟昌 等百七人
雲水

法空 定乳 幻如 達生 省明 中哲 卜南 定一 祖行 省因 法慈 法淳 達心
省如 希儼 明會 覺明 善見 希悟 可信 可生 止川 雪仍 宣正 可雲 可印
雪祥 雪岡 雪思 雪栖 了幻 雪珍 可松 可淳 乃寧 若无 等千三人

漆原府院君尹桓 領三司事李仁任 判門下崔瑩 門下侍中林堅味 守門下侍
中李成林 判三司事李成桂 鐵城府院君李琳 三司左使廉興邦 贊成事禹仁
烈 延興君朴形 開城君王福命 上黨君韓巖 門下評理潘益淳 政堂文學李
仁敏 金海君金師幸 密山君朴成亮 知申事廉廷秀 典工判書崔敬萬 金海
府使李希桂 三韓國大夫人李氏 比丘尼妙安 典工判書金仁貴

[韓國金石全文 中世下篇(1984)]

원증국사탑명(圓證國師塔銘) 전액(篆額)

고려 국사(國師) 대조계사조(大曹溪嗣祖) 진불심인(傳佛心印) 행해묘엄(行
解妙嚴) 비지원융(悲智圓融) 찬리왕화(贊理王化) 부종수교(扶宗樹教) 대원
(大願) 보제(普濟) 일국대종사(一國大宗師) 마가실다라(摩訶悉多羅) 이웅
존자(利雄尊者) 시(諡) 원증탑명(圓證塔銘)과 아울러 서문(序文)

추충보절(推忠保節) 동덕찬화공신(同德贊化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한산부원군(韓山府院君) 령예문춘추관사(領藝文春秋館事) 이색(李穡)이 교지(教旨)를 받들어 비문(碑文)을 짓다.

전봉익대부(前奉翊大夫)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 진현관(進賢館) 제학(提學)인 권주(權鑄)는 왕명(王命)에 의하여 비문(碑文)과 아울러 붉은 전액(篆額)을 쓰다.

임금이 즉위(卽位)하신지 11년이 되는 해 1월 10일 좌대언(左代言)인 신(臣) 중용(仲容)이 교지(教旨)를 전하여 이르기를 태고국사(太古國師)의 사리탑비문(舍利塔碑文)을 경이 지으라고 명(命)하였다.

그리하여 신(臣)이 삼가 고찰하여 보니 국사의 휘는 보우(普愚)요 호는 태고(太古)이며 속성은 홍씨(洪氏)이니 충남 홍주(洪州) 출신이다. 아버지의 휘는 연(延)이며,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상주국(上柱國) 문하시중(門下侍中) 관리병부사(判吏兵部事) 홍양공(洪陽公)에 추증(追贈)되었다.

어머니는 정씨(鄭氏)이니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에 추증되었다. 부인이 어느 날 밤 태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임신하여 대덕(大德) 5년 신축(辛丑) 9월 21일에 스님을 낳았다.

스님은 성동(成童)의 나이에 영오(穎悟)함이 남달리 뛰어났다. 13살 때 회암사 광지선사(廣智禪師)를 은사로 하여 스님이 되었다. 19살 적부터 만법귀일(萬法歸一)이언만 일귀하처화(一歸何處話)를 들어 참선하였다.

원통(元統) 계유년(癸酉年)에 성서(城西)의 감로사(甘露寺)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만법귀일에 대한 의단(疑團)이 박락(剝落)하고 팔구(八句)의 송(頌)을 지었으니, “불조(佛祖)가 산하(山河)와 더불어 입이 없지만 모두 삼켜 버렸다” 함이 그 결구(結句)이다.

그 후 후지원(後至元) 정축년(丁丑年)에 스님의 나이 37세 되던 해 겨울에 전단원(梅檀園)에서 안거(安居)하는 동안 조주(趙州)의 무자화두(無字話頭)를 참구하였다.

이듬해 1월 7일 5경(更)에 활연대오(豁然大悟)하고 팔구(八句)의 송(頌)

을 지었으니 “굳은 조사관을 타파(打破)하고나니, 청풍(淸風)이 태고(太古)에서 불어오더라” 는 것이 그 결구(結句)이다.

3월에 양근(楊根) 초당(草堂)으로 돌아와서 부모를 시양(侍養)하였다. 스님은 일찍이 공안(公案) 일천칠백칙(一千七百則)을 보다가 암두(巖頭)스님의 밀계처(密啓處)에 이르러 딱 막혀서 통과하지 못하였다.

얼마 후 홀연히 깨닫고는 암두(巖頭)를 비웃으면서 “암두(巖頭)가 비록 활을 잘 쏘기는 하나, 이슬에 옷이 적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평(評)하였다.

신사년(辛巳年) 봄에 한양(漢陽) 삼각산(三角山) 중흥사(重興寺)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동봉(東峯)에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는 편액(扁額)을 태고암(太古庵)이라 하고, 그곳에서 영가(永嘉)스님의 증도가(證道歌)를 본받아 태고암가(太古庵歌) 한 편을 지었다.

지정(至正 병술년(丙戌年)에 스님의 나이 46세 때 원(元)나라 연도(燕都)로 입원유학(入元遊學)하였다. 축원(竺源) 영성선사(永盛禪師)의 고명함을 듣고 남소(南巢)로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입적(入寂)한 후였다.

그리하여 다시 방향을 바꾸어 호주(湖州)에 있는 하무산(霞霧山)으로 가서 석옥(石屋) 청공선사(淸珙禪師)를 친견하고, 자신이 얻은 바를 낱낱이 아뢰고 아울러 태고암가(太古庵歌)를 바쳤더니, 석옥(石屋)이 이를 보고 크게 감탄하면서 큰 법기(法器)로 여겼다.

이어 일용사(日用事)를 묻는 데 대하여 스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또 여쭙기를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이외에 더 일러주실 말씀이 있나이까” 하니, 석옥(石屋)이 이르기를 “노승(老僧)도 이와 같고 삼세제불(三世諸佛)도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니라” 하면서 드디어 신표(信表)로서 가사(袈裟)를 전해주고는 이르기를 “노승(老僧)이 이제 다리를 뺀고 편안히 잠잘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으니, 석옥(石屋)은 임제(臨濟)의 18대(代) 법손(法孫)이다.

스님이 그곳에서 보름 쯤 있다가 떠나올 때 주장자(拄杖子)를 주면서 “길 조심하여 잘 가라” 고 당부하므로 스님은 주장자를 받고 하직 인사

를 하고 다시 연도(燕都)로 돌아오니, 스님의 도덕에 대한 명성이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천자(天子)가 이 소문을 듣고는 영녕사(永寧寺)에서 수법(受法)한 개당 법회(開堂法會)를 열기를 청하였다. 이 때 순제(順帝)임금은 금란가사(金襴袈裟)와沉香목(沈香木)으로 만든 불자(拂子)를 하사하였고,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는 향(香)과 폐물을 바쳤으며, 왕공(王公)과 사녀(士女)들도 앞을 다투어 찾아와 예배(禮拜)를 올렸다.

무자년(戊子年) 봄 귀국하여 미원현(迷源縣)의 소설산(小雪山)에 들어가 직접 경작하면서 4년간 부모를 시양(侍養)하였다. 임진년(壬辰年) 여름 현릉(玄陵)께서 스님을 왕도(王都)로 맞이하여 모시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재차 사신을 보내오므로 스님은 하는 수 없이 나아가서 잠시 있다가 그 해 가을 고사(固辭)하고 산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조일신(趙日新)의 난이 일어났다.

병신년(丙申年) 3월 나라에서 스님을 청하여 봉은사(奉恩寺)에서 법회(法會)를 열었는 바, 전국의 선사와 강사가 함께 수없이 모였다. 현릉(玄陵)도 친히 법회에 임석하여 만수가사(滿綉袈裟)와 수정념주(水精念珠)와 기타 복용물(服用物) 등을 헌납하였고, 스님께서 법상에 올라 앉아 종지(宗旨)를 천양하였다.

이에 천자(天子)께서 잡색(雜色) 비단으로 가사 3백 벌을 만들어 이 날 법회에 참석한 선교(禪敎) 대덕(大德)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때에 가진 법회의 성대함은 미증유(未曾有)의 법연(法筵)이었다.

스님께서 산중으로 돌아가려 하므로 현릉(玄陵)이 이르시기를 “스님께서 나의 불교 증흥의 뜻을 유보(留保)치 않도록 힘이 되어 달라”고 청했다. 4월 24일 왕사(王師)로 책봉하고 광명사(廣明寺)에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여 정3품직 장관(長官)을 두어 선문구산(禪門九山)을 일종(一宗)으로 통합하려 하였으니, 스님을 존숭(尊崇)함이 지극함을 보인 것이다.

광명사에 있다가 이듬해에 왕사직(王師職)을 사양하였으나, 왕(王)이 윤희(允許)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스님은 밤을 이용하여 왕성(王城)을 빠져

나와 산중으로 은둔하였다.

현릉(玄陵)이 스님의 확고한 뜻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법복(法服)·인장(印章) 등을 모두 스님의 처소로 되돌려 보냈다. 임인년(壬寅年) 가을 양산사(陽山寺)에 주지하도록 청하였으며, 계묘년(癸卯年) 봄에는 가지사(迦智寺)의 주지를 맡도록 청하므로, 스님은 모두 왕명에 따랐다.

병오년(丙午年) 10월에 또 왕사직(王師職)의 사임서를 인장(印章)과 함께 보내면서 깊은 산중에서 임성양진(任性養眞)하도록 허락을 간청하였다. 현릉(玄陵)이 윤택하였으니 이는 간특한 신돈(辛旽)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렸기 때문이었다.

이보다 앞서 스님이 왕에게 신돈을 논박(論駁)하는 상소문(上疏文)을 올려 말하기를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 진승(眞僧)이 그 뜻을 펴야 되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려면 사승(邪僧)이 그 기회를 편승하게 되오니,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이를 살피 신돈(辛旽)을 멀리하신다면 종사(宗社)가 심히 다행(多幸)한 줄로 아뢰옵니다” 라고 하였다.

무신(戊申)년봄 운수행각(雲水行脚)하다가 전주(全州) 보광사(普光寺)에 잠시 우거(寓居)하였다. 신돈은 보우가 마치 눈엣가시와 같아 그를 사지(死地)로 몰아 넣으려고 백계(百計)를 꾸몄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스님이 강절(江浙) 지방인 해외로 가서 유학코자 하니, 신돈이 현릉(玄陵)에게 고하기를 “태고(太古)는 폐하(陛下)의 총은(寵恩)을 입음이 지극하옵니다. 앞으로 편안하고 조용하게 노기(老期)를 보내는 것이 그가 해야할 도리입니다.

이제 멀리 해외로 유학(遊學)하려 함은 반드시 다른 의도(意圖)가 있어서이니 청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통찰하여 주십시오”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위급하게 느껴져서 현릉(玄陵)은 하는 수 없이 따랐다.

그리하여 신돈(辛旽)은 그 일을 형조에 내려 추문(推問)하여 신문토록 하여 스님의 좌우(左右)에 있는 이들을 무복(誣服)케 하고는 스님을 속리사(俗離寺)에 금고(禁錮)시켰다.

기유년(己酉年) 3월에 이르러 현릉(玄陵)이 스님을 금고(禁錮)한 것을

후회하고 소설암(小雪庵)으로 돌아오도록 청하였다. 신해년(辛亥年) 7월 신돈을 주살(誅殺)하고, 현릉(玄陵)은 사신을 보내어 예(禮)를 갖추어 스님을 국사(國師)로 책봉하고 형원사(瑩源寺)에 주지(住持)하도록 청하였으나, 스님은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다.

그러나 왕의 명령으로 멀리서 7년간 일을 맡아보던 중 무오년(戊午年) 겨울 지금의 폐하(陛下)이신 우왕(禑王)의 명을 받아 비로소 취임하여 1년 쯤 영원사에 주석(住錫)하다가 돌아갔다.

신유년(辛酉年) 겨울 양산사(陽山寺)로 옮겨 입원(入院)하는 날에 우왕(禑王)이 다시 국사(國師)로 책봉하였으니, 선군(先君)의 뜻을 따른 것이다. 임술년(壬戌年) 여름 소설암(小雪庵)으로 돌아와 그 해 12월 17일 미질(微疾)을 느끼게 되었다.

23일에 이르러 문인(門人)을 불러 앉히고 이르기를 “내일 유시(酉時)에 나는 떠날 것이니 지군(知郡)에게 청하여 국사의 인장(印章)과 구점(口占)으로 남긴 사세장(辭世狀) 수통(數通)등을 봉하여 임금께 전달하라”고 당부하였다.

때가 다가옴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은 다음 단정히 앉아 임종계(臨終偈) 사구(四句)를 설하고,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조용히 입적(入寂)하였다. 부음을 우왕(禑王)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심히 진도(震悼)하였다.

계해년(癸亥年) 1월 12일 향목(香木)을 하사하여 화장하였다. 그 날 밤 광명(光明)이 하늘에 뻗쳤고 사리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 중 100과를 내전(內殿)의 임금에게 올리니, 이로 말미암아 임금은 더욱 경중(敬重)하시고 유사(攸司)에 명하여 시호를 원증(圓證)이라 하고 탑을 중흥사(重興寺)의 동쪽 봉우리에 세우고, 보월승공탑(寶月昇空塔)이라 이름하였다.

석종(石鍾)을 만들어 사리를 진장(鎮藏)한 것이 무려 세 곳이니, 가은(加恩)의 양산사(陽山寺)와 양근(楊根)의 사나사(舍那寺)와 이 절 부도(浮圖) 옆에 서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석탑(石塔)으로 만들어 조장(厝藏)한 곳은 미원현(迷源縣)의 소설암(小雪庵)이다.

신(臣) 색(穢)이 엎드려 조용히 생각하여 본 즉 선왕(先王)께서 석교(釋教)를 돈독히 신봉하여 가히 지극하였으나, 그 간에 참소가 횡행하였고, 생전에 태고(太古)가 부종(扶宗) 수교(樹教)함도 가히 지극하다 하였으나, 환난(患難)과 모함 등이 그의 몸에 미친 것은 그 까닭은 인연(因緣)의 과보(果報)인 것이니, 비록 성인(聖人)이라도 정업(定業)은 능히 면할 수 없는 것인저. 심지어 칭송하는 명성(名聲)이 화하(華夏)에까지 가득하며 사리(舍利)의 광명이 고금(古今)에 빛났으니 그것이 어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겠는가? 신(臣) 색(穢)이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려 삼가 명(銘)하여 이른다.

홍대(弘大)하고 거룩하신 스님의 마음은
 바다같이 깊고 넓어 하늘을 능가!
 동분서주 월새 없는 스님의 자취는
 바다 건너 석장(錫杖) 짚고 구법(求法)하셨네!
 귀국(歸國)해선 공민왕의 귀의(歸依)를 받아
 임금의 정신적인 지주(支柱)가 되다.
 소설암(小雪庵)에 들어가서 발을 갈으니
 은(隱)과 현(現)을 때에 따라 자적(自適)하시다.
 나라 위한 호국심(護國心)은 한결 같으나
 승(僧) 신돈(辛旽)이 시기하여 참소(讒訴)했지만
 구름 속에 덮인 태양 킁킁하다고
 광명(光明)이야 조금인들 손상(損傷)있으랴!
 서산(西山)으로 넘어가는 새벽달이여!
 달 진다고 달빛까지 사라질건가!
 수정(水晶)같이 맑게 비친 사리(舍利) 광명(光明)이
 임금 계신 옥문(玉門)까지 비추었도다!
 삼각산중(三角山中) 중흥사(重興寺)의 동쪽 능선의
 나무 끝에 구름들이 덮이어 있네!
 그 봉(峰) 밑에 사리탑(舍利塔)이 세워졌으니

영원토록 나라 운명 공고(鞏固)하소서!
고매하신 스님 가풍(家風) 차별이 없어
고려(高麗) 나라 동국(東國) 땅에 두루 불도다!
재배(再拜)하고 둔필(鈍筆)로서 명(銘)을 지으니
바라건대 영원토록 전(傳)하지이다!

홍무(洪武) 18년 을축(乙丑) 9월 11일

문인(門人) 전송광사(前松廣寺) 주지(住持) 대선사(大禪師) 석굉(釋宏)
이 비석을 세우다.

이하 음기(陰記)는 직함과 명단(名單)뿐이므로 원문(原文) 그대로 붙여
둔다.

[음기(陰記)]

문도(門徒)

국사(國師) 지웅존자(智雄尊者) 혼수(混脩)

왕사(王師) 원응존자(圓應尊者) 찬영(粲英)

내원당(內願堂) 묘엄존자(妙嚴尊者) 신이(神異)

내원당(內願堂) 국일도대선사(國一都大禪師) 원규(元珪)

도대선사(都大禪師) 광화군(廣化君) 현엄(玄嚴)

[우제일렬(右第一列)]

대선사(大禪師)

수서(守西) 단굉(袒宏) 자소(慈紹) 선진(旋軫) 일영(一寧) 정유(定柔)

상총(尙聰) 혜렴(惠廉) 혜심(慧深) 경돈(慶敦) 등(等) 구십인(九十人)

선사(禪師)

신규(信規) 참교(崑皎) 덕제(德齊) 의경(義瓊) 수윤(壽允) 내유(乃由)

내규(乃圭) 성잠(省岑) 천궁(天亘) 유창(惟昌) 등(等) 백칠인(百七人)

운수승(雲水僧)

법공(法空) 정유(定乳) 환여(幻如) 달생(達生) 성명(省明) 중철(中哲)

복남(卜南) 정일(定一) 조행(祖行) 성인(省因) 법자(法慈) 법순(法淳)

달심(達心) 성여(省如) 희엄(希儼) 명회(明會) 각명(覺明) 선견(善見)

희오(希悟) 가신(可信) 가생(可生) 지천(止川) 설잉(雪仍) 선정(宣正)
가운(可雲) 가인(可印) 설상(雪祥) 설강(雪岡) 설사(雪思) 설서(雪栖)
요환(了幻) 설진(雪珍) 가송(可松) 가순(可淳) 내령(乃寧) 약무(若无)
등(等) 천삼인(千三人)

칠원부원군(漆原府院君) 윤환(尹桓) 영삼사사(領三司事) 이인임(李仁任)
판문하(判門下) 최영(崔瑩) 문하시중(門下侍中) 임견미(林堅味)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 이성림(李成林)

판삼사사(判三司事) 이성계(李成桂)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 이림(李琳)
삼사좌사(三司左使) 염흥방(廉興邦) 찬성사(贊成事) 우인열(禹仁烈)
연흥군(延興君) 박형(朴形) 개성군(開城郡) 왕복명(王福命)
상당군(上黨君) 한장(韓臧) 문하평리(門下評理) 반익순(潘益淳)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인민(李仁敏) 김해군(金海君) 김사행(金師幸)
밀산군(密山君) 박성량(朴成亮) 지신사(知申事) 염정수(廉廷秀)
전공판서(典工判書) 최경만(崔敬萬) 김해부사(金海府使) 이희계(李希桂)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이씨(李氏) 비구니(比丘尼) 묘안(妙安)
전공판서(典工判書) 김인귀(金仁貴)

4) 북한산성기(北漢山城記)

北漢本高勾麗北漢山郡。一云南平壤。百濟溫祚王取之。十四年丙辰築城。近肖古王二十六年辛未移都。蓋鹵王二十一年乙卯高勾麗長壽王來圍。蓋鹵王出走城遂廢。我肅宗三十七年辛卯。卽溫祚舊址築城。以爲保障之所。城周七千六百二十步。爲二十一里餘。門有十四。曰北門，大東門，大西門，大成門，中城門作虹蜺設譙樓。小東門，小南門亦作虹蜺。西暗門，白雲峯暗門，龍巖寺暗門，東暗門，青水洞暗門，扶旺洞暗門，袈裟堂暗門。高低不一。又有水門一而中城門在元曉義相兩峯之間。爲西邊水口。低下淺露。將臺有三。曰東將臺在奉聖庵後峯。南將臺在羅漢峯東北。北將臺在中城門西北。池二十六。井九十九。壬辰上駕幸。巡視城堞。歎其天作之險。蓋山之形便。東西北絕險無地。而仁壽，白雲，萬景三峯屹立于後。稍西曰露積峯。下有重興寺。而萬

景峯東轉逶迤。爲釋迦峴，普賢，文殊等峯。展翼爲兄弟。又南爲白岳山。而自文殊一枝轉西爲七星峯。七星出兩支。落爲羅漢甑峯，大望，義相諸峯。至重興水口。一支西走爲僧迦峯。香林寺後峯白雲峯。西轉爲靈鷲，元曉兩峯。至重興水口西止。四面諸峯壁立如削。自成城郭。真所謂一夫當關。萬夫莫開之地。但山形局勢。殊不寬敞。恐難容衆。而重興之南。文殊之東。曹溪之西。左右洞壑。地勢少平。山谿之寂著者曰三角山。山有仁壽，白雲，萬景三峯巒岿如角故名。一名華山。又稱華嶽。我東之山起於白頭。至平康之分水嶺。西出一支。連峯疊嶂。起伏迤邐。至楊州西南爲道峯。又爲三角。實京城之鎮。仁壽峯卽三角之第一峯。四面純石削立。一巖贅於峯背。故又稱負兒岳。高勾麗東明王之子沸流，溫祚。南行至漢山。登負兒岳。相可居之地。卽此峯也。白雲峯在仁壽之西。一名白雲臺。卽山之最高處。萬景峯在白雲之南。峻拔奇壯。與仁壽爭雄。露積峯在萬景之西。湧峙磅礴。形如露積故名。文殊峯在普賢西。下有文殊窟。中有甘泉。鍊石像文殊與五百羅漢。峯之名以此。侍者峯在白雲臺下。登臨可盡一城之形勝。將軍峯在重興寺西。高麗崔瑩戰地故名。義相臺在彌勒峯下。新羅義相祖師住錫處。元曉臺在義相臺北水口上。義相之弟元曉住錫於此。日月出，盤龍，化龍，潛龍，臥龍，天龍，紫丹，德藏，釋迦，普賢，走馬，靈鷲等峯。羅絡四方。不可殫記。太古，游仙，瑤艸，曲龍之臺。長春，玉流，青溪，靈泉，隱仙，叫龍，白雲，紫霞之洞。盤龍，月印，女妓之潭。國寧，祥雲之瀑。分占而擅勝。寺刹曰香林寺在碑峯南今廢。高麗顯宗庚戌之亂。移安太祖梓宮于是寺。丙辰還塋顯陵。戊午契丹蕭遜寧來侵。又移安于是。己未復塋。曰清涼寺今廢。舊址未詳。高麗李資玄在清平山。睿宗幸南京。遣其弟資德諭赴行在。留是寺。嘗引見問養性之要。待遇甚厚。曰僧伽寺在碑峯東今廢。高麗李頴重修記云按崔致遠文集。昔有新羅狼跡寺僧秀台。飢聆大師之聖跡。選勝于三角山之南面。開巖作窟。刻石摸形大師道容。益照東土。國家如有乾坤之變。水旱之災。禱以禳之。無不立應。曰文殊寺，曰重興寺，曰龍巖寺，曰輔國寺，曰普光寺，曰扶旺寺，曰元覺寺，曰國寧寺，曰祥雲寺，曰西巖寺，曰鎮國寺，曰太古寺十二寺羅列於前後峯巒之間而太古寺在重興寺左峰。高麗僧普愚住此。扁以太古。做永嘉體

作歌。樓觀曰沆瀣樓在重興寺洞口。跨溪而有偃龍橋。上建重樓曰山映樓。在重興寺前。有小橋覆以閣。卽此樓也。曰洗心樓在西巖寺前溪上。行宮在上元峯下。內外殿爲五十八架。倉廩曰經理廳。上中下倉。三營門留倉。而並屬於揔戎廳。置管城將守之。古蹟曰古石城在重興寺北。周九千四百十七尺。有石門及門址。曰神穴寺高麗顯宗祝髮寓此寺。千秋太后屢遣人謀害。有老僧穴地於室而匿之。上置臥榻。以防不測。王咏溪詩云一條流出白雲峯。萬里滄溟路自通。莫道潺湲巖下在。不多時日到龍宮。曰閔公遺棲。卽高麗文仁公閔漬遺址。在水口門內。名其巖曰閔漬巖。寺曰閔漬寺。寺今爲西巖寺。余於十二日。自津寬寺道南門入城。一宿于重興寺。一宿于太古寺。周覽諸勝。迨東門下牛耳洞天。又一宿于在澗亭而還。卽十五日也。

[冠巖全書 洪敬謨(1774~1851)]

19. 진국사(鎭國寺)

19.1 노상추일기(盧尙樞日記) 盧尙樞

英宗五十年甲午日記 八月小 初二日癸未，
暘而雨灑。行二十里，到功成市店抹馬憩食，發還而此漢鎭國寺僧普秋爲名僧，四日同行，至此則彼向海印寺落此，彼亦悵然無語，人之情有本然也。直還而過新浦不得入，還家，其慘悼，有口無言。余次延興族叔，衡谷大父來此，暫話而還，孰謂十八日人事，奄至此極乎，鳳兒之見父歡迎，是所涕橫處也。

19.2 남천일록(南遷日錄) 沈魯崇

癸亥十二月二十九日 晴。

興善移去、庵中無齋僧可以主供事、招致白蓮庵善弘、使主之。弘本京城小民、居貞洞、削髮於北漢鎭國寺、己未春漂泊至此云。同居過歲、金德三韓德玉縣中童子崔先丕、僧有聰快成戒弘最行、蔚山人金汝泰。

19.3 이재집(頤齋集) 李義肅

華嶽日記

逶迤入鎮國寺。佛宇瀟灑。雕紙爲綵燈。懸佛榻兩傍。有僧雪玉出見。路過揔戎營。入觀池閣。逾一峴歷登西將臺。眼界頗寬暢。仍到祥雲寺。寺居靈鷲峯下洞口。幽深可喜。夕飯留宿。是日行五十餘里。

19.4 시(詩)

1) 진국사(鎮國寺)

遠客披黃葉。孤僧掃白雲。舊遊如昨日。幽境易斜曛。
磬落諸天迥。溪回細路分。三乘雖未悟。老去厭茹葷。

[歎齋集 卞鍾運]

2) 숙진국사(宿鎮國寺)

佛塔層層倚碧松 雕樑高處畫盤龍 挿燈不寐通宵坐 無事山僧報曉鐘
[萍湖遺稿 申命顯]

20. 봉성암(奉聖菴)

20.1 질품서 제팔십팔호(質稟書 第八十八號)

發信：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 李采淵

光武二年七月二十二日(1898년 7월 22일)

受信：議政府贊政法部大臣 趙秉稷 閣下

接受：光武二年 月 日 第四百七十四號

參照：大臣 協辦

本所檢事公訴에 由호야 被告 朴敦鎬의 案件을 審理호니 被告가 丙申十一月分에 朴八福 高三石 金三疇 等으로 作黨호야 楊州 趙楊州 家에 投入

호야 錢二百五十兩을 偷出호았帙 永平新店에서 商賈의 賣金호 錢三百兩을 奪取호았帙 楊州田車院에서 稚商錢三百兩을 偷出호았帙 本月分에 被告가 北漢奉聖庵에 獨往호야 佛器等物을 偷竊호마 被告를 賊盜處斷例第七條第七項 財物을 刼取호 者 律에 照호야 絞에 處호음이 何如호을지 一切書類를 粘呈호오며 茲에 質稟호오니 查照指令호심을 望호.

20.2 양원유집(陽園遺集) 申箕善[1851~1909]

[遊北漢記] 日暮從東厓而下。訪奉聖菴則僧出而門鎖矣。還宿重興寺賦一律。

21. 원효암(元曉菴)

21.1 석재고(碩齋稿) 尹行恁

[北漢記] 前臨有刹。曰西巖。蓋監水口而設。自寺東折。沿上三百步。出七遊巖。世傳高麗平章事閔漬從六人乎遊。巖之名以此。北眺有新羅僧元曉菴。捨巖而東。從管城下倉又東北一里。大瀑發白雲，萬景二峰間。

21.2 시(詩)

1) 차삼각팔경운(次三角八景韻)

西嶺瞻殘月。光輝血色紅。餘雲爭盪射。林靄共濛濛。

元曉菴落照 [星湖全集 李瀼]

2) 숙원효암(宿元曉菴)

始覺禪門氣味長。大師遺躅極蒼蒼。偈承六祖傳燈遠。花散諸天滿院香。

下界空濛迷靄。上方清寂失紛忙。今行少長俱翹楚。他日相思不可忘。

[四名子詩集 車佐一]

3) 원효암도중(元曉菴道中)

平地鳥飛過。半天人去登。倦時全賴杖。危處輒攀藤。
千疊復千疊。一層還一層。水瓢聊解渴。多謝普施僧。

[四名子詩集 車佐一]

4) 투원효암(投元曉菴)

懸崖垂一縷。微徑向空登。抗面孤飛鳥。緣蹤亂走藤。
望遐猶不極。行盡更多層。然後臨危頂。天根問古僧。

[而已广集 張混]

5) 향원효암도중(向元曉菴道中)

蘭若如天上。孤高不可登。蟻行爭附石。魚貫遞攀藤。
方謂危途盡。猶餘數仞升。千金一瓢飲。感激謝菴僧。
菴僧汲水來勸及之

[存齋集 朴允默]

6) 야숙원효암(夜宿元曉菴)

夕壇清梵放聲長。雲壑烟崖一氣蒼。天近星辰偏照耀。地靈松桂盡馨香。
上乘妙偈金身幻。下界浮生石火忙。可愛巖泉似瓊液。吟前醉後供茶觴。

[存齋集 朴允默]

7) 원효암(元曉菴)

鳥道縈回鷲嶺尊。憑高疑是躡天根。孤雲落日臨滄海。疊嶂重關視劔門。
三籟清靈俱不盡。萬形空寂自無痕。欲窮遼澗將何力。却恨秋來老眼昏。

[存齋集 朴允默]

8) 원효암(元曉菴)

石腰纔小徑。天半始孤庵。虎踞山無北。鵬盤海欲南。
百年莊慧佛。三宿肥冰蠶。匹馬吳門近。大觀誰更探。

[所菴集 李秉遠]

編者略歷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農工學科卒(學訓團1期)
建國大學校 大學院 農工學科卒(碩士)
大韓佛教曹溪宗디지털大學 信徒專門教育過程卒
前)農漁村振興公社 研究委員(技術士)
安養鄉土文化研究所 研究員[2011~2013]
現)韓國農村研究院 顧問
全州柳氏季允公派宗親會 理事
編著 불교의 첫걸음, 도서출판 새론[2009]
禪宗首刹 奉恩寺 古文獻集[2012年]
教宗首刹 奉先寺 古文獻集[2012年] 等 多數

北漢山城 寺刹 古文獻集

編輯日：2015. 11. 23.

編者：法雲 柳基松

發行處：傳統寺刹研究會

住所：京畿道 安養市 東安區 冠岳大路 121
108-903 [飛山三星來美安]

電話：010-6303-3125

複寫：教大複寫

電話：02-584-6804

非賣品